



금 4엔 70전	항해도 성불사 말사 고달사
금 13엔 22전	귀주사 말사 개원사
금 9엔 50전	귀주사 말사 옥수암
금 3엔 60전	귀주사 말사 보성암
금 13엔 39전	함남 홍원군 흥덕암
금 11엔 5전	함흥부 귀주사
금 5엔 65전	월정사 말사 영온사
금 7엔 25전	함북 나진부 귀주사 교당
금 47엔 26전	성불사 본말사 중
금 27엔 88전	평양부 영명사

〈출전 : 『朝鮮佛敎曹溪宗報』 제13호, 1943년 2월, 41~42쪽〉

### 13) 제14호(1943년 3월) - 기원절 국민봉축, 금속류 헌납, 국어강습회 관계

[13-1]

총서(總庶) 제26호  
1943년 2월 4일  
조선불교조계종총본사 태고사 종무총장 광전종욱  
각 본사(本寺) 주지 앞

#### 기원절 국민봉축실시에 관한 건

표제의 건에 관하여 국민총력연맹 사무국총장으로부터 별지와 같이 실시요강의 송부가 있었음으로 귀 본 말사의 사정에 따라서 실시하도록 배려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 이첩함.

#### 기원절 국민봉축 실시요강

##### 1. 취지

대동아전쟁이 시작된지 둘째 해의 빛나는 기원의 가절을 맞이함에 있어서, 보조(寶祚)의 무궁을 축수하며 반륜과 함께 웅혼(雄渾)한 조국(肇國)의 정신을 봉체(奉體)하여, 1억이 통틀어 “전장(戰場)정신”에 철저하며, 더욱 더 필승의 의기를 양양하며 대동아전쟁 완수에 매진할 것을 기약한다.



## 2. 실시방법

- 1) 당일 오전 9시를 기하여 “국민봉축의 시간”을 설정하고 각 가정이나 기타 장소에서 궁성요배를 실시할 것.  
기차나 기선, 승합자동차 등에 타고 있을 때나 집합하고 있는 경우에는 승무원 또는 사회자가 그 시각에 승객에게 알리는 방법을 취하기로 한다.  
당일 오전 8시의 궁성요배는 이를 실시하지 않는다.
- 2) 관공서, 학교, 은행, 회사, 공장, 선박 등에서는 알맞게 앞과 같은 시각에 식을 거행하며 기원 2천 6백년 기원절을 주신 조서(詔書)를 봉독할 것, 단 관공서, 학교 등에서 배하식(拜賀式)을 실시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 3) 관폐(官幣)나 국폐(國幣) 이하의 신사에서 집행되는 기원절 제(祭)에는 부, 읍, 면민 다수가 참가해서 필승기원을 실시할 것.
- 4) 부, 읍, 면 연맹은 적절하게 부, 읍, 면민을 위하여 신사, 학교, 공회당 등 적당한 장소에서 봉축 행사를 실시할 것.
- 5) 식전 기타 봉축행사는 신사의 제전과 밀접한 관련 하에서 실시할 것.

## [13-2]

조총재(曹總財) 제22호

1943년 1월 28일

조선불교조계종총본사 태고사 종무총장 광전종욱

각 본사(本寺) 주지 앞

### 사찰소유의 금속류 공출 또는 헌납에 관한 건

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금속류를 군수자재로서 공출 또는 헌납하는 경우, 사찰령 제5호에 의한 처분 허가신청 등에 대하여 이러한 수속의 간소화를 위하여 본부방침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이상과 같이 양지하시고 관내 각 사찰 및 포교당에 시달하여 이것의 취지를 철저히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1. 귀중품으로서 본주부에 제출한 것 및 기타의 것으로서 관보에 고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 1)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사전에 허가수속을 거칠 것.



14) 제15호(1943년 4월) - 포교사연성대회, 혜화전문 증축비 관계

[14-1]

조총수(曹總數) 제91호  
1943년 3월 9일 중무총장  
각 본사주지 앞

포교사연성대회 개최의 건

이전부터 총본사에서 계획 중이던 포교사연성대회를 별지 요강대로 개최하기로 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연성원을 파견하도록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다음과 같이 제4항에 드는 양미(糧米) 휴대는 대회개최에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서, 특히 관내 경찰당국의 사전 양해를 얻어서 이것을 휴대하는데 만유감이 없도록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다음 -

1. 연성원으로 하여금 반드시 법요의식 참가에 필수적인 복장(조선옷, 장삼 및 가사 등)을 휴대시킬 것.
2. 귀 절에서 파견시켜야 할 배당정원은 법무 이외 포교사 ○명이지만, 포교사로 정원파견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말사주지로써 적절히 이에 보충할 것.
3. 연성원은 별지양식에 의하여, 오는 4월 5일까지 신청할 것.
4. 연성회 기간 중에는 전원이 사찰 내에서 합숙코자 하오니, 이에 필요한 백미 2되(큰되) 및 돈 3엔은 반드시 지참시킬 것.

- 연성원 신청서 -

성명 | 작명 | 수확정도 | 나이 | 주소

이상 포교사연성대회에 참가시키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연 월 일  
도 군 면  
위 사주지 성명인  
조선불교조계종총본사 태고사 귀중

## 포교사연성대회 개최요강

### － 취지

현재 대동아전 결전기에 즈음하여 종내(宗內)의 포교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국제본의에 입각한 황도불교선포의 정신을 체득시키고 또 시국의 중요책임을 짊어지도록 인고(忍苦)단련(鍛鍊)의 체력을 연성시킴으로써 민중 사상 선도에 도움을 주고 아울러 흥법보국(興法報國)의 사명을 다하고자 한다.

### － 명칭 포교사연성대회

－ 시일 1943년 4월 26일부터 동 28일까지로 한다.

### － 장소 총본사태고사

### － 연성인원 및 그 자격

연성원 수는 약 백 명으로 하고 그 자격은 본사 법무 및 포교사로서 국어에 통하는 자로 한다.

### － 연성사항 및 이것의 순서

추후 결정하기로 한다.

### － 연성회비 및 그 지불방법

1) 연성원의 여비는 해당 본말사의 부담으로 한다.

2) 연성회비 및 특별행사에 필요한 비용은 이것을 총본사의 부담으로 한다.

### ○ 비고

연성기간 중 야간에는 본 대회의 취지에 따라 좌담회를 개최할 수가 있다.

## [14-2]

종립(宗立)재단

조계발(曹溪發) 제21호

1943년 3월 4일

재단법인 조계학원 사무이사

조계학원 평의원 앞

## 혜화전문 증축비 증액에 대한 지상(紙上) 결의에 관한 건

표제의 건에 관하여 1942년 1월 9일 본 법인 제20회 정기평의원회에서 혜화전문학교 증축비 3만 엔으로 결의되었으나, 이것은 1941년의 건축견적액인데, 이번에 이것을 실지 기공하고자 설계를 제출시킨 바, 그 후 건축자재 및 기타 여러 물가 비용의 앙등에 의하여 약 1만 엔의 부족이 생김으로써 부득이 별지 결의서대로 결의를 구하게 된 것을 양지하시어, 곧 회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이 : 건축설계 사본은 사무가 번잡해짐으로 첨부를 생략하였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재단법인 조계학원평의원 결의서

- 혜화전문학교 증축비 증액에 관한 건
- 금 1만 엔 정(총계 4만 엔 정)

이상은 혜화전문학교 증축비를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전교 증축의 건에 관해서는 1942년 11월 9일 본 법인 제20회 정기평의원회에서, 1941년 8월 30일자 교무원 발 제 56호 공문(각 평의원 앞)의 취지에 따라 일금 3만 엔의 예산으로써 이것의 증축을 하도록 결의를 했으나, 이번에 이것을 실지로 기공하기 위하여 설계를 했던 바, 그 후의 물가등귀에 의하여 약 1만 엔의 부족이 생기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의 증축공사를 중지할 수도 없으며, 또한 그 건축설계의 규모를 그 이상 축소할 수도 없는 사정으로, 이것의 대책으로서 1944년도 예산으로써 전회와 같이 각 본 말사에 분담해 부담시키는 것을 전제로 우선 1만 엔의 지불에 관해서는 이것을 일시 차입방법을 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증축비 1만 엔을 증액할 것을 결의한다.

1943년 월 일  
주소  
평의원 성명 날인

〈출전 : 『朝鮮佛教曹溪宗報』 제15호, 1943년 4월, 1~2·9쪽〉

## 15) 제16호(1943년 5월) - 보국탁발(托鉢)과 국방헌금

함흥읍 귀주사 본말사에서는 1943년 1월 9일부터 6일간 보국 탁발을 하고 그 소득 정재(淨財)를 다음과 같이 국방헌금으로서 헌납했다.

- 다음 -

사찰명	헌금액	헌금 위탁처
귀주사	78,08	함흥경찰서
개심사	64,01	원평 주재소
흥덕사	94,50	흥원경찰서
복흥사	332,60	이원경찰서
보현사	67,50	단천경찰서
광적사	37,75	성진경찰서
백천사	71,53	회령경찰서
개원사	23,33	남양 주재소
월명사	85,61	경원 주재소

나진포교소	57,94	나진경찰서
관해사	164,00	경성 주재소
계	1,076,86	

〈출전 : 『朝鮮佛教曹溪宗報』 제16호, 1943년 5월, 4쪽〉

## 16) 제18호(1943년 7월) - 범종 및 늦쇠 금속헌납 앙고(仰告) 법요(法要)

1943년 5월 24일 오후 2시 총본산 태고사 대웅전에서 다음과 같이 범종 및 늦쇠 금속류헌납 앙고(仰告) 법요를 거행했다.

### 1. 헌납식의 전말

#### 1) 수납자 및 내빈

수납자 측 : 구라시계(倉茂) 조선군 보도부장 각하(육군대신 대리) 후지(厚池) 육군대령, 쿠사나기(草薙) 속(屬)

내빈 측 : 오노(大野) 학무국장 각하, 유우키(結城) 본부 연성과 촉탁, 가네모토(金本) 경기도 시학, 국민총력연맹의 쿠마가와(熊川) 님

### 2. 헌납자

태고사 종무총장 외 봉은 본말 42사 주지 및 부내의 11 포당담임자 및 소속신도 36명

### 3. 헌납금품

별지와 같다.

### 4. 헌납법요 식순

별지와 같다.

### 5. 헌납의 말씀 및 감사말씀

별지와 같다. (생략)

### 6. 기타

이상과 같으며 식 종료 후에 헌품은 군으로부터 보내온 군용화물자동차 3대에 실은 뒤에 헌납자 중에서 승려 6명이 분승해서 부내를 다음의 길 순서대로 일단 통과하여, 용산 조선군애국부에 헌납했다.

길 순서 : 태고사.....안국정.....본부 앞.....광화문 통.....종로 통과.....종로 3정목에서 우측으로 돌아.....약초정에서 우측으로 돌아.....황금정 입구.....왼쪽으로 꺾다.....남대문 통 통과.....용산군사령부 도착

- 범종헌납 앙고요식 순서 -
- 명고(鳴鼓)
- 내빈 착석
- 범주 및 어산(魚山) 착석
- 국민의례
- 거불(舉佛)
- 표백(表白)
- 다게(茶偈)
- 심경(心經)(1편)
- 헌납의 말(헌납자 대표)
- 감사장 수여(육군대신 대독)
- 감사의 말씀
- 회향문(回向文) 봉독
- 명고
- 동 퇴석

### 포교정신 강화(講話)

임원길(林原吉. 하야시)<sup>140)</sup>

#### 1. 선(禪)의 교리

선(禪)은 불립문자(不立文字) 교외(敎外)전심(傳心)으로써 마음에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다른 여러 종(宗)이 경전(經典)에 의하여 그 교를 세워서 문자의 천착(穿鑿)을 이것을 일로 삼는데 대하여 이것들을 가지고 월(月)을 가리킨다. 지문(指門)을 두들기는 와(瓦)로 하고 월(月)이 보이면 지(指)는 필요 없고 문(門)이 열리면 와(瓦)는 무용인 것과 같이 진리는 문자나 말을 떠나서 석존(釋尊)으로부터 가엽(迦葉), 가엽으로부터 아난(阿難)과 마음으로써 마음에 전하고 28전(傳)으로 보제(菩提)달마(達摩)에 이르러서 지나에 건너가서 이것을 전했으므로 그 기원(起源)에 관해서는 석존(釋尊)이 영산회(靈山會) 상에서 설법을 했을 때, 범천(梵天)이 금파나화(金波羅華)를 드리기 위하여 법을 설파할 것을 청했을 때, 석존은 오직 그 화(華)를 집을 뿐으로 한 마디도 설법하지 않는데 있다는 것이다. 일좌(一坐)의 대중은 그 뜻이 무엇인지 해득하는데 고통스러웠으나 홀로 마가가엽(摩訶迦葉)은 이것을 보고 빙그레 웃었다. 이것에 대하여 석존은 “우리에게 正法眼藏涅槃妙心, 實相無相, 미묘(微妙)한 법문이 있다. 여(汝), 가엽(迦葉)에 부촉(付囑)한다”고 말하며, 불교의 진수는 이 점화(拈華)와 미소와의 사이에 마음에서 마음에 전해지며, 그것이 하나의 등(燈)이 다음에서 다음으로 전해지는 것처럼, 조금도 증감(增減)이 없이 달마에게 전달되고, 달마로부터 혜가(慧可), 혜가로부터 승(僧) 찬도(璨道), 신(信) 홍인(弘忍)으로 전달되며,

140) 임석진(林錫珍)의 창씨명.





이 홍인의 문에 두 사람의 수재가 있으며 하나를 신수(神秀)라고 하며 또 다른 이를 혜능(慧能)이라고 하며, 신수는 “몸은 이것 보리수”라고 말하는데 대해서 혜능은 “보리 본나무에…(판독불능)… 말하는 등 각자의 견해를 갈파한 결과, 신수(神秀)의 것은 점수적(漸修的)이며 혜능(慧能)의 것은 돈오적(頓悟的)임으로 혜능이 그 의발(衣鉢)을 이어서 본류로 삼았다고 전해 오는 것이다. 그런데 조선의 선(禪)은 신라의 도의(道義) 등 여러 조상이 지나에 들어가서 이 혜능의 손제(孫弟) 마조(馬祖)의 법제(法弟) 등이 이것들을 전수(傳受)하고, 일본은 카마쿠라(鎌倉) 초에 영서(榮西)선사가 임제선(臨濟禪)을, 1227년에 도원(道元)선사가 조동선(曹洞禪)을 전했으므로 함께 남선(南禪)에 속하며, 한 그릇의 물을 한 그릇에 옮기는 것과 같이 전수(傳授)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구계종조(具溪宗祖) 태고국사는 즉 도의국사의 법계(法系)로서 또 지나의 임제종예(臨濟宗裔) 석옥(石屋)청기(淸琪)선사의 선(禪)을 전한 것이었다. 때문에 우리 조계 종지(宗旨)는 말할 것 없이 불립문자(不立文字) 직지(直指)인심(人心)견성(見性)성불(成佛)인 것이다.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지(指)와 와(瓦)처럼 문자(文字)지묵(紙墨)을 이것을 일을 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단도직입적으로 사람들 개개의 본(本), 스스로가 만족하고 있는 자신의 심성을 수련해서 견성(見性)오도(悟道)만을 이루면 이것이 즉 성불이라는 의미이다. 그렇다고 해도 선(禪) 한쪽만으로 치우치지 않고 교(教) 쪽 만으로 치우치지 않으며, 선(禪)과 교(教)와의 중도를 취하는 것이 조선불교 조계종으로서의 특색인 것이다. 사람으로서 목적지에 도달하고자 할 때에는 목(目)교(教)과 족(足)禪(禪)이 함께 겸비하여 비로소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처럼, 그 목적지에 도달한 것 그 자체가 즉 중도(中道)이며 성불인 것이다. 이것이 참다운 사교(捨教)입선(入禪)의 본지(本旨)인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 종조(宗祖) 태고국사는 원융부(圓融府)를 세워서 선교(禪敎)의 통합을 도모하고, 불일(佛日) 보조국사(普照國師)는 사람에게 송지(誦持)를 권하기 위해서는 항상 금강경으로써 법을 세우고, 의(義)를 연출하는 데는 반드시 육조단경(六祖壇經)으로써 하며, 중연(中演)하는 데는 화엄경으로써 하며, 우익(羽翼)하는 데는 대혜(大慧)어록(語錄)으로써 하고, 또 이러한 수행의 문에는 성적(惺寂) 등 지문(持門), 원돈(圓頓)신해문(信解門), 경절문(徑截門)의삼문(三門)을 열고 당시 교종(敎宗) 중에 최고위를 차지하고 있는 화엄종과 선종(禪宗)과의 융화를 도모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정신에 의하여 이조 억불(抑佛)정치 아래에 선교(禪敎) 각종을 합병할 때에도 역시 선(禪)의 조계종과 교(敎)의 화엄종을 본으로 하고 선교(禪敎) 양종(兩宗)이라고 칭했던 것이다. 때문에 청허(淸虛) 조사(祖師)도 선종(禪宗)판사(判事) 위에 교종(敎宗)판사를 겸임시킨 사실도 있는 것이다. 이것은 모두 선조의 사교입선(捨敎入禪)의 정신 즉 선주교겸(禪主敎兼)의 주의에 따라서 오늘날의 조계종 완성기에까지 이르러 온 것이었다. 참으로 선(禪)의 본질에 의해서 보아도 선(禪)도 역시 불교이며 결코 다른 대승의 여러 교와 전연 다른 것이 아니고, 그것을 천지우주를 관찰하는데 있어서도 다른 대승 여러 교의 극의(極意)처럼 이러한 천지만상이 모두 진리의 구현에 없는 것은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선(禪)은 불법(佛法)의 전체를 총지(總持)하는 것으로 별도로 정의(正依)의 경전도 갖지 않으나, 굳이 정의의 경전을 구한다면 석존 일대(一代)의 경권(經卷)을 비롯하여 우주 간에 있어서 유형무형의 만유(萬有)는 모두 살아 있는 경권(經卷)으로서, 모두 정의의 경전인 것이다. 때문에 본체라거나 현상이라거나로 별립(別立)하지 않고, 또 주객의 앞뒤를 쓰지 않고 또 사사(事事)라거나 이이(理理)라거나에 구애받지 않고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의 이 몸, 이대로 부처님으로 생불





일여(生佛一如)라고 하며, 사정일여(邪正一如)라고 하며, 색심불이(色心不二)라고도 하며, 정예불이(淨穢不二)라고도 하며, 또는 초목성불(草木成佛)이라고도 하며, 원친평등(怨親平等)이라고 하며, 한 번 입을 열면 평등원리가 싫어도 발표하게 되나, 그런데도 그 산하대지(山河大地)나 유록화홍(柳綠花紅)에는 차별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생불일여(生佛一如)라고도 하며 색심불이(色心不二)라고 말하나 스스로 산하대지(山河大地)가 눈앞의 사실로서 우리 앞에 가로 놓여 버들은 스스로를 녹색(綠)이며, 꽃은 스스로를 홍(紅)이기 때문에 이 산하대지로 하여금 산하대지답게, 유록화홍답게, 공삼매문(空三昧門)을 통하여 일여법계(一如法界)에 오입(悟入)한 뒤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다. 선(禪)이 무엇 때문에 생생사사(生生死死)의 고수연행(苦修練行)을 하는가 하면 자연 그대로의 세계 속에 법신을 빚으로서 우러러 보고자 하는데 있다. 이러한 차별을 잊었을 때는 그 선(禪)은 들어우로 타락한다. 인과(因果)에 떨어질 때는 오백생(五百生)동안 들어우의 생을 면하지 못하고, 인과에 어두운 것에 이르러서 비로소 미암(迷暗)을 벗어났다고 하는 것은 인과를 깨트리는 것이 아니고, 인과에 순응한 의미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다, 인과를 깨트리는 것은 일체를 민망(泯亡)하는 나쁜 평등이며 인과에 어둡지 않는 것은 일체의 속에 들어가서 이것에 순종함으로서 있는 그대로 차별상(差別相)에 사는 것이다.

## 2. 신앙심의 통일

우리 불교는 불법승(佛法僧)의 삼보(三寶)에 귀의(歸依)하는 것으로서 더더구나 불타(法寶)의 위치, 법보(法寶)의 양, 보살(僧寶)의 수가 너무나도 많아서 종도와 신도로 하여금 그 취사(取捨)에 곤란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귀추에도 해매게 하는 느낌이 없지 않다. 먼저 그 본존에 관해서 보면, 같은 불교 안에서나 혹은 미타(彌陀)대일(大日)을 본존으로 하는 것도 있으며, 약사(藥師)관음(觀音)을 본존으로 하는 것도 있고, 혹은 문수(文殊), 보현(普賢), 미륵(彌勒), 지장(地藏), 및 석존(釋尊)을 본존으로 하는 자도 있다. 그런데 그 본존을 중심으로 하여 나머지 부처를 존경하지 않고, 다른 부처를 업신여기는 경향이 있다. 특히 대일(大日)로써 본존으로 하는 자는 진언종(眞言宗), 미타(彌陀)로써 본존으로 하는 자는 정토종(淨土宗), 석존(釋尊)으로써 본존으로 하는 자는 선종(禪宗) 여러 파인 것이다. 그런데 대일(大日)은 법신(法身), 미타(彌陀)는 보신(報身), 석가는 응신(應身)으로 이러한 삼신(三身)은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거나 삼즉일(三卽一), 일즉삼이기 때문에 귀일(歸一)할 때는 오직 이것이 불타(佛陀)인 것이다. 때문에 대일, 미타, 관음 등 같은 것도 모두 이것이 석존(釋尊)일불(一佛)의 분신(分身)화생(化生)으로 드디어 이 삼신(三身)에 귀일하는 것이다. 또 그 교리에 관해서 보아도 대승(大乘), 소승(小乘), 난行道(難行道), 이行道(易行道), 자력문(自力門), 타력문(他力門), 현밀교(顯密敎) 모두가 이것이 석존(釋尊)일불(一佛)의 금구(金口)로부터 설파하고 나온 것으로서 과거불, 미래불이 아직도 일불(一佛) 일보살(一菩薩)로서 석존과 추호도 관계없이 독립해서 설법 화도(化導)하는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교리의 진리로써 요약해 보면, 이 우주는 곧바로 이러한 석불의 법신, 실상(實相)이라고 하며, 진여(眞如)라고 해서, 개불(皆佛)과 다를 것이 없으며, 화엄(華嚴)에서는 이러한 우주로써 일심(一心)법계(法界)로 보고, 진언(眞言)에서는 비로차나법신(毘盧遮那法身)으로 하는데 이르렀다. 이 우주 즉 부처로 보아 오는 데에 불교교리의 특색이 있는 것으로서, 이 우주에 정지(靜止)하는 사물(死物)로 본다. 그 활동도 역시 물질적인 기계적





인 활동으로 보지 않고, 대 생명이 약동하는 목적활동으로서, 이것을 초인적인 인격으로 보고, 우주 즉 불신(佛身)으로 보는 것이다. 때문에 석가 이외의 많은 부처, 보살, 각 종(宗) 각자의 많은 교리라고 할지라도 모두 이것은 석존 일불(一佛)의 화도(化導) 중의 현출, 금구(金口) 중의 설출(說出)에서 온 것으로, 이 화문(化門) 이외에 독립한 것이 아닌 것은 물론, 교리 즉 법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진여실상(眞如實相)의 법신불(法身佛)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데 주관의 한 편에서 치우치는 것은 자불(自佛) 외에 다른 부처가 없으며, 자신 외에 타신(他身)이 없다고 하고, 그 몽리환경(夢裡幻境)에 영현(影顯)하는 바의 부처, 보살 같은 것도 자신의 변상(變相)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서 자심(自心) 외에 활불, 영체(靈體)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믿고 있다. 이와 같이 이해하는 것은 필경 무신(無信)의 늪에 가라앉아 버릴 것이다. 또 객관의 한 편에서만 치우치는 것은 목불(木佛), 화상(畫像)에도 영혼이 있다. 석불(石佛)소상(塑像)에도 마음이 있다. 산에는 산의 신, 바다에는 바다의 신, 흙에는 흙의 신, 나무에는 나무의 신이 있다. 하물며 부처보살은 항하사(恒河沙)처럼 개천개지(蓋天蓋地)에 충만미륵(充滿彌綸)되고 있다고 믿는다. 우리를 수호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또 원래 수호하고 있다고는 한정도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신앙하는 것은 부족하지 않지만 필경은 독립자존의 기상을 잃어서 망신망불(妄神妄佛)의 구렁이에 빠져 들어갈 걱정이 있으며, 자불(自佛), 타불(他佛)의 이론은 여기서부터 일어나고, 자력, 타력의 믿음은 여기에서부터 나누어져 온 것이다. 자불의 신념도 부족은 말하지 않고, 타불의 신앙도 버릴 것은 아니다. 자불의 신념도 공고하게 되면 정신(正信)이 현전(現前)하는 타불의 신앙도 공고하게 되면 정신(淨神)이 현전하게 된다. 때문에 타력(他力)의 신앙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자력의 신앙도 없어서는 안 되지만 오직 한 쪽에 치우치는 것을 피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에 한 쪽으로 치우치면 병적인 신앙이 되기 때문이다. 그 자력이라고 말한다면 본원자성(本源自性)의 천진불(天真佛)을 보는 좌선(坐禪)만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타력이라고 말하면 미타일불을 생각하는 염불종(念佛宗)만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직지인심견성불성불(直指人心見性成佛)을 이상으로 하는 좌선종(坐禪宗)에서도 십방(十方)제불(諸佛)을 생각하고 가피력(加被力)을 빌어가고 있다. 또 일불(一佛)전념(專念) 미래성불(未來成佛)을 이상으로 하는 염불종(念佛宗)에서도 여탄지경(如彈指頃), 왕생피국(往生彼國), 심불전도(心不顛倒), 즉득왕생(卽得往生) 등의 직지단적(直指端的), 돈속(頓速), 돈입(頓入)의 법문도 열리고 있다. 이러한 때에 자불(自佛)이 자불이 아니고, 타불이 현불이 아니며, 자타는 원래 혼연일체인 것이다. 때문에 법화경 안락품(安樂品)에는 "深入禪定見十方佛, 無二無別"이라고 되어 있다. 이것은 이 법신불에 상견(相見)이 있어서 산하대지(山河大地), 일월성진(日月星辰)도 모두 이것은 십방삼세제불(十方三世諸佛)의 묘색신(妙色神)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본원자성(本源自性)의 천진불(天真佛), 직지자성(直指自性)의 종지(宗旨), 본래의 면목, 본지(本地)의 풍광이다 하는 자지(自知), 자각한다고 할 때 까지는 스스로 발명한 것도 발견한 것도 아닌 것이다. 이것은 모두 종상(從上)의 부처들, 조상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임으로 타력이라고 말하면 모두 타력인 것이다. 또 광명편조(光名遍照), 십방(十方)세계, 염불중생(念佛衆生), 섭취불사(攝取不捨)와 무연광대(無緣廣大)의 대 자비심에 살고 계시는 미타(彌陀), 관음의 묘지력(妙智力)이라 할지라도 중생의 자심(自心)에 있어서 이것을 믿고, 이것을 염려하는 자력이 없다면 도움을 받는 것도 구원을 받는 것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때문에 자력은 타력을 불러일으켜서 발심(發心)수행(修行)의 발을 나아갈 수 있는 것이며, 타력은 자력에 의지하여 도생비원(度生悲





願)의 불사(佛事)가 실시되어 오는 것임으로 자력이라고 말하면 모두 자력이라 할지라도 자(自)는 타(他)를 가지는 자로서, 타(他)는 자를 가지는 타이기 때문에 자타는 원래 불이(不二)로서 주객은 본래 불일(不二)인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불일이기 때문에 타불(他佛)을 폐지할 수가 없으며, 불이이기 때문에 자불(自佛)만을 세워서 안심할 수가 없다. 자타가 양립하여 서로 떨어지지 않는 것이 즉 불일, 불이가 되는 것이다. 만약에 그것이 자심(自心), 자성(自性), 자불(自佛)만을 세워서 타심(他心), 타성(他性), 타불(他佛)을 폐지한다는 것을 하는 것도 그것은 미득위득(未得謂得), 미증위증(未證謂證)의 증상만인(增上慢人)이 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세상에는 적은 선화(禪話)를 듣고 선어(禪語)를 보고 금세 천마(天魔)의 권속(眷屬)이 되며 깊이 스스로부터 삼보(三寶)를 존신(尊信)하는 마음도 없고 만연(漫然)하게 높은 곳을 세우며 진천(盡天), 진지(盡地), 독존, 무이(無二)라고 하며 헛되게 뿔내며 건방을 떠는 자도 있는 것이다. 이미 삼보이귀(三寶二歸)하지 않기 때문에 삼세(三世)의 인과를 연구하지 않고 십계(十界)의 의정(依正)도 신해(信解)하지 않고 정사(正師)를 구하여 부지(不知)의 어리석음을 깨우치려고 하지도 않고 다만 눈앞의 명문(名聞)과 이양(利養)에 뿔내는 자도 있는 것이다. 만약에 그것이 타심(他心), 타성(他性), 타불(他佛)에만 매달려서 자심(自心), 자성(自性), 자불(自佛)의 존귀, 최승(最勝)이라는 것을 잊게 된다면 함부로 마음 밖의 정각(正覺)을 바라고, 타토(他土)의 왕생만을 구하여, 자성(自性)의 미타(彌陀), 유심(唯心)의 정토(淨土)인 활리(活理)를 잃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타양립의 불일(不二) 불이(不二)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며, 종래의 각 종(宗)의 개조(開祖)의 의향에 의하여 결정된 본존(本尊)은 즉 불교의 안에서 분종(分宗)되었다고 하는 것만으로, 굳이 불의(佛意)에 배반한 것이 아니며, 일종의 방편교(方便教)인 것이다. 그 방편의 본존에 의해서 중생을 제도(濟度)하는 것은 물론 석존의 본의에 맞는 것이므로 추호도 지장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조계종은 원래 12종(宗)의 합체(合體)임으로 그 형식의 본존은 말할 것도 없이 석존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개개의 자원(自願)의 본존이 심설(心設)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편교(方便教)의 입장에서 보면 석존의 본의에 배반하지 않지만, 이제 종교가 통제되어 종지(宗旨)가 통일된 오늘날에 있어서는 포교상, 막대한 폐해가 가로 놓여 있는 것이다. 이때문에 신앙의 목적을 단순히 하나의 주체에 통일하고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때문에 오늘날에 있어서는 우리 조계종도로서 신앙해야 할 본존은 석존을 이상적인 표준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석존은 본존 중의 대 본존으로서 석존 이외의 본존 및 교리, 교의(教義) 및 종의(宗義) 등은 모두 본종의 종속성으로서 취급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석존은 삼신일체(三身一體), 만덕원만(萬德圓滿)이므로 석존 이상(以上)을 이상(理想)으로 할 필요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 일체의 만고(萬苦), 만행(萬行)은 석존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닦는 것일 것이다. 이것을 닦는데도 급히 닦는 것과 천천히 닦는 방법이 있겠지만, 귀결하는 것은 성도(成道), 왕불(往佛)을 희망하는 것이며, 중생제도(衆生濟度)를 이상으로 삼는 것이다. 그것의 이것을 닦는 것은 망상집착(妄想執着)을 떠나는 것이다. 그것의 이것을 떠나는 법으로서는 지심참회(至心懺悔)도 그것, 귀의삼보(歸依三寶)도 그것, 사은(四恩)을 보답하고 육도(六度)를 행하는 것도 그것, 그 뿌리에 맡겨서의 일선(一善), 일행(一行)도 모두 남김없이 무상보제(無上菩提)에 회향(回向)하는 것이다. 또 석존에 대하여 감사와 구원과의 성의를 바치기 위해서는 칭명(稱名)과 예배와 공양(供養)이 있는 것이다. 칭명은 구업(口業) 예배는 신업(身業), 공양은 의업(意業)인 것이다. 이러한 삼업(三業)이 서로 호응하지 않으면 감사도





되지 않고 구호의 친구도 되지 않는다. 소위 청명이란 남무석가모니불(南無釋迦牟尼佛)이라고 외치는 것이다. 그리하여 예배공경(禮拜恭敬)은 오체투지삼배구배백배(五體投地三拜九拜百拜) 등인 것이다. 또 공양이란 상(像) 앞에서 향화등명(香華燈明)공구(供具)를 판비(辦備)하는 것이다.

### 3. 포교정신의 양양

불타는 범천(梵天)의 치청(致請)에 맡겨, 중생의 불멸의 문을 열고 최초로 녹야원(鹿野苑)에 제일법륜(第一法輪)을 옮겨서 교진여(橋陳如) 등 다섯 비구(比丘)를 제도(濟度)하고 후 사라쌍수(紗羅雙樹)의 사이에서 수발타라(須跋陀羅)의 강교(講敎)에 응하여 주실 때까지 일화(一化) 50년간 교화를 일삼으며 자리가 따뜻할 틈이 없었다. 전도(傳道)의 생애를 보낼 뿐만 아니라 최초 야사(耶舍) 등 60 제자를 얻었을 때, 이것을 사방에 파견했던 것이다. 그 선시(宣示)에 가라사대 "비구들이여 우리는 일체의 인천(人天)의 박(縛)을 해탈했다. 비구들이여 너희들도 역시 일체 인천(人天)의 박(縛)을 해탈할지이다, 너희들이 유화(遊化)하라, 중생의 행복을 위하여, 중생의 안락을 위하여, 세상의 연민(憐愍)을 위하여 인천(人天), 이익, 행복, 안락을 위하여 같은 길을 들어서 함께 가지 말라. 비구들이여 시작도 선(善)이며, 중간에서도 선(善)이고 마지막에도 선(善)인 것이다. 의(義)가 있음으로서 있고, 특히 완전히 정결(淨潔)한 법을 설파하라, 또 정행(淨行)을 분명히 하라, 더러움이 적게 생을 받은 중생도 없을 것이다, 그들은 법을 듣지 않으면 마지막에 멸망하리라, 그들은 법을 아는 자가 안 되면 안 될 것이다"라고 전해 내려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 불교도는 불멸(佛滅) 2천 4백여 년(실제는 2,428)의 오늘, 더더구나 불타의 고귀한 혜명(慧命)을 직접 사승(嗣承)해서 그 교리를 배우고, 그 교훈을 따르며, 시종 불타의 교해(敎海)에 함양해야 할 영광을 입으면서 이 혜명(慧命)을 선전하는 사명은 우리들의 양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선불교도 즉 비구중(比丘衆)은 그 동안 너무나도 그 인식을 잘 못하는데 이르던 것으로, 유감스럽게도 불타출세의 본회(本懷)를 되돌아보지 않고, 개개 별개의 탈선적인 행동을 굳이 취해 왔던 것이다. 근대에 와서는 오히려 포교사를 법사라고 말하며 법사의 이름만을 들을 때에도 법사 그 자체는 즉 우부우부(愚夫愚婦)를 상대하여 일종의 매불(賣佛)생활을 하고 있는 비루(鄙陋)한行者(行者)라고 하는 느낌을 갖고 있다. 이것과는 반대로 무슨무슨 절의 주지나 혹은 직원은 재산가들의 이름으로 열 때는 대단히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곧바로 부러운 생각을 일으키게 되는 상태인 것이다. 이것은 본말(本末)이 전도(顛倒)되어도 너무 심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도 전연 그 이유가 없는 것도 아닌 것이다. 그것은 이조의 억불(抑佛)정치의 결과 불교 대 정치의 관계를 떠나서, 승려 대 사회의 교류가 끊어지고, 불타의 혜명(慧命)을 남에게 전할 최고사명을 갖는 포교사의 상대방은 오로지 우부우부에 한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신을 위하여 필요한 사찰포교를 위하여 필요한 교당(敎堂)은 오로지 승려의 주거나 안식처가 되어서, 자신의 생활의 보상이 되고, 안여(晏如)의 주거지로 화해 버린 것이다,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 조계종도는 크게 각성하여, 대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 종도는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근본적으로 시정하여 우리 불타의 본회(本懷), 우리 승려의 책임은 오직 이 포교전도를 제외하고는 사무(寺務)도 아무것도 없다고 철저히 각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포교사의 자격을 공인함과 함께 그 지위를 한 층





향상시켜서 대 법주(法主)에 이르기까지 승격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대 법주의 지위와 자격을 완비하는 자로써 주지 혹은 직원으로 부임시키고 싶은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포교가 여러 분은 이 정신에 따라서 포교와 전도의 책임을 철저히 통감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될 것이다. 낮이나 밤이나 어떻게 해서 황은에 보답할 수가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불은(佛恩)에 보답할 수가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시국에 응할 수가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불교로 하여금 황도를 공영권내에 홍통(弘通)할 수가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원대한 이상을 준비하고, 확고한 의지를 세우는 것이 긴요한 것이다. 그리하여 전 교도를 통틀어서 열렬한 전도적인 정신을 환기하여 각각 분수에 맞는 헌신적인 포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확고한 신앙을 가지며 첫째 요건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포교정신의 발로는 즉 자신(自信)에 대한 교인신(教人信)으로서, 함께 포교와 전도를 하는 근거(根基)인 것이다. 포교를 하는데 있어서는 그 전해야 할 교리가 반드시 서로 믿는 것이라는 것을 요하며, 그 신앙이 반드시 자신의 체험에 의하여 실증(實證)된 것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다. 즉 불타의 존엄을 느끼고 대자(大慈)의 구제를 믿는 것으로서 포교와 전도의 대임(大任)을 다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 종도 즉 포교가의 근본문제는 항상 인격문제로서 인격의 뿌리에는 즉 신념에 의하여 배양된 것인가 어떤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때문에 신념이 없는 인격, 신앙이 없는 인사(人士)는 아무리 웅변이나 궤변(宏辯)으로서 단상에 올라가도, 열심히 사업경영을 해도 포교가라 할지라도 주물(鑄物)에 지나지 않으며, 단순한 변론가이며, 단순한 사업가인 것이다. 때문에 역시 교에 즈음해서는 그 자신(自信)이 두꺼울수록 포교가로서의 기능을 완수할 가치를 갖는 것이다. 때문에 교인신(教人信)의 뿌리는 즉 자신(自信)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불타(佛陀)도 32상(相) 80종호(種好)에 3천 위의(威儀), 8만 세행(細行)을 구족(具足)해 준 것이다. 불타의 유미수공(乳糜受供)을 보고 타락과 퇴보했다고 오해하고, 그 아래에 물러났다고 할 뿐만 아니라, 굳이 불타를 경례를 하지 않겠다고 기약한 다섯 비구(比丘)도 불타의 위의(威儀)가 정연(整然)하여 법열(法悅)에 꼭 찬 인격의 영위(靈威)에 영향을 받아서 갑자기 일어서서 불타를 맞이하여 끝내 동화를 해 버린 것이다. 또 사열불(舍列佛), 일구연(日口連)이 불타를 동경하여 두 사람의 제자 250명과 함께 불타 아래에 오게 된 것도 역시 이것은 연소비(年少比) 동마승(東馬勝)의 위의(威儀)태도에 감화된 것이다. 때문에 위의(威儀) 즉 불법(佛法), 행지(行持) 즉 불법(佛法) 등이라고 하는 독일어도 있으며, 위의(威儀)작법(作法)이 그대로 불도(佛道)인 것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지조(志操)이며 고상하고 결염(潔廉)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세출(世出)세간(世間)의 사표자(師表者)로서 백절불굴(百折不屈)의 기백(氣魄)과 무연부감(無緣赴感)의 대자(大慈)가 있어야 할 것이다. 불타의 자비 중에서도 절복(折伏)과 섭정(攝政)의 수단방법이 있다. 중생제도(衆生濟度)에는 섭정(攝政)이라는 대탐(大貪)이 그것이며, 악마의 항복에는 절복(折伏)이라는 대진(大瞋)이 그것이다. 바라건대 포교사 여러분은 여기에서 불타의 본회(本懷)가 교도의 사명을 인식하고 각성함과 동시에, 불타(佛陀)일대(一代)의 대 전도, 불제자의 헌신적인 포교 내지는 역대 조사(祖師)의 열렬한 전도와 교화를 되돌아보며 현하의 시국에 투철하며 즉응하는 활동을 해서 포교본의의 대 정신을 발휘해 주실 것을 바라는 바인 것이다.

〈출전 : 『朝鮮佛敎曹溪宗報』 제18호, 1943년 7월, 1~6쪽〉





### 17) 제19호(1943년 8월) - 범종 및 기타 금속류 공출·헌납에 관한 건

조총서(曹總庶) 제190호  
1943년 6월 10일  
조선불교조계종총본사 태고사 종무총장 광전중육  
각 본사주지 앞

#### 범종 및 기타 금속류 공출·헌납에 관한 건

표제의 건에 관하여서는 누차 통첩해 왔으나, 범종 기타 귀중품으로서 보물에 지정되어야 할 물건 또는 사찰에 특수한 유서를 갖는 것을 제외하고는 자진해서 헌납 또는 공출하도록 부탁드리며, 이상 헌납의 수속을 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신

이상 헌납에 즈음해서는 사정이 허락하는 한 헌납법요의 집행은 물론 현품의 사진 혹은 목록은 빠짐 없이 정비 해 두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전 : 『朝鮮佛敎曹溪宗報』 제19호, 1943년 8월, 1~2쪽〉



### 18) 제21호(1943년 10월) - 성지 및 사원참배단, 금속류 회수, 헌납 관계

#### [18-1]

조총서(曹總庶) 제261호  
1943년 8월 23일  
조선불교조계종총본사 태고사 종무총장 광전중육  
중앙종회원 앞

#### 성지 및 사원참배단 파견에 따르는 경비지출 의결에 관한 건

이번 별지 요강에 의하여 표제 참배단을 내지에 파견하기로 되어, 총본사에서 이러한 비용의 일부 개산(概算) 약 2천엔을 부담하기로 된 바, 이것은 금년도 당사 수지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음으로써 지불할 수 없음에 대해서는 총본사 태부사법(太夫寺法) 제53조에 의하여 찬동하도록 오는 9월 3일까지 회보를 주시도록 명에 의하여 바랍니다.





추가로 참고할 것은 별지 참가신청서를 반송하여 제출해 주시도록, 또 참가자의 취사선택은 당 총본사에 일임하시도록 바랍니다.

- 결의문 -

- 성지 및 사원참배단파견에 요하는 비용일부를 총본사 1943년도 수지예산에서 지불의 건 이상을 찬동함, 찬동하지 않음(불필요한 글자는 지울 것)

연 월 일  
총회원 성명 ⊙

- 참가신청서 -

- 조계종본사주지 성지 및 사원참배단 파견에 관한 건 이상 참가함, 참가하지 않음(불필요한 글자는 지울 것)

연 월 일  
사주지 성명 ⊙  
태고사 귀중

조계종본사 주지 성지 및 사원참배단 파견 요강



1. 취지

본종의 본사주지 중 이전에 내지견학의 경험이 없는 자로서 이세(伊勢)의 고타이(皇太)신궁을 비롯하여 카시하라(檜原)신궁 및 기타 성지에 순배를 시켜 국체관념의 철저와 경신(敬神)사상의 함양을 도모함과 함께 조선불교와 특수한 사적(史蹟)을 갖는 사원 및 저명한 법찰에 참여시켜서 내선일체의 사실(史實)을 감득시키며 아울러 황도불교의 정신을 심해(心解) 체득시킴으로써 본종 진흥에 공헌시키고자 한다.

2. 인솔자

본부 관계관

3. 단원 및 그 자격

본사 주지로서 내지견학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아니한 자

4. 여행기간

1943년 10월 1일부터 향후 22일간으로 함

5. 참배지

별지 일정에 기재한대로

6. 경비부담관계





- 1) 단원의 여비는 이것을 각자 본사의 부담으로 한다.
- 2) 인솔자의 여비 및 기타 필요한 비용은 이것을 총본사의 부담으로 한다.  
1인당의 경비 액은 약 350엔으로 한다.

7. 기타

- 1) 복장은 국민복, 전투모의 의례장 외에 법의 및 가사를 휴대할 것
- 2) 휴대품은 중형의 가방 2개로서 여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칠 것. (하략)

[18-2]

조총서(曹總庶) 제259호

1943년 8월 26일

조선불교조계종총본사 태고사 종무총장 광전종욱

각 본사주지 앞

**금속류 회수에 관한 건**

사찰의 금속류의 회수에 관해서는 본 건 회수운동전개 이래, 여러분의 노력에 의하여 다대한 성과를 올렸으나, 시국은 더욱 더 이 운동의 급속한 진행을 요청하기에 이르러서, 다음 각 항의 실행방법에 대해서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 특히 의뢰합니다.

추가로 7월 22일자 학무국장 통첩에 대한 보고 부분(副本)은 반드시 총 본사에 제출하도록 바란다.

- 다음 -

1. 범종, 징, 동라(銅鑼) 및 범종 등 악기류는 이것을 군부(부, 읍, 면 또는 군 연맹을 통하여)에 헌납할 것(1월 28일 및 6월 11일의 총 본사 발 공문을 참조할 것).
2. 불기, 축대, 향로 및 다기 등 불구류는 특히 법요의식 집행에 지장이 없는 한은 전부 이것을 공출할 것(부, 읍, 면 또는 군 연맹을 통하여).  
이상의 대용품 알선에 대해서는 현재 총 본사에서 연구 중임으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식기, 수저, 접시, 반상기류는 자진해서 헌납 또는 공출하여 민중에게 모범을 보일 것.

[18-3]

**시국행사**

봉선 본말사 범종 헌납식 : 경기도 양주군 진접면 대 본산 봉선사(奉先寺)에서는 지난 6월 30일 오후 1시 소속말사 19개 사와 연합으로 경원선 의정부 역전 양주군청 구내에서 범종헌납식을 거행했다. 동

식장에는 해군무관부원, 본부 연성과장 대리 및 경기도 총력과장의 임석이 있었으며, 봉선사 본말사 주지 여러분의 참석 하에 먼저 봉선사 주지 평야준무(平野俊茂) 노사(老師)의 지휘로 법요가 끝나고 헌납사 및 감사의 말이 잇은 후에 경기도 총력과장, 양주군수의 축사로써 식을 마치고 일동은 헌납품 진열장에서 기념촬영을 했었다.

헌납사찰명 및 헌납품명

봉선사	범종 1개	늦그릇	54점
불암사	" 1	"	119점
현등사	" 1	"	1점
회암사	" 1	"	12점
흥국사	" 1	"	74점
자재룡	" 1	"	143점
백화암		"	3점
내원암	" 1	"	197점
봉영사		"	7점
수국사		"	7점
홍룡사		"	12점
미타사		"	6점
봉암사		"	3점
묘적암		"	5점
학도암		"	60점
보광사		"	8점
쌍암사		"	4점
석림사		"	4점
학림암		"	15점
견성암		"	43점

계 대 범종 7좌, 중소범종 및 늦그릇 785점,  
총 중량 1,787.7점

〈출전 : 『朝鮮佛教曹溪宗報』 제21호, 1943년 10월, 1~3·5·8~9쪽〉



## 19) 제21호(1943년 11월)<sup>141)</sup> - 본사주지 성지참배단 파견중지에 관한 건

조총서(曹總庶) 제261호

1943년 10월 6일

조선불교조계종총본사 태고사 중무총장 광전중육

각 본사(本寺) 주지 앞

### 본사주지 성지참배단 파견중지에 관한 건

표제의 참배단은 시국 하에 자숙의 의미로서 이를 중지하게 되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추후로 본 단에 참가신청을 마친 주지에 대해서는 여행 준비 기타 비용에 대해서 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 것에 한하여 사비(寺費)로써 적절히 보상하도록 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전 : 『朝鮮佛敎曹溪宗報』 제21호, 1943년 11월, 1쪽〉

## 20) 제1호(1944년 1월)<sup>142)</sup> - 범종헌납 법요

황해도 대 본산 성불사에서는 소속말사 20개소를 독려하여,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에 걸쳐 사유(寺有) 낫쇠 종류 금속류 전부(370점)를 헌납 완료했으나, 또 1943년 11월 15일 오전 10시에 황해도 봉산군 사리원읍 고산사 대지 전에서 목촌(木村) 본산 주지 및 본산 직원 참가 하에 다음과 같이 고산사 소유 범종 한좌(438근)를 헌납하겠다는 법요를 거행하여 즉시 사리원 경찰서에 옮겨서 헌납하도록 위탁했다.

〈출전 : 『朝鮮佛敎曹溪宗報』 제1호, 1944년 1월, 6쪽〉

## 21) 제2호(1944년 2월) - 헌납 관계

### 시국행사

총본사에서는 작년 12월 8일 대동아전쟁 발발 제3주년째의 대조봉대일(大詔奉戴日)에 이전에 각 사찰

141) 1943년 11월에 발행된 호수도 10월과 동일하게 제21호로 되어 있다. 발간 당시의 오류인 듯한데, 원 자료 그대로 두었다.

142) 『조선불교조계종보』는 1944년 1월부터 다시 호수가 제1호로 변경되었다. 1944년 7월 제7호까지 나온 후, 8월부터는 다시 전체호수인 제31호로 발간되었다.



로부터 기탁이 있는 황군위문 상자 수입의 다음과 같은 금액을 매일신보사를 통하여 군부에 헌납했다.

- 다음 -

금액		
28엔50	북청군	연화암
10,80	이원군	북흥사
11,22	동	정광사
6,35	온성군	개원사
41,30	경원군	월명사
12,23	삼척군	삼화사
60,00	영월군	보덕사
10,00	원주군	구룡사
15,00	울진군	불영사
10,00	동	봉복사
11,00	삼척군	천은사
11,00	동	신흥사
2,00	원주군	국형사
2,50	정선군	정암사
2,00	평창군	극락암
2,00	영월군	법흥사
6,20	문경군	금룡사
8,31	예천군	용문사
7,00	동	명봉사
4,00	문경군	봉암사
,00	동	은국사
2,64	예천군	서악사
10,28	상주 금룡사 포교당	
4,31	김천 금룡사 포교당	
7,20	예천 금룡사 포교당	
2,46	문경군	대승사
50,01	황주군	성불사
4,00	곡산군	고달사
13,34	밀양군	표충사
40,55	평양부	영명사
36,00	고성군	신계사



2,45	영주 금룡사 포교당	
36,90	총본사	태고사
계 471,95전 정		

〈출전 : 『朝鮮佛敎曹溪宗報』 제2호, 1944년 2월 11~12쪽〉

## 22) 제4호(1944년 4월) - 황군위문금 헌납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월정리에서는 미리 관내 각 사찰에 비치 해 둔 황군위문 상자로부터 수입이 있었음에 대하여, 3월 8일자 평창경찰서를 경유 군부에 헌납하였다,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내역-

▲금80엔 월정사 ▲23엔 불영사 ▲4엔 상원사 국형사 ▲10엔 신흥사 ▲20엔 허은사 ▲5엔 봉복사 ▲2엔 극락암 ▲38엔 삼화사 ▲10엔 구룡사 ▲5엔 천은사 ▲20엔 야상원사 (산내 말사) ▲5엔 정암사 ▲3엔 법흥사 ▲6엔 보현사 ▲70엔 보덕사 이상은 현금 ▲9엔86전 월정사 보전 황군 위문 수입 ▲98전 동적멸보궁 분 ▲3엔68전 동 상원 분 이상 황군 위문금.

이상 합계 3백15엔 52전.

〈출전 : 『朝鮮佛敎曹溪宗報』 제4호, 1944년 4월 5쪽〉

## 23) 제5호(1944년 5월) - 조선불교보국대 편성, 각종 헌납운동 관계

[23-1]

조총서(曹總庶) 제114호  
1944년 4월 10일  
종무총장  
각 본사(本寺) 주지 앞

### 조선불교보국대 편성에 관한 건

표제의 건 근로보국대는 별지 요항에 의하여 동원하도록 노무관계관에게 질문중인 바, 이상 구체적 인 조치책은 곧 소관 도지사로부터 통첩이 있을 예정에 대해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귀 본 말사에서 농업증산상 노무의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의 사용을 위해서 시급히 소관 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첨언합니다.

### 조선불교보국대 편성 요항

1. 편성대의 명칭  
조선불교근로보국대라고 칭한다.
2. 편성해야 할 인원  
전 조선 각 사찰을 통하여 2,939명으로 한다.  
별지 대원수 일람표와 같다.
3. 대장에 관한 사항  
대장은 총본사 주지로써 이에 충당한다.  
대장은 대의 편성을 하고 대원의 부서를 정하고 이를 지휘 명령한다.
4. 대의 편성  
대원은 각 도를 단위로 하고 이를 분대로 나눈다,  
1분대의 인원수는 이를 50명 이하로 한다(별지 편대표와 같다).  
분대장은 각 본사 주지가 그 대리자 또는 대원 중 말사주지인 자에 대하여 이를 임명한다.
5. 전형의 범위 및 표준  
대원은 본종 승려로 연령이 14세 이상 50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총본사 주지가 이를 지정한다.
6. 작업장의 소재지 및 명칭  
선내 각지의 주요 농촌.
7. 작업 내용  
농촌의 농사 노무의 보충
8. 협력 기간  
농번기를 통하여 30일간으로 한다.
9. 지급경비  
여비, 숙박료, 식비에 대하여 실비로써 소관 본사서 이를 지급한다. (하략)

#### [23-2]

조총서(曹總庶) 제127호

1944년 4월 12일

종무총장

각 본사(本寺) 주지 앞



## 애국기 헌납운동에 관한 건

본중에서는 작년 1월 31일 애국기 조선불교호를 헌납한 이래 경남의 통도사, 북에 있는 보현사에 이어서 단독으로 애국기 통도사호 및 보현사호의 헌납이 있었으며, 후방불교계의 적성(赤誠)의 일단을 보여 주었으나, 현재 전국(戰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후 당국의 성원 아래 별지와 같은 운동 실시 요강에 의하여 애국기를 헌납하기로 된 것에 대해서는 앞과 같이 양지하신 후 관내 사찰에 엄중 시달하여 소기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각별한 협력을 해주기 바란다.

추후로 앞에 관해서 고견을 받으며 여러분의 의견에 접하고자 일단 모이도록 예정했으나, 시국관계로 교통제한 때문에 여행은 각자가 자진해서 자숙해야 됨으로써 부득이 서면으로서 협력해 주시도록 한데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고 또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배려하시도록 바랍니다.

— 다음 —

— 본건 각출금의 귀 본 말사 전액은 어떠한 사정이 있을지라도 모집기일(5월 10일까지)에 반드시 송금할 것.

만약에 소속 말사로부터 기일 내에 입금에 없을 경우에는 본사에서 이것을 입체 납입하여 추후로 이것을 징수해야 한다.

## 애국기 헌납운동실시 요강

— 협력을 구하는 말씀

본중에서는 작년 1월 31일에 애국기조선불교호를 헌납한 이래 남쪽의 통도사, 북쪽의 보현사에 이어서 단독으로 통도사호 및 보현사호의 헌납이 있었으며, 후방불교계의 적성(赤誠)의 일단으로서 피로(披露)했으나 현재 전국(戰局)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이번에 당국의 성원 아래 별지와 같은 운동 실시 요강에 의하여 애국기를 헌납하고자 하는데 대해서는 앞과 같이 양지하시고 소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별한 협력을 바랍니다.

1944년 4월 일

조선불교조계종총본사 태고사

사찰주지 각위 앞

### 1. 취지

남방전선에서 우리 황군장병은 모든 곤궁결핍에 견디면서 적은 비행기와 적은 함선으로써 대량에 의지하여 쇄도하는 적 귀축(鬼畜) 미군과 밤낮 구별이 없이 사투를 계속하며 혁혁한 전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전국은 더욱 더 처참(悽慘) 가열(苛烈) 해져서 항공 결전이 이제야 최고조에 도달하여 한대의 비행기라도 화급히 보급을 요청하는 바이다.

이러할 즈음에 우리 조선불교계종도는 더욱 필승의 신념을 공고하게 하여 결전포교의 맹세를 새로이 함과 동시에 물질적인 봉공의 적성(赤誠)을 애국기 헌납운동에 결집해서 미력이면서도 애국기 한 대를 군부에 헌납함으로써 황군장병의 사투에 응답하며 아울러 보국정신의 양양을 기하고자 한다.

2. 목표

애국기(가칭 제2 조선불교회)한 대를 헌납하고자 한다.

3. 기금 각출액

일금 8만 엔 정

4. 기금의 각출 기한 및 이것의 접수장소

㉠ 기한 1944년 5월 10일까지로 함.

㉡ 접수장소=총본사 태고사

5. 기금의 각출방

기금 중 1만 엔은 총본사 태고사에서 이것을 부담하고 7만 엔은 별표 분담표에 의해서 각 본 말사로 하여금 이것을 각출케 한다.

앞 기금 분담액은 각사(포교당을 포함) 금년도 수지예산으로부터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것을 지출하는데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 경정(추가)을 할 것. 만약에 예산에서 이것의 분담액을 염출할 길이 없을 경우에는 분담부담액은 다음과 같은 여러 방법으로 지출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 1) 소속 승니(僧尼) 및 신도를 하여금 적절하게 각출시킬 것.
- 2) 사유립 별채 및 기타 임시 수입으로써 이에 충당할 것.
- 3) 시국에 위반하지 않을 정도로 가지(加持)기도회 및 임시 설법회와 같은 법요를 설치해서 여기에서 생긴 수입으로써 이에 보충할 것. (하략)

[23-3]

### 해군기 헌납

평북 영변군 묘향산 보현사 본 말사에서 이전부터 군용비행기를 헌납하도록 본 말사 주지가 적극적으로 협력 해 왔던 바, 그 사이에 만반의 준비가 갖추어져서 지난 28일 오후 3시에 본산 주지 향천법룡(香川法龍)<sup>143)</sup> 사(師)가 본 말을 대표하여 노부하라(信原) 평북지사를 방문하여 해군기 한 대의 기금으로서 현금 8만 엔을 헌납하고 일반 도민을 감격케 했다.

143) 김법룡(金法龍)의 창씨명.







본사 귀주사로부터 다음과 같이 삼직(三職)의 임명이 있었다.

직명	성명	임명 연월일
법무	신정시영(新井時永)	1944년 3월 16일
감사	광천문남(廣川文男)	동

본사 송광사로부터 다음과 같이 삼직(三職)의 임명이 있었다.

감무	신산영무(新山永茂)	1944년 4월 7일
감사	송촌광진(松村光眞)	동
법무	임창섭(林昌燮)	동

본사 금룡사로부터 다음과 같이 삼직(三職)의 임명이 있었다.

감무	성산주작(星山周昨)	1944년 3월 30일
감사	풍천문웅(豊川文雄)	동
법무	동목춘주(東木春洲)	동

〈출전 : 『朝鮮佛敎曹溪宗報』 제5호, 1944년 5월 1~2·5~6·13쪽〉



## 24) 제6호(1944년 6월) - 조선불교보국대 편성에 관한 건



조총서(曹總庶) 제132호

1944년 5월 11일

종무총장

각 본사(本寺) 주지 앞

### 조선불교보국대 편성에 관한 건

표제의 건 보국대동원에 대하여 현재 진행 중이라고 생각되나, 이것을 가급적으로 시급히 실행되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대원의 편성 및 동원에 대해서는 작업 장소, 출동 월일 및 대원명부로 각 2통씩 구비하고 즉시 보고가 있을 것. 또 앞과 같은 동원이 있을 경우는 감독관청의 지휘에 잘 따르며, 만부득이한 특수사정에 있는 자를 제외하고 적격자 전원을 이에 편입하여, 유종의 미를 남기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출전 : 『朝鮮佛敎曹溪宗報』 제6호, 1944년 6월, 1쪽〉



25) 제32호(1944년 9월) - 적국 항복기도 법요, 애국기 헌납 관계

[25-1]

조총서(曹總庶) 제194호  
1944년 7월 24일  
중무총장  
각 본사(本寺) 주지 앞

적국 항복기도 법요 개최에 관한 건

사이판 섬에서 우리 수비대 장병은 적 미귀(米鬼)가 상륙 이래 처음부터 끝까지 황군이 본래 갖고 있던 진수를 발휘하고, 7월 7일 마지막 총공격을 감행하여 전원이 장렬한 전사를 하게 되었다. 참으로 애석함에 견디지 못하는 바가 있으며, 우리 종은 여기에 전사 장병의 영령 및 장병과 운명을 함께한 재류동포에 대하여 삼가 경조(敬弔)의 성의를 올리며 아울러 적국의 습복(懾伏)을 기원하기 위하여 종내 각 사찰을 하여금 8월 8일 오전 9시를 기하여 일제히 적국항복기원법요를 영위하게 되었으므로 양해하시고 귀 관내 각 사찰 및 포교당에 대해서 앞과 같은 법요를 근수(謹修)하도록 시급히 시달하시기 바랍니다.

[25-2]

애국기 헌납에 관한 건 보고

당중(當宗)에서 제2차 애국기 헌납을 별지에 의하여 시행하였으므로 양지해 주시며 이상 보고합니다.

기부금 수지결산서

수입	
일금 8만 엔	수입총액
지출	
일금 8만 엔	지출총액
수입지출 차감잔액 없음.	



## 비행기 헌납 전말록

- 1944년 6월 13일자 애국기 1대 헌납의 목적으로써 전 조선의 사찰을 통하여 헌납기금 8만 엔의 기부모집의 허가지령을 받았다.
- 1944년 6월 30일로써 일단 모집금 접수를 중단하고 동 7월 19일까지 신청이 끝난 기부금만으로 종합한 바, 총계 6만9천2백6십6엔 34전이 되었다. 앞의 모집금 예금이자 2백 엔 70전이며 조흥은행 관훈정 지점으로부터 받은 뒤에 예정액 8만 엔의 부족액 5백3십2엔96전은 모집자 총본사 태고사가 즉시 추가 부담했다.
- 1944년 7월 20일 “바다기념일” 오후 2시 중무총장 광전중옥 이하 각 부장 4씨는 경성주재 해군무관부를 왕방하고 앞 모집액 8만 엔을 해군기 1대의 기금으로서 헌납했다.

〈출전 : 『朝鮮佛教曹溪宗報』 제32호, 1944년 9월, 1~3쪽〉

## 26) 제35호(1944년 12월) - 제6회 중앙총회, 각종 시국행사 관계

[26-1]

### 유시(諭示)

제6회 중앙총회 석상에서 제시한 종정 예하(猓下)의 유시가 다음과 같았다.

6월에 제6회 중앙총회의 개최를 선언하고 평소 소회의 일단을 제시했다.

미영격멸의 성전이 일어나서 이미 3년, 이제야 전국은 결전의 단계에 돌입하고 적의 반격이 더욱 더 가열(苛烈)해져서 우리 편이 추격전 역시 치열하게 되었으며, 일찍이 대만 바다 해전 이래 현재 필리핀 바다에서의 피차간의 사투는 참으로 착중하고 처절함에 있어서, 우리 카미카제(神風) 특별공격대는 오로지 순충무비(純忠無比)의 육탄으로써 감연(敢然)히 적진에 몸으로 부딪힘을 결행하고 있으며, 적으로 하여금 진감(震撼)케 하고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 것은 물론, 능위가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나, 그러한 충절은 우리 군의 전통으로서 세계에 유례가 없는 숭고한 것이다.

우리 국민은 오로지 감사할 따름인 것이다.

적은 보유함대의 태반을 손실하고 반격하고자 하는 세력이 점차로 쇠퇴하는 경향에 있으며 크게 기뻐할 바이나, 여기에서 후방의 보급 더 한층의 노력을 한다면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 손 안에 들어올 때를 맞이하여 우리 종도는 분연(奮然)히 총궐기하여 민중을 향해서는 전의양양의 사상 선도를 철저히 하고, 나아가서는 생산전장(戰場)에 정신(挺身)하여 스스로 모범을 보이고, 물심양면에 걸친 모든 충성을 받들어서 황군의 순국충절에 부응함과 동시에 신속하게 성전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성은에 보답할 것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번 총독부에서 사찰의 지도감독을 강화하며 또 승려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찰령시행규





칙을 개정하고 이에 따르는 조선불교조계종총본사 태고사범 및 본말사 사법(寺法)의 개정안 준칙을 시달했으나, 이것은 우리 종으로 하여금 총본사를 중심으로 한층 단결을 굳히고 결전하에 부하된 사명을 달성시키는데 있는 것이다.

여러 사(師)들은 장차 한 층의 협력에 진력하여 총본사에 잘 순응하고 전시 교화에 극력 활동해서 감독관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종회의 의제는 주로 전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것을 심의하는 데는 쓸데없는 공문을 하지 말고 시종 호양의 정신을 발휘하여 전원일치 대동단결함으로써 적전 결전 종회다움을 양양하기 바란다.

1944년 11월 10일  
조선불교조계종총본사 태고사  
종정 산천중원(山川重遠)<sup>144)</sup>

### 종회원 제사(諸師)에게 고한다!

여기 오늘로써 제6회 중앙종회의 폐회를 명한다.

제사들은 결전하의 종문정세를 잘 직시하여 하루 반의 짧은 회기에 전시대응의 주요안건이 여기 총본사의 태세 완비에 관한 사법의 개정에 대하여 시종일관, 협력을 다하여 모두 심의결정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은 참으로 혼쾌한 일로서 이 높은 중이 깊이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제사(諸師)가 산으로 돌아간 후에 여기에서 발휘된 익찬(翼贊)의 참다운 모습을 그대로 지방에 반영해서 종도의 결전정신을 진작시키고 아울러 필승불패의 신념견지(堅持)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신속하게 성전목적의 달성을 기해야 할 것이다.

1944년 11월 11일  
조선불교조계종  
종정 산천중원(山川重遠)

### [26-2]

#### 회의

○ 제6회 중앙종회=제6회 중앙종회는 11월 10일부터 동 12일까지 경성부 종로구 명륜정 1정목 2 전 혜화전문학교 대강당에서 개최되었으나, 26명이 출석하고 의장 또 부의장에 광전종욱(廣田鍾郁, 히로다)<sup>145)</sup> 및 중광상원(重光常圓) 사(師)가 당선되어 회의를 진행한 바, 특히 타케나가(武永) 학무국장의

144) 방한암(方漢岩)의 창씨명.

145) 이종욱(李鍾郁)의 창씨명.



임석 하에 사찰령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총본사 태고사범 개정안 및 황군감사결의 기타 중요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11일은 종회원 전원이 연성에 들어가서 가와사키(川崎) 육군대령 및 사토(佐藤) 성대(城大)<sup>146)</sup> 교수의 강연을 청강하고, 12일 오전 중에는 태고사 대응전에서 황군의 무운장구기원 및 적국의 항복 대 기도법회를 개최했다.

회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제6회 조선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순서

- |  |                      |
|--|----------------------|
| － 조선신궁참배                                 | 일동(오전 6시 30분 태고사 출발) |
| － 개회식 (오전 9시 해화전문 강당)                    |                      |
| (1) 개회사                                  | 카가와(香川) 서무부장         |
| (2) 국민의례                                 | 동                    |
| (가) 궁성요배                                 |                      |
| (나) 묵념                                   |                      |
| (3) 삼귀의                                  | 야나기다(柳田) 종회원         |
| (4) 종정유시                                 | 대독(代讀) 광전(廣田) 종무총장   |
| (5) 황국신민의 서사 제창                          | 임(林) 교무부장            |
| － 회원 점검                                  |                      |
| － 임원선정                                   |                      |
| － 종무방침 구연(口演)                            | 광전 종무총장              |
| － 각부 보고                                  | 소관 부장                |
| － 감사 담당보고                                | 니시하라(西原) 감사담당        |
| － 학무국장 훈시                                |                      |
| － 사찰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선불교 조계종총본사 태고법안에 관한 설명 | 오오타니(大谷) 서기          |
| － 1943년도 태고사 수지결산보고                      | 가네타(金田) 서기           |
| － 의안 토의                                  |                      |
| (1) 교화보국정신대조직의 건                         |                      |
| (2) 1944년도 태고사 수지예산안                     |                      |
| － 기타사항                                   |                      |
| － 폐회식                                    |                      |
| (1) 폐회사                                  | 의장                   |
| (2) 종정유시                                 | 종무총장 대독              |
| (3) 사홍서원(四弘誓願)제창                         | 니시하라 감사 담당           |

146) 경성제국대학.

[26-3]

시국행사

○ 위령 제회(諸會) 조선불교조계종 총본사 태고사에서는 대조봉대(大詔奉戴) 3주년 기념을 위하여 12월 7일 오후 2시에 태고사 대웅전에서 대동아전쟁 전몰장병위령법요를 근행(謹行)했다. 당일은 국민총력조선연맹, 요네하라(米原) 경기도지방과장, 하나야마(華山) 각 연합회간사 이하 관민의 유력자 및 신도 다수가 참가했다.

○ 경성 성북경찰서 관내 16 사찰친화회(寺刹親和會)의 주최로 12월 5일 오후 1시 부내 동대문구 신설정의 보문사에서 황군의 무운장구기원 및 전몰영령위령제를 거행했다. 성북서장 및 동대문구청장 이하 관경민의 유력자 약 30명이 참가했다.

○ 고양군 승가사에서는 12월 8일 오후 1시 그 절 안에서 대동아전쟁 3주년기념 및 황군의 무운장구 및 전몰장병위령법요를 집행했다.

국방헌금=제6회 중앙중회원 총본사 및(31 본사의 주지 및 총본사 직원) 일동은 필리핀 바다 해전의 대 전과에 감사하기 위하여 11월 10일 중 회의장에서 긴급결의로써 일금 천엔을 헌금하기로 하고 곧바로 매일신보사에 기탁했다.

○ 총본사 태고사에서는 대웅전 시춧돈의 수입 및 관내 사찰로부터 기탁한 황군위문 315엔 83전을 12월 9일 매일신보사를 통하여 헌납했다(헌납자의 성명은 다음과 같다).

금액	헌납자 성명	주소
16엔 69	성불사	황주군 주남면
3,65	목촌보담(木村寶潭)	동 상
8,20	영천사	수안군 울계리
1,60	귀진사	서흥군 올리면
1,81	월명사	금천군 우봉면
1,00	관적사	곡산군 떡미면
1,60	독정사	봉산군 동선면
2,35	고산사	봉산군 사리원읍
8,00	정광사	이원군 동면
44,51	백양사	장성군 북하면
13,40	삼화사	삼척군 북삼면
12,50	개원사	온성군 유포면
20,60	월명사	경원군 경원면
14,50	복흥사	이원군 동면
21,00	표충사부산포교소 부산부	

23,00	광전창훈(廣田昌薰)	경성부 대도정 57
5,53	정광사	이월군 동면
84,09	신계사	고성군 외금강면
31,80	태고사	경성부 종로구 수송정
계 315,83		

○ 범종 불구(佛具) 헌납 : 경성부 관내 각 사찰에서 대만 바다 및 필리핀 바다 해전의 대 전과의 감사를 위하여 범종 및 불구(佛具) 691점을 수집하여 11월 11일 봉은사 주지 덕산도평(德山道平)이 대표자가 되어 해군무관부에 헌납했음(헌납한 사찰명은 다음과 같다).

#### 필리핀 바다 해전 대 전과 감사특별금속류 헌납자

헌납자 성명	헌납물건 명	개수	중량	비고
소림사	불구(佛具), 범종	26	9관 500	돈중
청연암	불구	9	2,700	
사자암	동	22	13,500	
법륜사	동	21	9,000	
영화사	동	3	4,700	
화엄사	동	3	2,000	
삼각사	동	11	1,400	
연화사	불구, 범종	250	11,250	
안양암	불구	8	5,770	
개운사	불구	29	12,500	
봉원사	불구, 범종	43	12,500	
미타사	불구	25	4,000	
백련사	동	16	4,000	
용화사	동	2	2,000	
인왕사	불구, 범종	32	6,900	
묘선암	불구	95	10,000	
청룡암	동	16	5,000	
홍천사	동	81	24,000	
계		692	150,720	

〈출전 : 『朝鮮佛教曹溪宗報』 제35호, 1944년 12월 21~22쪽〉





## IV. 천도교

친일반민족행위관계자료집  
XIV





## 1. 이돈화(李敦化)

### 1) 시국의 정해

이번 북지사변(北支事變)으로 인하여 내재적으로 포함된 중대한 핵심문제가 무엇이나 하는 것을 일언(一言)으로 표시한다면 이는 누구나 다 아는 바와 같이 '동양평화의 근본책 확립'이라는 일어(一語)에 귀결되는 것이다.

원래 동양평화에 대한 제국의 정의적 사명은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돌발된 문제가 아니오, 제국의 유신(維新)의 시초부터 필연적으로 발생된 정의적 운명인 것이다.

제국이 이 중대한 사명을 지게 된 원인에 있어서는 그중에 실로 복잡다단한 세계적 대세관계가 있으나 이를 요약하여 일언하면 서세동점(西勢東漸)이란 말은 거의 1세기 이전부터 생긴 술어(述語)이니 서양인의 근대 우수한 물질문명이 세계를 정복하기 시작하자 그 세력은 동양에 파급되어 동양천지는 실로 서양인의 식민지화 시장화할 위험성이 충분이 있었다. 영국(英)의 인도(印度), 프랑스(佛)의 베트남(安南)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세(勢)를 연장하여 세계의 부고(富庫)인 중국을 침범하게 되고 그리하여 전 동양은 침침연(浸浸然)이 서양인의 식민지화하게 되었다.

이 즈음에 우리 제국은 세계에 비교할 데 없는 국체 위에도 현대 문명을 가침(加添)하여 물질과 정신 양방면으로 장족의 진보를 하여왔다. 이에 있어서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세력은 제국의 신세력과 대항하게 되자, 동양 대 서양의 국제적 세력과 계선(界線)이 지어지면서 제국의 동양보장적 책임은 한층 중대하여졌고 따라서 동양 평화의 사명이 필연적으로 제국의 국제적 정의가 되어 왔다.

동양보장 동양평화 이 중대 사명을 가진 제국은 70년래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다대한 희생과 노력을 쏟아왔으니 중요한 예로는 일청전쟁(日淸戰役), 일러전쟁(日露戰役), 만주국건설 등이 다 제국이 동양 평화를 위한 국가적 역할이었다. 이때에 있어서 동양천지로부터 제국의 신세력을 제거하고 본다면 금일의 동양은 어느덧 서양인의 노예적 시장이 되었을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리하여 제국의 이 정의 사명을 무시(勿視)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동양 평화의 모반자이며 대의의 반역자라 할 수 있다.

이번에 노구교(蘆溝橋)사건으로 인한 북지사변(北支事變)은 결코 우연 또는 돌발한 문제가 아니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중국 군벌이 제국의 정의적 사명인 동양 평화를 무시하고 역사적 배일(排日) 또는 모일(侮日)을 하여오는 죄악의 폭발이라 할 수 있으니 이 실로 중국 민중을 위하여 천만불행한 일인데 동시에 중국 군벌의 중대한 죄악이라 할 수 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중국은 아직 완성국가라 할 수 없다. 각지 군벌이 할거한 위에 정치와 경제와 군사 등 모든 것이 통일되지 못한 점에서 중국은 아직까지 조성 중에 있는 미완성 국가이다. 그러므로 중국으로써 장차 완성 국가가 되고 그리하여 동양 평화 유지에 세력 있는 지지자가 되려면 누가 생각 하든지 동양의 선각자이며 동양의 지도적 지위에 있는 제국의 세력에 의뢰치 않으면 불가하고 또한 지도협조를 받지 않으면 불가한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사실이거늘, 중국 군벌은 이를 완명(頑冥)<sup>1)</sup>

1) 완고(頑固)하고 미혹함





불각(不覺)하고 어디까지든지 전통적 악습을 이용하여 이이제이(以夷制夷)의 술책으로 제국을 농락하며 망자존대(妄自尊大)<sup>2)</sup>의 악습으로 배일(排日), 모일(侮日)을 감행하며 원교근공(遠交近攻)의 누습(陋習)으로 동문동종(同文同種)의 제국의 신의를 배척하고 이종이문(異種異文)인 구미(歐米) 친근주의만 취하여 동양평화를 교란케 하고 군벌 등의 이기비사(利己肥私)를 전문(專務)하여 가련한 민중으로 하여금 도탄에 빠지게 할 뿐 아니라, 그리하여 동양 영원의 화근을 양성하여 전 동양으로 하여금 구미인의 시장을 조성할 가공가외(可恐可畏)한 행위를 감행함에 이르러는 제국의 정의적 책임으로는 감히 이를 좌시방관(坐視傍觀)하지 못할 뿐 아니라 동양인으로서 누구나 이를 통분(痛憤)히 생각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북지사변으로 인한 제국의 출병은 결코 중국 전 민중을 상대로 하여 한 것이 아니요, 중국의 군벌을 응징하여 그들에게 각오를 주어서 그들로 제국의 진의(眞意) 소재를 바르게 인식하게 한 후 본 사건을 국부적으로 속히 해결하게 하여 평화의 유지를 속히 달성하려는 본의였지만은 완명한 중국 군벌은 도리어 사건을 확대(擴大)해가지고 중앙군을 북상시키며 상해(上海) 해군에 대한 불법 행위를 감행하는 등-사태-이에 이르매 제국이 이제까지 은인하여 온 선의는 도리어 망자존대(妄自尊大)의 중국인으로 하여금 더욱더 사건 확대와 불법 망동을 증가하게 한 감이 없지 아니하였다. 이에 제국도 할 수 없이 단호한 최후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제국정부로서는 제2차 성명을 발하게 되었고 조선 총독으로부터도 제 2차의 시국인식에 대한 각계(各界)를 통하여 주지하게 하였다. 총독의 시국재인식의 성명 중에 있는 3대 요지에서 말하길,

1. 전회(前回) 회의에 신술(申述)한 시국인식, 제국의 세계적 지위, 중국을 바르게 이해 할 것의 3대 요항을 더욱더 강화하게 하여 더욱더 철저하게 할 것.

2. 시국은 상당히 지구여장되리라는 것을 각오하여 모든 시책을 수행할 것이요, 결코 단시일에 결말되리라는 낙관 전단(專斷)을 엄계할 것.

3. 모든 산업을 급속 또 대규모로 개발 진전함에 있어서 관민협동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

이상의 요지로 보면 이번의 사변은 국부적(局部的)으로부터 전 중국적으로 확대되고 단기적인 것이 지구적으로 연장되어 사태 점차 중대한 국면에 직면하였으며 그리하여 이 사건의 최후는 동양평화를 근본으로 확립하는 계기에 봉착하였다 할지니, 이때에 있어 국민 된 부분으로는 물론이요 동양인 된 대국적 견지로서도 이 시국을 정확히 인식하는 동시에 모든 활동을 성심성의로 하여야 할 것이다. 최후에 있어 우리 조선인으로서 가질 바 이상과 현실을 일언하면,

1. 동양은 동양인의 동양이란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동양은 동양인의 손으로써 평화를 유지하며 동양적 낙원을 건설하여 동양 영원의 복리를 창조하리라는 대이상을 회포(懷抱)하여야 한다.

2. 동양의 영구적 복리를 창조하기 위하여 첫째에 내선일체, 둘째에 선만일여(鮮滿一如), 셋째에 일지제휴(日支提携)의 3대 순서가 있는데 내선(內鮮)이 일체됨으로 선만(鮮滿)이 일여(一如)되고, 선만(鮮滿)이 일여됨으로써 일지가 제휴될 것을 상상하면 내선일체는 동양평화 확립에 실로 근본적 결뉴(結紐)<sup>3)</sup>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내선일체는 자못 이해관계뿐으로 아니라 혼(魂)과 혼(魂)의 결합으로

2) 앞뒤 아무런 생각도 없이 함부로 잘난 체함.





인하여 될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3. 총후(銃後)의 후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미 각오한 바가 있을 뿐 아니라 우리는 다만 총후의 사람만 되지 말고 총전(銃前)의 사람까지 되리라는 의무와 정의를 가지고 전선에 나간 병사를 위하여 항상 총전의 심리로써 이에 활동할 것이다.

4. 우리 교인의 각오이다. 대신사가 말씀하신 동학의 교의는 동양을 중심으로 한 교의이다. 그러므로 그 이름부터 동학이라 하고 ‘생어동수어동고이위선동방(生於東受於東故以爲先東方)’이라 하여 서양과 대치하는 의미로서의 동학 교리를 창조하였다. 원래 동양문명은 정신문명이며 서양문명은 물질문명이다. 서양의 물질문명은 이미 극도에 달하여 동양의 정신문명을 서양에 선포할 시기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로 동방에서 난 동학은 서양에까지 보급하게 할 장래가 있다. 이 점에서 우리 교인은 무엇보다도 동양의 영구평화를 위하여 타인보다도 일층 노력해야 할 것이요, 동양의 낙원을 창조하는 노력을 일층 더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의 신세력으로써 세계에 웅비할 대이상을 가져야 한다.

이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정신은,

－ 이번 시국에 대하여는 내지인 조선인 할 것 없이 국민 된 자는 한 사람일지라도 제 3자적 입장이나 태도로서 피안화시(彼岸火視)하지 말고 다 같이 이번 시국의 직접 담당자가 될 것.

－ 이번 시국이 만일의 경우에 공간적으로 더 확대되고 시간적으로 더 연장된다 할지라도 우리 국민 각자는 최후까지 절대 책임자적 의무를 감당할 각오를 가질 것.

〈출전 : 李敦化, 「時局의 正解」, 『新人間』 116호, 1937년 9월 17~19쪽〉



## 2) 전쟁과 평화

정의란 무엇이나. 이기(利己)와 같이 이타(利他)의 조화를 이룸이며 그리하여 평화를 내포한 행위를 이룸이다.

평화는 절대의 의미에서 인간사회의 정의가 됨은 사실이다. 평화가 없는 정의가 없고 정의를 전제하지 않은 평화가 없다.

우리 종교가는 원래 세계평화를 정의의 목표로 한다. 그리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 앞에 기원을 하며 신념으로써 수시수처(隨時隨處)에 염원한다.

그러나 평화란 것은 다만 일방적 견해로써 성립되어서는 안 된다. 사실의 내용은 평화의 소질이 결핍되어 있는 것을 일방적으로 그를 강해(強解)하여 현상적 평화유지로써 인도의 정의를 삼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진정한 평화가 아니요, 언제든지 파괴의 운명을 당할 불평등적 평화인 것임을 알아야 한다. 비유하여 말하면 상수(上水)와 하수(下水)가 수준(水準)적 차이가 있음에 불구하고 그를 강제로 막아 물리적 수준을 얻고자 하는 것은 이 원래 수평(水平)이 아니요, 하루아침에 궤열(潰裂)하는 날이면

3) 끈을 땀. 또는 엮어 땀음.





수란(水亂)을 일으킬만한 위험적 행위이다.

그러므로 평화란 것은 평화의 상대방이 피차 평화 될 만한 실질적 평균을 얻은 후에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가 일어나는 법이니 이것을 우리들은 일러 천명(天命)이라 하며 또한 정의의 평화라 한다.

사실 현상이 현상 그대로서는 일시적 불평등한 평화를 유지하나, 그 현상은 원래 불완전한 평화이기 때문에 어느 때든지 그 불완전한 평화가 파괴된 후에야 진정한 평화가 오리라는 사태이라면 그리하여 그 사태가 전쟁적 행위에 호소치 않으면 이루어지지 못할 만한 기회라면 따라서 그러한 기회로 생기는 부득이한 전쟁이라면 우리는 불완전한 평화보다도 차라리 완전한 평화를 얻기 위한 전쟁행위가 도리어 장래를 위하는 정의가 되며 인류를 위하는 천명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전쟁과 정의가 위에서 말한 해석과 틀림이 없다고 하고 우리는 금일 세계대세에 임한 세계적 현상을 고찰해보자.

세계현상을 이분(二分)하여 일부는 금일 현상과 같은 평화를 영원히 유지하고자 하고 다른 일부는 금일 현상은 불완전한 평화이니 이 현상을 파괴한 위에 보다 이상의 완전한 평화를 건설하자는 양 대립이 있다 하자.

전자에 속한 국가는 대개가 인구와 영토가 조화된 부분에 속한 것이 틀림없을 것이요, 후자에 속한 국가는 대개가 인구에 비례하여 영토가 협착(狹窄)한 부분에 속한 것이었다.

이 경우에 어떤 주장이 천명에 맞는 정의적 주장일까 하는 것을 세계대국적 견지(見地)인 신의 공평한 의사로써 본다면 전자의 이른바 평화란 것은 순 이기적 야심에 속한 평화이며 후자의 주장은 이기와 이타를 조화하자는 정의 인도인 것이 사실로써 표명되는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전자는 자기의 현상이 만족한 것만 생각하고 타인이 현상이 궁박(窮迫)한 것은 고려하지 않는 이기적 행위이며 후자는 자기의 궁박과 타인의 여유를 조화하자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교 신자이다. 이를 한울님의 공평한 의지에 소원해보자.

신의 안목으로 본다면 인류는 공동한 신의 자손일 것이며 지구는 신의 자손인 인류가 공동 평균하여 생활하라는 신의 영토이다. 그러므로 신의 의사로 본다면 인민을 통치하기 위하여 국가와 국가는 피아 대립하여 있는 것이 부득이한 일이라 할지라도 세계를 공리(共理)하여 그 국가와 그 국가의 인구가 평균 비례적으로 존재해야 쓸 것이 명백하다. 즉 인구에 비례하여 국가와 영토가 평균 분배되어야 신의 의사에 적합한 정의이며 또한 평화의 기초라 할 것이다.

그런데 금일 세계 현상은 어떠한가. 인구에 비례하여 영토를 광대히 가진 나라와 인구에 비례하여 영토를 협착(狹窄)하게 가진 나라가 대립해 있다. 여기에 현상유지의 불완전한 평화파와 현상타파의 완전평화 요구파가 대립되어 있다.

대일본제국은 유신 이래 완전 평화를 요구하는 국시(國是)를 가졌다. 이 완전 평화를 요구하는 정의(正義)로서는 현상적인 불완전 평화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될 운명을 짊어졌다. 이것은 다만 일본제국을 위하는 이기적 심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요 세계 대국적 견지로 보아 장래의 완전 평화를 위하는 정의(正義) 인도적 입장에서 더욱 그러할 일이다. 이 정의 인도적 국시가 연장되는 곳에 일청전쟁(日淸戰役)도 있었고 일러전쟁(日露戰役)도 있었고 만주국 건설도 있었고 이번의 일지사변(日支事變)도 일어난 것이며 그리하여 내선일체, 선만일여(鮮滿一如), 일지제휴(日支提携)라는 대 사실도 주장하게 되는 것





이다.

이번 일지사변을 다만 일본과 중국에 국한해가지고 양국 간에 어떤 이해관계로부터 생긴 것이라 협해(狹解)하는 민중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는 제국의 국시인 대이상적 견지로 본다면 10의 1을 지(知)하고 10의 8, 9는 몰각한 견해이다. 일지사변의 이상적 결국(結局)으로 본다면 그는 자못 일지사변이 아니라 세계적 영구평화를 위한 세계생활의 평등을 요구하는 사변이며 그리하여 이 사변의 결과는 자못 일본의 이익이 될 뿐 아니라 중국의 이익도 될 것이며, 따라서 지협인다(地狹人多)의 각 국의 이익도 될 것이다.

전쟁을 다만 전쟁 자체로 뿐 생각한다면 물론 불행한 일이다. 그러나 그 전쟁이 장래 완전한 평화를 위하고 장래 세계 대다수의 인류의 행복이 되는 것이라면 현재 불완전한 평화 중에서 허위의 정의를 유지하는 것보다 정의적 전쟁에 의하여 진정한 평화를 건설하는 것이 얼마나 통쾌한 일이며 신성한 일이나. 우리는 현재 이 불완전한 평화를 증시(憎視)하는 동시에 장래 영원의 평화를 위하여 일지사변의 결국(結局)을 크게 기대하고 있다.

〈출전 : 李敦化, 「戰爭과 平和」, 『新人間』 117호, 1937년 11월, 4~5쪽〉

## 2. 백중빈(白重彬)

### 1) 천도교와 동방

1. 인견(人肩)이 상마(相磨)되고 거곡(車穀)이 상격(相擊)되는 종로시 위에 서서 내려거거(來來去去)의 그 광경을 보아라. 혹은 비마경차(肥馬經車)로 분분치빙(紛紛馳騁)<sup>4)</sup>하는 자도 있을 것이며 혹은 단공초리(短筇草履)로 천천행과(喘喘行過)<sup>5)</sup>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또는 남산 잠두(蠶頭)<sup>6)</sup>이나 북악산 정수리에 올라가 경성 전 시를 부감하여 보아라. 전 시중(市中)이 진동하는 듯 들끓는 듯 홍진(紅塵) 황애(荒埃)가 만장(萬丈)이나 높음을 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홍진만장이 복잡한 가운데일지라도 각각 그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달성하려고 하는 그 목적지가 있을 것이며 그 행선지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경성 일폭(一幅)의 표면적 현상 이거니와 우리 인류사회도 동일한 율법하에서 그 행선지와 그 목적지가 있어 가지고 움직이는 그 사회는 육일승천의 기세로 발전 향상되고 이와 반대로 행선지와 목적지가 없이 지동지서(之東之西)하는 그 사회는 서산(西山) 낙조(落照)의 기세로 강미쇠퇴(姜靡衰退)의 길을 밟는 것이다.

한 국가의 성장과정도 또한 이와 같은 율법하에서 한편으로 성장되는 국가가 있는 동시에 한편으로 쇠퇴하는 국가가 있다. 이것은 시(時)의 고금과 양(洋)의 동서를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밟는 일대 율법이다.

4) 어지럽게, 번잡하게 달린다는 뜻.

5) 숨차게 지나간다는 뜻.

6) 누에머리처럼 생긴 산봉우리.





## 2. 제국신민은 동양평화의 천사

동양은 동양인으로 낙원화하려는 것이 일대 현안이며 일대 국책이다. 이러한 커다란 현안과 커다란 국책하에서 우리 제국의 코스는 움직인 지 이미 오래이다. 그간 우리 제국이 밟아온 길을 다시 한 번 돌아보자. 밟아온 과정을 회고 음미할수록 우리 제국신민은 동양평화의 천사라는 자부심이 움직인다. 우월감이 움직인다. 동양평화의 사명하에서 막대한 금전을 희생하였다. 막대한 생명을 희생하였다. 이것은 실사실(實事實)과 활력사(活歷史)가 증명하는 바이다. 일청전쟁(日淸戰爭)이 있었으며 일러전쟁(日露戰爭)이 있었으며, 일독전쟁(日獨戰爭)이 있었으며, 만주사변(滿洲事變)이 있었다. 그리하여 연전연승의 개신가(凱旋歌) 가운데서 동아의 일대 안정세력이 엄연히 되었다. 그리하여 천하 만방을 제패하게 되었다. 동아에 만약 우리 제국의 안정세력이 아니면 동방의 천지는 적로(赤露)의 천하가 되어 가지고 수라장화(修羅場化)되었을 것이며 구미열강의 각축장이 되어 가지고 사항화(死巷化)하였을 것이다.

## 3. 우리 제국의 국방

중국으로 말하면 오제(五帝)의 뒤로 붙어 지성대현(至聖大賢)이 배출(輩出)하였으며 대철대지(大哲大知)가 배출하였다. 그리하여 동방문화의 발상지가 되었던 성지(聖地)이다. 동시에 동이(東夷)·서융(西戎)·남만(南蠻)·북적(北狄)의 호기(豪氣)로써 천하 만방을 초개시(草芥視)하였다. 과연이다. 고대의 중국으로 말하면 지성대현이 배출하여서 ‘요지일월(堯之日月) 순지건곤(舜之乾坤)’<sup>7)</sup>을 구가(謳歌)하던 성지이며 대철군웅(大哲群雄)이 배출하여서 동방 문화의 찬란을 극(極)하던 중국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중국은 세원인망(世遠人亡)하고 경잔교이(經殘教弛)<sup>8)</sup>가 된 중국이다. 오늘날의 중국이야 말로 운야(運耶)야 명야(命耶)야? 성도(聖道)가 끊어진지 이미 오래였으며 성덕이 끊어진지 이미 오래이다. 슬프다. 오늘날의 중국 4억만 민중은 이매망량(魑魅魍魎)<sup>9)</sup>의 조종하에서 신음하고 있다. 구미 열강은 중국의 광대한 지면과 무진장의 부원(富源)에 탐욕이 움직이게 되었다. 양인(洋人) 그네들의 행위가 과연 어떠하냐. 어떤 때는 향이(香餌)<sup>10)</sup>의 마유(魔誘)로써 중국의 혼을 빼앗는다. 어떤 때에는 포연(砲煙) 탄우(彈雨)의 무력으로써 공취중국(攻取中國)의 만용을 여지없이 발휘하였다. 무진장의 부원을 만재(滿載)한 승지(勝地) 강산의 중국 전토(全土)는 구미 열강의 공동 식민지가 될 위기에 직면하였다. 중화민국이라는 커다란 기구는 형해(形骸)만 남은 국가라 하여도 과연 아니다. 중국의 지배층에 있는 군웅 그네들은 서양인의 마유에 혼백을 빼앗겼다. 앞으로 나아갈 행선지와 목적지가 없이 그만 서양문화의 중독에 걸렸으며 동시에 양광자(洋狂者)가 되었다. 그리하여 이이제이(以夷制夷)의 대우(大愚)를 몽(夢)할 뿐이다. 우리 제국의 국방문제는 우리 대일본제국 한 국가의 국방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황인종 대 백인종에 대한 즉 동방 전체에 대한 국방을 의미한 것이다. 현하 중국의 위성당국들아. 중국에 만일 명안달식(明眼達識)의 대정치가가 있다고 하면 이 시대의 대세에 눈을 뜰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제국의 동양평화의 의도에 손을 내밀어 일지제휴(日支提携)의 친선에 전력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위성당국은

7) 태평성대의 시기를 일컬음.

8) 좋은 시대를 멀리하고, 성인이 없어지고, 경전은 잔폐하고 교육은 해이해졌다는 뜻.

9) 터무니없이 허무맹랑한 사람들을 낮잡아 이르는 말.

10) 냄새가 좋은 미끼.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는 재물, 이익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까닭 없는 모일(悔日)과 무리한 항일을 그냥 감행할 뿐이다. 이것이야말로 동양평화상의 일대 장애물이다. 은인(隱忍)에 은인을 거듭하던 지금 우리 제국의 동병(動兵)은 결코 중국 4억만을 상대한 것이 아니다. 완명무지(頑冥無知)의 지배층에 있는 군웅(群雄) 군벌(軍閥) 그네들을 응징하기 위함이다.

#### 4. 동양평화와 수운(水雲)선생의 사상

조선근대사 상에 퇴계선생과 율곡선생이라 하면 대사상가이며 대학자이며, 대도학자이며 대정치가라고 첫 손가락을 꼽게 된다. 그의 제세경국책(濟世經國策)이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대도를 부흥한 공맹(孔孟) 이후에 일대 거벽(巨璧)이다. 그러나 국가대 국가의 우국론(憂國論)은 창(唱)한바 있으나 서세동점(西勢東漸)에 거탄(巨彈)을 던지고 동양사상을 고취(鼓吹)한 분은 오직 우리 천도교조(天道教祖) 수운(水雲) 대신사(大神師)뿐이다. 대신사의 말씀에 '도즉천도(道則天道)요 학즉동학(學則東學)이라 하심은 철두철미 동양사상의 진수(真髓)를 형용한 말씀이다. 대신사가 직접 저술한 경전(經典)중에 '서양지인(西洋之人) 도성덕립(道成德立) 급기造化(及其造化) 무사불성(無事不成) 공투간벌(攻闢干戈) 무인재전(無人在前) 중국소멸(中國消滅) 기가무진(豈可無唇) 망지환야(亡之患耶)아 하신 절구(絕句)가 있다. 이것은 서세동점하는 바람에 중국을 비롯하여 동양 전국이 흥망의 위기에 빈(瀕)하였다는 백화론(白禍論)이다. 대신사의 친술경전 가운데 '생어사(生於斯) 득어사(得於斯) 고이위(故以爲) 선동방(先東方)'이라는 말씀이 있지 않는가. 이것은 사해일가(四海一家)의 계단상 먼저 동양인은 동양인으로서의 일가일체(一家一體)가 되어야겠다는 절규이다. 의암성사(義菴聖師)<sup>11)</sup>시대에 와서 동양의 대풍운인 일러전쟁(日露戰爭)이 폭발하였다. 당시 한국사정으로 말하면 한정대신(韓廷大臣)의 전부가 노당(露黨)이요, 주상(主上)이 또한 러시아 공사관에 파천(播遷)되었던 때이다. 누가 능히 동양평화의 정신에 영합하여 대러(對露) 공동 역공을 꿈에라도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용기를 낼 자 있었으랴. 성사(聖師) 스스로 동양 평화가 재차일거(在此一舉)라는 대각오하에서 혼연 자진하여 군사금 1만 원을 육군성(陸軍省)에 헌납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도인(道人)들은 군사철도 부설에 자진 보역(補役)하였으며 동시에 군수품 수송의 노역에 자진 전력하였다. 이것은 수운대신사의 동양사상이 대를 따라 재발현 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천하의 강자로 자처하던 러시아의 세력은 우리 제국의 승리로 말미암아 10년 적공(積功)이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로 그만 구축되고 말았다. 그 후 러시아(露西亞)는 자국의 혁명으로 제국의 러시아는 거꾸러지고 적색(赤色)의 러시아가 되었다. 어제 패전의 원통함을 아직 말하지 못함인지는 알 수 없으나, 동방침략의 야욕이 그냥 그대로 남아있지는 알 수 없으나 불온한 사상으로써 동방인의 정신을 유혹 교란하기에 전력을 다한다. 동시에 만주국경에 불안을 주며 또는 중국을 통하여가지고 동방진출의 재거(再舉)를 꿈꾸는지 알 수 없는 현상이다. 불행하게도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침략적 행위는 제국의 안정세력에 '필야사도노력무공(必也斯徒努力無功)'이 되고 말 것이다. 오직 황상천(皇上天)이 또한 이러한 행위는 허락하지 않을 바이다.

〈출전 : 白重彬, 「天道教와 東方」, 『新人間』 116호, 1937년 9월, 25~27쪽〉

11) 의암 손병희를 일컬음.



## 2) 장기전 하의 가정보국

### 1.

오늘날은 동양평화라는 거물이 탄생하려고 하는 태동기이다. 작년 7월에 노구교(蘆溝橋) 일각에서 발단한 북지사변은 한 걸음 나아가 전 세계 열강의 관심의 초점인 지나사변(支那事變)<sup>12)</sup>이 되었다. 이 사변이야말로 전 세계 열강의 신경을 크게 움직이게 되었다. 원인에 원인을 거듭하여가지고 폭발된 지나사변은 앞으로 그 어디로 갈 것인가. 일지(日支)제휴의 한 형제가 되고 말 것이며 동양평화의 해독(害毒)이 일소되고야 말 것이며 그리하여 필경 동양은 동양인의 동양이 되고야 말 것이다. 일지사변이 생긴 뒤 과거 9개월 우리 제국은 응징의 사(師)를 동원시켰다. 우리 황군의 혁혁한 위무(威武)하에서 수도 남경까지 함락하였다. 이것은 항일 중국에 대한 일대 반성의 벽력(霹靂)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중국 군벌 그들은 끝끝내 우리 제국의 진의를 마이동풍에 돌리고 인도(人道)의 공적(公敵)인 공산분자군(共產分子群)을 통하여 소련과 달콤한 야합을 하려고 열중한다. 그뿐이랴. 영국 기타 열강의 간섭과 원조를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와는 끝까지 장기전을 하려고 광분중이다. 이야말로 자기의 실정과 상대방의 실정을 모르고 덤비는 ‘부지피부지기(不知彼不知己)’의 망동이며 우거(愚擧)이다. 이제야 우리 제국 정부는 외국의 마수에 번롱(翻弄)<sup>13)</sup>되어 동아 전국의 평화를 교란하고 있는 폭력(暴戾)<sup>14)</sup>정권에 대하여는 도무지 반성의 여유가 없으니만큼 이것을 시국 수습의 상대로 하지 않고 어디까지든지 응징의 수단을 다하여 근본적으로 철저히 섬멸을 기하는 동시에 참으로 제휴할만한 신흥 중국 정권과 약속하여 가지고 신흥 중국의 성립발전을 위하여 서로 양국 간의 국교를 조정(調整)하고 갱생 신흥 중국건설에 전 국력을 다하는 오늘날이다. 동시에 이 뜻을 백일청천(白日青天)하에 천하만방을 향하여 널리 천명(闡明)하였다. 따라서 장기전에 대처할 지구(持久)태도를 정비하게 되었다.

### 2.

그 간에 중국군은 우리나라 황군의 굳센 무력에 가는 곳마다 참패하였을 뿐이요. 수십만의 사상자만 내었을 뿐이다. 지금에 와서는 현저히 그 전투력을 상실하였다. 우리 공군의 무서운 폭탄에 그만 혼비백산하여 가지고 수도 남경을 구축당한 저 소위 국민정부는 멀리 중경(重慶),汉口(漢口), 장사(長沙) 등의 오지에 분산 도피하여 기식(氣息)이 얽얽(奄奄)한 가운데서 자기들의 그 기능(機能)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 또는 설상가상으로 자파(自派)간에 세력쟁투전이 있어 점차 내부적 분열과 또는 붕괴의 열(孽)이 온양(醞釀)되어있다. 경제적으로는 근대 산업기관의 대부분이 그만 여지없이 파괴되었다. 또는 해관(海關) 기타의 감수로 말미암아 재정 상태야말로 극궁황(極窮況)에서 해매는 중이다. 따라서 중국 군벌 그들의 혼단(魂胆)을 타진하여 보면

첫째, 전혀 구미열강의 원조에 의하여 퇴세(頹勢)를 만회하려고 하는 것이며

둘째, 장기전으로 나아가면 우리 제국이 피폐곤비(疲弊困憊)에 빠질 것이며 이에 반하는 내부적 대립

12) 1937년 중일전쟁을 뜻함.

13) 이리저리 마음대로 놀림.

14) 인도에 벗어나게 모질고 사나움.



혼란을 기다려 최후의 승리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소위 국민정부가 이와 같이 우리 제국의 진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장기저항은 마침내 승리에 귀(歸)한다』고 선전호언하면서 완강하게 항전의 망동에 광분하는 이사에는 우리 제국에서도 어디까지든 지 장기에 공할 각오로써 제국사명과 목적을 달성하도록 총동원 노력하여야 될 오늘날이다.

### 3.

전쟁의 승리는 물론 제 1선에 나아간 장병의 용맹 과감에 있다. 출정장병의 용맹 과감이야말로 물론 승리의 제 1요소이다. 이와 같은 비상시국에서는 국가의 경제력 충실에 총동원하는 것이 총후봉공(銃後奉公)의 일대 행사이다. 비상시국하에 있는 국민의 의무는 무엇보다 소비를 절약하여야 할 것이요, 국산품을 애용하여야 할 것이요, 저축에 힘써야 할 것이다.

근대전은 과학전이므로 전쟁이라 하면 최대의 소비를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과거 일청전쟁(日淸戰爭)에는 전비(戰費)가 2억 3,260만 원이던 것이 일러전쟁(日露戰爭)에 와서는 17억 160만 원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이번 지나사변비의 결정한 것을 보면 73억 8천여만 원이라는 거대한 숫자에 이르렀다. 과거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이 일패도지(一敗塗地)로 패전한 것은 그 원인이 무력의 약(弱)으로 그리되었을 뿐 아니라, 기실은 경제력의 부족으로 그리된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전시경제문제에 대하여 심각한 주의와 중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 4.

국민정신총동원중앙연맹에서는 장기전 중 국민정신총동원은 각 가정의 주부가 노력하는 데서 실효가 낮으므로 일찍이 각 방면의 권위자를 모아 그 실천요항을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점차 전국적으로 가정정보운동을 촉진하게 되었다. 가정정보국은 첫째 건전한 가풍을 작흥(作興)하여야 할 것이요, 둘째 적정한 생활의 실행이요, 셋째 신민으로서의 자녀를 선(善)히 양육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즉 가정정보국이다. 그러면 각 가정에서는 어떤 일을 실행해야 될 것인가. 국민정신총동원 중앙연맹에서 결정한 실천요항에 준하여 가정정보국의 실천요항을 아래에 진술하노니, 가정생활상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 1. 매일 아침 황대신궁(皇大神宮)을 요배 황실의 어안태(御安泰)를 기원

일본의 각 가정에서는 반드시 신봉(神棚)을 모셨다. 아침 일찍 일어나 세수한 다음에 전 가족이 신봉에 절을 하며 황실의 안태를 빈다. 우리 가정은 아직 신봉을 모시지 못하였으니만큼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도장을 정결하게 소제한 다음 전 가족이 한 자리에 집합하여 멀리 황대신궁을 향하여 황실의 어안태를 정성스럽게 빌자. 또는 동방을 향하여 떠오르는 아침 해에 절하는 것도 극히 좋은 일이다. 이것을 아침마다 실행하면 황은의 굉대무량(宏大無量)에 감격의 감이 움직일 것이다.

#### 2. 축제일(祝祭日)에는 반드시 국기를 게양하자

백색 바탕에 빨강게 물든 일장기야 말로 우리나라 국민정신을 상징한 것이다. 각 가정에서는 반드시 축제일에 국기를 게양하자.

#### 3. 천사 전 기도와 조선(祖先)의 봉제사(奉祭祀)와 장유(長幼)의 예를 엄수하자





각 도가(道家)에서는 날마다 하오(下午) 9시에 전 가족이 한 자리에 집합하여 한울님과 스승님과 선조전(先祖前)에 감사를 드리는 의미로 청수(淸水)를 봉전(奉奠)하고 정성스럽게 기도를 드리자. 또 조선의 봉제사를 정성으로 행하자. 친할수록 예의가 있어야 된다. 각 가정에서는 장유의 예를 엄정히 하여야 될 것이다. 동시에 전 가족이 일치협력하여 일가의 화합과 번영에 노력하자.

#### 4. 예산생활 현금매 저축 여행(勵行)

오늘날은 물가가 폭등하고 증세가 되는 때이다. 집안 살림살이에 대하여 각 가정주부가 가정경제의 합리화를 도모하며 생활설계를 수립하는데 절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가계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수입된 그중에서 먼저 얼마의 금액을 꼭 잘라서 저금하게 하자. 즉 수입된 그 가운데서 얼마를 먼저 저금하고 될 수 있는 대로 가계부의 기입을 힘써 행하자. 각 가정의 저금이야말로 전승의 대도(大道)요, 국부의 근본이다. 혹자 빈궁에서 신음하는 생활의 여유가 없으니만큼 어떻게 저금할 수 있을까, 이것은 여유가 있는 넉넉한 가정에서 할 것이라고 오해할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아무리 빈궁하다 할지라도 수입이 적을지언정 없는 법은 없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하여서라도 수입된 그 가운데서 다소를 불구하고 먼저 꼭 잘라서 장래의 삶을 위하여 저금하게 하자. 이제로 부터 어떤 가정이든지 다소를 불구하고 반드시 저금통장을 가지도록 총동원 여행하자.

#### 5. 의복을 질소(質素)하게 하자

외국에서 산출한 물품을 많이 수입하면 우리나라의 돈을 외국으로 많이 내어 보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상시에 처한 우리들은 우리나라 돈을 외국에 내어보내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되겠다. 즉, 우리나라에서 출산된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말이다. 이러한 의미 아래서 양모와 면화 등의 수입을 통제하는 이때에 있어 의복에 대하여도 될 수 있는대로 질소(質素) 간편을 도모하자. 즉 낡은 의복을 고쳐 염색하여 입는단다가 해어진 옷을 고쳐 기워 입는 것이 극히 좋은 일이다. 쓸데없이 외래의 유행을 따르는 것은 패가의 행위요, 망신의 행위요, 망국의 행위이다.

#### 6. 혼례, 장의와 기타 행사를 일체로 소질(素質) 엄숙히 행하자

우리 조선가정에서 관혼상제(冠婚喪祭)로 말미암아 남의 빚을 많이 지고 심하면 가계가 기울어 파산까지 하는 집이 얼마든지 있다. 이 폐풍(弊風)을 개혁하기 위하여 지난 1934년에 의례준칙(儀禮準則)을 반포(頒布)하게 되었다. 이것은 과분한 비용과 무용의 시간을 공비(空費)하지 말라는 것이다. 더욱 이러한 비상시국에 있어서 의례준칙을 철저히 여행하게 하자. 혼례의 의복에 대하여도 될 수 있는 대로 신랑은 청년단복을 입고 신부는 여자청년단복을 입는 것이 오히려 시국복의 특색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하여 피로연도 될 수 있는 대로 담백 간편하게 하자. 기타 일체 의식에 있어서도 허식(虛飾)과 화려에 흐르지 않도록 질소 간편을 주로 하자.

#### 7. 조침(朝寢) 조기(早起)시간 활용

조침조기(朝寢早起)는 도시에 있는 사람으로서 더욱 여행하여야 될 것이다. 일분 일각이라도 공비(公費)하는 것은 대 금물이다. '개문만복래(開門萬福來)'라는 전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문을 연자에게 복이 온다는 말이다.





#### 8. 금물(金物), 모직물, 종이 연료 등을 절약하자

물품을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물품의 진가를 모르는 사람이다. 물품을 쓸 데 없이 쓰는 것은 그 물품을 죽이는 것이요, 물품을 유리하게 활용하는 것은 그 물품을 살리는 것이다. 우리 일본 전 국민이 1개월에 한 사람이 성냥 세 개비를 모으면 1년간에 760억 5천만 개가 된다. 즉 10억상(箱) 이상의 무서운 숫자에 달한다. 이번 총후보국주간에 있어서 전국의 각 신문이 2일간 면수를 줄이면 학교 교과서 10만권이 된다고 한다. 작년 사변 이후 동경 소학생들이 총동맹하여 가지고 담배 먹고 버린 담배갑을 모으기로 하였다. 그 모은 폐물을 제지원료로 팔았는데 미만 5개월에 애국 비행기 1대가 되었다. 진합 태산(塵合泰山)<sup>15)</sup>이 이것을 의미한 말이다. 또 군수품으로서 필요한 양모, 면화, 종이, 피혁, 석유, 석탄과 금과 백금, 동철(銅鐵), 니켈, 주석(錫)등의 소비는 될 수 있는 대로 국산품 아울러 대용품 쓰게 하자. 낡은 옷, 고금물(古金物) 헌납, 누더기 낡은 신문 등 폐물은 이것을 금싸라기와 같이 알아 가지고 모아 두었다가 팔게 하자. 이 폐물이 또한 여러 가지의 제품이 되어가지고 갱생하여서 황금화할 것이다. 이런 비상시국일수록 사장(死藏)하여 버린 것을 잘 정리하여 사회에 활용하게 하자.

#### 9. 화재 기타 재해를 방호(防護)

우리 국민이 해마다 화재와 풍수해로 말미암아 받는 손해가 심히 많다. 화재로 말하면 각 가정에서 불조심만 하면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서로 경계하여 국방자원의 애호에 노력하여야 되겠다. 또 우리나라의 건물은 목조이므로 적기가 공습하는 경우이면 크게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각 가정에서는 항상 자가 방호에 필요한 것을 정비하게 하자. 또 가정 방화, 방독(防毒)에 관한 조작(操作)을 연습하여 일가 보호와 국토의 방호에 만전을 기하자.

#### 10. 아동의 육체 및 정신의 건전에 주의하자

아동은 심신발육의 가장 좋은 때이다. 깨끗이 건전하게 원만하게 발육시키자. 또는 좋은 감화를 받도록 훈련시키자. 건강한 아동이야말로 우리나라의 국보이다. 그러므로 어린이의 영양(榮養)에 유의하여 식사의 조절에 주의하는 동시에 간식을 절대로 금하여야 될 것이다. 어린이는 장래의 주인공이다. 그러므로 제 2국민인 어린이로 하여금 심신이 잘 건전히 발달되도록 노력하여야 될 것이다. 천사와 같이 어린이를 착하게 양육하지 못하여 국가와 사회와 가정에 그만 폐물이 되면 국가에 밋고 부모에 밋을 것이다.

#### 11. 도보 여행

현하의 증대 시국에 있어서 무엇보다 생산의 증대와 국방의 강화에 전력을 다하여야 되겠다. 견인지구(堅引持久)의 정신을 선히 함양하여야 될 차제이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건강이 절대 조건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건강에 절대 유의하는 것이 이 또한 보국운동의 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간단한 운동은 도보로 걷는 것이 제일이다. 출근의 왕복이든가 물품사기 위하여 상점에 갈 때에 도보로 거래(去來)하게 하자. 지금은 전시이므로 가솔린 한 방울에 피 한 방울보다 존귀한 때이다. 그러므로 쓸데없이 자동차를 타는 것은 대 금물이다. 극장에 갈 때에 자동차를 타는 것은 얼빠진 자의 행위라고

15) 띠끌모아 태산.





할 수 있다. 만부득이(萬不得已)한 경우 외에는 도보로 거래하게 하자. 도보행에 세 가지 큰 이익이 있는 것을 알자. 첫째에는 운동이요, 둘째에는 교통비요, 셋째에는 연료이다.

#### 12. 금주 또는 절주 여행

가정의 음식물 중에 제일 고약한 것은 술이다. 취하면 탈선되는 행동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가정의 비극은 술 때문에 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 우선 무엇보다도 건강에 해롭고 가게상에 또한 남비(濫費)가 되는 것이다. 만약 금주가 어려울 경우이면 절주를 하는 것이 좋겠다. 더욱 미성년자의 음주와 꺾연은 법률상 금지되어 있으니만큼 이것을 엄수하도록 어른들로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특히 부인들이 담배 빠는 것은 보기에다 좋지 않다. 도는 건강과 미를 해하기 때문에 단연히 먹지 않는 것이 좋다.

#### 13. 인리(隣里)화목 상호부조

우리나라에는 예로부터 인리상부(隣里相扶)의 미풍이 있다. 인리는 이웃사촌이다. 환난상구(患難相求)를 먼 곳 있는 육친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 친구들이 하여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리화목에 성의를 다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고래(古來) 미풍이다. 더욱 오늘날과 같은 비상시국에 있어 인리화목, 상호부조의 미풍 아래서 공습, 화재 기타의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서로 협력하여 가지고 방호에 대처할 미풍을 길러야겠다.

#### 14. 백미식(白米食)을 폐하고 현미식을 여행(勵行)

혼사도(混砂搗) 백미가 영양상 좋지 못하다는 것은 과학상으로 널리 증명된 것이다. 현미를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운동은 이미 동경의 일본부인단체 연맹에서도 부르짖는 것이다. 그리하여 혼사도를 금지하는 법규를 정하여 가지고 취체(取締)<sup>16)</sup>하게하여 달라는 요망(要望)까지 있었다. 현미의 영양이야 말로 강진한 체력을 기르는 일대 영양소이다.

〈출전 : 白重彬, 「長期戰下の 家庭報國」, 『新人間』 123호, 1938년 6월, 22~27쪽〉

### 3) 비상시 하의 국민적 각오

#### 1. 현대전과 국민개병(國民皆兵)

일월영측(日月盈昃)과 신숙열장(辰宿列張)은 자연계의 상태이다. 이 자연계의 상태야말로 '고여시(古如是) 금여시(今如是) 자약불변(自若不變)'이다. 그러나 인사에 있어서는 불완전으로부터 완전에 향하는 과정상 변화무궁의 그 율법을 밟는 것이다. 우선 인류 전란사(戰亂史)를 더듬어 보자. 낡은 것을 청산 파괴하고 새것을 창조 건설하는 데 절대적 임무를 가진 국가전쟁의 유래를 더듬어보면 고대의 전쟁과 현대의 전쟁이 완전히 서로 다른 것을 알 것이다.

16) 단속.





즉 고대의 전쟁은 전선에 나아간 군대와 군대만이 싸운 것이다. 고대에 있어서 전투원만 전장에 나가 싸웠을 뿐이요, 그 총후에는 비전투원은 하등의 관심이 없었다. 동시에 그 생활도 또한 오초(吳楚) 흥망을 마이동풍에 돌리고 한갓 한민(閑民)적 생활을 할 뿐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전쟁은 군대와 군대만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즉 국력과 국력이 싸우는 전쟁이다. 과거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천하에 능히 막을 자가 없는 위무(威武)를 자랑하는 독일강국이 일패도지(一敗塗地)로 백기를 든 것은 군사의 병력 부족으로 그리된 것이 아니라 독일 전 국민의 정신적 동요와 경제적 쇠퇴로 말미암아 그만 국력 저상(沮喪)<sup>17)</sup>에서 그리된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전쟁은 정치와 경제와 사상과 군사와 외교와 산업과 윤리와 교육 등 일체에 있어서 일치총력화(一致總力和)되어 가지고 진(陳)에 임하여야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하에서 오늘날 전쟁은 전투원과 비전투원의 구별이 없게 되었다. 동시에 국민개병(國民皆兵), 국민적 의무하에서 남녀노유(男女老幼)를 막론하고 다 같이 시간(時艱)<sup>18)</sup> 극복과 국위선양의 그 임무를 맡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금후의 전쟁은 군대와 군대가 전장에서 싸우는 그것뿐으로 좌우될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가지고 있는 국력충실의 우열에 의하여 승패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설령 군대가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배후에 있는 그 국민의 정신이 건전 일치되지 못하고 그 국민의 행동이 건실 일치되지 못하면 최후의 승리는 오유(烏有)<sup>19)</sup>에 돌아가고 말 것이다. 더욱 오늘날 전쟁은 과학전이니 만큼 항공기가 전쟁에 절대적 위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항공기의 위력하에는 첫째, 일정한 전지(戰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시체제의 막(幕)만 열리면 어느 곳이든지 전지 아닌 곳이 없을 것이다. 둘째는 적기가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날아와서 폭탄과 독가스(毒瓦斯)를 떨어뜨릴지 알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투원과 비전투원의 구별이 없이 누구든지 내가 전투원이다 하는 심경에서 방적(防敵)에 자임하여야 될 것이다. 비록 연약한 부인일지라도 군인이 군사훈련 받는 것과 같이 방적(防敵) 지식과 그 훈련을 받아야 일조유사(一朝有事)의 추(秋)<sup>20)</sup>에 국방의 한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이다. 즉 남자가 외출하고 부인 혼자 있을 때에 적기가 날아와서 폭탄을 떨어뜨리는 경우에는 그 적탄을 막아낼 수 있을 만한 방재(防災)의 지식과 훈련을 준비하여서 방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훈련과 준비를 받는 것이 이에 전투원적 심경이다. 그뿐이랴. 현하 비상시국하의 일체봉공(一切奉公)에 있어서 어떤 경우 어떤 일이든지 전투원적 심경을 가지고 그 경우와 그 일에 임하여야 될 것이다.

## 2. 1년여의 전과와 그 영향

이번 지나사변에 인적과 물적 양 방향을 통하여 막대한 희생을 치렀다. 이 희생이야말로 천명(天命)에 의하여 움직인 성전인지라 천우신조의 수호 아래에서 위무당당한 그 전과야말로 동양평화사상에 일대 금자탑이 되었다. 작년 7월 28일에 고노에(近衛) 수상이 중국 문제에 대하여 중의원(衆議院)에서 이러한 연설을 하였다. 즉 “중국 영토 보전에 대해서는 우리 일본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20년래 창도하여 온 대의(大義)이다. 그 길은 오직 외력의 중국침략을 저지하여야 될 것이다. 오늘날 중국의 항일, 모일

17) 기운을 잃음.

18) 시국의 어려움.

19) 개무(皆無), 아무것도 없음. 있던 사물이 없게 되는 것을 이르는 말.

20) 유사시에.





(侮日)의 배후에는 코민테른 등 잠동(蠶動)이 있다. 이러한 책동(策動)에 미혹하여 중국의 군벌이 오늘 날과 같이 일지(日支)간의 분쟁을 양출(釀出)하는 것은 결국 동양 민족 스스로가 동양을 약하게 하는 행동이다. 하루라도 속히 반성하여 동양과 제휴하여 가지고 동양의 문화와 동양의 흥복을 위하여 힘을 다하는 자각이 생겨나기를 바란다.”는 의미의 장광(長廣)의 연설을 내리었다. 과연 모배(膜拜)<sup>21)</sup>할 지언(至言)이다. 이번 지나사변에 우리 황군의 출정은 중국으로 하여금 응징 반성하여서 음험무도의 백인종의 독아(毒牙)에서 벗어나 중국을 갱생시키려는 것이 그 목적이다. 우리 제국의 고원(高遠)한 이상하에서 응징의 사(師)를 동한지 어언 1주년을 경과하였다. 풍풍우우(風風雨雨) 과거 1개월 동안에 우리 황군의 혁혁한 전적을 논하면 속성(速成) 속달(速達)의 감이 없지 않다. 우리 황군의 위무를 발휘함에 따라서 북지(北支), 중지(中支)의 전폭(全幅)과 남지(南支)일대는 벌써 옥일승천의 기세로 일장기가 휘날리어 파사현정(破邪顯正)<sup>22)</sup>의 기염(氣焰)을 천하에 직충(直衝)하게 되었다. 동시에 백일당천(白日當天)에 만물상도(萬物相睹)<sup>23)</sup>로 중국 사람들로 부터 중국 갱생의 도에 눈이 열리게 하였다. 즉 국민정부의 기반(羈絆)<sup>23)</sup>을 벗어나 우리 제국의 회중(懷中)에서 중국을 살릴 수 있겠다는 각성하에서 신중국 건설의 기운이 팽배(澎滂) 발흥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작년 12월 7일에 왕극민(王克敏)씨를 수반(首班)으로 하여 가지고 중화민국 임시정부가 성립되었다. 이 임시정부는 방공(防共) 멸당(滅黨) 친일(親日)을 3대 목표로 하여가지고 쫓기하였다. 그리하여 일만지(日滿支) 삼국의 친선 공영하에서 초공멸당(剿共滅黨)을 적극적으로 하기로써 부월(斧鉞)<sup>24)</sup>을 잡았다. 현재 이 신정권은 하북성(河北省), 산둥성(山東省), 양 공서(公署) 및 북경, 천진의 양 특별시와 산서성(山西省) 임시정부주비위원회(臨時政府籌備委員會)와 하북성 자치정부 등을 관할하여가지고 행정과 재정과 금융과 문화 등 각 방면에 걸쳐 착착 그 성과를 나타내는 중이다. 따라서 신민회(新民會)라는 것이 설립되었다. 신민회는 신정부의 옹호와 민심파악의 강력 기관으로서 일만지(日滿支) 융화의 실현에 절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다음에는 몽강(蒙疆)지방의 새로운 각성하에서 찰남(察南) 자치정부와 진북(晉北) 자치정부와 몽고연합자치정부의 세 지방 정권이 대두하게 되었다. 장가구(長家口)에서 이것을 통합한 몽강연합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그리하여 일만지 제휴 공영의 북지나개발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북지(北支)방면은 이와 같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착착 조정되는 즈음에 한편, 중지(中支)방면에서는 먼저 상해(上海)에 대도시정부가 성립되어가지고 상해시와 그 부근 일대의 치안유지와 부흥에 절대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자 우리 황군이 남경을 함락하면서 부터 신정권수립의 기운이 대두하게 되었다. 본년 3월 28일에 행정원장 양홍지(梁鴻志)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화민국 유신정부가 탄생되었다. 그 조직과 정강(政綱)이 북지(北支)임시정부와 같으니만큼 조만간에 북지임시정부와 남경유신정부가 합병통일 되어가지고 갱생 신중국의 중앙정권이 탄생할 거냐고 하는 방식(方是) 태동중이다. 이와 같이 북지와 중지와 및 남지의 천지는 일지공영의 정신하에서 정치와 외교와 산업과 경제의 각 방면을 통하여 우리 제국의 국책과 병행하여서 갱생 신중국은 건

21) 무릎을 꿇고 하는 절.

22) 사건과 사도를 깨고 정법을 드러내는 일.

23) 굴레를 씌운다는 뜻으로, 자유를 구속하거나 억압함을 이르는 말.

24) 출정하는 대장에게 통솔권의 상징으로 임금이 손수 주던 작은 도끼와 큰 도끼. 정벌, 군기, 형륙(形戮)을 뜻한다.







실한 걸음을 걷게 되었다. 동시에 동양평화의 계명성(鷄鳴聲)이 중국 산하대지를 움직이는 오늘날이다. 이와 같이 성전을 개시한지 1년여의 짧은 시간에 삭북(朔北)<sup>25)</sup>의 변토(邊土)와 남지의 고도(孤島)에 이르기까지 빛나는 일장기를 휘날리게 되었다. 연전연승의 무훈도 무훈이거니와 이번 사변으로 말미암아 국가가 비약적으로 대선양되었으며 전국민을 통하여 또한 획기적 대훈련을 주었다. 즉 이번 지나사변으로 말미암아 전국민에게 좋은 영향을 준 그 점을 들면,

- 1) 국론통일이다. 지나사변으로 말미암아 전 국민의 혼담(魂膽)이 극긴장 되었다. 동시에 진충보국의 충렬한 생각하에서 구구(區區)한 사상문제와 구구한 감정문제로 마찰상극의 알력(軋轢)이 일소되었다. 동시에 숭엄한 국체의 인식과 팔굉일우의 황도정신하에서 더욱 내선일체의 신념이 철저히 강화되었다.
- 2) 경신숭조(敬神崇祖)의 신념이 한층 강화되었다. 비상한 경우를 당하여 신에 귀의함은 인간의 상정이다. 오늘날은 동아의 흥폐(興廢)가 이 일거에 걸린 일대전시(一大戰時)이니만큼 선천적 운동으로 만능의 신에 소원을 기원하며 소원을 빌게 되는 것이다. 사변이후 오늘날 전국 각지를 통하여 신사참배 기원자가 날이 갈수록 격증(激增)되는 호현상이다. 동시에 숭조(崇祖)의 관념과 아울러 충효의 근본적 도덕이 전국민을 통하여 심각화 되는 좋은 경향이다.
- 3) 미풍진작(美風振作)이다. 사변의 대응책으로 근로(勤勞)보국이니 건강(健康)보국이니 신앙(信仰)보국이니 저축보국이니 생산보국이니 거국총동원하여 보국운동이 대두되었다. 이 보국운동의 군호(軍號)하에서 근검(勤儉), 원기(元氣), 신앙(信仰), 노력, 견인질실(堅忍質實)의 미풍이 획기적으로 대진작 되었다.
- 4) 산업방면에 득의양양의 활기를 얻었다. 광대한 북지(北支)를 무대로 하여가지고 경제적 활동의 희망이 떠오르게 되었다. 동시에 산업방면에 눈이 열리게 되어 방시(方是) 산업계(產業界) 호기인 것을 알게 되었다.
- 5) 국방상의 훈련경험을 얻은 것이다.
- 6) 우리 제국의 배후에는 신의 수호가 확실히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황군 도처에 아무리 난공불락의 천험(天險) 지대일지라도 파죽(破竹)의 세와 같이 연전연승의 무훈을 본 까닭이다.

### 3. 장기전의 각오

이번 지나사변은 단순한 장(蔣)정권을 상대로 한 무력전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어 가지고 동아를 적화(赤化)시키려고 하는 공산주의의 해악을 근본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함이다. 즉 중국의 배후에 있는 백인종 그들을 진정한 적으로 한 것이다.

- 1) 장(蔣)정권의 궤멸도 상당한 시간을 요하려니와 장정권이 궤멸된 뒤에도 치안확보와 산업개발과 경제건설 공작에 상당한 시간을 요하게 될 것이다.
- 2) 중국은 지면이 넓고 인구가 많은지라. 예를 들면 넓은 방에 파리잡기와 같은지라. 그러므로 상당한 시간을 요할 것이다.

25) 북방.





3) 소위 국민정부에는 배일(排日)사상과 모일(侮日)행동을 대국시(大國是)로 하여 가지고 적극화하였다. 이것이 그만 질병화하였다. 이 그릇된 배일사상과 항일행동을 시정하려면 왕도(王道)로 나아가 건설할 것은 건설하고 패도(霸道)로 나아가 파괴할 것은 파괴하여야 될 것이다. 즉 왕패(王霸) 양도의 겸용에 상당한 시간을 요하여야 될 터이다.

이러한 이유하에서 이번 사변은 장기에 걸치지 않을 수 없는 중대성을 가졌다. 총후국민은 시국담당의 전투원적 심경을 가지고 총동원 전진하여야 될 때이다. 즉 국력충실의 전제하에서 물자절약의 큰 봉화를 높이 들자.

〈출전 : 白重彬, 「非常時下の 國民的 覺悟」, 『新人間』 125호, 1938년 8월, 140~143쪽〉

### 3. 최린(崔麟)

#### 1) 기관교무에 대한 5대 요항 - 1월 4일 시무식 석상에서

여암선생(如菴先生)

금년에는 지난 8일 기념시에 반포한 '교화요지(教化要旨)'에 대한 전반적 보급실행을 부단히 강조 강화하여야 될 것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중앙기관으로써 교무(教務)에 대한 표준을 세운다면 좌의 5대 요항을 들 수 있다. 그는 무엇이나. 첫째는 조직강화. 둘째는 교화통일. 셋째는 신앙의 기도화. 넷째는 도의(道義)의 현실화. 다섯째는 보국(報國)의 신앙화이다. 이상 다섯 가지를 기관 사무의 표준으로 하여 만사를 그 표준 밑에서 실행하도록 하라. 이제 이 5대 요항에 대한 서명을 붙인다면

첫째 조직 강화. 국체생활에 있어서 단체, 즉 조직이니만큼 조직이 강화되지 않으면 그는 생명 없는 육체와 마찬가지로 생명 없는 육체는 곧 시체이다. 그러니까 조직강화 그것은 진리만 보아도 그러하거니와 더욱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특히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왜 연래(年來)의 우리 교회에서는 규제에 대한 변동이 빈번하였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일반의 인식부터 불철저한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제도가 틀려서 일이 안 되나 뜯어 고쳐야 밤낮 마찬가지로'하고 규제변동을 아주 무의미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없지 않은 줄 안다. 허나 그러나 기실은 과거의 누차 변동도 이 조직 강화를 하기 위한 변동이었고 결코 타의가 아니었으며 또는 과거 변동을 실패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과거의 실패 즉 그 쓰러진 경험에서 새로운 길을 찾는 금일의 성공을 얻게 된 것이다. 우리는 신성사(神聖師)의 유법(遺法) 유훈(遺訓)을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다. 금일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게 된 연원제(淵源制)는 우리들이 창작한 법이 아니라 근본 천도교의 법이오, 선사(先師)들의 법이다. 연원제는 당초 대신사(大神師)때로부터 용담수류사해원(龍潭水流四海原)에 근거한 천연(天然) 자재(自在)한 교법인 동시에 성사(聖師) 말년에 연원제 타파의 물의가 있을 때에 "연원제에 폐해가 있다면 폐해점만 고치고 제도 그것은 파괴하지 말라"고 하시었다. 우리들은 우리들 스스로의 다년간 경험에 의지해서 이를 깨닫게 되었다. 우리는 금일





실시하는 연원제 근본정신이 이러하다는 것을 철저히 인식하는 동시에 일보갱진(一步更進) 이 제도를 강화시켜야 한다.

둘째 교회통일. 세상 사물이란 상호관계성이 있다. 이 교회통일도 위에서 말한 조직강화와 서로 관련된 것을 알아야 한다. 즉 조직을 강화하는데서 교회를 통일할 수 있고 또는 교회를 통일하므로 해서 조직을 강화할 수 있다. 의암성사(義菴聖師)께서는 '신앙통일'을 강조하셨지만은 오늘날에는 먼저 교회를 통일하여야 될 줄 안다. 신앙통일은 신자 각자를 표준한 말씀이지만은 교회통일은 기관 전체를 표준한 말이다. 그렇다면 무엇으로써 교회를 통일할 것인가. 여기에는 오직 대신사의 본지(本旨)대로 천도교의 본색대로 지도하는 그것인 줄 안다.

셋째 신앙의 기도화. 이것은 벌써 수년전부터 시행해 오는 것이니만큼 다시 부연할 필요가 없거니와 여하튼 우리의 일상생활로 수도생활은 기도생활로 돌아가는데서 비로소 영감과 실징(實徵)을 얻을 것이다.

넷째 도의(道義)의 현실화. 우리 교의 중지는 현실생활에 치중하니 만큼 즉 타종교의 교의와 같이 내세타계(來世他界)가 아니라 금생금세주의(今生今世主義)이므로 타 종교의 신자들이 자기의 머리 속에 천당과 극락세계를 그려가지고 그 속에 잠기어서 현실 세계를 냉시(冷視) 혹은 원격(遠隔)하려는 그것은 일종의 관념유희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교인도 이 종류 관념유희의 혐의(嫌疑)가 다소 불무(不無)하다. 그러므로 금후 우리는 도의 그것을 실생활에 반영시켜서 도의가 곧 실생활이 되고 실생활이 곧 교의와 상합일치(相合一致)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보국(報國)의 신앙화. 천도교 역시 세외(世外) 별계(別界)의 존재가 아닌 바에는 인간사회에 있어서 가장 주대한 관계를 가진 것은 국가이니만큼 국민된 의무로서의 보국의 정신을 철저히 가질 것은 물론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국정신을 신앙화 시켜야 한다. 이 역시 나의 사의(私意)가 아니라 대신사의 근본정신이다. 대신사께서 보국안민을 얼마나 역설하신 것은 제군도 다 아는바 아닌가. 천도교로써 영국인을 가르친다면 영국인으로서의 보국이 있을 것이요, 프랑스인을 가르친다면 프랑스인으로서의 보국이 있을 것을 당연하지 않겠는가. 이런 의의에서 우리는 우리 국가에 대한 보국정신을 가져야 할 것 가지되 의무적으로 할 뿐 아니라, 아주 신앙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다.

이상에 말씀한 5대 요항(要項)은 기관사무의 표준으로 정하여 그 표준 밑에서 모든 것을 진행시키도록 하라. 다시 한 번 거듭 말씀하면

첫째, 둘째는 상호인과관계를 가진 것으로 이것이 잘되므로 저것이 잘되고 저것이 잘 되므로 이것이 잘 되게 된 것이며, 셋째는 그 모든 일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며, 넷째는 이상 3항 중에서 얻은 힘으로서 현실생활을 도의화 시킬 것이며 다섯째는 현실생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국가생활을 완전히 하자는 것이다.

다음 사무적으로는 첫째 『신인간(新人間)지(誌)』에 대한 것이다. 교회상으로 볼 때에 신인간의 사명이 중차대하다. 중앙에서 여비를 써가면서 지방교회를 전체적으로 매월 매월 순회하여 교회를 보급시키자면 이는 현재 형편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신인간』은 능히 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아니 이것이 『신인간』지의 사명이다. 이 사명을 다하려면 먼저 신인간지의 위신이 서져야 하고 위신이 서려면 먼저 내용충실을 다하라.





그 방법으로는 첫째, 중앙 소식을 여실히 지방교인에게 통해주라. 지방교인이 집에 앉아서 중앙의 진면목을 보도록. 둘째, 교의를 정당하게 하라. 교의해석에 대한 논문은 중요한 권위 있는 논문 한두 편을 실고 습작에 가까운 논문은 게재하지 말고 대전(大全)가사(歌詞)중에 있는 신성(神聖)의 법설(法說)을 그대로 활용하는 동시에 교리상 모순이 없는 정도에서 유불경전의 필요한 구절도 이용하도록 하라. 셋째, 현실생활에 대한 상식(국가생활, 사회생활에 대한 상식) 생활개선 세상소식 등을 평이 또는 간명(簡明)하도록 하여 『신인간』 한 권이 곧 수도생활의 지침도 되는 동시에 현실생활의 등대도 되도록 하라. 이렇게 하는 데는 사(社)책임자에게만 전탁(專託)할 것이 아니라 중앙 직원이 공동노력을 하도록 하라.

그 다음 각관(各觀)에 있어서 금년에 특히 노력할 방면은 대외활동보다 대내 건강충실을 도모하라. 우리 교회는 현하 정신적으로 보나 물질적으로 보나 불건강 상태에 있는 것이 가장 우려할 점이다. 쇠약한 사람에게는 최선문제가 건강회복이다. 건강이 회복된 뒤에야 대외활동을 마음대로 할 것이다. 우리의 앞에는 희망이 크고 활동무대가 넓다. 이 넓은 무대에서 우리의 희망을 이루려면 먼저 우리 자체의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여야 할 것이다.

〈출전 : 如菴, 「機弱教務에 對한 五大 要項」, 『新人間』 120호, 1938년 2월, 2~4쪽〉

## 2) 시국과 교의

여암선생

이 문제는 지난 8일 기념 다음 날 기념강담회에서 여암(如菴) 선생께서 말씀하신 것인바 단순한 국민적 입장에서 시국을 인식하는 것보다도 특히 우리 천도교인의 입장에서 권권복옹(拳拳服膺) 명기실천(銘記實踐)하여야 할 시국보감(時局寶鑑)이요 시국지침이오니 만천하 독자제위의 재삼상람(再三詳覽) 하길 바라는 동시에 다만 기자의 속기가 선생의 말씀하신 해박과 오묘(奧妙)를 진선진미(盡善盡美)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만을 사례(謝禮)합니다.

### 1. 신앙보국주의 강화

- ① 천도교의(天道教義)의 보국안민주의(輔國安民主義)를 철저히 신봉하라.
- ② 국가 의존의 종교신앙을 독실히 하여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배격하라.

신앙보국이란 것은 국민으로서 종교 신앙을 바르게 하여 국가에 보익(補益)이 되게 한다는 뜻이니 금일 우리 천도교 신도로서 신앙을 어떻게 하면 국가에 대해서 유익할까. 나는 여기에서 가장 먼저 국체관념이 명료하여야 보국정신이 강회되리라고 믿는다. 보통으로 일본 국가를 일본제국이라고 하지만 나는 일본 황국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 적당할 줄로 안다. 제국이라고 하면 오히려 제국주의적 구취가 있지만 황도니 황군이니 하는 말과 같이 만세일계의 황실을 중심으로 한 국가를 황국이라고 하는 데서만 명실히 상부(相副)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세계무비의 황국국체는 과연 다른 나라 국체들과의 특이한 점이 무엇일까. 보통으로는 국가에 대한 정의를 내리울 때에 영토, 인민, 주권 이 3자를 들게 되고 그리하여 그 3자를 대등적으로 인식하는 동시에 주권으로 말하면 혹은 민주적 국가도 있고 혹은 군주적 국가도 있거니와 일본은 황실을 중심 위에 신민과 영토가 부수(副隨)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타국은 영토, 인민, 주권이 상대적으로 되었으나. 우리 일본은 황실이 절대적으로 되었단 말이다. 그러므로 타국을 법제적 공리적 국가라고 하면, 일본은 윤리적 도의적 국가이다. 여기에서 의시군신(義是君臣) 정유부자(情猶父子)라는 군민일체의 독특한 일본정신, 일본도덕이 수립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국체관념을 명확히 가져야 한다.

다음은 내선일체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여야 한다는 위에서 말한 일본국체에 대해서 혹시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다. 일본인대 황국문제는 과연 타국에 유례가 없는 윤리적 도의적이라고 할 것이다. 허나 그러나 신부(神附) 민족인 우리 조선 사람까지야 그렇게 될 수가 있겠는가 하고 의심할 사람도 있을 줄 안다. 그러나 일본인 조선인이 그 근본에서 동일한 것을 알게 될 때에 그러한 의심은 자연적 소멸되리라고 생각한다. 내선일체란 것은 결단코 법률이나 조약을 기초로 하고 나온 말이 아니요. 그 이상 근본문제에 기인한 것이니 먼저 내선인(內鮮人)<sup>26)</sup>을 혈연관계로서 고찰하여 본다면 양(兩) 민족은 실로 동혈(同血) 동종(同種)인 것을 알 수 있다. 고고학자의 말에 의하면 상고(上古)에는 현해(玄海)가 근본으로 없었다고 하나 그는 별문제로 하고라도 3국 시대 이후의 사적만을 보아도 일선인이 상호왕래 잡거(雜居)한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내가 연전(年前) 도쿄에 갔을 때에 고려촌(高麗村)에 대한 사회(史話)을 들은 일이 있다. 전설에는 고려왕이 1,800명의 부하를 인솔하고 일본으로 건너갔었는데 그는 본래 덕망이 후중(厚重)한 인격자이니만큼 당시 정부에서 특별 우대를 하여 지금 사이타마현(埼玉縣) 지방에 널려서 살면서 일본인과 상호통혼을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조선에는 이조(李朝) 이후만 하여도 일본인으로 조선에 와 돌아가지 않은 자가 허다한 중 당초에는 항왜(降倭) 운운하였으나 그 후 차츰 차별대우를 철폐하여 순연히 동일 민족화한 사실이 파다한 것을 볼 때에 일본인의 혈관 속에 조선인의 피도 섞이었고 조선인의 혈관 속에 일본인의 피도 섞인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므로 일선인은 한 번 합하고만 보면 그야말로 물에 물을 탄 것 같아서 차수피수(此水彼水)를 분별 할 수가 없나니 이것이 내선일체의 기본 조건이요.

다음은 지리적 관계이니 지리적 관계는 길게 말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쉽게 알 일이거니와 그야말로 내지와 조선은 순치보거(脣齒輔車)<sup>27)</sup>와 같아서 상호 불가분리할 처지이며, 그 다음은 문화적 관계이니 내선 양 문화는 실질적으로 보아도 발원이 동일한 것이 또한 사실이다. 다만 중간에 분파가 되어 왔기 때문에 이 강(江) 저 강(江)에 좌우 풍경은 서로 다른지 모르지마는 물인즉 동일 원천에서 발원한 동일한 물이다. 이와 같이 이상 3대 관계를 인식할 때에 비로소 내선일체(內鮮一體)는 인위적 법제적이지 아니요, 그야말로 선천적 천연적임을 바르게 인식하게 될 것이다. 신앙보국주의를 강화하는데 있어서 또 한 가지 분명히 인식하여야 될 것은 국가와 종교에 대한 관계이다. 일반 종교로 말하면 대개는 내생주의(來生主義), 타계주의(他界主義)이다. 즉 차생(此生)은 찰나요, 차계(此界)는 고해(苦海)이니 차생

26) 일본인과 조선인을 함께 이르는 말.

27) 입술과 이 중에서 또는 수레의 덧방나무와 바퀴 중에서 어느 한쪽만 없어도 안 된다는 뜻으로, 서로 없어서는 안 될 깊은 관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차계에서는 아무리 하여도 고생을 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후 천당이나 사후 극락을 목적하고 신앙을 하게 된다. 그런 까닭에 현실적 차계인 국가에 대한 관념이 박약할 것은 면부득(免不得)의 사실이거니와, 우리 교에 있어서는 그 근본주의가 금생주의(今生主義=此生極樂 : 차생극락), 차계주의(此界主義=地上天國 : 지상천국)이니만큼 차생, 차계에서 잘 살자면 무엇보다도 보국안정이 선결 조건이 된다. 인리(隣里) 친척(親戚)의 집에 수재(水災)나 화재(火災)가 있어도 내 집의 안정을 얻지 못하거늘 하물며 우리의 현실생활에 있어서 무상의 기본체가 되는 국가가 안태(安泰)치 못하고야 어찌 차생 극락을 운위(云謂)할 수 있겠는가. 천도 교의(敎義) 자체에 보국안민주의를 내포한 것도 그 의의가 사실상 이 점에 있다.

다시 말씀하거니와 우리는 신앙보국주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첫째 국제관념을 명확히 가지고, 둘째 내선일체를 바르게 인식하고, 셋째 국가와 우리 교에 대한 관계를 분명히 체득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천도교 신도는 보국행동을 천도교주의에 의지해 이를 중심으로 실천하고 실질로써 강행하자. 그렇게 하는 데서 춘추(春秋)가 자생하고 성심이 자발(自發)할 것이다.

## 2. 신동아건설 이상 확지

- ① 천도교의(天道敎義)의 대동방주의(大東方主義)를 철저히 인식하라.
- ② 국민정신총동원연맹에 협조익찬(協調翼贊)하라.

신동아건설의 대이상을 파지(把持)하는데 있어서는 먼저 지나사변이 왜 생겼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줄 안다. 지나사변의 근인(近因)으로 말하면 장개석(蔣介石)의 불령(不逞)한 소치(所致)라고 할 것이다. 나 역시 과거에는 장개석을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한 적이 있으나 지금에 보면 장(蔣)은 대세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는 사실상 중국 자체의 고�혈 내지 생명까지를 침식(侵蝕)하는 저 서양 제국(諸國)을 의뢰하여가지고 동문(同文)동종(同種), 순치보거(唇齒輔車)의 관계를 가진 일본을 배척하는 것은 마치 도적을 친하기 위하여 형제를 배척함과 같은 행위이며, 뿐만 아니라 그대로 순치(馴致)<sup>28)</sup>해 나간다면 중국 자체는 멸망의 일선을 걸을 뿐이니 일본으로서 어찌 순망치한(唇亡齒寒)의 자경(自警)이 없을 것이며 이웃집에만 붙는 불이라도 어찌 좌시만 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관계에서 이번 사변이 일게 된 것이며, 원인으로 말하면 적어도 수 백 년 전부터 지어졌다고 할 것이다. 중국인 4억만이 금일의 변을 당한 것은 중국인 자체가 이런 변을 당할 만한 빌미를 지어온 반면에 일본인은 유신(維新) 이래 얼마나 굉장한 일을 하여왔는가. 생활은 향상하고 인구는 증식하니 차일의 초옥토정(草屋土鼎)의 생활을 그대로 계속할 수 있겠는가. 생각하면 금일의 지나사변은 일본의 야심이 아니라 자체 팽창(膨脹)의 부득이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금차 사변은 일방적 일시적 원인이 아니요, 쌍방 공작의 역사적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전쟁이란 무력(武力) 상공(相功)을 말하는 것이나 다른 각도에서 보면 국가 변동의 하나의 현상이라고 할 것이다. 마치 불이 일었다하면 불은 곧 파괴다. 불붙은 폐허에는 남은 것은 회신(灰燼)뿐이다. 그러나 상당한 시간을 경과하여 보면 불붙은 폐허는 다시 변하여 신시가, 신촌락이 재건설됨과 같아야

28) 짐승을 길들임. 목적한 상태로 차차 이르게 함.





전시상태는 오직 파괴가 있을 뿐이나 전후에는 새로운 현상이 지어질 것이며 또는 불이 붙을 때에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오직 진화일사(鎭火一事)에만 전력하지마는 일단 진화가 된 뒤에는 백화점 지을 사람은 백화점을 짓고 이발소를 지을 사람은 이발소를 지으되 각자 자력과 기능에 따라서 자유대로 건설 할 수가 있음과 같이 전시에는 국민 전체가 전쟁일사에만 총동원협력하지마는 전후 건설에는 문화적 경제적으로 각자의 역량대로의 발전을 도모할 것이다.

그런데 결국 건설이 불완전하다면 그 책임은 불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번 지나사변은 일본이 불을 질렀다하면 그는 현재보다 훌륭한 건설을 전제로 한 까닭에 이를 성전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우리 제국의 이번 전쟁은 저 서양인의 식민지적 침략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말이다. 이는 지난 19일 아리타(有田) 외상이 재경(在京)외인(外人) 기자단에게 선명(宣明)한 동아신질서 건설은 일만지(日滿支) 3국의 정치 경제 문화의 각반에 걸친(互) 호조연환(互助連環)의 관계를 수립함에 있다는 것과 다음 이 신질서 건설의 이상은 제국주의 착취와는 근본적으로 판이하다 그러므로 이 건설에 대하여 찬성하는 국가는 십분 고려하지마는 반대하는 국가는 이를 불고(不顧)한다고 하였으며 또는 22일 고노에(近衛)수상의 담화의 형식으로 발표한 제국정부의 일지(日支)국교조정방침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일만지(日滿支) 3국은 동아 신건설에 대하여 상호 제휴하는 것을 공동 목적으로 하여 상호 선린우호(善隣友好), 공동방공, 경제제휴의 결실을 거두자는 것으로 동양문명 동양사상과 근본적으로 불상용(不相容)할 저 코민테른의 노력을 동아 천지에 구축하자는 것과 일본은 중국에서 경제적 독점을 꾀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나아가 동아를 이해하는 선의의 제3국의 이익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과 일본은 중국에 대하여 영토적 야심이 없다는 것과 또는 전비(戰費)배상문제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과 다음의 중국의 주권을 존중함은 물론 중국의 완전 독립을 위하여는 필요한 치외법권 철폐, 조계(租界) 반환 등 까지라도 불린(不吝)한다는 등등인바 우리는 여기에서 지나사변에 대한 우리 제국 성전의 목적이 무엇이며 신동아건설의 이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다.

제국정부의 이번 성명은 참으로 동서고금사상에 드물게 보는 도의적 성명이다. 우리 조선 사람은 일찍이 친일(親日), 친청(親淸), 친미(親米)의 각당 각파가 있었던 만큼 금일까지도 타국의존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마는 우리가 한 번 지도를 펼쳐 놓고 세계를 주시할 때에는 백인종 이외의 사람으로는 누구나 혈관 속에 피가 뛰고 주먹이 저절로 쥐어질 줄 생각한다. 저 백인들이 유색인종을 대우하는 꼴이란 실로 언어도단(言語道斷)이다. 동양인으로서는 상당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요, 여행권까지 가진 사람이라도 상륙한 뒤에는 곧 이민국(異民局)이란 데를 보내어져서 병의 유무, 금전의 유무를 조사하여서 병은 없고 금전은 있어야 비로소 자유를 준다. 이 한 예만 가지고도 그들의 인종차별의 관념이 얼마나 강한가를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근일(近日) 신문지상에 자주 전파되는 범미회의의(汎美會議)란 것을 생각해 보라. 범미회의의 목적은 미주(米洲) 40여 국의 공동 단결에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이 동양에 있어서 동아주의를 고조(高調)하는 것이 무엇이 불가하랴 말이다.

우리 천도교 신도로서 이 동아건설 이상을 파지(把持)하는 데에는 단순히 국민으로서 국책에 순응한다는 것보다도 천도교 자체가 가진 바 대동방주의를 철저히 인식하는 데서 더욱 더 효과적일 줄 안다.

말하자면 ‘서양지인(西洋之人) 승전공취(勝戰攻取) 무사불성(無事不成) 중국소멸(中國消滅) 기가무순망지탄야(豈可無膺亡之嘆耶)’아 한데서 대신사의 대동방 사상이 일어났다면 서세동점(西勢東漸)에 의





지해서 중국이 멸망한다면 일본이 어찌 순망지환(辱亡之患)이 없겠는가 하는데서 이번 성전이 일게 된 것이니, 오늘날 천도교도는 100년 전에 제창한 대신사의 사상을 사실로써 실천할 시기이다. 그러므로 우리 천도교도는 만인일심(萬人一心) 다 같이 국민정신총동원연맹에 완전 합류하여서 성심성의 적극적으로 협조익찬하기를 바란다.

### 3. 총력전의(總力戰義) 체득

- ① 천도교의(天道教義)의 광제창생주의(廣濟蒼生主義)를 철저히 파지(把持)하라.
- ② 방공사상(防共思想)을 선전하며 생산력 확충과 수입력 증대에 의하여 소비절약 저축장려에 노력하라.

옛날의 전쟁은 오직 병력과 병력의 상쟁을 전쟁이라 하였지마는 금일의 전쟁은 다만 무력전만이 전쟁의 전부가 아니요 그 이외에 경제전 사상전, 외교전등의 여러 가지 전쟁이 있나니 이 여러 가지 전쟁을 통칭하여 총력전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오늘날 국민된 우리는 이 총력전의 의의를 명확히 체득하는 데서야 비로소 충후보국의 정신이 강화될 줄 생각한다. 그리고 무력전을 제 1선 장병의 부담이라 하면 경제적 사상전 같은 것은 충후 국민의 부담이라고 할 것이다.

방공사상은 오늘날 일본 국민에게 부과된 대 임무이다. 1억의 국민이 한결 같이 이 방공사상에 붙타지 않으면 성전의 전과를 유효 또는 완전히 수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실패는 결단코 무력전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의 침입으로 인한 국내 교란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명약관화하다. 뿐만 아니라 방공사상은 신동아건설의 대 성업에 있어서도 필요불가결한 절대한 요건인 것은 재론할 필요도 없다.

다음은 경제전이다. 이 경제전에 있어서의 최후 승리는 무엇보다 국민 자체의 경제 충실에 계재(係在)한 것이니만큼 우리는 안으로 우리 자체의 가진바 자력(資力), 기술, 노력 등을 총동원하여 경제 각 부분의 모든 생산력을 확충함과 동시에 군수품이나 기타 생활필수품으로서 국외 수입에 의한 것을 그를 수입할 만한 힘을 증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수행하는 데에는 국민 전체가 비상시에 적응한 생활을 개선하여 소비 절약 저축 장려를 적극적으로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한 사람의 옷 한 벌 쌀 한 되의 절약이나 한 사람의 10전 20전의 저축이 그 개인으로서 보잘 것 없는 듯 하지만 국민 전체가 공동으로 실행한 결과는 마치 만류도동(萬流到東)에 종성대해(終成大海)를 함과 마찬가지로 클 것이다.

최후로 한 말씀 더할 것은 단단무타(斷斷無他) 오직 행일자(行一字)이다. 참으로 이 세상은 말이 많고 글이 많은 그만큼 도리어 실행(行)의 편(便)은 극히 적은 줄 안다. 우리는 종교가이다. 종교가가 보통 사람과 다른 점은 오직 '행' 일자에 있는 줄 안다. 우리 천도교도는 금차 시국을 대처함에 있어서 머리로 인식할 뿐 아니라 몸으로서 철저실천하기를 권고하여 마지않는다.

〈출전 : 如菴, 「時局과 教義」, 『新人間』 131호, 1939년 2월, 2~7쪽〉







## 4. 조기간(趙基堯)

### 1) 우리의 나갈 길은 단 하나뿐

#### 1. 머리말

홍아의 성전을 일으킨지 어제 같건만 벌써 4년째 되었다. 성전 일으키던 첫날부터 중대시국! 비상시국! 초비상시국 등등의 표어로 시국의 비상성을 표현하여왔다.

그러나 이제는 시간이 길어진 만큼 전 국민이 이들 표어에 중독 마비되고 취하여 도리어 시국의 중대성을 잊어버리는 듯한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복잡 다단한 국제적 정세를 고찰하건대 시국은 더욱더 장기화 심각화 광범화 하여 감을 본다면 갈수록 더 한층 중대화함은 사실이다. 이러한 비상시국을 우리의 눈앞에 현실적으로 보면서 자가(自家)의 화재(火災)를 ‘대안화시(對岸火視) 인가화시(隣家火視)’한다면 ‘자가자신(自家自身)’의 전소개망(全燒皆亡)을 기다리고 바랄 뿐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때에 우리 전 국민은 어떤 대 각오를 가지지 않아서는 안 된다. 홍아 성업 제 4년을 맞으면서 시국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재삼(再三) 음미하며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2. 시국의 중대성

이 시국을 가르쳐 중대운(重大云), 비상운(非常云)하는 말은 할 필요조차 없거니와 그러나 까딱 잘못하면 현대는 에누리 많은 세상에 에누리 많은 인간이라 전 국가, 전 사회적으로 부르짖는 이 비상시국 운운도 에누리하여 듣기가 매우 쉬울 줄 안다. 에누리해서 들었다가는 대 낭패이다. 돌연히 별일 큰일도 아닌 것을 국민을 총동원시키기 위해서 자극시키는 한 방법인 줄로 생각한다면 그 결과에 있어서 여간 큰 낭패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번의 사변 즉 홍아성전은 어떠한 일인가. 한울님께서 우리 아시아인에게 부여하여 주신 천여(天與)의 생존권을 확보하는 운동이며 지구의 주인공으로 자처하는 백인에게 견탈(見奪)되려던 황인의 소유 거지를 탈환하는 사실이다. 이 신성한 사변을 제 3자인 서양인이 중상(中傷)적으로 해석 선전하는 것처럼 침략 행위니, 영토적 야심이니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성업(聖業)완성에 추호라도 지장이 된다면 이는 동아인으로서 천여의 생존권과 천여의 주거지인 성지낙토를 영영 한울님과 백인에게 반환하는 사실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의 지나사변은 동아인의 생(生)이냐, 사(死)냐 하는 문제이며 동아의 유(有)냐, 무(無)냐 하는 그 결과적 운명에 있어서 그야말로 동서양의 황백인의 최후 마루씨름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는 이번 시국을 위하여 얼마나 중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함을 깊이 느끼지 않으면 안 된다.





### 3. 최상의 전법(戰法)

전법을 논하기 전에 먼저 전쟁의 종류를 말하면 무력전, 경제전, 외교전, 사상전, 문화전 등등을 들 수가 있다. 이들의 종합전을 말하길 국가총력전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적어도 현대적 전쟁으로서 완전히 이기었다고 하자면 이 총력전에 이겨야만 완전히 이겼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면 이 총력전을 총지휘 총지배 하는 총사령관은 누구인가. 이는 두말 할 것도 없이 그 나라의 국민의 정신이 그것이다. 이 총사령관 하나 이 철저(徹底) 도저(到底)한 연후라야 무력, 경제, 외교, 사상, 문화 할 것 없이 어떤 부문전에서도 개개(個皆)히 승리를 얻고야 마는 법이다.

그러므로 고인(古人)의 전법(戰法)에 '지피지기(知彼知己)라야 백전백승(百戰百勝)'이라 하였으니 그만큼 정신을 주도(周到)<sup>29)</sup>히 써야된다고 하였고 '선전자불노(善戰者不怒)'라 하였으니 이 역시 형색(形色)으로 싸우기보다도 정신적이라야 된다는 말이며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잃지 않으면 산다는 속담도 정신력이 무엇보다도 크다는 일리를 도파(道破)한 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전 국민이 철저 도저한 정신을 가질 수가 있을까.

### 4. 정신의 골자는 신앙력

사람의 생활은 하나로부터 열까지 일체를 정신으로 지배함은 두말이 필요없거니와 같은 일에도 철저한 정신력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이 오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실패만 거듭하게 되는 법이다. 뿐만 아니라 같은 일에 같은 사람으로서도 도저한 정신력을 그 일에만 집중 시켜서 성의와 노력을 다해서 할 때의 일과 그렇지 못한 때의 일은 같은 일에 같은 사람이면서도 그 결과에 있어서 천양(天壤)의 차이가 생겨지는 것을 명확히 알 수가 있다. 이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때에 크게 문제 삼아야 될 것은 정신문제이다. 어떻게 해야 전 국민의 정신을 일치하게 한 덩어리에 강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그리함에는 무사도의 정신적 교육도 과학 지식의 학교교육도 필요함은 물론이나 남녀노유의 전 국민으로 하여금 지식과 경우를 초탈하는 무조건적인 절대정신을 배양하는 종교교육이라야 가능할 것이다. 미증유의 중대시국은 거익(去益) 중대화 장기화 하여 가는 이때 안으로 총후국민의 생활안정문제, 밖으로는 사변의 수습처리문제, 내외 다사다단을 극한 이대 최깁긴사(最喫緊事)<sup>30)</sup>는 국민의 정신적 통일을 황도국가주의의 신앙화 함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함에는 국가로써 종교운동을 크게 장려하여 전 국민으로 하여금 거개(擧皆) 종교단체에 편입하도록 하며 그리하여 각 종교단체의 조직을 통하여 황도 국가주의의 정신적 교육을 주입시켜 전반 신도에게 신조(信條)화 내지 신앙화 시킴이다. 다른 무슨 방법보다도 간이(簡易) 또 속성(速成)의 길일 것이다.

〈출전 : 趙基業, 「우리의 나갈 길은 단 하나뿐」, 『新人間』 143호, 1940년 2월 9~10, 19쪽〉

29) 주의가 두루 미쳐서 빈틈없이 찬찬함.

30) 깁긴(喫緊) : 아주 긴급함.





## 2) 분기하자! 분기하자! 국민개로의 대진군으로 - 일을 아니하는 것처럼 부끄러운 일이 없다

천곡정(天谷正)

국제 정세는 긴박하였다. 정말이다. 참말이다. 총후국민도 다 같이 일어나자. 그리하여 우리의 총력을 발휘하자. 노무동원 계획에 의한 생산력 확충은 무엇보다 필요한 중대한 일이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중앙 정부에서 노무동원에 관한 네 가지 새로운 법령까지 작성되었다.

일본에서는 오는 10월부터 조선은 한 달 늦게 11월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이 네 가지 법령은 결국 국민개로운동으로 남녀노유 할 것 없이 총력을 다하여 국가가 요구하는 사업을 위해서 거룩한 맘을 흘려가며 일하자는 것이 이 새 법령의 근본정신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총후의 의무로서 거룩하고 유쾌한 표현의 한 가지로 근로 봉사에 배전의 노력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 1. 노무동원관계법령

오는 11월부터 조선에도 새로 실시될 네 가지 법령은 지난 9월 11일, 12일 이틀 동안 국가 총동원법 심의회에서 가결되었는데 노무동원관계의 것이 다섯 가지나, 그중 조선에서 실시될 것은 네 가지이다. 두 가지는 개정된 것이고 두 가지는 새로 결정된 것이다.

국민직업능력신고령 중 개정과 국민징용령 중 개정 이 두 가지는 개정이고, 노무조정에 관한 칙령안과 국민근로보국대에 관한 칙령안만을 지극 간단히 말하면 국민보국대에 참가할 사람은 물론 '제국신민'으로 하고 13세 이상 40세 미만의 남자, 14세 이상 25세 미만의 미혼여자가 전부 참가하되 적어도 1년에 30일 이내의 국가적 근로를 해야 한다. 그러므로 국민된 자는 반드시 국가를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관념을 넣어주며 특히 육해군 군인, 기타 국민징용령에 의하여 징용된 자는 보국대에 참가하지 않아도 좋으며 조선에 있어서는 각종 총력연맹과 애국반의 근로보국대에서 지시하는 근로보국대에 쫓아가면 된다. 그리고 지원에 의하여는 연령제한 없이 누구든지 다 근로보국대에 들 수 있다.

### 2. 근로모범의 제1인자

사람의 가치는 근로를 떠나서 찾아볼 곳이 없다. 만일 사람에게 근로가 없다면 고귀한 생명을 가진 보람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이것을 근본적 토대로 하고 세운 교회가 우리 천도교이다. 대신사는 "너희라 무삼팔자, 불로자득 하단말가"라고 말씀하시어 근로가 없이는 무엇이나 얻어지는 법도 없고 되는 법도 없다는 것을 움직일 수 없는 우주 자연의 대법칙으로 말씀하셨고 또 "이내팔자 좋을진대, 희락은 벼를 삼고, 고생은 희락일세"라고 하시어 근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희락이 따라오고 근로가 없는 곳에는 반드시 희락이 달아나 버리는 법이니 너희들 역시 팔자가 좋으려면 언제나 항시 근로로 벼를 삼아 희락이 스스로 찾아오게





할 것이요. 만일 팔자가 사나우려거든 근로를 멀리해서 희락을 도망질시키라 하시었다.

대 신사의 이 정신에 의지하여 우리 천도교는 노고근면(勞苦勤勉) 네 자가 근본적 토대이며 기초가 된 것이다.

대 신사의 이 입교정신을 가장 잘 체득해서 실천적으로 표현하신 어른은 두 말할 것도 없이 우리교의 제2세 해월신사이시었다.

해월신사께서는 거의 일평생을 당시 정부의 지목으로 해서 도피 생활을 하셨다. 지목에 쫓기어서 어디를 가시든지 방에 들어앉으시기만 하면 언제나 신을 삼으셨고 방을 쓸으셨고 구들장 한 곳을 고치셨고 담벽에 흠집을 하셨고 채마밭을 매셨고 실과나무와 뽕나무를 심으셨고 밤새도록 노끈을 꼬셨고, 하시다 하시다 못해서 일하실 재료가 아무것도 없이 될 때에는 할 수 없이 꼬았던 노끈을 도로 풀어서 다시 꼬시는 일까지 하시었다. 이 얼마나 근로의 정신이 철저하시었는가. 이 사실은 오늘날까지의 천도교 역사상에 빛나는 광채를 발휘하심은 두 말할 것도 없고 아마도 동서고금을 통해서 거의 유래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우리들 동덕은 이런 어른의 제자된 것만을 영광으로 생각하기보다 이 어른의 체행하시던 이 근로를 배워 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빛나는 영광일 것이다.

### 3. 충후봉공은 무엇이 제 일인가

우리 1억 신민은 바야흐로 끓어오르는 그 북받치는 애국의 열은 거의 100도에 오른 줄 믿는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황국은 하루바삐 대동아공영권을 확립할까, 세계 신질서 건설을 한시 바삐 할 수 있을까 해서 혹은 도시로 큰 거리로 혹은 농촌의 논밭 두렁으로 눈을 이리로 저리로 굴릴 줄 안다. 우리나라는 적어도, 약하여도, 보다 더 큰 강한 나라를 이길 수 있는 조화는 없나?

또 돈 나오나라하면 나오고 곡식 나오나라하면 나오고 총대포·군함·비행기 우리가 원하는 물건은 다 나오라 하면 다 나오는 그러한 무슨 화수분이라고 할까, 조화 바가지라고 할까. 이런 무엇이 없나하고 일억 국민은 눈을 두리번거리고 있을 줄 안다. 그 화수분 그 조화 바가지가 곧 이 근로이다.

우리 1억 신민이 단 한 사람과 같이 되어 가지고 낮으로 밤으로 밥 먹고 잠자는 시간 이외에는 쉬지 않고 거저 거저 자꾸 자꾸 일하고 또 일하면 일하는 그 속에서는 쌀도, 옷도, 집, 총, 대포, 군함, 비행기 무엇 무엇 할 것 없이 우리가 요구만 하면 무엇이든지 모조리 다 잘 나온다. 이러한 끔찍스러이 좋은 화수분, 조화 바가지를 우리의 몸, 머리, 손발 속에 다 감추어 두고 멀리 다른 곳에 가 찾으려고 할 필요가 조금도 없다고 단언한다.

우리 1억 신민은 남녀노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성한 사람, 병신 할 것 없이 다 가지고 있는 이 화수분, 이 조화! 바가지를 다 내여놓자! 근로! 근로! 그것이다.”

〈출전 : 天谷正, 「奮起하자! 奮起하자! 國民皆勞의 大進軍에러!」,  
『新人間』 160호, 1941년 10월 8~10쪽)





### 3) 3백만 동덕(同德)에게 읍소

#### —백년 이후의 나를 생각하고 남녀노소 다같이 일어납시다

최근의 국제정세는 더욱 더욱 날로 긴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1억 국민 더욱이 우리 3백만 동덕은 정신적 각오는 어떻게 가져야 옳으며 육체적 행동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함에 대하여 커다란 작정이 있어야 됩니다.

시시각각으로 닥쳐오는 비상중대 전무후무한 이번 이 시국에 대하여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것인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을 절대로 무섭거나 두려워할만한 시국이 아니라 참으로 좋은 시국입니다. 여러 말할 것도 없이 한울님이 시키시는 후천개벽의 새 세상을 새로 만들어 내시는 그 시국입니다.

여러 말 할 것 없이 한울님이 시키시는 후천개벽의 새 세상을 새로 만들어 내시는 그 시국입니다. 이번 이 시국이야말로 인간으로서 다시 만나 볼 수 없는 천재일우의 호시국입니다. 대신사의 말씀하신 “시호시호내시호 부재래지시호로다, 만세일지장부로서 오만년지시호로다”하신 그 시국입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이리하며 세계열강이 각기 제 욕심 채우려는 그것만으로서 와질 것입니까. 이 시국이야말로 참으로 한울님의 행정이요 정사입니다. 우리들 1억 신민 더욱이 우리 동덕은 우리의 심신 전체를 통째로 바쳐서 마음껏 힘껏 한울님의 이번 행정을 절대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경신 4월 초 5일에 대신사 각도 이후 오늘날까지 82년 동안 대신사께서 세우신 ‘보국안민, 포덕천하, 광제창생’의 목적을 달성 관철시키기 위하여 사람은 얼마나 죽었으며, 빌기는 얼마나 빌었습니까. 이런 시국이 하루 바빠 와서 하루바빠 새 세상이 건설되기를 얼마나 축원하였습니까. 이제 이 시국이야말로 기다리고 바라던 그 시국이 왔습니다. 82이년이나 우리들이 저녁마다 아침마다 맑은 물을 떠놓고 빌어 축원하던 그 일을 지금에 우리의 황국은 전세계 전인류를 향하여 구주(救主)적 책임과 구주적 입장에서 책임을 지고 나서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간단히 말한다면 우리 교회의 종교적 이상이 전연 혼연일치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들 동덕은 황국신민인 신민적 입장에서 황국에 충의를 다할 것은 물론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도적 입장에서 남달리 한층 더 솔선자진해서 능동적 진취적으로 정신적 물질적 일체를 그대로 싹 쓸어서 다 바쳐버리고 그대로 막 국가의 긴박한 시국을 향하여 돌진 맹진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비상중대 시국이 시시각각으로 마치 바다의 밀물이 밀어 들어오듯이 밀려 닥쳐오는 이때 일수록 더욱더 침착하고 더욱더 냉정해야 됩니다. 결단코 허둥지둥 덤벼서는 안 됩니다.

대관절 이번 시국의 성질을 먼저 정확히 잘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국을 간단히 그 요령을 들어 말한다면 이번 이 시국을 잘 돌파하고, 못하는 데로서 우리나라, 전 동양, 전 유색 인종이 있고 없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이니 가정이니 자손이니 반도이니 하는 작은 문제는 더 말할 여지도 없이 됩니다. 그런 때문에 이번 일만은 잘되어도 그만, 못되어도 그만인 상대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 물질 생명 할 것 없이 우리의 가진 바 일체를 다 바치고 다 던져서 이번 일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까지 중대시국인 것을 우리가 철저히 인식한다면 우리가 야길 것은 무엇이든 할 일은 무엇입니까. 감출 것은 무엇이든 표리를 달리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거둬들일 말씀하거니와 우리가 정말 이 시국을 똑바로 보고 깨달아 보기만 본다면 우리의 머리는 냉정하여 질 것이요, 우리의 태도는 침착하여 질 것입니다. 굳은 침을 삼킬 것이요, 쥐었던 주먹은 한번 더 단단히 쥐어질 뿐입니다. 입에는 말이 없어지고 “해보자!”하는 말 한 마디를 속으로 부를 뿐입니다. 우리의 나아갈 길은 환하게 보여 지고 우리의 머리는 썩 단순하여지고 맑습니다. 우리의 몸은 가벼워지고 우리의 할 일은 아주 쉬워지고 맑습니다. 이렇게 최후 비장한 각오를 하고 나서 최후로 나라는 자신과 세상과의 모든 관계를 한번 묵묵히 생각하여 봅시다.

‘첫째 나라와 나, 둘째 부모와 나, 셋째 스승과 나, 넷째 사회와 나, 다섯째 동양과 나, 여섯째 전 세계와 나, 일곱째 만물과 나, 여덟째 전 우주와 나, 아홉째 한울님과 나, 열째 시간과 나’

이렇게 대강대강 추려 생각하더라도 나 자신과 가장 중요한 직접 관계를 가진 중점만을 치더라도 십여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나와 직접 관계있는 잠시라도 떠날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에 나와 전 우주를 통하여 천 가지 만 가지 어느 것 한 가지라도 나와 관계없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나의 이 한 몸이란 것은 전 천지우주만물이 총동원해서 ‘나’라는 한 개의 영물을 빚어 내인 것은 사실입니다. 나의 이 한 몸이란 것은 이렇게 전 우주의 총의 총력으로써 만들어낸 일대 걸작품이니 만큼 반드시 그만큼 가치를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걸작품의 최고가치를 발휘할만한 가장 절호한 기회는 이번 이 시국이 분명합니다. 동아공영권 확립, 세계 신질서 건설, 이는 확실히 한울님의 행정이신 후천개벽입니다.

대우주의 대걸작품인 나를 이러한 전무후무 우주 갱생운동에 아니 바치면 그것은 두었다 무엇에 쓰리까. 충신되고 순도되어 죽어도 죽음이 없는 장생불사하는 일은 이번 이 일이 기회뿐인 줄 압니다.

〈출전 : 趙基槩, 「三百萬 同德에게 泣訴」, 『新人間』 161호, 1941년 11월, 7~8쪽〉

#### 4) 징병제 실시와 국어<sup>31)</sup>보급

천곡정(天谷正)

##### 1. 머리말

국민으로서 최대의 의무인 동시에 최대의 권리라고 할 것은 그 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는 병역의 의무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황은이 망극하여 2천4백만 반도 적자들에게도 나라의 방패로서 총칼을 들고 싸움터에 설 날이 드디어 왔다. ‘일한(日韓)합병’ 이래 일시동인(一視同仁)의 홍대무변(鴻大無邊)<sup>32)</sup>하신 황은을 입고 33년 동안 귀여움을 반잡고 있는 반도 적자가 얼마나 이날이 오기를 고대하였는가.

31) 일본어.

32) 매우 크고 끝이 없는.





세계 신질서 건설의 군호인 1931년 9월 18일의 만주사변 이래 황국신민으로서 국민적 자각은 점점 싹트기를 시작하여 지나사변 발발이후 5개월 동안의 반도의 애국열은 국방헌금으로 충후봉공으로 날이 갈수록 불타게 하고 있던 중 작년 12월 8일에 벌어진 대동아전쟁은 순국열을 최고조로 폭발시키어 누구나 다 총칼을 메고 이 성전에 참가하기를 고대하여 마지않았다. 1938년 지원병제도가 실시되던 첫 해에 3천 명이 못되던 지원병 지원자는 1939년에는 1만 2천 명, 1940년에는 8만 4천 명, 1941년에는 14만 5천 명, 대동아전쟁하의 1942년에는 25만여 명이라는 숫자로 비약하였고 물질적 적성(赤誠)으로는 지나사변 5개월 동안에 국방헌금이 1천 2백여만 원, 비행기 헌납이 84기이던 것이 이번 대동아전쟁으로 확대되자 작년 12월 8일부터 지난 4월 말 까지 다섯 달이 못 되던 짧은 동안에 국방헌금이 육해군에 2천5백여만 원, 비행기 헌납이 2백 92대로 비약하였다. 이 숫자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일부에만 국방의 중임을 맡아 볼 수 있는 지원병제도만으로는 반도인의 애국지성은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웅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의무 병역제도를 하루바삐 실시하여 달라는 것은 요원(燎原)의 불과 같이 반도의 산하를 휩쓸고 있던 중이다. 여기에 비추어 총독부에서는 중앙당국과 신중 협의한 결과 드디어 다섯 번째의 대조봉대(大詔奉戴)일인 5월 8일의 합의(閣議)에서 1944년도부터 조선에도 징병제도를 실시할 것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1940년 8월에 실시된 창씨제도와 아울러 반도인으로 하여금 명실이 같은 황국신민이 되게 하려는 획기적 제도인 것은 다시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로써 조선 사람도 일본인과 꼭 같은 충성을 천황폐하께 다할 길이 열린 것이다.

## 2. 국민과 징병제도

현대적 국가의 국민으로서 만일 병역의 의무가 없는 국민이 있다면 이것은 누가 생각하던지 완전한 국가가 아니거나 그렇지 않으면 완전한 국민이 아니거나 둘 중 어느 하나일 것이다.

그러므로 적어도 현대적 국가라면, 국민이라면 반드시 병역의 의무란 것이 필수 조건이 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생존경쟁이 격심한 이때이므로 만일 병역의 의무가 없는 국가국민이 있다면 이는 그 존재를 하루도 유지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병역의 의무를 모르는 국민은 거세(去勢)의 국민, 무골(無骨)의 국민이다. 그러므로 병역의 의무를 충실 완전히 함으로서만 규율적 정신이 강렬하여지고 조직력, 인내력, 복종심, 희생성 등등이 풍부 배양되어 그야말로 훌륭한 현대적 국가의 국민이 될 것이며 나아가 충절, 예의(禮儀), 무용(武勇), 신의(信義), 질소(質素) 등 대일본제국의 국방을 책임지는 세계에 비교할 데 없는 독특한 황군이 될 것이다.

## 3. 징병제 실시와 국어문제

징병제 실시와 국어문제란 말은 '일한합병'이 30년하고도 2년이다. 아직도 그 시일이 일천(日淺)한 조선반도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현상이다. 언어란 것은 한 민족, 한 국민의 정신 즉, 혼을 담고 있는 기구이니만큼 반도인의 황민화 운동에 있어서 이 언어문제가 제일 조건인 중심문제가 됨은 물론 보편적 일반 국민생활에 있어서도 국어를 불통(不通)하면 일체생활에 자연히 뒤떨어지게 되어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결국은 자연소멸의 지경을 스스로 밟게 되는 결과를 지을 것이다.

더구나 한 나라의 중대한 국방의 책임을 짊어지는 그 나라의 초석이오 동량이오 간성(干城)인 군인





으로서 만일 국어를 모른다면 앞으로 가라는지 뒤로 가라는지 적국의 비행기가 온다는 말인지 고사포(高射砲)를 쏘라는 말인지 말라는지 이 말을 할 줄도 모르고 들을 줄도 모른다면 일국의 가장 중대한 국방임무 운운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1944년에 만 20세 되는 적년자(適年者)는 국어야 아나 모르나 징병검사를 받게 되어 있느니 만큼 특히 이 적년자는 그때까지의 국어능통에 절대 노력하여 ‘병어리 귀머거리’ 군인이 반도에서 단 한사람도 나오지 않도록 절기불기(切企不己)한다.

(출전 : 天谷正, 「徵兵制 實施와 國語普及」, 『新人間』 167호, 1942년 6월, 8~9쪽)

## 5) 성전필승의 3대 요결 - 대동아전쟁 1주년에 제(際)하여

일연(逸蓮)

### 시작하는 말

대신사(大神師) 하신 말씀 “일천하(一天下)의 변복운수(變復運數) 다시 개벽(開闢)이니런가”하셨고 “천운(天運)이 순환(循環)하사 무왕불복(無往不復)하시나니”하셨고 “부하고 귀한 사람은 이전 시절 빈천이요, 빈하고 천한 사람 오는 시절 부귀로세”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천리의 윤회 순환하는 성쇠(盛衰)의 이치를 도파(道破)하신 말씀입니다.

1931년에 만주사변(滿洲事變), 1937년에 지나사변, 1941년에 대동아전쟁 이렇게 사변과 전쟁이 계속하여 층생첩출(層生疊出)하게 된 것은 개인주의, 자유주의를 구성 원리로 한 국가군의 대표 미영의 세계제패권이 괴멸되기 시작한 것이요, 그 반면에 오랫동안 폭력(暴戾) 참담한 미영의 착취 압박하에 밟히어 인고에 인고를 쌓아오던 동야 모든 민족, 모든 국가군은 우리 황국 일본을 맹주로 하여 인류의 공적 미영에 향하여 정의의 깃발을 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신진대사(新陳代謝)의 관계를 천리(天理)에 비추어 생각하면 춘추질대(春秋迭代)<sup>33)</sup>와 사시성쇠가 자연계에 운행됨과 같이 구사회를 지배하던 미영의 구세력은 그 자취를 감추고 그 지배하에 있던 동야 모든 민족 모든 국가군은 우리 황국을 중심으로 한 신세계으로써 신세계를 조성할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천명(天命)이요, 천리(天理)요, 천운(天運)이라 아니하고 무엇이랴 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천명, 천리, 천운이 소소(昭昭)한들 사람이 아니하면 아니 됩니다.

옛날 성인들도 “모사(謀事)는 재인(在人)이요, 성사(成事)는 재천(在天)이라 하였습니다. 사람이 제가 아니하는 데에 되었다는 일은 고금동서에 듣지도 보지도 못하였습니다.

더구나 인류의 새 역사를 짓고 새 세상, 새 사회를 새로 비취내는 이러한 천고(千古) 미증유(未曾有)의 대 사실이 어찌 인모(人謀) 인력(人力)이 아니 들고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있는 정성과 있는 힘을 다해서 이 천명천리에 자진 순응해야 됩니다.

33) 질대(迭代) : 서로 바꾸어서 대신함.







천명천리에 능동 자진 순응함에는 그 방법이 천차만별이 있을 터이나 그를 통일시켜서 그 추상적 요령의 핵심을 든다면 하나는 국민사상의 통일, 하나는 국민조직의 강화, 하나는 국민생활의 일체 이 3대 요결(要訣)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평소에 생각되던 바로 이야기하렵니다.

### 1. 성전필승과 사상통일

사람은 제일 조건이 정신입니다. 그래서 “정신일도(精神一到)에 금석가투(金石可透)”란 말도 있고, 사상 있는 곳에 역사가 생기고 역사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상이 있었다고 하는 철언(哲言)도 있습니다. 역경(易經)에 ‘이인동심(二人同心)에 기리단금(其利斷金)이요, 이인동심(二人同心)에 기취여란(其臭如蘭)’이란 고성(古聖)의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동아는 지금에 어떠한 처지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대동아의 10억 민생을 한 아람에 끌어안고 우리나라와 같이 이것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하는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서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들 1억 황민은 오직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하는 외치는 이 한 마디 표어 외에는 가질 것이 없으며 이 한 가지 일밖에는 실행할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1억 동포 중에는 아직도 춘몽(春夢)을 깨지 못하고 저 미영인들의 자진자멸을 초래한 그 개인주의, 자유주의, 유물주의를 마치 선조의 유물처럼 보존하려고 유의식 무의식 중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 한시바삐 청산하여 불태워 버리고 그 재까지 서서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일 우리 1억 동포 중에 그런 구사상을 가진 이가 있다면 자멸의 길을 걷고 있는 미영의 복철(覆轍)을 우리나라로 하여금 밟게 하는 극히 위험한 사상일 뿐만 아니라 그 개인은 우리 국가 동포 중에서 전략하여 자수(自手) 자문(自刎)을 취하는 것입니다.

대신사께서 과거 낡은 세상을 위하여 제일 크게 근심하신 것은 ‘각자위심(各自爲心)’ 그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중핵체(中核體)가 되어 동아 내지 세계 질서를 건설함에 무엇보다도 선결문제(先決問題)가 국민사상의 통일입니다. 고양이가 쥐새끼 한 마리를 잡고 호랑이가 강아지 한 마리를 잡을 때에도 반드시 정신을 통일 하고야 되는 법이니 신 동아, 신세계를 창건함에 있어서 1억 국민의 통일된 사상이 없고야 어찌 이 대사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1억 황민은 어떠한 사상으로 통일 되어야 할 것입니까.

그는 두 말 할 것도 없이 자유주의, 공리주의, 유물주의, 향락주의 등등의 이기적 스프를 쫓지 아니한 ‘사만방각득기소(使萬邦各得其所), 사조민각안기도(使兆民各安其堵)’하게 하는 즉 ‘팔굉일우(八紘爲宇)’의 황도정신이 그것입니다.

이 정신 이 사상은 우리나라 조국(肇國)의 근본정신이며 사상이기 때문에 우리 1억 동포는 누구나 물론하고 이 정신 이 사상을 각각 자기의 정신, 자기의 사상으로 삼지 않으면 그것은 곧 비국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본래(本來) 입국(立國)하던 첫날부터 ‘군민일체(君民一體) 억조일심(億兆一心)’ 이것을 중핵 사상으로 하여 출발한 국가이기 때문에 가(家)가 확대된 국가로써 가국일치(家國一致)의 가족국가입니다. 그러므로 대어친(大御親)이옵신 황실을 중심으로 한 신민과 관계는 ‘의(義)는 군신(君





臣), 정(情)은 부자(父子)의 가족주의 원리에 입각한 도의적 국가입니다. 따라서 도의적 질서의 본질인 가족주의의 원리에는 자유주의, 개인주의의 원리에서 보는 분열과 대립 모순과 상극과 같은 자괴성(自壞性)을 함유하지 않은 동시에 자기중심의 이기주의를 배(排)하고 만방(萬邦) 조민(兆民)으로 하여금 그 있을 위치에 있게 하여 이를 생성화육(生成化育)하고 동아 내지 세계를 통틀어 공존공영 춘풍일가(春風一家)와 같은 '대화(大和)'를 확립하려는 대이상입니다.

이 국가적 대이상을 우리 천도교의 종교적 입장에서 볼 때에 전연 일치한 것이요. 다만 정치적 방면과 종교적 정신방면이 다를 뿐입니다. 하나는 정치적 건설이요. 하나는 종교적 정신 건설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 입장을 생각 할 때에 그 책무와 사명이 얼마나 중차대함을 아니 느낄 수 없습니다.

## 2. 성전필승과 조직강화

우리는 정말 싸움을 이제부터 하게 되며 해야 됩니다. 물론 이번 싸움 대동아전쟁은 신(新)과 구(舊)의 싸움, 청년과 노인의 싸움, 주인과 도적의 싸움, 선과 악의 싸움이지마는 싸움은 싸움입니다.

싸움은 곧 힘의 부딪침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싸움은 곧 힘이라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싸움은 곧 힘인 때문에 싸움의 승부는 힘의 대소(大小)에 귀결되는 것이 정칙(定則)입니다.

힘에는 정신력과 물질력이 있습니다. 싸움하는 데에 있어서 정신력이 물질력보다 더 우수(優勝)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위에서 국민의 사상통일 관계로써 말하였거니와 싸움은 정신력만으로서서는 안 되고 물질적 역량을 겸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질력의 중심은 인력입니다. 인력이라면 개인적 분산력은 하등의 힘 구실을 못하는 것이요. 단결의 힘이라야 비로소 힘이 힘 구실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힘이라 하면 조직을 떠나서는 없는 법이요. 조직은 통일을 떠나면 죽은 조직이 됩니다. 군대는 통일된 조직체요. 장군은 비조직체인 때문에 극소수의 군대(무기없이도)로도 절대다수의 장군을 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에 즉(則)하여 지금 우리나라는 황운부익(皇運扶翼)을 위하여 일본에서는 대정익찬회(大政翼贊會), 반도에서는 국민연맹이 있거니와 그 기구를 개혁하는 여부는 별문제로 하고 요(要)는 그 운용에 있어서 좀 더 철저완비를 힘써 하정상통(下情上通) 상의하달(上意下達)이 글자 그대로 되는 그야말로 한 개의 명실상부의 완전한 유기적 단일 조직체가 되지 않으면 절대 강력의 힘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 3. 성전필승과 국민생활

우리들 1억 황민은 다 같이 전사(戰士)입니다. 전사는 전사의 생활을 떠나면 전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전사는 정신물질 양방면 생활이 함께 전사생활이 아니면 충용한 전사가 될 수 없습니다.

첫째, 우리들 전사(戰士)의 정신생활로는 (1) 팔괘위우(八紘爲宇)의 조국(肇國)정신과 억조일심(億兆一心) 군신일체의 사상을 가지고 (2) 우리들 전사는 이번 싸움에 이기며 동아 10억의 생명을 구출하려는 사명감을 가지고 (3) 1, 2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하여 우리들 1억 전사는 총진(銃前) 총후(銃後) 전선의 거리(距里)는 다 다를망정 다 같이 무장하고 각자 각기 손에 쥐인 직기(職器)를 무기화하고 각자 직역을 제1선 전장의 현지화시킬 것. (4) 우리들 전사는 일체의 국민권을 황실에 바치고 폐하의 고굉(股





脇)인 의무만을 지킬 것. (5) 의식주의 실생활은 언제나 전선 전사의 지극 간소한 것을 자취(自取)할 것. (6) 천하 없이 간난(艱難)한 생활을 아무리 오래 계속하더라도 전진(戰陣)에서 이미 호국영령화한 전우 보다는 얼마나 다행다복한가하는 감사를 느낄 것. (7) 키 크고 코 큰 미영의 콧대들이 우리 동양 사람을 키 작고 코 낮고 눈은 나왔다고 얼마나 업신여겨 보았습니까. 동양 사람의 문화도 무력도 키와 코와 같이 낮을 줄 알다가 이번 대동아전쟁에 한바탕 닥질러 보고 큰 코를 떼고야 맛이 무뎠거든지 ‘아-참 키와 코는 낮아도 싸움에는 악바린걸!’하고 큰 키와 코를 낮추고 우리 일본 사람을 까맣게 높다고 쳐다 봅니다. 이것을 본다 해도 ‘경적이필패(輕敵而必敗)’라는 옛 사람의 말이 맞습니다. 이 원리와 경험을 우리 전사는 법칙화해서 우리는 절대로 저들 미영인을 없신 여기면 안 됩니다. 대동아전쟁을 시작한 이래 동서남북에서 혁혁한 전과를 착착 계속하여 거둬온 사실이나 그렇다고 만일에 우리가 정신상 긴장을 잃고 키 크고 코 큰 놈도 다 우습다고 마음을 놓았다가는 낮은 키 낮은 코는 납전장이 될 뿐 아니라 터무니없어 없어질 것입니다. 여리박빙(如履薄冰)의 대경계와 철저한 주의를 계속해야 될 것.(8) 천시지리(天時地理)가 불여인화(不如人和)인 만큼 될 수 있는대로 국민 상호간 화기(和氣)를 기도할 것 등등이요.

둘째로 우리들 구세(救世) 호국전사의 육체적 물질생활로는 (1)전쟁은 사람이 하는 일이니만큼 인적 자원이 제일 중요한 때문에 되도록 인구를 급속도로 증가시키는 국가적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시책을 행할 것. (2)국가적 가정적으로 갖은 방책을 세워 건민(健民)운동을 강행할 것. (3) 1억 전사는 온갖 방면의 직역에서 성심 성의있는 힘과 근면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생산을 확충할 것. (4)우리들 전사는 의식주의 물질생활을 모두 지극 간소히 할 것은 물론이나 식료만은 될 수 있는 데까지 영양 가치를 고려함과 동시에 충분히 저작(咀嚼)하여 식물(食物)중에 있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게 하며, 의복과 거처는 간소를 주로 하며, 동기(冬期)에는 저온생활로 습성을 길러 체내의 저항력을 기르는 데에 힘쓸 것 등등입니다.

이상은 지극히 간단하고 평이한 말이나 평소에 생각되던 바를 적어 대동아전쟁을 시작한지 1주년을 당하여 최후승리를 기원하면서 우리의 인식을 더 한층 새롭게 하고자 독자 제씨에게 일언을 고평합니다.

〈출전 : 逸蓮, 「聖戰必勝의 三大 要訣」, 『新人間』 172호, 1942년 12월, 5~8쪽〉

## 6) 필승 결전의 제사년을 맞으면서

천곡정

새해 첫 새벽에 천사님 전에 엎드려 비읍니다.

금년에는 무엇보다도 대동아전쟁을 완전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에는 거저 포덕천하 광제창생 하여주옵소서.

다음은 우리 동덕이 다 같이 수련을 지극히 해서 도성 덕립하게 하여주옵소서.

첫째로 대동아전쟁을 어찌하면 완전히 이기겠습니까. 그 방법은 오직 하나일 줄 확신하옵니다. 우리





나라 국민 1억이 일억심(一億心)을 일심(一心)으로 일억신(一億身)을 일신(一身)으로 철통같이 묶어서 심신을 아울러 한 덩어리로 뭉친 단 한 개의 육탄이면 그만일 줄 아옵니다. 그밖에 길다란 이론, 여러 가지 방책 다소용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왜 그러나하면 이 커다란 육탄 한 개 속에는 필승 신념, 전의앙양, 전력증강의 징병, 징용, 근로정신, 저축 공출, 절약 기타 전승에 필요한 온갖 정신물질이 다 들어 있는 것이며, 들어있으되 얼마라도 무진장으로 풍부하게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1억 국민은 공연히 개천가에 가서 고기를 보고 잡았으면 하고 부러워 할 것만이 아니라 얼른 집에 돌아가 그물을 떠야 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이번에 이 동아 10억의 목숨을 걸고 하는 이 싸움을 이렇고 저렇고 여러 가지 생각으로 방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어찌하면 하루바삐 일억 일심 일신의 한 덩어리만 된다면 그날이 곧 결정적 결승의 최후의 한 덩어리만 된다면 그날이 곧 결정적 결승의 최후 승리를 얻는 날이라고 생각하오니 이것이 일시 일각으로 다투어 속히 구현되도록 힘써주시옵소서.

둘째로 하루바삐 포덕천하 되게 하여주옵소서. 천사님이여, 저는 오늘 남대문 안에 있는 백화점 미즈코시(三越吳服店)에 일지책을 사려고 갔습니다. 마침 우리 동아 10억 창생의 원수 미영 사람들의 동아 유색 인종을 확대하는 참혹 지극한 온갖 행악하는 그것을 실물을 사진 찍은 전람회를 보았습니다.

이 공원 안에는 동양사람과 개는 절대로 못 들어온다고 공원 어귀에다 간판을 부친 것, 동양인의 어린 아이들이 사람과 곁에서 떨어진 사과 한 개를 주웠다고 그 아이들을 붙잡아 쇠사슬로 수족을 묶어 놓고 불젓가락을 빨강개 달귀서 그 어린이의 이마와 좌우 뺨에 자재를 하는 것, 그 악귀 남녀가 자동차를 타고 지나다가 조선 어린이가 그 차에 치여 죽었는데 그 악귀 남녀는 빙글빙글 웃으면서 매우 미안 하오하면서 같이 가던 그 어린이의 어머니는 정신을 잃고 길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것을 보고 야야 돈을 받아, 받아. 돈이 더 좋아, 돈이 좋아 하면서 일원짜리 은전 땀푼을 꺼내들고 수건 쓴 애기 어머니의 머리를 툭툭 치는 것, 흑인들을 잡아다가 쇠사슬로 달아매고 그 발 아래는 새빨간 숯불을 피어 놓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지긋지긋해서 참아 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그 구체적 사실적 현상보다도 어리석은 부녀 소아와 일반 대중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등등으로 얼마나 동아 10억 창생을 구워서 살마저 지저서 짜먹고 있느냐 함을 상상할 때에 더구나 이번 대동아전쟁은 그들이 쇠사슬로 찬찬히 동여매고 짓밟고 짜먹고 빨아 먹는 것을 그것을 벗어나 아니 받으려고 마저 속이려는 그것을 아니 받고 살아나려는 운동인 줄 확실히 믿습니다.

천사시여, 전 우주에 충만한 천사의 뜻이 하루바삐 현실적으로 실현되어 선악을 구별하여 대동아전쟁이 완승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동아 10억 창생 생명을 주시옵소서. 천사시여, 그리함에는 반도 2천 6백만 동포, 우리나라 1억 동포, 전 동아 10억 창생에게 천명과 천리와 천도와 천덕이 한시라도 속히 통해지고 알려져서 1억 동포와 동아 10억이 하루바삐 천리와 천명을 깨달아서 천리천명에 의지하여 동아 10억이 한 개의 불덩어리로서 우리의 살 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째로 우리 동덕은 다 같이 수련성도하게 하옵소서, 천사님이여 위에서 필승적 결승을 빌었사오며 그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억 국민 또 동아 10억에게 천리를 깨달아 알며 천명을 받들어 일억 일심 한 개의 불덩어리가 되게 하여지라고 빌었거니와 하루바삐 그리되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 각 개인이 불타 오르는 정신적 신념 즉 종교적 신앙과 수련이 크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전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이 대동아전쟁을 완승하는 것이야말로 천리천명을 받들어 실행 실천하는 것이요. 천리천명을 받들어 실천하는 곳에 반드시 최후 승리를 가져올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천리와 천명을 아는 이처럼 받드는 사람처럼 강한 사람은 다시 없습니다. 그러나 천리와 천명을 알아 받드는 사람이 됨에는 그렇게 용이한 공부로는 되어지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비로소 수련공부가 절대로 필요한 줄 아옵니다.

그러면 인간의 총요령이라고 할까. 시국해결의 총결론이라 할 것은 세상을 책임진 사람 그자가 훌륭해져야 되고 국가의 흥폐를 책임진 국민 그 자가 높아져야 될 것은 물론인줄 아옵니다. 한나라 국민을 가장 강하게 하는 중요 조건인 국민의 신앙문제와 수련문제를 생각하려 하옵니다.

첫째로 한울님을 믿는 신앙심이 강해야 될 것은 물론 나아가서 수련성도 하여서 첫째 자기를 건지고 다음은 세상을 구하려는 마음이 강하게 생기는데서 큰 힘을 얻기 위하여 크게 공부하여보려는 발심이 불길 솟듯 하게 됩니다. 초발심시편정각(初發心時偏正覺)으로 이 초발심이 몹시 강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그에게는 큰 수련의 기회가 와 안기게 되며 또 어떻게 하던지 그 시간 그 기회를 만들어지게 됩니다. 열어서 지어주시는 그 시간과 그 환경(아무런 역경이라도)을 지성으로 응용 이용 활용하여 한 동안 계속하면 그때에는 벌써 어느 덧 습관적으로 제2천성이 지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는 담배, 술, 애편의인 모양으로 습관적 인이 박하여 공부를 안 하고 못 배기게 됩니다.

이렇게 수련하기를 몇 해든지 끊지 않고 계속한다면 대소(大小), 원근(遠近), 광협(廣狹), 심천(深淺) 간에 자기가 노력들인 만큼 외상없이 반드시 소득이 있을 줄 아옵니다. (남녀노소를 물론하고)

천사시여. 제가 생각하옵기에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그 보다는 공부하려는 사람으로서는 1.우리 따위가 공부가 다 무엇이든 한들 무엇이 되랴 하는 자포자기와, 2.돈은 십전을 내고 물건은 일원 어치나 십원 어치를 가지고 싶어 하는 부당 이득의 허영 허욕과 또 하루 이틀이나 한달 두달 한해 두해를 애써보고 그만 얻어지는 것이 없다고 그만둔다거나 또 조금도 공부는 하여보지도 않고 그저 뭐 해보았자 별 것이 없을 것이라고 돌아갈귀하면 즐거갈귀한다는 격으로 그만 즐거억어터지고마는 이와 3. 조금만 공부해서 혹 강령이 되거나 혹은 어떤 빛이 생기거나 혹은 어떤 강화지교가 있었다거나 혹은 어떤 말이 들린다거나 하면 이것으로써 대만족 대희열을 느낀다거나 이러한 것들은 다 먼 길을 가는 도중에 화초도 있고 산과 물도 있고 괴석과 맹수도 있는 것처럼 행로 도중의 지나가는 과정적 현상을 가지고 이것들을 볼 때에 그것이 좋아서 그곳에서 놀다가 그 곳에서 심취해서 그 곳에서 살고 말아버릴 염려도 없지 않을 듯 하오니, 이런 것 이런 일에 실패가 없도록 하여주시옵소서. 늘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 하오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간절히 비움기를 공부하는 수자, 행자로 하여금 여러 가지 길을 못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지극히 연약한 저의 수행자들은 항상 그 도망할 길, 달아날 길을 엿보거나 생각하지 못하게 하여주옵소서.

나는 생활이 너무나 피곤해서, 나는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너무도 모르고 자라나서, 나는 나이만 많아서, 나는 나이 너무 어려서, 아-나는 몸이 너무 약해서, 나는 너무나 무식해서, 나는 너무나 뇌가 둔해서, 이런 저런 가지각색의 핑계로서 도망하여 달아날 길을 생각하기 쉽고 찾기 쉽사오니 이런 모든 핑계해서 도망해서 달아날 길이 이영 하나도 없이 하여주옵소서. 단막 다른 외골목길 하나만이





있도록 하옵소서.

또 비옵나이다. 원하옵나이다. 천사 말씀에 도성 덕립은 재성재인이라 하였사오니 자기 스스로 성심성의로 발심수련 해야 될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상적 지도자를 주시옵소서. 천리천명이야 언제인들 없을 때나 없는 곳이 있사오며 끊어질 때가 있사오리까만은 한울님 이치와 명령을 인간에게 가르쳐주시는 소개하여주시는 성자가 없이 어찌 머리 검은 인간들이 천리천명을 배워 깨달을 수 있사오리까. 하루바삐 만인에게 뚜렷이 보여지는 지도자를 보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수련이란 것은 인간으로서 자기를 찾아내고 파내는 무엇보다도 그 일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할 수 있도록 용천검보다 더 날카로운 용기를 늘 끊임없이 계속하여 가지도록 하여주시옵소서.

결론=필승신념은 생필승(生必勝)노력 필승노력은 생필승(生必勝)결과

(출전 : 趙基稜, 「필승결전의 제사년을 맞으면서」, 『新人間』 189호, 1945년 1월, 16~19쪽)

## 5. 이종린(李鍾麟)

### 1) 취임사

교령(教領) 이종린(李鍾麟)

내가 합동교회의 초대 교령(教領)이 된 것은 진실로 기쁨이다. 교령 이것이 기쁨이 아니라 합동(合同) 그것이 기쁜 것이다. 이번 우리 교회의 동귀일체(同歸一體)는 교호로서의 기쁨만 아니라, 우리 국가를 위하여서나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도 기쁨이라 아니할 수 없으리라. 일찍이 3백만 대중이 일단(一團)으로 되었던 당시의 천도교로서 그 성신(誠信), 그 역량, 그 단결을 가지고 헛되이 분열을 일삼지 말고 국가를 위하여서 진심하였다면 사회를 위하여 노력하였더라면 그 동안 반드시 봄직한 그 무엇이라도 한 가지의 공헌이 있었을 것이 아닌가. 그리하였더라면 교회 자체도 얼마나 커졌을 것이며 빛났을 것인가. 제 3자로 본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 문제를 가지고 3백만 일단(一團)이 삼분오열(三分五裂)되었다는 것은 교회 자체의 수치이고 손실인 것은 고사하고 그 국가사회에 대한 불안이고 불행이었다. 그러나 화발다풍우(花發多風雨) 이 역시 한 과정적이어서 어디까지 이 길을 다 꺾어야만 금일의 재출발이 있어진 것이다.

본래 미열(微劣)한 내가 더욱이 편측(片側)적인 내가 전체, 더욱이 초대의 대표가 된 것은 기쁨이라기보다 두려움이다. 걱정이다. 천리의 행은 족하(足下)에서 시작한다고 어떻게 해야만 안으로 자체의 손실을 보충하고 나아가 미력이나마 국가에 도움이 되어 사회의 기대에 어그러짐이 없을 것인가 문제이다. 그러나 어떠한 이상과 역량을 가진 그 사람이라도 일거(一擧)에 만전(萬全)을 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오직 합동대회로서 성명한

1. 우리들은 팔굉일우(八紘一宇)의 신념으로써 동아신질서 건설의 성업을 익찬(翼贊)함

1. 우리들은 신앙(信仰) 통일, 규모 일치하에서 영육쌍전(靈肉雙全)의 생활의 확립을 기함





1. 우리들은 교화에 주력하여 포덕(布德)친하의 이상실현을 기함  
세 강령 앞에다가 대천도교주의(大天道敎主義) 즉 천도교를 키우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것을 향하여서 나아갈 뿐인 결심이다.

금일부터의 나는 구구(區區)한 소절세목(小節細目)에 붙잡히거나 추측과 예단(預斷)에 겁내어서 주저(躊躇)할 나는 아니다. 다시 말하면 대천도교 이 주의(主義)를 위하여서는 어떠한 희생이라도 사양하지 아니하겠다. 이상 국가의 도움이 되고 사회의 기대에 부합하자면 먼저 천도교를 키운 연후의 일인 때문이다.

〈출전 : 李鍾麟 「就任辭」, 『新人間』 145호, 1940년 5월, 2~3쪽〉

## 2) 급고(急告)

천도교 교령

황공하옵게도 금월(今月) 8일으로써 대미영(對米英) 선전포고의 대조(大詔)가 환발(渙發)되었다. 우리 천황폐하의 대어심(大御心)은 평화의 신(神)이시면서도 이 성단(聖斷)을 내리신 것은 미영의 관영(貫盈)한 죄과를 다시 더 용허(容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원컨대 82년 전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초에, 동학(東學)을 개벽(開闢)한 우리 대신사(大神師)는 저들 십자기(十字旗)에 은폐하여 있는 그 흑막을 간파하고 우리들에게 “서양의 사람들은 불취부귀(不取富貴)라 하면서 공취천하(攻取天下)”라는 주의를 환기하였다. 그 후 저들은 과연 애린구세(愛隣救世)의 교의를 무기로 하여 전 세계를 지옥에 몰아넣고 자기들만의 천당을 건설하기에 여념이 없는 그들이 아니었는가. 이것을 그대로 방임하여 두고는 우리 인류의 행복, 신세계의 평화는 무망(無望)이다. 그런 이유로 우리 제국은 제국의 정당방위보다도 인류의 해방,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건곤일척(乾坤一擲)<sup>34)</sup>의 이 전쟁을 결의한 것이다. 저들의 천당 때문에 지옥에서 신음하는 동서(東西) 황백(黃白) 생인(生人) 사귀(死鬼)들이 이 전쟁을 그 얼마나 통쾌하고 감격하라. 그리하여 이 전쟁이 필승의 전쟁되기를 그 얼마나 기원하고 기대하라. 선전포고의 자묵(字墨)이 아직 마르기 않아 접종이지(接踵而至)<sup>35)</sup>하는 전첩은 벌써 이 전쟁의 귀결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번 전쟁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어서 무력전의 뒤에는 반드시 경제전 사상전이 반수(伴隨)할 것이다. 그러므로 총후의 우리들은 경제전에 백절불굴(百折不屈)의 투사가 되고 사상전에 만요부동(萬撓不動)의 용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사상전에 있어서 최요한지(最要寒地)에 놓여있는 우리 반도의 책무가 실로 중대하다. 이 세계의 광명은 동방으로부터라는 우리 대신사의 예언을 신조로 하여 어떠한 사상전이라도 필승의 자신을 가진 우리들 백만 교도가 이 책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요명요공적(要名要功)의 행동은 금물이니 제위(諸位)는 아래에 준하여 모름지기 자중 자숙할지이다.

34) 주사위를 던져 승패를 건다는 뜻으로, 운명을 걸고 달판걸이로 승불르 겨룸을 이르는 말.

35) 접종(接踵) : 사물이나 사건이 잇따라 생김을 이르는 말. 연신 잇따르다.





- 다음 -

1. 우리들은 물의물구(勿疑勿懼)하고 당국을 절대 신뢰하자.
1. 우리들의 신념은 성전필승의 신념으로 우리들의 실행은 성전필승의 실행
1. 우리들은 금일부터 매일 오후 9시 성전필승의 기도를 드리자.
1. 우리들의 금후 만사(萬事)는 언제든지 유사즉응(有事卽應)할 태도를 정비하자.
1. 금번 인일(人日) 기념은 교통, 경제상 자속의 필요로써 연원(淵源) 대표, 국민총력천도교 각군교구 연맹 이사장(교구장)에 한하여 참석(參式)할 것.

〈출전 : 天道敎敎領 「急告」, 『新人間』 163호, 1942년 1월 5쪽〉

### 3) 아등(我等)의 금일

비조즉석(非朝則夕)<sup>36)</sup>의 분화구(噴火口), 불풍즉우(不風則雨)의 저기압을 가득히 싣고 변화무상(變化無常) 저지(底止)할 줄을 모르던 천하대세는 필경 작년 12월 8일 우리 제국의 대미영선전으로써 터질 것은 터지고 올 것은 왔다. 그리하여 태평양은 한 번 뒤집히고야 말았었다. 문자 그대로 태평양 바다를 불의 바다, 피의 바다로 만든 이 전쟁은 인류해방 때문에 세계평화 때문에 만부득이(萬不得已) 만부득이(萬不得已)의 동서쟁패전이고 황백(黃白)결승전이다. 이 전쟁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고 이 전쟁의 승리가 어느 편에 있는 것은 우리들의 입을 비(費)할 것 없이 적들의 창황망조(蒼黃罔措), 회한막급(悔恨莫及) 자상원구(自相怨咎) 하는 그 현상이 이것을 여실히 고백하고 있다.

작년 12월 8일의 이날은 본래 여차한 우리 제국의 권위가 갱진팔황(更震八荒)한 그날이었고 방약무인한 저 적련(敵連)의 세력이 일락천장(一落天丈)한 그날이었다. 우리 제국으로서 이날의 일일(一日)이 없다면 지나사변을 처리할 그날이 언제이며 동아 공영권을 확립할 그날이 언제이며 세계 신질서를 건설할 그날이 또 언제이라. 아, 비장의 이날, 승업의 이날, 감격의 이날을 가진 작년의 1년은 오로지 우리들을 위하여서의 일 년이었다. 이 역사적 작년을 회고하면서 1942년의 금년을 배영(拜迎)하는 우리들의 기대야말로 예년(例年)에 비할 바가 아니다.

우리들 백만 신남신녀(信男信女)들은 신년 원단(元旦)부터 매일 청수(淸水)를 봉전(奉奠)하고 천사의 앞에 이러한 기도를 올리기로 하였다. “신이시여, 금년의 신년은 적들로 하여금 일일 조속히 세계의 평화를 교란하고 인류의 행복을 착취한 그 역천비인(逆天非人)적 죄악을 일일 참회(懺悔)하게 하여주십사. 그리하여 무모한 항전으로써 이 이상의 무고(無辜)한 생명(生靈)과 유한한 물자를 포연(砲烟)화하지 말고 정의의 앞에 백기를 들게 하여주십사. 그리하여 우리 제국의 동아공영권 확립, 세계 신질서 건설을 목적으로 한 이 성전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여주십사. 그리하여 1942년의 금년으로 하여금 개가(凱

36) 아침이 아니면 곧 저녁이라는 뜻으로, 시기가 매우 압박함을 이르는 말.







歌)의 기일, 축하의 기일, 기념의 기일을 가진 인류사상 신기원적 신년이 되게 하여주십사” 하는 기원이 었다.

지성동천(至誠動天) 천필감우(天必感佑)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러나 우리들은 천사의 감우만을 바라서는 아니 된다. 이와 같은 지성의 기원이 있다면 이것을 표현할만한 지성의 실행이 있어야 하고 실행은 시기 시기, 경우 경우에 절당(切當)한 또 역량에 상응한 계획이 서져야 한다. 계획이 없는 실행은 대개 이론에 흐르거나 관념에 그치고 만다.

우리 교회로서의 신년도 실행안은 작년 12월 8일 이전 좌(左)와 같이 의정(擬定)한 계획이었다.

1. 시국적 교역자 양성
2. 전시생활의 부인운동 조직화
3. 일본 근로봉사대 훈련
4. 수도원 설립
5. 경전 역간(譯刊)
6. 교회재단법인 완성

이상의 안은 의정하는 그 시기도 각일각긴박(刻一刻緊迫)해 오는 국제정세가 우리들에게 이것을 계획대로 실행할 가극(暇隙)<sup>37)</sup>을 허여(許與)하여 줄 것인가가 의문이었으나 급전직하(急轉直下)의 신국면이 이렇게 벌어질 줄은 예상도 못하였던 것이다. 아무리 각소기소(各所其所) 각직기직(各職其職) 그것이 곧 봉공이고 보국이라고 할지라도 동서쟁패(東西爭霸) 황백결승(黃白決勝)이 재차일전(在此一戰)의 이 순간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 독단적 계획을 실행한다는 것은 불감(不感)한 일일 뿐 아니라 시국이 개벽적(開闢的)으로 뒤집혀진 금일 작년을 회고한다면 실로 요요천고(遙遙千古)<sup>38)</sup>의 감(感)을 준다.

그러면 작년 시국을 기본으로 한 금년 계획, 그것이 과연 금일의 시국에 적응할 것이냐, 가령 적응적이라고 할지라도 그에 반(伴)한 예산이 문제일 것이고 당행스럽게도 예산(預算)은 문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보다 더 긴급 필요한 일이 있을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상의 안(案)은 휴지로 던져 버리고 금년에 즉응(卽應)한 것을 안출하여야 할 것인바, 불초(不肖)의 복안은 무계획의 실행, 즉 유사즉응 임기척발(臨機輒發)적인 실행이 그것이다.

이상에서 말하였거니와 금일의 국민으로서 공사완급(公私緩急)을 불문하고 국가의 명령이 없이 독자 행동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절당적정(切當適正)한 일이라도 전시 통제상 용허할 수는 없는 때문이다. 만일 이러한 행동이 용허된다면 요공요명(要功要名)의 도(徒)가 자발적 애국봉공이라는 미명하에 숨어서 무슨 행동을 감행할지도 모를 것이다. 그러므로 이때 우리들 1억 국민은 각자의 능동적 계획을 속지 고각(東之高閣)<sup>39)</sup>하여 버리고 총력전의 기제가 되자. 그리하여 동정출처(動靜出處)를 국가가 운전하는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성전필승의 요결(要訣)이다. 장래할 사상전예의 중대한 책무를 가진 우리 반도인에 있어서 이 요결이 더욱 필요하다. 우리 교회로서의 금년도 실행은 무계획적 실행을 실행하자는 의의가 여기에 있는 것이니 우리 신남신여(信男信女) 제현(諸賢)이여, 우리들의 금년 수도는 성전필승의 기

37) 겨를이나 틈.

38) 요요(遙遙) : 멀고 아득함.

39) 묶어서 높은 곳에 얹어 둔다는 뜻으로, 한쪽에 치워 놓고 쓰지 아니함을 이르는 말.





도를 중(縱)으로 하고 우리들의 금년 실행은 서전필승의 실행을 횡으로 하여천재일시(千載一時)의 이 금년을 광휘 명예 역사의 신년으로 창조(創造)하자.

〈출전 : 李鍾麟 「我等의 今日」, 『新人間』 163호, 1942년 1월, 7~8쪽〉

## 6. 박완(朴浣)

### 1) 동아신질서 건설

단정(檀庭)

#### 1. 사회와 질서

인간은 도덕과 법률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사회학자는 말한다. 왜 그러냐하면 원래 인간은 각자가 고립하여서는 생활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필연적으로 상호 부조하는 집단생활을 영위하게 되며 따라서 이 집단생활의 안전과 보장을 위하여서는 각 사람의 양심을 자율하는 도덕과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법률이 창정(創定)되게 됨으로부터 결국 인간은 도덕과 법률을 떠나서는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하다. 우리 인간이 저 로빈슨 표류기의 주인공인 선원의 생활처럼 이륙절해(離陸絶海)의 무인고도(無人孤島)에서 저 혼자 살던 것과 마찬가지로의 생활을 할 수 있다면 도덕도 필요가 없을 것이요, 법률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도저히 그와 같은 고립생활을 장구히 계속할 수가 없는 만큼 자연 도덕과 법률이 우리 인간 사회에 필요하게 된다.

그런데 인간사회에 도덕과 법률이 필요한 그 가치에 있어서는 오로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도덕과 법률이 그 사회의 질서를 유지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도덕과 법률은 벌써 그 사회에서 신성한 존재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며 인간은 새로 질서를 유지하기에 적응한 도덕과 법률을 요구하게 된다. 그리하여 이 사회는 신도덕과 신법률에 의하는 신질서가 건설되며 인간은 이 신질서 밑에서 생활하게 되는 것은 인류발달사에서 증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사회학자가 말하는 것과 같이 도덕과 법률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또는 질서 밑에서 생활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으므로 인간과 질서와도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가정에 있어서는 가정의 친밀을 위하여 윤리를 엄수하게 되고 사회에 있어서는 사회공익을 위하여서의 공덕을 존중하며 국민으로서의 국가의 존립을 위하여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모두 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서의 인간의 자연적 욕구에서 나오는 양심적 행동이다.

#### 2. 합리적 전쟁

그러나 원래 인간은 또한 생물인고로 감정과 이해(利害)가 부수(附隨)하게 되므로 새 것을 좋아하는





동시에 옛 것을 버리지 아니하려하며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면 타인에게는 해가 된다할지라도 기어이 하려는 욕망이 있게 된다. 그리하여 개인과 개인, 국가와 국가 사이에 감정적 이해가 충돌 되는 때에는 배척과 투쟁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현상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욕망을 위하여 돌진하게 되나니 대개 전쟁은 이리하여 일어나게 된다.

자고로 전쟁은 비상수단인 까닭에 인류를 살육하며 문화를 파괴하는 등 수많은 잔악무도한 행위가 수반되지만 인간에는 감정과 이해가 있는 만큼 정의를 위하여 자유를 위하여 또는 보다 더 여원의 평화를 위하여서는 전쟁을 아니 할 수 없을 것이며, 또는 전쟁을 다만 그 수단으로만 보아서 최악시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전쟁 역사상에 있어서 미국의 남북전쟁 같은 것은 딱 알맞은 예(好適例)이니 남부 미국인은 흑노(黑奴)를 노예로 하여 동물과 같이 자유판매를 주장함에 대하여 북부의 미국인은 아무리 흑노라 할지라도 인간인 이상 노예로 대우하지 말고 인권을 부흥하여 자유시민이 되게 하자라는 것이다. 이 양자의 주장을 비판한다면 누구든지 북부미국인의 주장이 확실히 정의적이며, 평등적이며 남부 미국인의 주장은 이기적이며 배타적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남부 미국인이 자기의 완고한 야심만을 위하여 북부인들의 주장을 시인치 아니하는 이상 북부 미국인들이 인류의 정의와 자유를 위하여 전쟁도 사양치 아니함이 도리어 당연한 행위라 찬양치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이번 지나사변이 발발된 원인을 소구(溯究)<sup>40)</sup>하여 본다면 곡재어피(曲在於彼)오, 부재어아(不在於我)<sup>41)</sup>인 것은 소연(昭然)<sup>42)</sup>한 사실이다. 저 장개석(蔣介石) 일파는 만주국 불승인(不承認)을 고집한다. 그러나 원래 만주의 이권은 러일(日露)전쟁의 전승의 대상으로 원(元)제정 러시아(露西亞)로부터 양수(讓受)한 것이오, 결코 중국으로부터 무리하게 탈취한 것이 아닌 이상 개인간의 물품 취인과 같이 무보수(無報酬)로 이를 중국이 회수 하지 못할 것은 당연한 사리(事理)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만주에서 일본의 세력을 구축하기 위하여 항일배화(抗日排貨)를 선전 강제하는 등 조약 무시의 행동이 끊이지 않으므로 우리 관현은 그때마다 당시 주권자인 장학량(張學良) 정권에게 대하여 선의적으로 충고하여 그 비우의(非友誼)적 행동을 방지하도록 교섭하여왔다. 그러나 그는 종래 우리의 호의적 권고를 불청(不聽)하고 필경에는 만주 이권의 기간(基幹)이 되는 만철(滿鐵)의 선로(線路)를 폭파하기까지 되었으므로 제국 정부로서도 부득이 응징의 수단을 취하게 되는 기회에 재래(在來)로 장(張)정권의 압박과 착취에 신음하던 민중들이 쫓겨하여 만주국을 건립한 것은 천하 주지의 사실이다.

장개석 정권은 우리 제국이 저 만주국 성장 발달에 대하여 절대 지지와 극력 원조하는 표면관계만을 보고 처음부터 시기 질시하여 불승인의 태도를 견지할 뿐 아니라, 그 존립을 방해하며 소위 동북사성(東北四省)의 실지(失地)회복을 기도하여 무지한 민중에게 항일모일(抗日侮日)의 기세를 고취하며 영미불(英米佛)과 소련으로부터 군기군자(軍機軍資)를 유입하여 우리 제국과의 전쟁준비에 급급하고 있던 중 송철원(宋哲元) 부하 군대가 우리들 비대(備隊)에 발포한 것이 동기(動機)되어 지나사변이 야기하게 된 것이다.

혹자 이번의 사변이 발발된 그 동기를 보고 이를 확대하지 말자고 국부적 해결을 하지 못한 것이 유

40) 거슬러 올라가 연구하다.

41) 잘못된 원인은 저들에게 있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

42) 보기에 일이나 이치 따위가 밝고 선명하다.





감인 것 같이 논하던 자도 사변 당초에는 없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장개석 일파를 둘러싸고 있는 소위 국민당과 중국공산당의 그 후 태도로 보아서 지나사변의 폭발은 노구교(蘆溝橋) 일변의 총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만 기간문제로서 조만간 폭발될 가능성이 충분히 포장(包藏)되고 있던 것이다.

### 3. 신질서 건설의 정당성

지나사변을 계기로 하여 우리 제국은 동아 안정에 대한 암종(癌腫)이 되는 장개석 정권을 철저히 괴멸하는 동시에 구미열강의 착취로부터 중국 민중을 해방하며 적화사상(赤化思想)을 방지하여 동양영원의 평화를 확립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사변에 대하여 우리 제국은 중국으로부터 영토를 할양하거나 또한 배상을 획득하려는 재래의 전쟁의 목적과는 전연 상이한 바이다. 이것은 고노에(近衛) 성명에 의하여 사변처리의 방침이 확립되었으므로 다시 여기에 용의(容疑)할 여지가 없지마는 영국, 미국과 소련이 제국의 동아 신질서 건설에 종종외의 수단으로써 직접 간접으로 방해하는 것은 만일 제국의 방침대로 동아 안정이 확립되는 날에는 자기네의 세력이 동아로부터 배제되리라는 우려에서 장(蔣)정권을 원조하여 대일항전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다. 장정권에게 군사금과 무기를 공급하여 장(蔣)으로 하여금 장기항전을 계속하게 하는 것은 장정권의 최후 승리를 희망한다는 것보다 장기전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일본의 국력이 소모되기를 희망하는 것이며 따라서 동아에 있어서의 자기의 세력을 유지하여 그 권익을 보전하려는 혼담(魂膽)<sup>43)</sup>에서 산출된 책략이다. 그러면 영미와 소련이 동아 신질서 건설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은 중국을 영원히 식민지화 하여 탈취 시장의 대상으로 하려는 제국주의적 침략정책에서 나온 야심이므로 우리 제국은 이들 적성 국가를 배격함은 신질서 건설을 위하여 앞으로 당연히 봉착하게 될 순서일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아직 논급(論及)함을 피하려 하거니와 장(蔣)일파는 무엇을 위하여 항전을 계속하려고 하는 것인가, 장정권은 중국의 주권을 위하여 항전하는가. 우리 제국은 중국의 독립을 위하여 절대 보장하는 바이다. 그러면 중국의 영토를 위하여 항전하고 있는가. 우리 제국은 중국의 영토를 촌토(寸土)라도 탈취하려는 욕심이 없으며 또는 분금(分金)이라도 배상을 요구치 아니한다 함은 고노에(近衛) 3원칙 성명에 의하여 조금도 변함이 없다. 다만 중국에 이번 사변이 성전인 진의를 각성하고 제국과 제휴하여 동아 신질서 건설에 충실할 뿐이다. 그러면 장정권이 지금까지 항전을 계속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중국의 주권을 위함보다도 자기 그룹의 정권을 더 지속하기 위함이며 중국의 영토를 보전함보다도 자기들의 지반(地盤)을 옹호하기 위함이며 중국 4억 민중의 복리를 위함보다도 자기들의 위안(慰安)을 위하여는 사리사욕에서 출발하여 영미와 소련의 주구(走狗)도 각오하지 못하고 파멸의 길로 들어가는 가련한 존재이다. 그와 반대로 우리 제국은 중국 민중을 구미열강의 착취의 마수로부터 동양영원의 평화를 위하여 동아신질서 건설의 사업에 장애되는 모든 적성(適性)을 배격하는 정당한 성전을 계속하고 있다.

〈출전 : 檀庭 「東亞新秩序建設」, 『新人間』 118호, 1940년 8월, 14~16쪽〉

43) 혼백과 간담을 아울러 이르는 말. 뉘.





## 2) 전시신앙보국

단정(檀庭)

### 1.

손무자(孫武子)의 “병자(兵者)는 국지대사(國之大事)라 사생지(死生之地)요 존망지(存亡之道)니 불가부찰야(不可不察也)니라”라는 말과 같이 전쟁은 민중의 생사의 직접 관계되는 바이요, 국가의 흥망 성쇠를 좌우하는 중대한 모험인 만큼 신중에 또 신중하여 결코 경거망동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만은 많은 말이 필요치 않은 바이다. 그러나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위하여 부득이 일단 전쟁이 발발된다면 기필코 승리의 개가를 부르도록 전국의 총력을 들여 최후까지 싸워 나아가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승리자의 전도에는 환희의 광영과 자유가 있지만은 전패자의 두상(頭上)에는 비애와 모욕과 압박이 가하게 되는 것은 고금이 다름없다. 옛 역사적 사실을 들어 말할 것이 없이 금일 프랑스가 전패의 고배를 만끽하는 사고팔고(四苦八苦)의 한심한 경우에 처하게 된 것을 보아도 이것을 충분히 증명할 수가 있는 것이다.

현재 제국은 일지(日支)의 공존변영과 적화(赤化)방지를 위하여 지나사변 처리를 완수하는 동시에 대동아공영권을 확립하고 나아가 세계 신질서건설에 협력하고자 독일, 이탈리아와 추축동맹(樞軸同盟)을 체결하였다.

그리하여 삼국은 이 대이상을 실현하기에 일치한 태도를 취하게 됨은 물론이요, 이를 반대하는 적성 국가에 대하여는 동서 호응하여 공동배격하게 됨도 동맹의 근본적 정신에 있어서 당연한 귀착일 것이다. 여기에 있어 영미 등 국가는 오직 자기네들의 이해적 타산에서 구질서를 어디까지 유지함으로써 재래의 권익을 옹호하기에 여념이 없는 나머지 음으로 양으로 적성(敵性)을 노출하여 추축국 간에 이간(離間) 중상(中傷)의 반추축(反樞軸) 연합진영을 결성하기에 열중하고 있다. 마침내 그들은 소련을 반추축 진영으로 인입(引入)하기에 성공하였으며, 따라서 독소(獨蘇)전쟁 또한 장기화 하도록 원소(援蘇)정책으로 표변(豹變)하여 정세는 급전직하(急轉直下)적으로 그야말로 금일로서 내일을 촌탁(忖度)<sup>44)</sup>하기에 어려울 만큼 긴박하게 되었다.

### 2.

이와 같은 초비상 시국에 있어서 고도 국방국가신체제를 속히 완성하기를 일반 국민은 임전태세의 긴장한 기분으로 전시국민생활의 실천을 강조하여야 될 것이며 종교인으로서도 신앙보국을 더욱 철저화하여 국민적 정력을 □일□ 발휘할 시기에 봉착하였다.

이번 지일(地日)기념에 우리 교회는 교발(教發)제 10호로써 전시신앙보국에 대한 실천요항을 발표하고 그 실행을 격려하며 있다. 시국이 이와 같이 심핵(深劔)화한 이때에 보국안민을 신조로 하는 우리 교단으로서 이 실천행사야말로 가장 시의 적절한 종교적 운동이므로 우리는 정심성의를 다하여 천사의 명호(冥護)를 받아 밖으로 국가의 융성을 기하며 안으로는 각자의 정신을 건전하게 하여 종교 신앙

44) 추측하다, 헤아리다, 미루어 생각하다.





인의 본령을 현현하게 할 것이다.

실천요항은 5개조로 정하여 1) 수도를 철저히 하자, 2)성전완수의 기도를 행하자, 3) 황도정신을 선양하자, 4) 무엇보다 당국을 신뢰하자, 5) 고도국방의 역량을 고도로 발휘하자는 것으로서 내용에 있어서 정신에 중점을 두게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혹은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비상시국하에 있어서 정신보다도 행동을 더 요구하게 되며 반도인에게 한하여는 더욱 그러하다는 의견으로서 이번 전시신앙보국의 실천요항은 행동보다도 정신에 치중된 것이 다소 격화소양(隔靴搔癢)<sup>45)</sup>의 감(感)이 없지 아니하다는 것이다. 실은 조선시국운동이 국민정신총동원 운동으로부터 국민총력운동으로 양양(昂揚)한 이때에 있어서는 모든 방면에 있어서 행동에 중점을 두고 무엇보다도 행동을 요구함이 현하의 반도인에게 대한 급무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국민으로서의 숭선하여 모든 것을 행동에 표현하기에 노력하고 있다. 황도정신을 선양함에 있어 궁성요배, 신사참배, 정오묵도 등 행사를 우리는 반드시 실천하여 민중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이며, 고도국방의 역량을 발휘함에 있어서도 국방헌금, 노임헌금, 폐품회수, 유기(鑰器)헌납 기타 저축절약 등에 있어서도 우리는 성력(誠力)이 있는 대로 자발적으로 응분 진력하여 국가 총역량 집중에 충실한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당국을 절대로 의뢰하면서 신도실천(臣道實踐)과 멸사봉공의 의용적(義勇的) 애심(衷心)으로 애국적 행동으로 표현하여 비상시국의 국민의무를 여실히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행동이든지 정신에서 나오지 아니하는 행동은 일시적이 아니면 가면적 위선적에 불과한 것이다. 마치 근원이 없이 흐르는 물은 머지않아 말라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신에서 솟아나오는 행동이야말로 참으로 근기(根氣) 있고 충실한 행동이다.

물질과 기계문명에 도취한 현대에서도 정신문제를 의연히 중요시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 국가에서 종교를 보호하여 국민의 정신적 수양을 장려하는 필요도 여기에 있으며 우리가 국민으로서의 행동에 치중하지마는 종교 신앙인으로서 정신에 중점을 두고 이번 전시신앙보국의 실천요항에 수도가 주가 되는 의의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출전 : 檀庭 「戰時信仰報國」, 『新人間』 159호, 1941년 9월, 2~3쪽〉

### 3) 국민총력조선연맹

단정(檀庭)

#### 1.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이 기구를 개조하여 조직을 광대 강화하고 국민총력조선연맹이란 새로운 기치 아래에 병참기지로서 총후반도의 중대 사명을 더욱 발휘하기를 선서하였다. 이에 순응하여 본 교회에서도 재래(在來)의 정동(精動)연맹<sup>46)</sup>을 발전적으로 해소하고 다시 국민총력조선연맹의 일환으로서

45) 신을 신고 발바닥 굽듯이 성에 차지 않음. 사물이 철저히 않음을 뜻함.

46)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줄임말.





반도총력운동실천에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총력운동이 진영을 개조하고 진출한 시일이 상천(尙淺)<sup>47</sup>하여 그 본지의 선전이 널리 보급이 되지 못하고 실제 행동이 아직 활발히 전개되지 못한 관계이겠지마는 이를 단순히 일본의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이 대정익찬(大政翼贊)운동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일본을 추수(追隨)하기 위하여 명칭을 변경하고 기구를 형식적으로 개조할 뿐이오, 실로 재래의 정동(精動)운동과 따로 상이한 바가 아니라는 회의비판적 태도로서 과소평가하려는 경향이 보이지 아니하는바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상한 착각을 범하고 있는 것이니 재래의 정동운동으로 오직 정신방면에만 한정되어 있지만 신총력운동은 정신운동과 물질적 운동 즉 국민생활 전체를 포섭하고 있는 까닭이다. 물론 그 형식으로만 말한다면 일본의 정동운동 형태가 변함에 따라서 조선의 운동도 거기에 좌우되는 것만은 다언(多言)을 요할 바가 아니라 할지라도 일본의 정동운동이 대정익찬운동체제로 혁신하게 됨은 그만한 국내사정과 국제정세가 착잡분규(錯雜紛糾)하여 금일에 있어서는 도저히 구정동운동만으로 이 비상한 난국을 타개하고 동아공영권 확립을 위하여 용왕(勇往) 매진하기에 다소의 곤란과 막대한 장애가 앞길에 복재행와(伏在橫臥)하였음을 체험하고 마치 외과의(外科醫)가 환자에게 대수술을 시행하는 것처럼 국내의 일체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체제를 변혁하는 획기적 유신을 단행한 것이므로 조선에 있어서 이 총력연맹의 신운동은 재래의 정동운동과 그 실천행위에 있어서 현격한 상위(相違)가 있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나아가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다.

이 총력운동의 신체제하의 각종 통제가 더욱 강화되어감으로 상공업자들은 부조(父祖) 전래의 누대생업을 영영 계속할 수 없게 됨도 현재의 사실이오, 인생 2대에 천행만고하여 근근 습득한 공예기술도 일조에 폐기치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여 이곳 저곳에서 실업과 폐업의 비극이 접종이출(接踵而出)하는 현하의 형편이라 하지마는 다시 국제환경을 응시한다면 국가의 안전과 보장을 위하여 오직 국가지상주의로써 국가전체에 중점을 두고 이와 같은 개인 문제는 희생에 바쳐진다고 하여도 부득이한 시국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제국이 지나사면 처리나 동아신질서 건설을 위하여 신흥세력인 독일과 이탈리아와 동맹을 체결한 것이나 하등의 다른 뜻이 있는 바가 아니지마는 오로지 현상유지에 만족하려는 영미국가는 이를 고의로 곡해한 나머지에 마치 제국이 영미를 가상 적국으로 인정하고 독일 이탈리아 양국과 제휴 약속한 것과 같이 시의(猜疑) 질시하여 되도록 지나사면이 장기화하여 일본의 국력이 소모되도록 원장(援蔭)정책<sup>48</sup>을 견인(堅忍) 유지할 뿐만 아니라 또한 동양에 대한 군비를 강화하는 한편으로 자국민을 극동(極東)으로부터 철귀(撤歸)하게 하는 등 제국에 대하여 어디까지 도전적 태도로 나오며 이이제이(以夷制夷)로써 좌수어인지공(坐收漁人之功)을 하려는 소련은 금일에 친선을 표시한다 하여도 언제 침략적 정책을 발로(發露)할런지 아직 알 수 없는 만큼 이와 같은 국제환경에 처하여 있는 제국으로서는 이 모든 난관을 돌파하고 동아 영원의 안전과 보장을 위하여는 만난(萬難)을 배척하고 고도의 국방 국가를 건설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입장에 있는 것을 여실히 각성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다.

47) 더욱이 짧아서.

48) 장개석을 원조하는 정책을 뜻함.





## 2.

그러면 고도의 국방국가라는 것은 무엇이며 고도의 국방국가를 건설하자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간단히 말한다면 일본 전체를 국방적으로 편성한다는 것이니 즉, 전 일본을 완전히 요새화하여 언제라도 적국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또 일본의 어떤 지방에 전쟁이 전개된다 하더라도 절대로 전패하지 않도록 국방국가의 체제를 정비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종래의 전쟁은 다만 무력만이 강한 국가가 승리를 취하였다. 다시 말하면 육군, 해군 또는 공군에 있어서 그 수효가 많든지 무기가 정교하다든지 혹은 포격이 정확하다든지, 여하간 전선에 출동하여 풍부한 무기로써 용감히 활동할 수 있는 군대를 정비한 국가는 그 만큼 전투력도 강대하였으므로 전승의 효과를 획득할 수 있는 동시에 국방의 목적도 달성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대의 전쟁은 동원된 군대만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최후의 승리를 반드시 기약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왜 그런가 하면 과학이 고도로 발달하여 제2산업혁명을 야기한 결과로 생산력이 초기록적으로 확대된 금일에 있어서는 하루에 거의 백문(百門)의 대포, 거의 백대의 비행기, 잠수함이라 할지라도 일주간(一週間)이면 한 척쯤은 능히 제작할 수 있도록 열강의 생산설비가 발전되어 있다. 제1선 전장에서 비행기가 폭파되고 대포가 파쇄(破碎)된다 할지라도 후방 본국에서 여전히 이를 계속 보충하게 되어 있으므로 전쟁이 장기로 지체되어 가면 승쟁(勝爭) 승부는 구경(究竟)<sup>49)</sup> 본국에서의 보충력이 강하고 강하지 못한 데로 귀착되고 만다는 것이 정평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현하 열강에서는 국내제도를 개혁한다, 산업통제에 힘쓴다하여 단지 군함, 대포 등 무기를 제조하기에 노력할 뿐 아니라 이를 운용하는 물질과 설비와 인간의 조정에도 최선을 다하여 완전한 국방국가를 건설하기에 국가의 총력을 집중하고 있는 현상이다.

제국의 장병은 충용무비(忠勇無比)하여 연전결전(連戰即決)에 있어서는 세계 어느 나라에 대하여도 조금도 낙후되지 아니할 만한 자신이 있다. 그러나 현대의 전쟁은 위에 말한 바와 같이 대개 장기전이 되어버리므로 제1선에서 활동하는 장병의 충용의 힘을 종합 통일하여 동일한 목적하에 국가 전체가 총동원하도록 국방적 조직을 확고히 하여야 할 것인데 일본의 국내 조직은 이를 완성하기에 다소 제도의 불비(不備)와 기타의 결점이 없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를 완비시정하고 국가를 위하여 군관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멸사봉공의 충용을 다하며 현실정치의 병근(病根)을 배제하고 통수와 국무를 주지하며 정부 부내를 결합하여 능률을 강화하며 의회 익찬체제를 확립하는 등 국가 신질서를 실현하자는 것이 대정익찬운동의 기본 이념이며 이 이념이 완전히 현실화 하는 날에는 그야말로 일본 전국이 강고(強固)한 요새화 하여 어느 각도에서 적의 침략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방전(防戰)할 수 있으며 또 전쟁이 아무리 장기에 걸쳐 전개될 지라도 무기와 식량보충에 만만(萬萬) 유감이 없게 될 것이니 이것이 즉 고도의 국방국가의 건설이라는 것이다.

## 3.

일본의 대정익찬운동의 궁극적 목표가 고도 국방국가건설에 있다함은 이상에 말한 바와 같거니와

49) 결국, 필경, 궁극.







이 실현의 촉진을 위하여 국민이 사상적으로나 관념적으로나 또는 경제적으로나 국가전체보다도 부분 개인을 전제로 하는 구시대(舊時代)의 개인주의나 자유주의와 같은 사상은 일체 청산하고 전 국민이 대어심(大御心)을 봉대(奉戴)하여서 각각 그 직분에 응하여 일억일심(一億一心)이 되어가지고 대정익찬회를 추진력으로 하여 정치운용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대정익찬운동의 주요 안목(眼目)이다.

그러나 조선의 총력운동은 그 강령에 있어서 '국체의 본의에 기하여 내선일체의 결실을 거두고 각각 직역에 있어서 멸사봉공의 정성(誠)을 받들어 협심육력(協心戮力)으로 국방국가체제의 완성, 동아신질서의 건설에 매진함을 기함'이라 하였으며 그 실천방책으로는 '강령에 기하여 국민정신총동원운동, 농촌진흥운동을 위시하여 물심양방면의 각 부분의 제 운동을 통합 포섭하여 그 직역에 응하여 바로 국민총력발휘의 결실을 거두도록 발랄(潑刺) 강력의 실천운동을 전개하기로 함'이라 하였으니 총력에 있어서는 정치운동이 배제되어 있는 점이 대정익찬운동과의 상위(相違)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총력운동은 정신방면에만 국한하지 않고 생산 확충, 농촌진흥운동 등 물심양면에 당하여 모든 실천적 운동을 포섭하고 국민생활 전체의 문제를 들어 일단 결정이 되면 즉시 실천하게 되므로 정치와 국민생활이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면 이 총력운동의 실천이야말로 진실한 의미의 정치라 할 것이며 일본에 있어서도 종래와 같은 정당정파의 파쟁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자유주의 시대와 같이 의논을 위한 의논이라든지 당리당략(黨利黨略)을 위한 언론은 배척하고 정치운동을 극도로 제한하는 중이므로 사정이 특수한 조선에 있어서 일본과 같은 의회정치를 운운할 시기가 아니며 오직 총독정치를 더욱 강화하여 어떠한 난국에 처할지라도 이를 이해하며 그 정치에 충실히 복종하여 내선일체의 결실을 속히 실현하며 협심육력(協心戮力)하여 국방국가의 완성과 동아신질서 건설에 매진함이 총후반도의 중대사명인 동시에 총력운동의 실천행동일 것이다.

〈출전 : 檀庭 「國民總力朝鮮聯盟」, 『新人間』 151호, 1940년 12월, 17~19, 21쪽〉

#### 4) 총력운동실천요강

단정(檀庭)

대정익찬회(大政翼贊會)의 최고목표가 고도국방국가 건설에 있으므로 따라서 국민총력운동의 궁극 목표도 국방국가체제 확립에 있는 것은 물론일 것이나 일본과 조선은 사정이 서로 다른 만큼 국민 각자의 실천사항에 있어서는 전연 동일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동안 국민총력연맹에서는 총력운동 지도위원회를 수차례 개최하고 총력운동실천에 대한 구체적 방침을 신중히 토의하여 원안을 작성하고 이를 연맹이사회에 부의(附議)하였는데 이사회에서는 엄밀히 검토한 결과 사상통일, 국민총훈련, 생산력확충의 3대 실천요강하에 6개 실천요목과 다시 세분하여 반도국민의 실천사항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곧 실천에 매진하기로 하였다.

지금까지 총력연맹은 이 실천사항이 결정되지 못한 관계로 마치 어떤 학교에서 교원도 작정이 되고 학생도 모집되었지만 그 학생들에게 교수할 학과목이 결정되지 못하여 수업을 개시하지 못하고 고심





중에 있는 것과 방불한 상태로서 구체적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지 못한 것만은 엄폐(掩蔽)하지 못할 사실이였다. 그러나 이미 실천사항을 결정한 이때에 있어서 총력운동의 핵심을 철저히 파악하기 위하여 3대 실천요강을 부연 설명하려 한다.

### 1. 사상통일

국가가 융창(隆昌)하고 민족이 발전하려면 우월한 무력과 풍부한 경제력을 지속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동시에 국민의 사상이 또한 통일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것만은 고금의 사실이 증명하는 바이다. 이번 구주(歐洲)전쟁<sup>50)</sup>에 강대국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던 프랑스가 독일에게 그처럼 여지없이 참패를 당하고 국가로서 최대 치욕의 성하지맹(城下之盟)<sup>51)</sup>을 체결할 뿐 아니라 독립국가로서 자존의 체면까지도 보전하기가 어려운 처지에 있게 된 것은 다만 무력이 충실하지 못한 것이 그 이유라 한다. 그러나 프랑스 국가의 무력이 일개 신흥 독일에게 미치지 못하게 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프랑스로 말하면 자유주의다, 공산주의다, 개인주의다, 전체주의다 하는 여러 가지 주의에 국민사상이 혼돈 분열하여지기 때문에 베르사유조약을 파기하면서 전 국민이 거국일치(舉國一致)하여 영국과 프랑스를 상대로 설욕전 준비에 일야급급(日夜急急)하는 독일을 안전에 목격하면서도 하등의 적극적 방어대책을 강구 수립하지 못하고 다만 소극적인 일개 마지노 방어요새만을 의뢰하고 정신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확고한 단결이 없이 각 정당은 오직 파쟁만 몰두하고 있던 것이 최대의 원인이었던 것이다.

현대에 있어서 사상문제는 무력이나 경제와 마찬가지로 고도국방국가건설에 필요불가결한 중요문제이다. 동아공영권 확보를 위하여 어떠한 난관이라도 돌파하고 전진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제국은 국방 충실과 아울러 사상통일이 긴절(緊切)하고 급박(急迫)한 문제이다. 따라서 병참기지로써 또는 제국구성의 대륙 영토로서의 반도는 사상통일에 있어서 일본정신 앙양(昂揚)과 내선일체 완성을 핵심으로 하여 황도정신을 고조 함양하여야 할 것이니 일본정신을 앙양함에 있어서는 국체관념 명징(明徵)과 경신숭조(敬神崇祖)와 거국일치, 멸사봉공의 대정신 발양과 황국신민의 신념철저를 실천의 중점으로 하고 실천사항으로는 매일 이른 아침에 구성에 향하여 경배(敬拜)를 할 것이며, 축제일과 일요일에는 신사참배를 빠지지 말 것이며, 정오에는 반드시 전사(戰死) 장병의 영령과 출정군인에 대하여 감사의 묵도(默禱)를 올릴 것이며, 국가의 축제일과 관청의 지시일에 국기를 게양하며, 집회와 의식이 있을 때에는 황국신민서사를 낭송하여야 할 것이다.

내선일체 완성에 있어서는 일시동인(一視同仁)의 성지봉례(聖旨奉禮)와 내선일체 이념의 철저와 내선사실(內鮮史實)의 재인식과 신애(信愛)협력의 실천을 실천의 중점으로 하여 국어<sup>52)</sup>를 보급하며 내선풍습(內鮮風習)을 융합하며 단결을 강화할 것을 실천사항으로 한다. 그런데 이상 실천사항을 실천화 할 때에 먼저 확고한 신념이 서가지고 행동을 하거나 그렇지 못하고 다만 형식적이라도 그 행동만은 실천하여 점차 견실한 신념이 생기하도록 하거나 그 효과는 동일하므로써 의식 무의식을 막론하고 전 민중

50) 제2차 세계대전을 뜻함.

51) 성 아래까지 쳐들어온 적군과 맺는 맹약이라는 뜻으로, 항복한 나라가 적군과 맺는 굴욕적인 맹약을 이르는 말.

52) 일본어를 뜻함.





이 보편적으로 실행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다.

## 2. 국민총훈련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 한다. 그러나 만일 인간사회에 조직적인 집단훈련이 없다고 하면 인간이나 일반 동물이나 그 지능발휘에 있어서 우열이 없게 된다. 문화가 저열(低劣)한 저 남양(南洋) 미개의 토인의 생활과 동물과의 생활에 현격한 차이가 없는 것이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그네들은 식욕을 채우기 위하여 어류나 금수(禽獸)류를 포획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생과실을 수목으로부터 적취(摘取)하여 요리의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자연 그대로 섭취하며 문화가 진보한 인간들과 같이 의복과 가옥이 그네들 생활상에 절대 필수품이 아닌 것으로 보아서 그네들의 생활과 일반 동물과의 생활에는 별로 다른 점이 없지 아니하나, 그리하여도 인간인 이상에 만물의 영장이라는 존칭사를 부여함이 가할까. 그러나 그네들에게는 문화적 교육을 실시하면 문화인과 하등의 다름이 없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지만은 일반 동물에게는 문화적 교육을 행할 수 없고 또 아무리 한다 하여도 인간이 아닌 이상 인간의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이니 그 점이 인간과 동물이 천연적으로 다른 점이라 하여 남양 토인들도 만물의 영장이라 하면 그것은 수긍하지 아니할 수 없는 점이다. 왜 그러나 하면 그네들 중에도 현재에 문명교육을 받은 자는 문화인으로서의 하등 손색이 없는 사회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그네들에게도 조직적 훈련만 완전히 한다면 훌륭한 군대도 만들 수 있고 따라서 국가도 건설할 수 있을 것인 만큼 인간사회에 훈련이란 것이란 것이 이만큼 귀중하며 훈련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부수(附隨)하게 됨을 알게 될 때에 국가가 생존발전하려 하면 일일(一日)이라도 국민훈련을 홀저(忽諸)<sup>53)</sup>히 할 수가 없을 각성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총훈련이라고 하여서 특별히 알기 어렵고 하기 곤란한 것이 아니라 국민 각자 직역(職域)에서 봉공을 철저히 하며 생활에 신체제를 확립하자는 것을 국민 총훈련의 실천 요목으로 하는 것이니 직역봉공 철저에 있어서는 고도 국방국가체제 확립의 결의와 국가 제일주의의 실천, 책임관념의 철저를 중점으로 하여 무슨 일에 대한지 자기의 부담한 일에 책임을 완수하여 능률을 증진하며, 직능(職能)을 발휘하며 업무를 즉결즉행(卽決卽行)하며 무위도식을 배격하는 것 등 실천사항으로 하며 생활신체제확립에 있어서는 성전완수의 결의와 인고단련의 철저와 국방사상 보급과 공덕심 발양을 중점으로 하여 간이(簡易) 절약 생활을 강행하며 국민복(國民服)을 입으며 건강오락을 장려하며 국민체위를 향상하며 위생사상을 보급하며 과학정신을 양양하며 국제훈련을 철저히 하며 방공(防空)·방첩(防諜)·방공(防空)·방화(防火)·방범(防犯)에 주의하며 총후 원호(援護)를 강화하며 상회(常會)를 여행(厲行)<sup>54)</sup>하는 등 실천사항으로 한다.

## 3. 생산력 확충

현하 제국은 팔굉일우(八宏一宇) 정신하에서 지나사면 완수와 동아공영권을 확립하며 나아가 세계 신질서 건설에 협력하고자 한다. 이 대이상을 실현함에 있어서 전도에 수많은 장애와 불측(不測)의 풍

53) 급작스럽고 소홀하다.

54) 행하기를 장려함. 힘써 행하는 것.





운이 권기(捲起)할런지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방금 지나사변 처리 도정에 있는 제국은 장(蔣)정권 격멸에 대하여 어디까지 전쟁행위를 계속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어느 시기에 이르러 지나사변은 종식이 된다 할지라도 동아공영권 확립에 방해하는 적성 국가를 응징하기 위해서는 의연히 전쟁준비를 등한(等閒)히 할 수 없는 형세에 있으므로 생산력을 확충하지 않고는 국방충실을 완성할 수 없는 바이다.

현재 세계지역은 국가 전체주의로 나아가는 독일과 이탈리아와, 자본주의국가로서 현상유지를 염원하는 영미와, 공존공영을 국시로 하여 동아신질서 건설에 매진하는 제국과, 아울러 공산주의국가의 소비에트 소련과의 4대 세력에 지배되고 있다. 그리하여 미국은 영국을 적극 원조하여 독일과 이탈리아에 대한 항전을 계속하게 하는 동시에 원장(援蔣) 행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나사변을 장기화하도록 기도하며 소련은 독일에 호의를 표시하여 전체주의국가와 자본주의국가간에 전쟁이 확대되기를 욕망하는 등 복잡하고 기이한 오늘의 국제정세이므로 전쟁의 위험은 더욱 배가되어가나 평화의 서광(曙光)은 조금도 현현되지 아니하여 해외통상은 두절되고 국내소비는 나날이 증가하여 가는 현상에 있어서 각국이 모두 경제체제를 자급자족 본위로 개편하지 아니하면 안 되게 되었다. 사변 전까지는 제국의 경제는 무역상으로 영미 의존이 현저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영미의 제국에 대한 경제 압박이 심하여 도저히 제국과 미국과에 경제적 제휴도 희망이 없게 된 만큼 제국은 만주국과 중국과 경제적 제휴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만주와 중국은 아직 공업이 발달되지 못하였으므로 제국 독자의 생산력으로 국방충실을 강화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리하여 생산 확충에 있어서 전시 경제추진과 증산수행을 실천 요목으로 하자는 것이니 전시경제 추진은 경제전 필승결의와 통제법령 엄수와 공익우선 사상철저를 중점으로 하여 매류(賈溜)<sup>55)</sup>, 매석(賣惜), 압취인(關取引)<sup>56)</sup>, 폭리행위 박멸과 적정 이윤엄수와 식량대책 여행(勵行)과 물자배급의 협력과 자원애호 활용과 저축 여행(勵行), 국채(國債)응모 등을 실천사항으로 하며 증산수행은 증산 필행결의와 건설적 기백 양양과 유한(流汗)근로실천을 중점으로 하여 계획증산을 강행하며 근로를 배가하며 창의연구를 장려하며 잉여노동력을 활용하며 노자(勞資)의 협력과 미간지(未墾地), 공한지(空閑地)를 활용하자는 것이다.

〈출전 : 檀庭 「總力運動實踐要綱」, 『新人間』 152호, 1941년 1월 27~31쪽〉

## 5) 영미(英米)적성국가

단정(檀庭)

### 1. 영미의 역선전(逆宣傳)

작년 가을 체결된 일본·독일·이탈리아 삼국동맹은 그 정신이 현재 계속되고 있는 구주(歐洲)전쟁이나 지나사변이나를 이 이상으로 확대발전됨을 극력방지하며 따라서 세계 항구평화를 촉진 재래(齎

55) 사서 모아두는 것. 매점(賈占)

56) 압거래





來)하게 하는 데에 있다는 것은 조약 문면(文面)에 그 의도가 표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조약 발표 당시에 삼국정부로부터 이 정신을 성명하여 제3국의 부질없는 시기와 억측을 일소하기에 노력하였으며 더욱 제국으로서 그 후에도 기회가 있을 적마다 이 삼국동맹은 결코 어떤 특정 국가를 상대로 하고 체결한 동맹이 아님을 말할 것도 없으나 다만 미묘 복잡한 현하 국제정세에 비추어 모든 점에 있어서 우월한 입장에 처하여 있는 미국으로 하여금 이 세 추축국가의 반대측 즉 구주전쟁에 있어서는 영국, 지나사변에 있어서는 장(蔣)정권 측에 제휴 가담함을 견제하며 되도록 미국은 이 전쟁으로부터 국외 중립을 철저히 이행하게 하여 불행한 이 전쟁을 조속히 결말을 고하게 하고 정의의 세계 신질서가 하루바삐 수립되기를 염원함 외에 다른 뜻이 없는 바이므로 제국은 미국이 영국을 위하여 참전하지 아니하는 한 또는 영미가 재래의 원장(援蔣)행위를 포기하고 대동아공영권확립에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 일본·독일·이탈리아 삼국동맹은 그 조약의 의무효력이 발동되지 아니함을 누차 언명하여왔다.

그러나 오직 전일의 세력만을 유지하기에 급급한 영국과 미국은 이에 반성과 각성을 하기는 고사하고 고의로 삼국동맹을 시기 비방하여 역선전을 맹렬히 개시하되 이 삼국동맹에는 그 이면에 비밀조항이 부대(附帶)되어 있다는 등 원래 일본, 독일, 이탈리아 삼국은 전체주의적 국가로서 마침내 동맹을 체결하고 세계민주주의 국가를 정복하여 세계제패를 기도하려는 침략적 국가라는 등 도무지 터무니없는 이간증상(離間中傷)을 교묘히 선전하며 삼국동맹에 대하여는 이것으로써 회답한다는 것처럼 미국은 영국에 원조를 강화하여 영미는 원장행위를 계속하여 미얀마(緬甸)루트 재개, 대장(對蔣)차관 약정 등 마치 지금에 와서는 공연히 추축국가를 적국으로 간주(看做)한 나머지에 극동(極東)위기설을 방송하여 극동으로부터 자국민의 철퇴를 권고하며 그들은 극동과 서태평양방위에 있어서 상호원조 정신을 구체화하여 동동(動動)의 방법을 비밀리 강구함은 물론이요, 영국의 동양근거지인 싱가포르(新加坡) 군항에는 오스트레일리아 군대(濠洲兵)를 증파하는 외에 비행기, 전차, 기타 군비를 적극적으로 강화하며 일조(一朝) 유사지시(有事之時)에는 미영 아시아 함대를 이 군항에 파송하여 제국과 남양과의 통상무역을 체결하려는 작전계획도 수립하고 또한 프랑스로 인도차이나(佛印)과 네덜란드령 인도네시아(蘭印)에 마수를 연(延)하여 제국과의 통상협정 성립을 배후에서 견제하며 더욱 미영은 제국에 대하여 통상조약을 폐기하고 수차 경제적 압박을 단행하는 한편으로 방대(龐大)한 해군확장을 준비하여 태평양 함대를 하와이 진주만에 상주하게 하여 극동 진공의 시위(示威)를 하며 알래스카 방면과 남양군도 중 요지에 군사적 시설을 확대 강화하여 소위 말발굽(馬蹄)형의 대일 포위자세를 형성하고 제국의 대동아공영권 확립을 위하는 남진정책을 어디까지 위협 방해하는 등 그들 영미는 제국으로 하여금 도저히 은인좌시(隱忍坐視)하기 불가능할만한 수수종종(數數種種)의 적성(敵性)공작을 점차 노골화하고 있다.

## 2. 무기대여 법안

그리하여 제1대 워싱턴 대통령 이후의 불문율인 전통을 무난히 파괴하고 제3차 대통령 당선 의 영광(榮冠)을 획득하여 의기충천하게 된 루즈벨트 대통령은 작년 말에 소위 노변한담(爐邊閑談)이라는 형식 하에 신문기자단을 회견하고 일독이(日獨伊) 삼국의 동맹은 세계정복을 중국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악평을 전제로 하여 만일 미국이 이들 세계제패 프로그램을 간섭이나 방해할 것 같으면 이 삼국은 곧 공동으로 하여 대미(對米) 적대행동을 취한다고 하였으니 이러한 위협(威嚇)으로만 보아서라도 미국





은 이때에 다만 화평설만을 고창하고 이들 침략국가에 저항하고 있는 영국 및 기타 자유주의 국가를 원조하지 아니하면 마침내 세계민주주의는 멸망할 것이요, 서반구의 안전까지도 보장하지 못하게 될 사태에 도달하게 될 것인즉 미국은 오로지 대영원조를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으로 하여금 세계 민주주의를 위하여 최대의 병기공급창으로 하여 진화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체면과 국제적 예양(禮讓)<sup>57)</sup>도 불구하고 자못 도전적 독설을 토하였으며 금년 1월에는 의회개회 벽두(劈頭)에 자기를 지지하는 민주당 영수로 하여금 무기대여법안을 제출하게 하여 하원에서는 이미 절대 다수로 통과되었고 상원에서는 목하(目下) 심의중이나 상원 역시 루즈벨트 대통령의 정책을 찬성하는 민주당파가 다수인만큼 참전반대를 주장하는 독립파가 이 법안에 대하여 어떠한 비난과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대세는 벌써 결정적으로 통과되리라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형편이다.

그런데 이 무기대여 법안이라는 것은 그 내용이 대통령에게 너무나 무제한의 권한을 부여하는 획기적 법안으로서 이 법안이 성립되는 날에는 미국은 전쟁에 직접적 참가한 바나 다름이 없을 만큼 과격한 것이다. 그리하여 전쟁발발 이래 미국의 대영원조에 대하여 전(前) 대전(大戰) 당시에 신산(辛酸)한 경험도 있으므로 되도록 미국의 감정을 해하지 아니하도록 침묵을 지켜오던 히틀러 총독도 금차의 무기법안에 대하여는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드디어 1월 30일 나치스 정권 장악 8주년기념식 석상에 독일의 태도를 선명히 하여 호위함(護衛艦)의 유무를 불구하고 영국에 접근하는 모든 선박은 어뢰 공격을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라는 각오를 하라는 단적으로 대미(對米) 경고를 발하도록 독일 및 동맹국의 신경을 자극하는 법안이니 이 법안에 의하면 대통령은 미국의 군함, 군기 등을 타국에 양도할 수가 있음을 물론이요, 세계 어느 지역에서든지 교전국의 상선을 호송하기 위하여 미국 군함을 사용하며 또 교전국의 군함이 미국 영해 내에 있는 항만에서 수리 및 연료의 보급을 할 수 있으며 지나사면 및 이에 유사한 다른 두 나라 간의 전쟁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이 법안이 성립되면 미국이 사실적으로 전쟁에 참가하게 되는 것만은 부인하지 못할 명약관화의 일인 것이다.

### 3. 영미의 아시아 지배욕

그러나 미국관면에서는 미국내의 참전반대의 여론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금까지도 이런 말을 반복한다. 즉 미국은 구주전쟁에 참가하게 되는 것은 원하지 아니하는 바이지만은 민주주의 국가군의 자유를 위하여서나 또는 미국의 국방상 견지(見地)로서나 반구축국에 대하여 재정과 군기를 대여하는 것이 미국으로 하여금 전쟁과 거리(距離)를 원격하게 하는 이유라고 한다. 이 말을 충분히 곱씹지 아니하고 표면으로만 얼른 듣는다면 미국이야말로 평화를 애호하는 국가이요, 자유를 옹호하는 국민인 것과 같이 보이지만은 그 실은 가면을 쓰고 세계의 정당한 이목을 엄폐(掩蔽)하기 위한 저 일류(一流)의 기만적 언사에 불과한 것이 폭로되고 마는 것이다. 왜 그러냐하면 미국은 원래 먼로주의 국가로서 남북 아메리카주에 대하여는 구주에서 간섭하지 아니하는 대신 미국은 구주문제에 관하여는 용횡(容喙)<sup>58)</sup>치 않는다는 정책을 간관으로 하여가지고 영국의 양해하에 남북 아메리카 양 대륙의 지도권을 장악하게 되었

57) 예를 지켜 사양함.

58) 간섭하여 말참견을 함.





고 그것도 오히려 부족하여 아시아와 남양의 풍부한 자원에 욕심을 내게 되자 스페인(西班牙)과 전쟁하여 그 전승의 상품으로 필리핀(非律賓)을 영유하게 된 후로부터는 아시아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해외 시장을 획득하려는 야심에서 중국의 문호개방과 기회균등의 원칙설을 주장하여 아시아에 세력을 부식(扶植)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영국과 미국은 공동으로 아시아를 그들 지배권하에 점유하게 되었으나 근자에 이르러서는 우리 제국은 옥일승천(旭日昇天)의 기세로써 국위를 선양하여 아시아 민족의 백인종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절규하며 인종평등을 제창하여 이때까지 전 세계는 백인을 위하여서의 세계이오, 유색인종은 선천적으로 백인의 지배하에 굴종하는 것이 당연한 천리로만 알고 있던 그들에게 심담(心膽)을 놀라게 하는 청천의 벽력과 같이 들리게 되었다.

이에 영미(英米)는 아시아와 남양(南洋)을 영원히 자기들의 착취시장으로 점령하려는 이기적 주의에서 또는 인종적 차별 관념에서 우리제국의 정당한 발전을 억제하며 대동아공영권 확립에 대하여 우리제국의 입장을 부정하기에 모든 수단을 사용하고 마치 영미 두 나라만이 전 세계를 지배하려는 그야말로 제국주의적 정책에서 민주주의 국가라는 가장을 하고 세계현상유지를 고집하고 있는 그들이만큼 오늘날의 미국의 평화의 소리와 자유의 부르짖음은 정의 인도적 입장에서 진정한 의미의 평화와 자유가 아니라 자국의 이해타산에서 고출(故出)되는 상투어로서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재에 있어서 가령 미국 국민 가운데 전쟁 반대의 소리가 없든지 혹은 미국의 무력이 능히 독일을 극복할 수 있으며 그 해군력이 극동으로 진공하여 우리 제국 해군과 승패를 결정하기에 충분한 성산(成算)만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개인의 행동에서나 국제적 외교에 있어서나 방약무인(傍若無人)의 무궤도적 행동을 연출하는 만큼 벌써 극동에서나 유럽에서 전쟁을 야기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전쟁이라는 것은 국가의 흥망성쇠에 관한 비상한 중대사이므로 불가불찰(不可不察)이라는 손무자(孫武子)의 병법을 배웠는지 국내의 전시체제가 정비되고 육해공군이 확충되기까지는 아마도 직접 참가만은 회피하고 그야말로 전쟁 일보(一步) 앞에서 최대한의 대영원조를 실현하려고 한다.

#### 4. 네덜란드령 인도네시아(蘭印)는 우리 경제의 생명선

이와 같이 반추축국가에 원조만을 강화하고 참전에까지는 도달하지 아니하려 함은 현하 미국의 처지에 있어서는 가장 현명한 수단이오, 최선의 방법일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루즈벨트 대통령도 민주주의 국가를 원조하는 것을 가리켜 전쟁행위로 규정 함은 온당치 아니하다는 아전인수론의 의견을 발표하여 대량의 무기대여도 그 해석에서 전쟁행위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이와 같은 행동은 국제법상에 전쟁행위가 성립되고 아니 됨을 토론할 여지가 없이 일독이(日獨伊) 추축국가에 대하여 지극히 불유쾌한 감정을 일으키게 함은 많은 말이 필요치 않은 바이므로 이것은 미국이 자발적으로 전쟁을 확대시키는 것이며 또한 자진하여 전화(戰火)의 화중(禍中)에 권입(捲入)하는 위험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연초에 마쓰오카(松岡) 외상이 해외재류 동포에게 조국의 진로를 선명(宣明)할 때에 금년은 자칫하면 전 세계 인류에 혹은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해가 되지 아니할까 함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말과 히틀러 총독이 금년 내로는 독일이 압도적 승리를 거두고 전쟁은 종결이 되리라고 단언한 것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미국이 독일의 경고를 무시하고 대영무기대여를 강행하는 날에는 독(獨)·미(米)의





총돌로부터 일(日)·미(米) 총돌까지 확대되어 태평양상에서 일·미의 해군이 포화를 상호(相交)하게 될 지도 모르는 바이다.

제국 대(對) 영미 간에 전쟁이 폭발될 위험성은 독일관계로부터 제기함보다도 영미가 우리 남진정책을 시기하여 대동아공영권확립을 방해하는 데에 그 가능성이 한층 용이한 것이다. 지난 1월에 런던에 망명중인 네덜란드(和蘭)정부로부터 바부스트 주일공사를 통하여 우리 정부에 네덜란드령 인도네시아는 어떠한 국가의 지도하일지라도 동아신질서 편입에 반대하다는 취지를 전달한 것이라든지 최근 태국과 프랑스령 인도차이나(佛印)간의 국경분쟁에 관하여 우리 제국은 동양에 있어서 지도적 입장으로서는 양국 간의 원만 타당한 조정(調停)을 알선함에 성의를 피력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령 인도차이나(佛印)측은 외교적 술책으로써 회의를 천연(遷延)<sup>59)</sup>하게 하며 제국의 공평과 정의를 무시하려 함은 그 배후에 암약(暗躍)하고 있는 영미 측의 책동(策動)에 기인함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만큼 우리 제국의 격분을 도발하게 된다.

황군이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에 진주하게 됨은 원장 군수품 수송로를 차단함에 불과함이고, 네덜란드령 인도네시아에 대하여서도 평화적 교섭으로써 네덜란드령 인도네시아의 자원을 개발하여 경제적 권익을 획득하려는 것인데 미국이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는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네덜란드령 인도네시아는 아국의 경제적 생명선이므로 우리 제국은 이 생명선을 확보하기 위하여 확고한 결심이 있음으로써 네덜란드령 인도네시아가 최후까지 우리의 평화적 교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단호한 조치를 취하게 됨은 물론일 것이다.

마쓰오카(松岡) 외상이 이번 76회 익찬의회에서 '일미관계 장래에 언급하여 제국이 동아에서 실현하려는 그 진의를 미국은 도무지 이해하려고 하지 아니한다. 미국이 종래 일본의 정당한 주장과 진의를 이해하려하지 않는 그때에는 일미 간에 국교 개선할 희망이 없다'는 것을 솔직히 갈파(喝破)하여 역대 외상으로서 볼 수 없는 대담 명쾌한 태도를 표시한 것을 보아서도 제국의 의연(毅然)한 결심은 양해할 수 있는 바이다.

〈출전 : 檀庭 「英米敵城國家」, 『新人間』 154호, 1941년 3월, 15~19쪽〉

## 6) 전시국민생활

단정(檀庭)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된다. 더욱 생명에 있어서는 그 주위 환경에 순응하지 않고는 생활을 계속할 수가 없는 것을 잘 체험하고 있다. 우리가 겨울에는 솜옷을 입고 더운 방에 거처하였지마는 지금 까지 기온이 19도 이상 100도 가까이 되는 여름에는 솜옷과 더운 방이 필요가 없게 되고 얇은 옷과 서늘한 대청마루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을 여실히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과 자연계의 환경관계를 들어서 말한 것이나 다시 정치와 경제관계를 가지고 설명

59) 일이나 날짜 따위를 미루고 지체함.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정치환경 경제환경에 순응하지 아니하면 도저히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음을 알게 된다.

가령 만주국에 이주하였다고 하면 만주국에서 시행되는 법률에 복종하여야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오, 미국에 거주한다고 하면 미국의 정치제도와 경제체제의 순응하여야 생활할 수가 있는 것이 즉 인간은 다만 자연계의 환경만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제도의 환경도 이탈하지 못함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현재 우리의 환경은 어떠한가.

지나사변에 있어서 성전(聖戰) 완수의 목적을 달성하며 '구미(歐米)로부터 아시아 민족을 해방하여 대동아공영권을 확립한 후 나아가 세계 신질서건설에 협력하라는 국가적 대사명을 관철하기 위하여 고도국방국가 건설의 목표하에 전시국민생활의 체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그 실천을 강조하는 오늘이다.

우리는 이것을 다시금 철저히 인식하고 반도국민의 임무가 더욱 중대함을 각오하여 전시국민으로서 총후운동을 구체적으로 더욱 더 실현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다. 현재 제국은 위에서 말한 바 국가적 대사명을 달성하기 위하여 미증유의 초 비상시적 시국에 직면하였는데 작금의 국제정세는 독소(獨蘇) 개전이 증명하는 바와 같이 변천(變遷) 무상(無常)하며 미묘 복잡한 만큼 오늘로서 내일을 가늠하기 어려운 뿐 아니라 영미의 적성행동은 더욱 노골화하여 현하 제국과 간과(干戈)를 상교하고 있는 중경(重慶)정권<sup>60)</sup>을 적극적 원조하고 있는 그들이므로 언제라도 어떠한 수단으로 제국을 압박할지 모르는 바이다. 그러나 제국의 무력과 경제력은 이들 제3적성국의 도전을 받을 경우에도 단호히 배격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정부당국의 시설방침에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연한 태도를 견지하여 어디까지나 신도(臣道)실천과 직역봉공에 매진할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으나 그러나 시국이 점점 심각해져가므로 전시국민생활의 실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그 실천사항을 열거 설명하고자 한다.

## 1. 전시(戰時)의식의 양양

### 가. 정신방면

시국을 직시하여 더욱 중대화 하여감을 인식하고 성전(聖戰)완수에 대한 협력의 각오를 한층 공고케 하는 동시에 당국의 방침에 신뢰하여 대국민으로서 신도(臣道)실천 직역봉공에 적성(赤誠)을 다할 것

### 나. 방위

국토방위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협력하여 방첩, 방공, 유언비어의 방지 등에 노력할 것

### 다. 향락방면의 자숙

최근 향락방면에 있어서 자숙에 대하여 철저를 결여하는 경향이 없지 아니함은 유감이다. 특히 주간(晝間)에는 금주를 결의하여 국책에 적순(適順)하도록 충분 자숙자계(自肅自戒)할 것

## 2. 간소생활의 강화

### 가. 물질애호

60) 장개석이 이끄는 국민정부를 뜻함.



간소생활을 철저히 하는 입장에서 한층 물자애호 활용에 세심한 주의를 가하여 폐품 회수와 소비절약을 여행(勵行)하여 의복, 장신구 등은 화미(華美)한 것을 버리고 실용적 물건을 되도록 사용하며 반드시 예산생활을 실행할 것

나. 과학적 생활의 장려

의복, 음식품의 생산, 배합(配合), 소비에 대하여 과학성을 응용하며 또 영양식의 조리, 섭취 및 완전 저작(咀嚼)등을 보급하여서 생활의 합리화와 체력후생(體力厚生)에 도움이 될 것

3. 전시경제에의 협력강화

가. 전시통제법의 준봉(遵奉)

전시통제법령을 철저히 주지하여 암거래의 절멸(絶滅)을 기하며 공정 가격을 엄수하여 생활필수품의 배합에 공평, 원활을 기할 것

나. 저축 장려

저축, 저금을 여행하여 용비(冗費)<sup>61)</sup>를 살피 아껴서 국채(國債), 공채(公債) 구입에 사정이 허하는 한 필효(必效)를 기할 것

다. 증산

생산력의 확충, 물자의 증산을 도모함과 함께 군수 자재의 공출에 노력하며 무위도식자를 반드시 없앨 것을 기하여 노력의 제공에 도움이 될 것

4. 체위(體位) 향상

가. 건전운동의 장려

무도(武道), 체조 기타 건전한 운동을 장려하며 사회, 공장, 광산에 있어서는 위생, 체육시설의 개선에 주의할 것

나. 위안오락은 실질 강건하여 전시생활에 상응한 것을 장려할 것

〈출전 : 檀庭 「戰時國民生活」, 『新人間』 158호, 1941년 8월 28~29쪽〉

7) 결전생활에 철저히하자

단정(檀庭)

1.

일전 권청암장(權淸庵丈) 장례로 인하여 교회 여러분이 시외 망우리(忘憂里) 묘지에 나아가게 되었다. 사정에 의하여 하관(下棺)시간이 예정보다 늦어지게 되어 그 동안에 시간을 기다리자니 자연 심심

61) 헛된 비용, 쓸데없는 비용.



한 생각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한담(閒談)소설로 하여 시간을 보내고 있는 때에 어디서 개미란 놈들이 수천 마리가 떼를 지어 우리들 앞으로 행진하여 간다.

그때 마침 오랫동안 날이 가물어 비가 오지 아니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이종(移種)을 다하지 못하고 걱정 중으로 지내는 때이므로 어떠한 분이 기쁜 마음에 개미가 이렇게 이사를 가면 비가 온다는데 아마 큰 비가 오려나보다 하며 웃으면서 말하였다.

옆에 있던 다른 한 분이 역시 심심하던 판이다. 일부러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개미가 집을 옮기면 장마가 진다는 말은 있지만 지금 저 개미들의 가는 것을 보면 비가 올 것이 아니라 장차 더욱 가물 징조로 보시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저 개미들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지 않소. 그러니까 만일 비가 많이 와서 장마가 질것 같으면 개미란 놈들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높은 데로 올라갈 터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저것들이 높은데서 낮은 데로 내려오는 것을 보면 펍 가물 것으로 보인다' 하며 비가 온다는 말을 반대하였다. 그러자 '저 개미들은 위에 집을 정하고 먹을 양식을 가지러 내려오는 개미들이다. 위에서 아래로 이사를 하는 개미들이라 하면 왜 먹을 것을 가지고 내려오지 아니 하겠는가' 하며 이렇다 저렇다 비가 온다는 둥 아니 온다는 둥 심심한 판에 한참동안 개미를 화제로 해가지고 서로 웃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그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개미들이라든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개미라든지 비가 온다든지, 안 온다든지 하는 그것보다도 개미란 놈들의 자체 행동에 대하여 더 많은 흥미를 가지고 보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그놈들은 저희들의 어떠한 목적 아래에서 규모 있는 단체적 행동 그야말로 철저한 통제와 훈련이 되어 있는 군대처럼 동일한 목적에 대하여 일치협력 과감 용맹한 행동을 하고 있는 데에 오히려 관심이 되어 주시하게 되었다.

그들은 행진도중 어떠한 위험한 방해물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기어이 넘어가고야 말며 혹시 무심한 인간의 발길에 밟히어 다리가 부러졌다할 지라도 목숨이 붙어 있는 때까지 한사코 전진 일행의 뒤를 따라간다. 그리고 부장이나 반장 같은 감독자가 없다 할지라도 한 놈도 태만하거나 낙오하는 일이 없다. 마치 그들은 어떠한 신념에 의한 책무감과 단체를 위하는 열렬한 의협심에서 단체생활을 위하는 결사봉공의 굳은 의지와 결심이 있는 것같이 보였다. 그리하여 나는 그 거룩하고 깨끗한 그들 행동에 대하여 새삼스레 감격 감탄을 마지 아니하였다.

## 2.

야마모토(山本) 사령장관이 비행기 위에서 장렬한 전사를 맞았다는 보도가 전해지자 거국(擧國) 진진포포(津津浦浦)<sup>62</sup> 비분애석의 눈물을 흘렸으며 앗스 섬(島) 수비대장이 매우 적은 병력(寡兵)으로서 특종 우수 장비를 가진 10배의 적과 싸우면서도 일병일탄(一兵一彈)의 증원을 청하지 아니하고 전 부대가 필경 옥쇄(玉碎)<sup>63</sup>하여 호국의 신이 되었다는 소식을 또 듣게 되자 1억 국민은 누구나 적 미영을 단연코 격멸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겠다는 격분과 적개심이 팽배하였다. 그리하여 야마모토(山本)원수의 혼을 계승하자, 앗스 섬 용사의 원수를 갚자는 소리가 열화와 같이 일어났다. 충후국민에 이와 같은

62) 방방곡곡.

63) 옥처럼 아름답게 부서진다는 뜻으로, 공명(功名)이나 충적을 위해 깨끗하게 죽음을 이르는 말.





의기와 열정이 있음으로 해서 전선 장병의 사기가 왕성하여지며 용전감투(勇戰敢鬪)하는 충용무비의 강병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 전쟁은 노발(怒髮)이 충천(衝天)하는 분만(憤懣)과 비분강개의 심정만으로서 승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열렬한 정신력과 아울러 충실한 물자력과의 양자가 합성하여야만 비로소 최후 승리를 획득(確得)하게 된다는 것이 현 전쟁의 성격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의 대동아전쟁은 전 아시아 10억 민중이 미영의 지배와 착취로부터 완전히 해방하여 아시아인의 공존공영의 대동아공영권을 확립하며 나아가 독일 이탈리아 추축국과 협력하여 세계 신질서를 건설하려 함이 중국의 목적이므로 교전국간에 고식적(姑息的) 중간 타협과 같은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적 미영이 일독이(日獨伊) 세 추축국에 대하여 무조건 굴복을 하기 전에는 이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목하(目下) 남태평양 방면에 적 미국과 피아(彼我) 세력권이 교착되는 솔로몬 군도 중 뉴조지아 섬을 중심으로 과거 전사(戰史)상에 도저히 볼 수 없는 육해공군의 입체적 대공방전이 전개되어 그 치열(熾烈)함은 날로 더욱 심각해 가고 있다. 적 미군은 그 기계력과 물질에 의뢰하여 필사의 반공(反攻)을 되풀이 한다. 이에 대하여 우리 황군은 육해공의 긴밀한 협동작전에 선모기략(善謀機略)으로서 도처에서 적의 반공(反攻) 기도를 격쇄(擊碎)하는 중이라 함은 이미 누차의大本營(大本營)<sup>64</sup> 발표로써 숙지하는 바이다. 적 미군도 대손해, 대희생을 불구하고 집요히 공격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전선(前線)에 비행기 1대, 탄환 1발이라도 더 많이 보내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지금 제1선에서 가장 긴절(緊切)히 요구되는 것은 비행기이다. 이 항공기를 증산하고자 하면 다만 항공기 제작에 종사하는 공업원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작 과정에 있어서 수많은 생산 요소를 필요로 한다. 알루미늄 금속은 물론이요, 특수 광물 기타 각종의 소재를 필요로 하는데 이 요소는 상호관련 되어 있으므로 진실로 국민 각자가 총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면 항공기 생산이 원활히 진행되지 아니한다. 전국이 긴박하여짐에 따라서 모든 것을 유효히 활용하여야 하겠다는 것이 또한 통감되는 바이다. 정부가 이번에 기업정비를 행함은 국가의 운명이 좌우되는 중대 시국에 처하여 국내에 아직도 전력화하여 있지 아니한 부분을 철저히 동원하여 이것을 전력함에 그 의도가 있는 것이다.

그러하여 인적 물적 자원 및 과학적 기술을 총동원하여 제 1선의 요구에 즉응(卽應)하게 하려는 것이다. 종래의 기업정비라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경영자의 책임으로서 실행하였으나, 지금과 같이 긴박한 결전단계에 있어서는 경영자에게 그 실행을 위임할 수 없게 되고 정부 즉 국가의 책임으로 실행하게 된다. 요컨대 이번의 기업정비는 정부의 관리가 한다는 것보다 국민 일반이 한다는 것이다. 즉 관민이 일치하여 전국의 중대성을 여실히 인식하고 전력 증강에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

세간에는 간혹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가 있다.

직접 군사에 관한 작전은 군부를 신뢰하면 그만이요, 전력 증강에 관한 모든 시설은 정부에 일임하는 것이 그 효과에 있어서 유리하다하여 우리 생활은 종래의 관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대국(大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부분만 보는데서 나오는 사상이요 전체보다도 개인만을 위하여는 이기적 행동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일개의 미물에 불과한 개미라 할지라도 자기보다도 단체를 더 존

64) 대동아전쟁 때에, 일본 천황 직속으로 군대를 통솔하던 최고 통수부.





중하고 자기 목숨보다도 전체의 생활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는가. 금일의 결전 시국에 있어서는 우리 생활 장소인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것이 모두 다 한 가지 전장터이다. 우리가 가정에서 한 가지를 절약 저축하면 그만큼 전력이 증가되는 것이요, 우리가 직장에서 한 시간이나 두 시간을 더 근로하면 근로한 만큼 더 증산이 된다. 우리는 제 1선 장병과 마찬가지로 육탄이 되어서 증산에 저축에 총진군을 행하여 전력의 비약적 증강을 도하는 동시 대동아 지도자로서의 웅혼장건(雄渾莊健)한 결전생활을 철저히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하 국민총력조선연맹의 결전생활 철저 요강을 거하여 참고에 제공하노니 술선수범을 하기를 바라 마지 아니한다.

### 3.

#### 1. 근로의 결전화

국민의 근로체제를 속히 결전화하여 상하가 일체가 되어가지고 조기조출(早起早出), 청소정돈 등의 신변의 실천을 반복하면 감투(敢鬪)의 기백이 자생하여 계획증산도 용이하게 될 것이다.

#### 2. 천인(天引)저축의 강화

저축은 필승의 관건이다. 저축의 요체는 먼저 천인저축의 강화에 있다. 그리하여 생활비의 절약도 스스로 실현이 되어 목표액의 저축달성도 또한 어렵지 아니할 것이다.

#### 3. 물자활용의 철저

절약도 또한 증산이다. 각 가정에서 일 년에 일반(一反)의 의복차를 절약하면 백 톤의 기선(汽船) 107 척을 건조할 수 있고 이에 요하는 가성소다(苛性曹達)를 화약 제조에 사용하면 야포탄(野砲彈) 635만 발분을 제조할 수 있다.

#### 4. 식생활의 결전화

한 톨의 쌀, 한 매의 채엽(菜葉)도 귀중한 전력이다. 전에 독일은 전쟁에서 승리하였으나 식량에 패한 쓰라린 경험이 있다. 이를 신이 주신 물(物)로 생각하고 어디까지 이것을 활용해야 전력의 증강에 도움이 됨이 즉 식생활의 결전화이다.

#### 5. 가옥의 적극적 활용

제 1선의 용사는 한 개의 연초(煙草)도 서로 나눠 핀다. 우리도 또한 승리를 위하여 상당의 희생은 당연히 인내할 것이며 유무상통하는 우정의 발로에 의하여 불요불급의 건물은 전력의 증강상 필요한 공장사무소 주택으로 공출하자.

#### 6. 결전즉응의 신체단속

국민사기의 진부(振否)는 그 신체단속에 의하게 되는 일이 많다. 일상생활에 있어서 유사 적응의 몸 단속이야 말로 바로 우리 결전 보조의 강화이다.

#### 7. 사교(社交) 의례(儀禮)의 결전화

어느 때까지 명분에 구니(拘泥)<sup>65</sup>하고 구습에 저미(低迷)<sup>66</sup>함은 결전체제의 저해자이다. 하물며 구적(仇敵) 미영식 의례야 말로 시대착오이다. 우리들은 지금이야 말로 세계 지도자인 궁지(矜峙) 아래





의례 기준을 실천수범에 노력할 것이다.

8. 가두(街頭)의 결전색 강화

가두는 그 길의 얼굴이요, 거울이라 할 수 있다. 한 점의 담(曇)이라 할지라도 그 영향은 심대하다. 가두색의 결전화이야말로 우리들 공동의 책무이다. 우리들은 깊이 생각하여 조금이라도 결전 보조를 문란하게 함이 없이 가두의 결전화에 협력할 것이다.

9. 출정군인 및 유가족의 원호(援護) 철저

호국의 영령, 전선 장병에게 대한 국민 감사의 염(念)을 새롭게 하여 위문품 발송, 근로봉사 상병 병 위문 등에 한 층 노력할 일.

(이상)

〈출전 : 檀庭 「決戰生活에 徹底하자」, 『新人間』 179호, 1943년 8월, 6~9쪽〉

8) 결전과 전투배치

檀庭

1.

지난번 경성에 밤 10시 쯤 되어서 사이렌(警笛)이 뛰-하고 울렸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이 사이에 사이렌은 아침 7시 궁성요배 시간과 정오묵도(默禱)시간에 정기적으로 불고 그 외에는 혹 방공(防空)연습 때에 사이렌이 불지마는 대개 연습할 때에는 예통(豫通)이 있으므로 일반은 연습의 사이렌인 줄을 알게 된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 통지가 없이 별안간 밤중에 사이렌이 불게 됨으로 누구나 정말 적기(敵機) 내습의 경계경보 사이렌으로 알게 됨도 무리가 아니었다. 그리하여 남자는 전투모에 각반(脚絆)을 차고 여자는 뽕뻬를 입고 나와서 소방 기구를 꺼내 놓는다, 대공(對空)감시원을 세운다, 구호부대원을 둔다, 연락원을 배치한다 하여 실전 그대로의 방공 방화에 대한 모든 준비를 착착 진행하는데 전기고장으로 인하여 일어난 사이렌이라는 통지가 있었다. 그러나 한참 동안은 재지·미(在支米) 공군의 일본본토습격계획의 소식이 빈번히 전하는 때인 만큼 이제는 전쟁이 목전에 당도하였구나, 참으로 적기의 폭탄이 우리의 두상에 떨어지게 되는구나 하는 불안과 공포에서 전일의 연습 때에는 도저히 볼 수 없던 긴장한 기분과 진검미(眞劍味)의 태도를 각자가 가지고 활동하게 되는 것을 목격하였다. 또 이 사이에는 경성부 주최 각 구(區) 대항 주수(注水)경기가 있어 각 애국반 단위로 주수연습을 하는데 각 반의 선수들은 다른 연습보다도 훨씬 다르게 열심히 연습을 하게 된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대항경기라는 데에 흥미도 있을 뿐 아니라 우승하면 상품도 타게 됨으로 다시 말하면 승리에 대한 명예와 현상(顯賞)이라는 요행의 상품에 공리적 관념이 동하여 아무런 불평불만이

65) 어떤 일에 필요 이상으로 마음을 쓰거나 얽매임.

66) 기운이 빠져 활동이 둔하고 혼미하다.





없이 저처럼 매일 긴 시간에 힘든 노고를 불구하고 혼연히 연습을 계속한다는 것이 직감되었다.

조선인은 장점도 많이 있지만 일에 대한 책임감과 강한 국가 관념이 부족하다는 것이 단점이라는 말을 흔히 듣게 된다. 이 말을 열린 들으면 조선인을 무시하는 말이라 하여 분개하기도 쉬운 일이다. 그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그 사람이란도 결코 조선인의 그 인격이 선천적으로 책임감과 국가 관념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금일의 현상에서 본다면 그러한 감이 없지 아니하다는 말이다.

전 국민의 식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곡공출, 양미 배급제도가 실시된 것을 지금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는 누구든지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소위 압취인(闇取引)<sup>67</sup>이라는 부정행위가 경향(京鄕)간에 의연히 끊이지 않는다는 그것을 무엇으로 설명하려는가. 이것은 국가보다도 개인의 이욕만을 위하여는 개인주의적 행동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따라서 국가 관념이 부족하다는 비평을 받게 됨도 이유가 없지 않다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개인의 생사에 관한 일에는 초인적 용기를 내면서도 국가적 흥망에 관한 일에는 이런 구실 저런 칭탁(稱託)<sup>68</sup>을 빙자하여 조금도 성의를 내지 아니하며 개인의 이해가 있는 일에는 남보다 솔선하여 나서면서도 국가를 위해서는 희생적 봉공에는 뒷걸음질 치는 것은 이것을 모두 국가보다 자기를 더 존중히 생각하는 개인주의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다. 금일과 같이 국가위급 존망지추(存亡之秋)에는 이러한 일체의 개인주의는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 2.

대동아전쟁은 문자 그대로 결전과 결전이 계속되고 그 정도는 날로 날로 더욱 심각 가열하여진다. 현재 전선은 남태평양, 버마, 중국, 북쿠릴(北千島)열도 등 지역에서 전개되어 있는데 그중 가장 격렬한 데가 남태평양방면이다. 적, 미영은 우리 남방공영권이 점차 개발되어 우리 제국에 군수자재로 불가결인 석유·주석(錫)·고무 등 자원에 자급자족을 얻어 그야말로 필승불패의 전쟁태세가 확립되어 감에 초조(焦躁) 황겁(惶怯)하여 이를 저지하고 다시 탈회(奪回)하려는 작전 기도에서 남방공영권내에 침입 공격을 필사적으로 반복하게 되므로 자연 남방공영권의 전위지역인 솔로몬 군도, 뉴기니아 방면에서 피아(彼我)의 공방전이 치열하여지는 것이다.

다음에는 버마 방면의 전선이 또한 중요한 전쟁 지역으로 되게 됨은 버마는 영국의 입장에서 보면 인도방위의 관문일 뿐 아니라 중경(重慶) 장개석(蔣介石) 정권에게 군수자재의 수송로로서 가장 편리한 지역이므로 따라서 중경 측에서도 버마 반공(反攻)을 상당 강경하게 주장하고 또한 재지(在支) 미(米)공군을 확충하여 일본 본토 공격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소위 버마 공로(公路)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다만 인도에서 공중로로만 보급한다는 것은 그 효과에 있어 누상(樓上) 투약(投藥)에 불과하므로 영미로서는 버마 탈회작전에 또한 중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작년에 현 인도 총독인 웨벨이 사령관이 되어가지고 버마 반공작전을 하였으나 인도국경인 '양카라'에서 황군에게 대섬멸을 당하고 이번에는 영국에서 해안 기습작전의 권위라고 칭하는 '마운드 베텐'을 발탁하여 동남아시아 반추축 사령관으로 선임하고 해육군연합으로 버마를 재반격한다고 선전

67) 암거래.

68) 사정이 어떠하다고 핑계를 댈.





하고 있지마는 황군의 실력을 잘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조금도 두려울 것이 없다.

다만 여기에 있어서 한 가지 경시하지 못할 것은 이탈리아의 '바돌리오'정권이 영미에 항복하는 동시에 이탈리아의 일부 함대가 영미 측에 가담되어 버렸으므로 영미의 지중해전에 해군의 여유가 생겨 영미함대가 동아로 이동할 수 있는 점이 경계되는 바이다. 그러나 여하간 대동아전쟁에 있어서는 의연히 남태평양방면의 전선이 가장 중요하게 된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위에도 잠깐 말한 바와 같이 남방공영권이 우리 수중에 있으므로 다시 말하면 대동아전쟁이 발발하자 결전에 있어 남방공영권지역이 황군에게 점령되었으므로 인하여 비로소 우리 제국은 자급자족의 경계를 확립하게 되고 장기전에 있어서 생산하여 가면서 전쟁할 수가 있게 되는 자격을 획득하게 된 것이다. 대동아전쟁 전(前) 남방공영권이 아직 우리나라의 지배하에 있기 전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자원적으로 보아서 자급자족이 되지 못하였다. 소위 일(日)·만(滿)·중(中)경제 블록 내에는 가장 전쟁에 필요한 석유산지가 없었다. 비행기제작에 없으면 안 되는 알루미늄의 재료인 뿐(不)기사이드 산출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고무도 없고 주석(錫)도 없었던 상태였다. 그러면 이러한 자원은 어디에서 수입해왔느냐 하면 전쟁 전에는 미국에서 매입하였으나 전쟁이 발발되자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거절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피 같은 한 방울이라 하는 석유, 살 같은 한 조각이라고 하는 철의 수입이 없는 우리 제국으로서서는 완전히 전쟁을 장기적으로 계속할 수가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다행으로 남방공영권 지역에서는 이들 자원이 풍부히 산출됨으로 이에 우리 제국은 독립(獨力)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적 미국에서도 잘 알고 있으므로 남방공영권 쟁취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필사적으로 대드는 것이다. 지금에 있어서는 남방공영권은 우리 제국의 생명선이 되어 있으므로 이 지역은 어디까지 확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리하여 피아(彼我)간에 결전과 결전이 전개되며 따라서 대동아전선 중 남태평양방면이 가장 중요한 전선이 되어있다.

이 남태평양방면의 전투를 다시 경제적으로 관찰하면 대소모전(消耗戰)이며 대보급전인 동시에 대생산전이다. 따라서 이 방면의 전투를 결정하게 되는 것은 생산이며 보급이다. 왜 그러냐하면 현재 이 방면의 전투는 그 특징이 기지 대 기지 즉 섬(島)으로부터 섬(島)에로의 공방전인 까닭에 이러한 전투에 있어서의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보급문제이다. 그런데 이들 기지는 일본과 미국 모두 본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현지에서는 자기 생산력, 자기 보급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모든 보급을 후방에서 가져오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자연 후방에서 모든 보급을 가져오자면 후방에 막대한 보급원을 두어 가지고 강대한 수송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이러한 보급력 수송력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그것은 물어볼 것 없이 총후생산에서 나오게 된다. 그리하여 비행기의 생산, 함선의 건조 이것은 그대로 전선의 전투력으로 나타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전선 총후가 일체가 된 그 힘에 의하여 전쟁이 수행되므로 1억 국민의 모든 활동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한다고 함이 결코 과언이 아니다.

가령 한 예를 들어 말하면 여기에 야포(野砲)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야포를 적군에게 발사하는 사수가 있고 포탄을 대포에 집어 넣는 병사가 있고 그 다음에는 포탄을 갖다 주는 병사가 있어 대포로서의 활동이 있게 된다. 즉 3자의 힘이 합하여 비로소 전투행위가 일어나게 된다. 그런데 이 3자는 모두 전투원이다. 현재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장병은 대포를 쏘는 병사와 같고, 보급에 종사하는 사람은 포탄을







대포에 집어넣는 병사와 같고, 총후에서 생산에 종사하는 국민은 포탄을 갖다 주는 병사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총후에서 생산 확충에 전력증강에 종사하는 국민도 훌륭한 전투원이요, 결코 전투국외자(戰鬪局外者)가 아니다. 최근 도조(東條) 수상은 1억 국민은 전투배치에 취하라고 하였다. 이 말은 물론 1억 국민은 모두 총을 어깨에 메고 전선으로 나아가라는 말이 아니다. 총후국민도 전선장병이 전투 배치에 서서 전투하는 것처럼 자기 직역에서 활동하는 것을 전투배치에 서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전선 장병과 같이 긴장한 기분과 진검미(眞劍味)의 태도로써 자아를 몰각하고 오직 직역봉공에 매진하라는 것이다. 지금은 촌각을 다투어 싸우는 결전시기이다. 1억 국민은 직장에 있을 때나 가정에 있을 때나 전투배치에 서있어 활동하는 것 같은 각오와 결의를 가지자.

〈출전 : 檀庭 「決戰과 戰鬪配置」, 『新人間』 181호, 1943년 10월, 6~9쪽〉

## 9) 12월 8일

단정(檀庭)

### 1.

개인이나 국체(國體)에 있어서도 어떠한 획기적 중대한 사실이 새로이 생기(生起)하였다고 한다면 그 일을 영원이 잊지 말고 기념하기 위하여 그 성질에 따라서 어떠한 날을 축제의 기념일로 특정하게 된다. 4월 5일은 대신사(大神師)께서 상제에게로 부터 우극대도(尤極大道)를 받으신 날이므로 우리 교회에서는 이날을 천일(天日) 기념일로 약정하고 매년 전 교회적으로 기념식을 성대히 행한다. 그와 같이 국가에 있어서도 어떠한 역사적 중대한 사실이 발생하여 이를 국가적으로 기념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경우에는 적당한 날을 국경일이나 국제일로 제정하고 전국적으로 기념식을 거행하는 동시에 국민의 새로운 주의를 환기하게 함은 이론상 당연할 뿐 아니라 실제 국정운영에 있어서도 다대한 효과를 거두게 됨은 우리들의 贅論(贅論)<sup>69)</sup>을 불사(不俟)하는 바이다.

12월 8일, 이날은 다 아는 바와 같이 적 미영(米英)에 대하여 항공하옵게도 선전(宣戰) 대조(大詔)<sup>70)</sup>를 봉대(奉戴)해온 날이다. 이날로부터 적 미영과 전쟁이 개시되었고 동아천지로부터 구축하여 신질서에 기반한 대동아공영권을 건설할 수 있게 된 날이다.

이번 필리핀(非律賓) 공화국에서는 이날을 동야 해방일로 제정하고 국가적 기념일로 작정한 것은 이날이 있었음으로 하여 동야 10억 민중이 미영의 지배와 착취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1억 국민이 이날을 성대히 기념하고 봉축함은 국민으로서 당연히 거행할 성전(聖戰)이요, 중대한 행사임은 물론이다. 아직 대동아전쟁이 완수의 역(域)에 이르지 못하고 결전과 결전이날로 날로 치열 가혹하여 가는 이때에 식전(式典) 그보다는 전쟁완수에 대한 그 인식과 노력을 한층 더 철저히 하는 것이 이날을 가장 의미 깊게 기념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원래 대동아전쟁은 어떻게 발발되었으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를 다시금 구명하여 보는 것도 그다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닐 것이다.

69) 쓸데없는 너저분한 이론.

70) 조칙(詔勅). 조서(詔書). 임금의 명령을 일반에게 알릴 목적으로 적은 문서.





2.

적 미영으로 말하면 동아를 영원히 자기들 앵글로 색슨족(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민족)의 제패하에 지배하려는 야망에서 중경(重慶)에 잔존하는 장개석(蔣介石) 정권을 원조하여 지나사변을 될 수 있는 대로 오래 끌도록 하여 일본 국력이 차차 소모하여 가기를 바라며 한편으로는 제국의 주변에 군비를 증강하여 제국에 도전하는 동시에 제국의 평화적 통상에 모든 방해와 압박을 가하는 나머지는 필경 제국에 대하여 경제적 단교를 감행하는 폭악 무례한 행동으로 나오게 되었다. 사태가 이대로 진행되어 간다면 제국의 생존과 자위(自衛)에까지 중대한 협위(脅威)가 미치게 될 것이므로 제국정부에서는 사태를 되도록 평화롭게 해결하여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며 선린(善隣)의 교의(交誼)를 어디까지나 유지하려는 성의와 양심에서 일(日)·미(米) 교섭을 개시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조금도 상호 교양(交讓)의 정신이 보이지 아니하고 전쟁준비 완료를 기다리는 동안 도연(徒然)히<sup>71)</sup> 시일만을 천연(遷延)하려는 외교적 혼담(魂膽)이 드러나게 되었다. 사정이 여기에 이르러서는 제국의 평화에 대한 염원과 교섭에 대한 선의가 무시될 뿐이오, 국면을 타개하여 국교를 정상시로 회복하게 함에는 아무런 효능이 없게 됨을 느끼게 되는 제국으로서는 부득이 자존자위(自存自衛)와 동아의 안정을 위하여 감연(敢然) 쫓기하지 아니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즉 재작년 11월 26일 일미 제 4차 공식회담의 석상에서 미국정부가 제출한 통칭 ‘월 4원칙’이라는 대안(對案)을 보면 그 동안의 미국 측의 주장을 다시금 부연(敷衍)하는 동시 다변적 불가침 조약의 체결, 제국군의 중국과 프랑스령 인도차이나(佛印)으로의 철퇴, 남경정부의 부인, 일독이(日獨伊) 삼국동맹의 실질적 폐기 등을 내용으로 한 것이므로 제국이 일본 조국(祖國)을 미국의 지배하에 복종하게 됨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이상 도저히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이었다. 이것은 대등적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공연한 최후통첩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예리한 단도는 그대로서 우리의 목에 향하여 찌르는 것이다. 그때 이 대안을 노무라(野村) 대사와 한가지로 월 국무장관에게로 부터 수취하여 통독한 후 쿠르스(來栖)대사는 루즈벨트 대통령을 방문하고 다시금 반성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별로 답변도 하지 아니하고 미국으로서는 최근의 정보에 비추어 최근의 주장을 이에 반복할 뿐이라고 하며 냉연(冷然)하였다 한다. 『그 후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공문서와 로버트 위원회 보고서에 의하여 본다 할지라도 월 장관은 그때에 미국 육해군 당국에 대하여 일미교섭은 결렬이라고 공언하였으며 그 다음 날에는 영국대사에게도 그 말을 언명하였다는 것이 게재되었다. 쿠르스(來栖)대사가 그때 그 통첩을 받고 재삼(再三) 실망하였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것은 11월 20일 일본 측의 제안에 대한 답안인 때문이다. 11월 20일의 일본 측의 제안으로 말하면 그야말로 공평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일본의 프랑스령 인도차이나(佛印)남부의 주병(駐兵)을 북부로 이주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20일 이후 미국에서는 물론 마닐라, 상해 등지 외국인 간에서는 일미 교섭은 성립의 조짐이 보인다, 적어도 잠정적 협정만은 성립되리라고 기대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최후통첩이나 다름이 없는 대안을 제시하는 미국으로서는 이번 전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것은 다시 더 증언부언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71) 아무 일 없이



3.

현재 미국에서는 이번 일미전쟁의 목적이 아무래도 확연 명백치 아니하기 때문에 루즈벨트 정부에 대한 국내의 불만과 내외의 상당한 비평이 자자하게 됨으로 이에 낭패(狼狽)한 루즈벨트 정부 당국자 측에서는 어떻게 하던지 이것을 억지(抑止)하고 국민의 불만을 완화하려는 수단으로 이번 전쟁은 미국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일본이 먼저 개시한 것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선전을 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또 ‘하와이 진주만의 일을 기억하라’는 표어로 교묘히 전쟁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그러나 일미전쟁은 결코 일본에서 먼저 개시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일본으로 하여금 도저히 인내할래야 인내할 수 없는 정도의 요구를 하게 됨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을 이상에 말하였거니와 다만 표면에 일어난 사상(事象)만을 가지고 본다면 제국의 선전포고가 미국의 선전포고보다 몇 시간 앞서 발표(發佈)된 것만은 사실시오, 개전벽두(劈頭)에 저희가 가장 기대하고 자랑하던 소위 태평양함대가 제국 항공부대의 맹습에 의하여 일조(一朝)에 진주만을 물속에 수장이 되고 만 것만큼은 그들의 심담(心膽)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하였다. 그리하여 그들도 대일중오와 반감에서 일본이 먼저 전쟁을 개시하였다고 떠들고 있지만 그것은 필경 약자의 비명에 불과함시오, 사실에 있어서 전쟁의 원인은 미국에서 도발하게 된 것이 명백히 증명 되는 것이다. 왜 그러냐하면 현대의 전쟁은 그 본질에 있어서 국가총력전이 아니 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전쟁형태가 자연 무력의 방면에만 한정되지 아니하고 경제, 사상, 외교 모든 방면에 미치게 된다. 다시 말하면 국가에 대한 국방상 협위는 단순히 무력침입뿐만 아니라 경제 기타의 방면에도 통절히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일미(日米) 개전 이전의 제국의 경제와 같이 군사상 필수자재와 자원이 충분하지 못한 국가에 대하여는 경제 수단에 의한 압박이야말로 국가 생명의 근거에 치명상을 주지 아니할 수 없다. 그리하여 현대에 있어서의 경제봉쇄, 자산동결령과 같은 경제적 압박 수단은 이것이 전쟁유발의 대요인이라 하기보다도 그 자체를 벌써 전쟁 행위로 간주(看做)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1939년 7월에 미국은 제국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통상폐기를 선언하고 이래 직접, 간접 대일 경제적 위협(威嚇) 정책으로 일관하여 나아오다가 제국이 그 위협에 굴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자 다음에는 석유를 위시하여 차례로 철, 설철(屑鐵) 외 철 금속기계 등 모든 중요 물자에 대일공급을 금지하였으며 1941년 7월에는 소위 자산동결령이라는 것을 시행하여 종래 국제관계에 있어서 전례 없는 폭거(暴舉)를 감행하면서도 전쟁은 일본이 먼저 시작하였다. (이하 원문 누락)

〈출전 : 檀庭 「十二月八日」, 『新人間』 182호, 1943년 12월, 3~6쪽〉

## 10) 금년은 결승의 해

단정(檀庭)

대동아전쟁 개시 이래 황군장병의 선모용전(善謀勇戰)과 더욱 최근 적의 필사적 반공(反攻)에 대하여 비할 데 없는 대전과를 거두는 등 중국의 승리에 향하여 강한 보조로 나아가고 있는 이때 세기 전환



의 역사적 대동아전쟁 제3신년을 결승의 해로 맞이하게 됨은 1억 국민이 모두 한 가지로 경하하여 마지 않는 바이다.

따라서 2년 전 제국의 형세와 금일의 지위를 비교해보면 실로 감개무량의 느낌이 없지 아니하다.

2년 전의 제국으로 말하면 미영의 악독한 야망으로 인하여 제국은 경제적 군사적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제국의 존립까지도 거의 위태한 경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때 만일 그대로 방임하였다면 제국은 필연 미영의 지배에 굴종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었을 것이며 동야 모든 민족도 영원히 그들의 질곡(桎梏)하에서 해탈하지 못하고 말았을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1941년 12월 8일 황공하옵게도 “- 짐(朕) 이에 미국과 영국에 대하여 전쟁(戰)을 선포(宣)한다. 짐의 육해장병은 전력을 다투어 교전에 종사하며 짐의 백료유사(百僚有司)는 여정(勵精)<sup>72)</sup> 직무를 봉행하며 짐의 중서(衆庶)는 각각 본분을 다하며 억조(億兆) 일심(一心) 국가의 총력을 기울여 정전(征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유산(遺算)이 없기를 기하라-”하옵신 선전 대조(大詔)를 환발(渙發)<sup>73)</sup>하시었다. 대조를 봉대하온 1억 신민은 모두 다 감격 감읍하여 미영 격멸의 굳은 결의를 하게 되고 총용무비한 우리 황군은 분연 쫓기하여 진주만 폭격을 감행하여 미국의 자랑하던 태평양함대를 그야말로 일조에 궤멸시키었으며 말레이(馬來) 반도에 상륙한 장병은 장구(瘡口)와 정글지대를 돌파하여 영국의 극동 거점이던 싱가포르(新加坡)군항을 공함(攻陷)하고 전진하여 버마, 네덜란드령(蘭領) 인도 등 지역을 점령하여 필승불패의 전시태세를 확립하는 동시에 동아로부터 미영의 침략 세력을 구축 소탕하고 동야 모든 국가와 모든 민족을 해방하여 도의(道義)에 기초한 공존공영의 대동아 신질서건설에 지도의 역할을 담당한 영예와 공지를 가지게 된 금일의 제국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 이것이 어찌 다만 인모(人謀)<sup>74)</sup>와 우연이라 할 수 있으랴. 여기에는 반드시 천의(天意)와 신조(神助)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이번 대동아전쟁이 자존자위의 정의에 입각한 전쟁이요, 동야 10억 민중의 해방을 이상으로 하는 인도(人道)의 성전이라 할지라도 전쟁의 승리 그것은 결코 공연히 좌이대수(坐而待受)하게 되지 않는 아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눈물겨운 노력과 피의 희생이 따르지 아니할 수 없다.

천(天)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은 어느 때나 진리의 격언이며 손무(孫武)의 지피지기(知彼知己)라야 백전백승(百戰百勝)이란 말은 고금 불변의 병법이다. 전국의 추이로 보아서 금년은 작년보다 가일층 가열(苛烈)한 결전이 계속될 것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총후국민으로서도 전쟁의 본질을 파악하여 전국의 단계와 실상을 지실(知悉)<sup>75)</sup>함이 이 결전하의 금일에는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 2.

전쟁은 2년 동안 어떠한 상황의 단계로서 지내왔는가. 2년 전 제국은 자존자위를 위하여 부득이 간과(干戈)를 들고 일어났다. 그러나 당시는 동해의 섬나라(島國)로서 석유도 고무도 산출이 없다. 다시

72) 마음을 가다듬고 성의껏 힘쓰.

73) 임금의 명령을 세상에 널리 알림.

74) 사람의 꾀.

75) 모든 형편이나 사정을 자세히 알.





말하면 현대 전쟁 물자라고 말한 것은 거의 결핍되어 있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기 때문에 당초에 미영이 제국을 경멸(輕蔑)히 보게 됨도 무리가 아니었다. 그런데 한번 일어나자 반년 동안에 남방 자원지를 황군의 장중(掌中)에 거두게 되어 전쟁자원에 대하여는 자급권(自給圈)을 확립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방위 제 1선도 일본 본토로부터 4, 5천 킬로 원방에 있게 되었으므로 지리적으로 보아서도 불패의 태세를 확보하게 되었으니 여기까지가 전쟁 제 1기로서 말하자면 자존을 위한 전쟁이었으며 다음은 미국의 반공(反攻)기간을 제 2기로 할 수 있으니, 미국은 서전(緒戰)에 있어서 참패를 당하게 되자 전력을 다하여 비행기와 함선의 대확장을 실시하였다. 미국 육군 참모총장 마샬의 언명에 의하면 인적동원에 있어서도 1천 1백만 인을 징용한다 하며 학생의 8할은 항공병(航空兵)으로 채용하였다 한다.

그리하여 재작년 하기(夏期)부터 소위 반공을 시작하여 처음에는 남부 솔로몬 과달카날 섬(島)에서 피아(彼我)의 공방전이 전개되었다가 차차 중부 솔로몬으로 진공해왔으며 재작년 11월 중에는 북부 솔로몬 부겐빌까지 오게 되고 12월에는 남양위임통치령의 근변 길바도에도 상륙을 개시하였다. 제국항공 부대가 부겐빌에서와 길바도에서 다대한 전과를 거함은 그 동안 우울한 국민의 기분을 일소(一掃)하여 주게 되었다. 여하간 미해군이 부겐빌와 길바도 충해공전(沖海空戰)에서 다수의 항공모함, 전함 및 각종 함선을 해저에서 수장하면서도 태평양 침공 작전을 의연히 고집하여 나옴은 여기에는 전략적으로서 일본의 광대한 남방점령지역에 대하여 개발의 시간을 준다면 일본은 금후 도저히 타도할 수 없는 강력의 지위를 축성할 우려가 있음과 지금에 중경에 실질적 원조를 하지 아니하면 장(蔣)정권은 머지않아 반추축 공동전선에서 탈락되지 아니할까 하는 점과 영국, 소련 양국도 구주(歐州)전에서 상당히 피폐(疲弊)하였으므로 양국이 모두 희생이 많은 장기전을 원하지 아니함으로 구주전이 단락된다면 대일전에는 직접 참가를 하지 아니하려는 경향이 없지 아니한 점과 미국인은 승리를 속히 희망하며 특히 루스벨트 정권은 내년 대통령선거 전에 어떠한 승리를 얻지 아니하면 아니 될 처지의 정치적 이유에서 대규모의 태평양 작전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제 3기는 적의 반공을 방어하면서 공세를 취하여 적에게 치명상적 타격을 준 기간이니 2기, 3기는 자위의 전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느 전쟁이든지 의례 이러한 3단 기간으로 전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 일(日)·청(淸) 일(日)·러(露)전쟁역으로 말하면 제국이 처음부터 끝까지 종시공세를 취하였으나 이번 대동아전쟁은 전혀 공세만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과거 전쟁과 현대 전쟁이 그 본질상에서 상이한 점이며 또한 장기전과 단기전 무력전과 총력전 등 명칭에 따라 일어나게 된 것이다.

### 3.

이와 같이 현대 대동아전쟁은 본질상에서 총력전이 되게 됨으로 장기전이 되게 됨도 불가피의 사실이다. 이것은 전쟁이 개시됨으로부터 이미 각오한 바이므로 거기에 대한 제반 대응책은 강구되어 있다. 금년을 결승의 해로 작정함도 거기에 상당한 근거에서 자신을 가지고 하는 말이요, 결코 신년 축하의 희망으로서만 하는 말이 아니다. 그러면 금년은 어찌하여 결승의 해이며 또는 어떻게 하여 결승을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없지 아니할 것이다. 물론 작전에 관한 기밀은 극비인 만큼 군당국자로서도 자기의 책임 범위가 아니면 알 수도 없고 알고고도 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만큼 문외자인 필자로서야





어떻게 작전 방침을 알 수가 있으며, 가령 어찌하여 다소 안다 하더라도 지상(紙上)에 공개할 수가 없는 것만은 독자 여러분이 충분 양해하실 줄로 믿는다. 그러므로 작전에 대한 전략 문제는 논외로 하고 금년이 어찌하여 결승의 해이나 하면 이러한 이유에서 하는 말이다.

미국이 태평양 제 1주의로 대일 작전에 중점을 두게 된 것만은 작금의 대규모적 반복 공격으로 보아서 쉽게 추측된다. 그러면 앞으로 대결전이 전개될 것이며 대 결전이 계속 된다면 좌우간 전국에 변화가 생기게 될 것도 필연적인 사실로서 승리의 관건(鍵)이 우리에게 있는 만큼 금년 어느 시기에는 결승하리라고 예상함도 무리가 아닌 것이다.

그리고 전문가의 견해에 의하면 미국의 생산 증가는 작년 말까지가 최고도에 달하고 금년부터는 점차 하강하리라고 한다. 그러면 전력이 증강 될 때에는 보급전인 현 전쟁에 있어서 공세를 취할 수가 있지마는 생산이 감소하거나 고정이 된다면 막대한 손모(損耗)를 전제로 하는 현 전쟁에는 도저히 공세를 취하지 못하게 되고 수세를 자연 취하게 되는 것이다. 그 반면에 우리는 금년부터 전력 생산이 비약적으로 증강될 것이므로 이 점만으로도 금년에는 결승을 하게 될 해라고 자신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몇 가지의 이유가 없지 아니

(중략)

승리는 최후 5분에 있다는 말과 같이 완전히 승리를 거두기 전에는 탈선적 낙관기분을 갖지 말고 오직 필승의 굳은 신념하에 절대의 노력으로 총력을 다하여 성전(聖戰) 완수를 기하기로 하자.

(출전 : 檀庭 「今年은 決勝의 해」, 『新人間』 183호, 1944년 1월, 6~8쪽)



## 7. 최안국(崔安國)

### 1) 국체(國體)와 신체제에 대하여

화전흠오(和田欽五)

세계는 국가중산출(國家中產出)이오 국가는 천포중탄생(天胞中誕生)이라. 이 세계의 거취(去就)를 욕지(欲知)하려면 기모체인 국체를 선지하여야 한다. 지금 우리제국의 국체를 일언하면,

#### 1. 만세불이(萬世不易)의 신통적(神統的) 국체

대일본제국의 국체는 우주의 태초로부터 신대(神代)의 사적(史蹟)이 계전하여 천지어중주신(天之御中主神)의 도를 직접 체현하시사, 천조대신이 인간계에 어조림(御照臨)하옵시고 신무(神武)천황께옵서 지금으로부터 2천 6백 1년 전(1941년)에 강원신궁(橿原神宮)에 현인신(現人神)으로 어즉위(御即位)하셔서 황도정신(皇道精神) 팔굉일우(八紘一宇)의 국체적 전체주의의 국가도덕을 현현하옵신 신적 국체이다.





## 2. 씨족단결의 국체

의즉군신(義則君臣)이시고 정여부자(情如父子)이신 대가족적 국체이시니 만세일계의 전통적 국체이다. 타국의 국체는 권력적 결합이므로 누변(累變)하나 우리 제국의 국체는 권력적 결합이 아니요, 신적 결합이시므로 만세일계의 신국이다. 신무천황께옵서는 천조대신의 증손이시고 역대의 천황께옵서는 현인신의 신통을 어계승(御繼承)하옵시다. 금상 천황폐하께옵서는 일역신민의 부모이시고 일역신민은 천황폐하의 적자이었으니 씨족적 대가족국가이다. 오늘날 내선일체(內鮮一體)가 된 것은 원래 내선인의 혈통이 동일한 까닭이다.

## 3. 명치(命治) 및 법치적 국체

현인신이옵신 천황폐하께옵서 천명을 계수하시사 일역신민을 통치하시므로 명치는 즉 덕치이다. 법치는 메이지유신 때에 세계문명을 참작하여 헌법을 함정(欽定)하옵시고 천명적 덕치에 법치를 겸용하시므로 법치이다. 그러나 혹 비상시에는 법치를 초월하여 천명 그대로 대명(大命)이 직하하옵신다.

## 동아신질서 건설

동아신질서 건설이라 함은 구질서의 폐거(廢去)를 의미한 것이니, 그의 표본이 무엇에 의함인가. 즉 천지공도(天地公道)에 의조(依照)하여 구질서는 불완전하고 신질서는 신성함으로 건설하는 것이다. 고노에(近衛) 수상의 말씀에 “만방각득기소(萬邦各得其所)”란 이것이 진실로 천의(天意)에 합치된 요체이다. 무릇 공도(公道)는 2자가 있으니 만물각득기소(萬物各得其宜)는 자연계의 공도(公道)요, ‘만방각득기소(萬邦各得其所)’는 인간계의 공도이다. ‘방불득기소(邦不得其所)’이면 방내 인민이 불안이다. ‘비여선불안(譬如船不安)’이면 선중인(船中人)이 개위불안(皆爲不安)이다.

현하 세계만방이 각득기소(各得其所)인가. 중국, 프랑스령 인도차이나(佛印), 네덜란드령 인도네시아(蘭印), 인도 등등 제방(諸邦)이 각득기소호(各得其所乎)아 백 년 전 이래로 서양의 백인종이 동양제방을 병탄하여 크게 불안 중에 빠지게 하고 중국대륙을 만반교계(萬般狡計)로 침략하여 중국민족에게 모일(侮日) 항일(抗日) 배일(排日) 등등 운동을 교사(教唆), 고취(鼓吹)하여 필경 지나사변을 도발케 함으로 일본제국에서 은인자중하다가 반항분자를 응징 처리하는 때를 맞아 수상계서 3대원칙을 성명하고 동우구안(同憂具眼)한 중국 민족을 구제하면서 일만지(日滿支) 3국의 공동제휴(共同提携)로 백인종의 침략주의를 동아로부터 구축 근절하기로 고도국방(高度國防) 국책을 확립하고, 일변 성전, 일변 건설 양방으로 용왕매진(勇往邁進)하여 지나사변 처리, 동아신질서 건설, 대동아공영권 확립, 세계 신질서 건설에까지 도달하도록 대이상 대목적을 확립하고 국력을 걸고 국보(國步)를 운전하였다. 이와 같은 성업(聖業)의 대목적은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국내의 신체제를 확립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신체제는 어찌해서 모출(模出)함인가. 신체제는 천법(天法)을 계승하여 덕치(德治)로 입극(立極)하신 제국헌법에 근거하여 연역(演繹)한 것이다. 이를 상지(想知)하려 하면 인간의 신체적 생리 조직에 대조하면 그 의의를 서지(庶知)할 것이다. 인체 조직에는 8부로 구성 하였으니,





### 1. 유일생명

인간의 신체는 생명이 유일이요, 둘이 아니다. 고대 어느 지방에서 양두아(兩頭兒)를 출생하였는데 그 아이가 출생 후 몇 년간은 부모의 사양(飼養)에 의하여 생명을 보지(保持)하였으나 점차 성장하여 의식이 초생(稍生)하게 됨에 전두(前頭)가 밥을 먹기를 원하면 후두(後頭)는 물을 마시기를 원하고, 전두가 진행(前行)하겠다면 후두는 후행(後行)하겠다 하여 매매(每每) 기거(起居)에 양두의 의견이 상위(相違) 불일(不一)함으로 결국 생명을 상실하고 말았다 한다.

나라 역시 한 나라 안에 2개 정당이 대립하면 일신(一身)에 이두와 같아 전적 통제가 위난(爲難)이다.

우리 제국은 조국(肇國)이래 만세일계(萬世一系)의 신통(神統)이옵신 천황폐하께옵서 만기(萬機)를 어친재통람(御親裁統攬)하시사 1억 신민을 어친림화육(御親臨化育)하시옵시니 이는 곧 세계 무비의 유일무이하신 국체이시다.

현하 독일과 이탈리아 양국은 수 10년래로 다당(多黨)을 일소하고 일당을 수립할사, 독일은 '나치스', 이탈리아는 '파쇼'란 당을 조직하여 각각 국제적 국제주의를 실현하여 구주(歐州)의 신질서 건설과 구주의 공영권을 확립하려는 때이니 이는 실로 우리 제국의 국체보무(國體步武)를 효방(效倣)하는 것이로다.

### 2. 생명의 발전과 방위

인신 외부에 조문(蚤蚊)<sup>76)</sup>이 소동(騷動)하면 단장(團帳) 소독하고 내부 혈관에 미균(微菌)이 침입하면 4백조 세포가 총력 기동하여 전신 각 부의 균적(菌敵)을 토벌 구축하여 전적 생명을 호위하나니.

국가에서 일조유사(一朝有事)하면 전 국민이 총력 동원하여 대소 세미(細微)를 막론하고 적성이 발아(發芽)되는 분자는 응급 처분하여 국강민진(國強民進)하는 것이다.

### 3. 사상통일

인신(人身)행동에 사상이 통일하여야 만사를 장애없이 진행이다. 만약 사상이 불통(不統)하여 뇌명(腦命)에 수족이 불응하고 족동(足動)에 목불응시(目不應視)하면 만사불성(萬事不成)이요, 뇌일발령(腦一發令)에 백체(百體)가 순종하면 만모서중(萬謀庶中)하나니.

국가 역시 사상통일이 선결문제(先決問題)이다. 예컨대 과거 구주(歐州)전쟁<sup>77)</sup> 때에 독일이 전패(戰敗)한 것은 국내에 비국민적 사상을 가진 불령(不逞)분자가 혼거(渾居)하여 국내의 기밀을 국외에 누설(漏泄)한 소치(所致)요. 이번전쟁에 독일이 도처에서 승리한 것은 출전 전기(前期)에 기선(機先)<sup>78)</sup>적으로 국내에 잠재(潛在)한 비국민 사상을 가진 분자를 철저히 정리한 소이(所以)이며 또한 프랑스(佛國)가 이번 대독(對獨)전쟁에 패배한 것은 국내에 2개 정당이 대립하여 사상이 불통일 하였으므로 철벽(鐵壁)으로 과신(誇信)하던 '마지노선'을 일조에 실수(失守)하고 독일군 앞에 도일납항(倒劍納降)하였다.

우리 제국신민은 1억 만민이 일승(一繩)에 1억 만주(萬珠)를 관(貫)함과 같이 황도정신에 일관하여 신도(臣道)실천의 일상생활을 체면(體面)화, 형식화 하지 말고 정신화, 골육(骨肉)화 하여 국가봉사를 발령첩종(發令輒從)하여야 당하(當下)에 박두(迫頭)한 고도 국방국가의 사명을 완수하고 장기의 성전과

76) 벼룩(蚤)과 모기(蚊)

77) 제1차 세계대전을 일컬음.

78) 어떤 일이 일어나려고 하는 직전. 적이 행동(行動)하려고 하는 직전.







승고의 성업을 달성할 것이다. 만일 개인의 일념두(一念頭)에라도 등한(等閒) 태타(怠惰)의 마음이 발아한다면 황도정신에 불관낙재(不貫落在)인 동시에 생거사귀(生居死歸)간에 도피무처(逃避無處)할 터이니 결왈(訣曰) “사귀막면국가무(死歸莫免國家務)라 영계유존신무황(靈界猶存神武皇)”이다.

#### 4. 적재적소(適材適所)

인신(人身)구조에 이목구비, 수족 등 각 부분이 적재적소 아닌 것이 없다. 만약 머리와 배가 상환역립(相換易立)하여도 부적재 부적소이오. 이속목위(耳屬目位)하고 목재두상(目在頭上)하며 수환족부(手換足部)하고 족환수위(足換手位)라도 부적재 부적소이다. 오직 천주(天主)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에 누열(累閱)경험으로 선택 적재(適材)하사 묘치(妙置)적재하셨으니 지금 불감변환(不敢變換)은 천연의 정률(定律)이다. 단 맹장(盲腸)은 고대 식물(食物) 생식(生食)때에는 이중의 위가 필요하였으니 지금 속식(熟食)에는 퇴화(退化) 무용(無用)하므로 근래에는 맹장을 수술 제거하는 사람도 거다(居多)하다.

우리 제국에서 국민 중 적재의 기술자를 선택하여 국민등록을 편치(編置)한 것은 적재적소에 등용을 당한 것이니.

우리 국민은 비록 위일기일능(爲一技一能)이라도 극구정공(極究精工)이라야 편용국민(編用國民)이오. 무일기일능(無一技一能)이면 도식무위배(徒食無爲輩)오. 난위정당국민(難爲正當國民)이라.

필경 맹상동양(盲傷同樣)으로 자제수술(自除受術)하리니. 무릇 백기술(百技術)에 정구정공(精究專工)하여 기술보국이 과위 진충(盡忠)국민이로다.

#### 5. 직역봉공(職域奉公)

인체 내외의 각 부 기관이 각기 소속한 당역(當域)에 상임하여 일사물란(一絲勿亂)으로 외부의 이목구비, 수족과 내부의 대뇌(大腦), 소뇌(小腦), 신경(神經), 심장(心腸), 위장(胃腸), 세포(細胞), 골격, 근육 등등 각종 기관이 그 역(域)에 상임하고 그 직(職)에 성근(誠勤)하여 인신전체의 생명을 봉공(奉公) 지지(支持)하나니.

인어국가(人於國家)에 유국이래(有國以來)로 이국무민(離國無民)하고 이민무국(離民無國)은 천연의 공도(公道)라. 고로 위기국민자(爲其國民者)는 각기 자주(自住)의 영역에서 안서(安棲)하여 군인은 진지(陣地)에서, 관리는 청상(廳上)에서, 교사는 강당(講堂)에서, 공자(工者)는 공장에서, 농민은 농장에서, 상인은 시장에서, 그 직사(職事)를 근행(勤行)하여 1억 신민이 일치총력하여 국민 각자가 직역을 통하여 국가에 봉공하여야 유신(有信) 유권(有權)의 국민 자격을 가득(可得)이오. 직역봉공의 실적이 국가에 불통하는 자는 여국무관고(與國無關故)로 자외국민(自外國民)하나니 하자(何者)오. 불통(不通)직역자는 시내유민(是乃遺民)이라. 만약 국민이 전 위유물(全爲遺物)이면 국무성립고(國無成立故)로 무직자(無職者)를 국필불허(國必不許)한다.

#### 6. 공익우선

인체 조직 중에 408조의 세포가 일심총력으로 공익을 우선하여 전신의 생명을 안보(安保)하나니. 속어에 말하되 이목비수족(耳目鼻手足)등 5부가 일찍이 모여서 제의(提議)하여 말하길 “우리들이 생평(生平)의 근로를 다하여 작업한 실익(實益)은 입안으로 모두 납공헌(納貢獻)하여 입으로 하여금 한가로이 누워 독식하게 하고 우리들은 도노무익(徒勞無益)하니 인책(引責) 사퇴(辭退)하라” 하였다. 입이 안연





(安然)하게 대하며 말하길 “나는 무위도식(無爲徒食)하지 않는다. 너희들의 노력하여 거둬서 주면 나는 곧 받아서 취하여 혀를 굴리고 이로 씹어서 인후(咽喉)로 옮길새 그중에 말사세망(末沙細芒)이 혼입(混入)이라도 후두(喉頭)가 일일점 검퇴각(檢退却)함으로 순치설인(唇齒舌咽)이 합작세작(合作細嚼)하여 공송수납(恐悚輸納)하면 식도 하부에 위공(胃公)이 몰수(沒收) 와식(臥食)하는데 너희들은 이와 같은 진상(眞狀)을 전연 몰각(沒覺)하고 나를 향해 질의(質疑)하니 경물치번(更勿致煩) 하라” 하고 입과 더불어 이목비수족(耳目鼻手足)이 합작하여 위공(胃公)을 기근하게 하기 위하여 폐식(廢食)동맹을 수결하고 부식한와(不食閒臥)하니, 몸이 비록 안일(安逸)이나 며칠이 지나지 않아 순착난개(瞬着難開), 귀는 청음을 듣지 못하고 수족은 기운이 없어서 감히 기동하지 못하더라. 이목수족등이 입으로 하여금 위에 보내는데 위를 향해 진언하여 말하기를 “위공의 한와도식(閑臥徒食)을 나의 무리들이 증오하여 몸 밖의 각 부분이 폐식동맹을 수결하고 불식한와 하더니 며칠이 지나지 않아 혼신(渾身) 각부(各部)가 힘이 없고 일어나기 어려우니 시성하고(是誠何故)오.” 위가 웃으며 말하기를 “너희 무리가 나를 먹이지 않은 까닭으로 나 역시 너희들에게 보내지 아니하여 너희들로 하여금 기운이 없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도다.” 입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습니까.” 위공이 말하기를 “증여한식(憎余閒食)이나 나와 같이 다사분망(多事紛忙)한 자는 천하에 다시 없다. 너희들은 음식을 위로 날라 들어가게 하면 회(灰), 당(糖), 지(脂), 분(粉), 비타민, 각종 질분(質分)을 명사분석(明查分析)하여 신체 내외 각부의 영양 분자를 분배 지급하여 내외 각부의 제생(濟生)을 영도(穎圖)하는 동시에 전체의 생명을 완구(完救)하게 하니 이욕선생(爾慾善生)이면 나를 위해 공익을 우선으로 성봉(誠奉)하면 나 역시 너희들에게 분배 지급이 나보다 풍부하리라” 했다. 입이 순승퇴귀(順承退歸)하여 백체(百體) 일치(一致)로 위공의 공대(供待)를 배가(倍加) 우선하여 온 몸이 안강(安康)하다고 하더라. 국민이 국가에 향하여 우공(優公) 즉 우사(優私)하나니 가령 국가에서 백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국민에게 수납하였다 하면 그 백억 원이란 수입금이 대장성(大藏省) 금고에만 적재하는 것이 아니오. 국가의 전체적 생명을 성장 전진하게 하기 위하여 민간 도처로 배합 지출하는 것이니 민간에서는 각수기능(各隨其能)하여 만반 직업을 유근치력(惟勤致力)하여 각종 생산을 확충 출품하여 국가에서 수요하는 물자를 신속 공급하면 백억 원의 국고 정금(正金)이 일반 민간으로 환래(還來) 융통하는 것은 우리가 목도하는 사실이다. 요컨대 공익 우선이라는 것은 종전의 사익 우선하던 방향을 공익 우선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즉 종전 평상시에 자유 경제하던 것을 공익 우선의 생활로 전환하는 것이다. 국민의 종전 생활은 생산과 소비를 자유로 영위하기 때문에 개인 소득 중에서 기허분(幾許分)을 국세로 봉납한 나머지는 농가에서 우마계돈(牛馬鷄豚)등에 단 1척(一隻), 1수(一首)가 남아도 자기의 자유적 소유요, 금 1원, 쌀 한 두가 남아도 자기의 자용적 소유로 인정하여 무한 저축, 무한 소비를 하였으나, 1차 비상시기를 담임(擔任)한 이번 달에는 송아지(犢) 한 마리, 닭 1수가 남아도 국가, 금 1원 쌀 1되가 남아도 국가를 위하여 봉공하여야 하며 기거(起居) 몽매(夢寐)하여도 국가, 국가의 충성을 강념(強念)하여 이론을 떠나 실천 궁행(躬行)을 전문(專務)하여야 신동아건설과 대동아공영권 확립의 성업을 수행할 것이다. 만약 우리 시대에 성업의 기초를 확립하지 못하고 일삼방과(一霎放過)한다면 국가 후대와 자손장래에 대불출, 대좌악을 자부막면(自負莫免)할 터이니 우리 국민은 일억 일심으로 사상, 무력, 경제 등 3대 전쟁에 총력 병기하여 신도실천에 멸사봉공하는 최후 정신을 극력 발휘하여 물심(物心) 쌍전(雙全)에 골육화(骨肉化) 신비화(神秘化)까지를 신전에 경고하고 일억





일심의 결정(結晶)적 총화(總和)가 세계무비의 거괴(巨塊) 폭탄을 혼작(渾作)하여 적성국가가 접근되면 이 거괴적 폭탄의 강력 폭발하에 적국이 연화비산(煙化飛散)할 것을 자신 자각하고 있어야 한다.

### 7. 자양분배

인체 각부에는 식물의 양분이 균등 배급하여 하부비(下部肥) 하부척(下部瘠)의 차별이 없이 건강을 지속하나니. 국가 역시 전 국민의 생활이 보편적으로 균등 분배하여야 건강한 국가를 확립하나니 이는 고노에(近衛) 수상께서 어명하신바 한 사람만이 배부르게 아니 하는 동시에 한 사람도 굶주리지 아니한다는 일언에 지진(至眞)하였다. 예컨대 식량 배급은 국민 식예비(食預費) 군량예비 재년(災年)예비 등을 위하여 단행하는 것이다. 만약 일반 농민에게 자유 산미(産米), 자유 소미(消米)를 방임한다면 국민 중에 부작농업(不作農業)하고 국가봉공을 담임한 군대, 학교, 관공서, 상공업, 광업노동인 등등 대다수 인구에 식량 입수가 불황(不遑)할 위기가 박두하겠으므로 국가로서 배급 통제를 실시 강화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이에 맹성(猛醒)하여 생산증가, 소비절약, 저축강행으로 고도 국방체제를 자숙자계(自肅自戒)하고 자분자발(自奮自發)로써 자가(自家)의 생활 목표를 확립하고 이에 의지해 준행하는 습성을 자성(自成)하여 생산증가에는 각자 직업에 따라 기술을 향상하여 시의를 선용(善用)하여 생산을 증가하되 농민은 평시보다 농지를 심경선비(深耕善肥)하여 지모(地母)를 후비(厚肥)하게 하면 곡물이 배가 증산할 것이요. 또한 부업으로는 소, 송아지, 닭, 돼지, 누에 등을 사양(飼養)하고 마(麻), 면(棉), 모(牟), 맥(麥), 감자(甘藷)등을 재배하고 농한기에는 초석(草席), 초화(草靴), 광책(筐篋)<sup>79)</sup>등을 직조(織造)하여 위국헌성(爲國獻誠)에 일념 전력하라. 예(例)를 들면 현하 초화(草靴) 일족(一足)에 최저 50전 내지 1원 50전의 가격으로 보통 시장에서 판매되나니 여가를 이용하여 초화 2족만 삼아 일금 일원 이상 생산할 것이요. 또한 초목피(草木皮), 낙엽(落葉), 진개(塵芥)<sup>80)</sup>등 각종 폐물(廢物)이 일체 귀물(貴物) 또는 금전이니 유근일사(惟勤一事)면 대식천금(大殖千金)이 비난(非難)이니 일면 비상시인 동시에 일면 물귀(物貴) 금풍(金豐)의 때이다. 일순간을 허락하지 않고 일분(一分)을 심석(甚惜)하여 공익에 우선하면 국가의 전생명이 활약한다. 소비절약에는 의식주 3종의 절약에 치중하여 폐의(敝衣), 파모(破帽)를 착(着)하여도 무괴(無愧)오. 혼미추식(混米麤食)도 면기구명(免飢救命)이면 행복이다. 연회(宴會) 낭비를 엄계(嚴戒)하고 혼상(婚喪)제례(祭禮)에 일체 절약하여 형장(形裝), 이허(裡虛)를 선계휴폐(先戒休廢)하여 경제필박의 난관을 기선비면(機先費免)하고 주거는 가옥이 설혹(設或) 훼손되었더라도 탕목(撻木)수선하여 풍우(風雨) 한기(寒氣)를 가면(可免)할 뿐이요. 고량완장(高粱完墻)을 물기(勿起)하라. 이상 3종 소비를 자체 절약하여 생산의 매품수입과 소비의 절약 여분을 합산 작괴(作塊)하여 적금기관에 진왕(趁往) 예금하면 국가와 나의 융통에 국가와 내가 함께 부유해질 것이다.

### 8. 도덕교화

인신(人身) 자체 내에는 생리적 도덕교화가 숙련 보급하고 신경의 영민(穎敏) 감각과 혈액의 대사순환이 편시균점(遍施均沾)하여 평화치안의 도덕운치(道德韻致)가 영속(永續) 유전(流傳)하나니 유혹좌부불인(有或左部不仁)이면 우부섭행(右部攝行)하고 일부이독(一部罹毒)이면 요의시술(要醫施術)하여 경

79) 광주리와 대자리.

80) 먼지와 쓰레기.





치(竟致) 도덕 평화하는 것이다.

국어치민(國於治民)에 은위(恩威)병행으로 전 국민중(國民衆)을 일률(一律)로 혼화통제하여 평화치안을 기도(期圖) 실현하나니 요컨대 징악(懲惡)은 장선(獎善)을 위함시오, 전쟁은 평화를 위한 것이다.

우리 제국에서 장(蔣)정권을 징벌하는 것은 동우구안(同憂具眼)의 중국 민족을 구출하고 장(蔣)정권과 더불어 동정하는 적성국가를 장(蔣)정권과 함께 토멸하여 동양은 동양인의 동양을 성립하는 성의(聖意)에서 출발하여 대동아공영권 확립과 세계 신질서 건설에까지 궁극의 목표를 확정하고 고도 국방국가의 체제로 용왕매진하나니 이것은 진실로 우리 제국의 황도정신 강력(強力)이 아니면 그 나라가 갱무(更無)하다.

## 결론

종래의 구미 각국은 자유주의, 민주주의 등의 각 정당이 대립하여 일국에 이두(二頭)의 생명이 유행(流行)함으로 국내의 통일이 결렬하고 자본주의가 극성하여 빈부의 차별이 현격하였으므로 독일은 '나치스', 이탈리아는 '파쇼'당으로 각기 단일정당을 조직하여 전체주의로 국가를 통제하여 오다가 우리 일본제국에서 일만지(日滿支) 3국의 공동 제휴로 동아 신질서의 건설을 확립 매진함에 독일 이탈리아 양국이 우리 제국의 진의를 모방하여 구주의 신질서건설을 확립하고.

우리 제국에서 국내에 신체제를 확립하고 대정익찬회(大政翼贊會)를 조직하여 고도 국방국가체제를 강화하여 대동아공영권을 확립함에 독일, 이탈리아 양국이 이 역시 우리 제국의 대국책을 모방하여 구주공영권을 확립하였다. 그러나 우리 제국에서는 전 동양의 부활을 위하여 국력을 걸고 성전을 개시하고 성업을 달성하거나 타의 신질서 건설은 각기 자국의 영토 회수와 또 확장을 위하여 행사치 아니할 수가 없는 경우에서 출발한 것이 적지 않으니 이가 우리 제국에서 매진하는 동아 신질서 건설과 대동아공영권 확립과의 특수한 차이점이었으며 또 우리 제국의 국체는 조국(肇國)이래 만세일계의 신통(神通)적 국체 군신일체의 국가로서 천황폐하께옵서 만기친람(萬機親覽)하옵시는 어대정하(御大政下)에서 1 억만 신민이 일체로 대정익찬(大政翼贊)의 운동원이 된 동시에 그 익찬운동원 중에서 우수분자(憂愁分子)를 익찬회원으로 선출하여 어대정(御大政)을 익찬(翼贊) 추진하는 것이다. 독일의 '나치스'와 이탈리아의 '파쇼'당 등은 그 국민 중에서 우수분자를 선택하여 그 당원이 될 뿐이니 이 역시 우리 제국의 대정익찬회와 독·이(獨伊) 당과의 특수한 차이점이었다. 우리 국민은 이 점을 심각 자부하여야 한다. 종전의 구주 각국은 물질문명에 도취하여 개인 간에는 도덕이 있으나 국제간에는 도덕이 없어 소위 약육강식과 생존경쟁을 위주하고 정신문명을 부인하여, 인신에 비유하면 신체는 비둔(肥鈍)하나 정신이 결여하여 광인(狂人)이 도인(刀刃)을 난용(亂用)함과 같고 동양인은 정신문명에 황혹(況惑)하여 물질문명을 등한(等閑) 경시(輕視)하므로 정신은 풍부(豐富)하나 신체가 쇠약하여 병인(病人)이 행로(行路)함과 같았다.

〈출전 : 和田欽五, 「國體와 新體制에 對하여」, 『新人間』 157호, 1941년 7월 12~17쪽〉





## 2) 신국신민의 본무

환전흠오(和田欽五)

고인(古人)은 위국진취(爲國盡瘁)<sup>81)</sup> 사이후기(死而後己)라 하였으나 지금 우리 도인(道人)은 사기(死己)를 부인하고 장생(長生)을 시인하는 이상 우리 대일본신국의 사명인 대동아공영권 확립, 세계 신질서 건설을 위하여 이를 영속적으로 발전 유지까지에는 일억일심으로 강념강진(強念強進)하면서 신몰(身沒)하면 귀신의 영력으로 활동 우조(佑助)하고 또 재생하면 후신(後身)으로 계진(繼進)하여 이 세계에 적마(敵魔)의 형적(形跡)을 구제소청(驅除掃清)하는 것이 진실로 신국신민의 본무인 것을 대각장진(大覺長進)할 뿐입니다.

〈출전 : 和田欽五, 「神國臣民の本務」, 『新人間』 163호, 1942년 1월 11쪽〉

## 8. 정광조(鄭廣朝)

### 1) 징병제와 아등의 준비

천상광조(川上廣朝)

#### 1. 국체와 징병제

반도 2천3백만 동포의 열망하면 징병제도는 필경 1944년에 실시하기로 결정되었다. 반도인의 탄희와 감사는 이제 그 극에 달하였다.

우리는 오로지 이 광영의 홍은(鴻恩)에 대하여 무엇으로서 이를 보답할까.

원래 우리 황국의 국체는 건국의 당초로부터 천황폐하의 동시에 대원수폐하로서 육해군을 통솔하시옵기에 되었다. 이것은 ‘정여부자(情如父子) 의칙군신(義則君臣)’이러한 우리 국가의 숭고한 특수국체의 자연자태로 현현된 국민 개병(皆兵)의 본질에서 나온 것이다. 메이지 유신(明治維新)이 되면서 이 건국의 정신을 법적으로 조직한 것이 현재의 징병제도다. 그러므로 황국의 징병제는 다른 열강의 그것과 다른 점이 있다. 황국의 징병제는 다만 국민이 국민된 의무로서 국가의 국방적 병역에만 종사한다는 숭고우미(崇高優美)한 국체와 신사계승의 전통 아래에서 현인신(現人神)이신 천황폐하의 대어심(大御心)에 혼연일체가 되어 폐하의 고품(股肱)<sup>82)</sup>으로써 병역의 의무에 복종함으로써 무사도의 대화혼(大和魂)을 발휘하여 안으로는 국방을 견고히 하고 밖으로는 팔굉일우(八宏一宇)의 황도정신을 세계에 선양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황군의 남자 된 자는 병역의 의무에 복종하는 것이 남자의 최대 광영이 되는 반대로 그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남아의 일대 치욕으로 생각한다.

81) 진취(盡瘁) : 몸이 여위도록 마음과 힘을 다하여 애씀.

82) 다리와 팔이라는 뜻으로, 온몸을 이르는 말. 고품지신이라고 하는데 다리와 팔 같이 중요한 신하라는 뜻으로, 임금의 가장 신임하는 신하를 일컫음.





메이지(明治)황제께서 육해군에 내리신 칙어(勅語)중에

『朕ハ汝等ヲ股肱ト頼ミ汝等ハ朕ヲ頭首ト仰ギテゾ 其ノ親ハ特ニ深カルベキ』라고 하신 분부가 계시었고.

또 『我國ノ稜威振ハザコトアラバ 汝等ク朕ト其憂ヲ共ニセヨ我武維揚リテ其榮ヲ耀サベ朕汝等ト其譽ヲ偕ニスベシ』

라고 하셨다. 요컨대 일본정신은 이 칙어 중에 포함되었다 할 수 있다. 신민은 천황폐하의 고굉이며, 천황폐하는 신민의 두수(頭首)로서 상하일체(上下一體)가 되어 그 근심을 함께 하고 그 명예를 함께 한다는 것이다. 황국신민 된 자는 이를 봉행하고 실천하므로써 황국특유의 국체를 만고에 유전(遺傳)하고 특유의 황도를 만방에 선양할 것이다. 같은 신민중에도 병역에 복종하여 폐하의 직접 고굉이 되므로써 폐하의 성덕을 천하에 선양하는 것은 가히 신민의 최상 광영이 될 것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다. 현대 국가의 국민으로써 병역의 의무와 같이 소중한 것이 없고 같은 병역의 의무라 할지라도 일본 황국의 국체와 같이 병역의무의 본질이 지중(至重)한 것이 없고 같은 병역의 의무라 할지라도 일본 황국의 국체와 같이 병역의무의 본질이 지중한 것이 없다면, 우리 반도인은 무엇보다도 병역의무를 받은 것과 같이 더 큰 광영이 없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복종하므로써만 천황폐하의 참다운 적자가 되는 것이다.

## 2. 반도인과 징병제

우리 황국의 징병제는 이상에 서술함과 같이 숭고무비(崇高無比)한 정신으로부터 표현된 것이므로 천황폐하의 신자(臣子)로서 병역의 의무에 취하는 것은 신국(神國) 남자의 막대한 광영이다. 그런데 우리 반도의 인민은 오랫동안 편문경문(偏文輕武)의 악폐(惡弊)에 빠져 길이 타약(懦弱)의 풍(風)을 길러 온 결과 인간적 원기(元氣)를 상실한 것은 천하 주지의 사실이다. ‘합병’ 이래 역대 당국은 천황폐하의 열의와 성의로써 반도인의 정신적 물질적 원기를 양성하여왔다. 합병 30여년의 혜택은 반도의 산업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고 물질 민도(民度)가 현저히 상향하게 되는 동시에 정신적 방면에서도 구시(舊時)의 면목이 일신(一新)되어 내선일체의 실천하에서 일본국민으로의 광영 있는 중하(重荷)를 부담할만한 소질을 갖게 되었다. 특히 만주건국, 지나사변, 대동아전쟁 연하여 일어나는 비상시국에 있어 반도인의 시국인식 총후봉공의 정신은 현저하였다. 그중에도 지원병제도에 의한 병역의 지원자는 25만의 다수의 달하였다. 이것은 다 같이 반도인 자체의 자조적 행복창조의 정신력이다. 이러한 정신력이 필경 반도인도 국민개병제에 참렬(參列)하여 천황폐하의 고굉으로 황국 일본의 견고한 간성(干城)<sup>83)</sup>이 되어 대동아공영권 건설의 중핵적 지도자로서의 활동의 광영을 얻게 되고 명실공히 황국신민으로의 멸사봉공(滅私奉公)적 법열(法悅)을 갖게 되었다. 반도인이 받은 이 광영 이 법열은 오로지 의무실행으로 옮겨야 한다. 반도인의 의무는 과거에서보다 금일 이후에 있다. 내선일체 황국신민화 등의 성업을 관념에서 행위로 옮기고 행위로써 실적(實蹟)을 나타내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역사적 대기념의 법열(法悅)에 대하여 천황폐하의 홍은(鴻恩)에 한층 감격의 기원을 올리고 군관당국의 열정과 성의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여 마지않는다.

83) 방패와 성이라는 뜻으로, 나라를 지키는 믿음직한 군대나 인물을 이르는 말.





## 징병제와 우리의 준비

징병제의 실시는 아직 2개년 후이다. 이것은 실시의 만전을 기여하고자 하는 준비기간을 둔 것이다. 이 준비에 대한 실시와 협력은 그를 직접 지시 감독하는 당국으로부터 사회단체 일반 가정, 일반지도자 교육가, 종교가, 일반이 총동원하여 직접간접으로 협력일치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2개년 내에 만전의 준비하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급무는 이 준비행위에 있다. 그러므로 우선 우리 교회 자체로서 생각한 바 몇 가지를 들어 천하동덕(天下同德)과 한 가지로 연구하고 실행하기를 절원(切願)한다.

- 1) 국체(國體)와 징병제의 본질을 철저히 명징인식(明徵認識)하여야 할 것.
- 2) 국어를 지급(至急)히 보급하도록 구체방안을 세워 적극적 노력할 것.
- 3) 체육을 장려하여 청년의 건강을 증진시킬 것.
- 4) 인고단련(忍苦鍛鍊)의 힘을 길러 군인으로의 소질을 기를 것.
- 5) 청년의 부모된 자는 자기 자체가 징병에 선발될 경우에 어찌하면 이 훈련에 감능(堪能)하여 훌륭한 군인의 가정이 될까함을 항상 염원하여 그를 조성하는 데에 주력할 것.
- 6) 반도인의 선배로서 어찌하면 반도청년으로서 훌륭한 제국 군인이 되어 신국(神國) 일본의 무사적 명예를 발휘할까를 지도 또는 훈련할 것.
- 7) 징병에 선발될 청소년 당자(當者)는 장래 영광인 군인될 희망을 미리부터 그에 감능할 모든 조건을 연성(鍊性)하여 반도인으로서 훌륭한 군인이 될 충절·예의·무용신의(武勇信義)·질소(質素) 등 모든 정신을 충분 함양할 것.

이 외에도 준비의 필요한 것이 있을 줄로 안다. 어쨌든 이상 7개조에 대한 준비는 징병실시를 앞에 놓고 극히 필요한 운동으로 생각한다.

물론 당국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 지도가 있을 것이나, 우리들은 이에 솔선하여 협력일치하는 것이 황국신민으로의 반도인의 당연이상의 당연한 일로 생각한다. 삼가 일언을 정(呈)하여 천하동덕의 실천을 촉진하는 바이다.

[이것은 교발호외(敎發號外)로써 반포한 원문입니다. 기자(記者)]

〈출전 : 川上廣朝, 『徵兵制實施와 我等의 準備』, 『新人間』 167호, 1942년 6월, 2~4쪽〉

## 2) 이사장 제위에게 고함

천상광조(川上廣朝)

본일(本日) 국민총력 천도교 각 부군(府郡) 교구연맹 이사장 대회를 개최함에 즈음하여 소회(小懷)의 일단을 들어 제위와 한 가지로 결전태세의 완비에 이바지하려 한다.

대동아전쟁 발발 이래 대어능위(大御稜威)하 우리 황군장병의 혁혁한 대전과(大戰果)는 광고(曠古)





미증유한 것으로 적 미영(米英)의 동아 거점을 모조리 격파 붕괴시키고 나아가 대동아공영권 건설의 서막이 착착 열리어 나가는 것은 우리 1억 국민이 한 가지로 감격할 뿐 아니라 전 동아 10억 민중이 동경(同慶)하여 마지않는 바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세계를 농락하고 세계제패의 야욕을 품은 적(敵) 미영은 비록 개전 이래 연속적 패전을 거듭하였을지라도 그렇게 쉽사리 백기를 들 것은 아니다. 적은 오히려 그들의 가진바 물자의 풍부, 생산력의 강대를 믿고 금후의 대일공세를 호호(呼號)하고 있지 않은가. 더구나 이번 대전은 실로 '먹느냐 먹히느냐' 하는 전쟁이다. 다시 말하면 앵글로 색슨의 세력을 이 지구상에서 발본색원(拔本塞源)적으로 궤멸청소하고서야 우리 대 일본 제국의 안태(安泰)를 기할 수 있는 동시에 아시아의 10억 민중을 함지사지(陷之死地)에서 구출할 수 있는 이 대전쟁이다. 그야말로 국가 천년의 운명을 걸고 싸우는 대전쟁이다. 그러니만큼 적으로 하여금 재기의 여력이 없을 만한 최후의 완전한 승리를 영득(贏得)<sup>84)</sup>하기까지는 결전에 결전을 거듭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금년 즉 1943년을 결전의 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국민이 이미 공지(共知)하는 사실이거니와, 결전의 해에 있어서 국민으로서의 할 일은 하나로부터 열까지 오직 전력증강이란 일사(一事)가 있을 뿐이다. 전력증강은 금일의 지상명령이다. 우리들 국민은 이 지상명령에 대하여 절대 복종할 뿐 아니라 이것을 최대의 영예 최대의 탄핵으로 알고 우리의 가진바 전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성전완수에 일호(一毫)의 저어(齟齬)와 차질(蹉跎)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전력증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생산확충, 소비절약, 저축 등 세 가지를 들 수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이미 총독부 당국이나 국민총력조선연맹에서 전 민중에게 일인의 유루(遺漏)없이 그 필요성과 구체방(具體方)을 철저히 주지시킨 일이니만큼 중언할 필요는 없으나. 그러나 이해 인식하고 나아가 실천구현하기 위하여 한 마디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생산확충. 생산확충이라 하면 물론 농업생산, 공업생산으로부터 기타 광산, 임업, 수산등 전 산업방면을 통하여 일체 확충 증강을 의미하는 것이거니와 우리들 천도교연맹원은 그 어떠한 산업부문에 종사하든지 각기 직장 즉 전장, 직업 즉 전투로 인식하여 마치 황군장병이 도처에서 미영군을 격파하듯이 우리는 산업전사로서 영미의 그것을 격멸하고야 말겠다는 의기로써 용전분투(勇戰奮鬪)하여야 할 것이며 또는 마치 전선장병이 자기의 생사를 돌보지 않고 일편단심 오직 적을 무찌르기 위하여 전진 돌격함과 같이 우리들 총후전사도 자기 일신, 일가의 이해를 타산하지 말고 오직 국가의 요청에 순응하여 쌀 일홉(一合)이라도, 석탄 일괴(一塊)라도, 목재 1개라도, 철못 1개라도, 생어(生魚) 한 마리(一尾)라도 배전증산(倍前增産)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황군장병은 미영의 장병을 상대로 하여 무력전을 함과 같이 우리 총후 국민은 저 미영의 총후국민을 상대로 하여 산업전을 하고 있다. 그리하여 생산증강은 곧 무력증강이 되나니, 생산전의 승리는 바로 무력전의 승리를 이서(裏書)<sup>85)</sup>하는 것이니만큼 우리는 진실로 무력전의 완승을 염원하거든 먼저 생업전의 완승을 기필하여야 될 것이다.

84) 남긴 이득.

85) 종이 뒤에 글자를 쓰는 것을 이르는 말. '뒷보중'이라고 순화함.







둘째, 소비절약. 일반 국민이 가장 손쉽게 효과 있게 경제전에 참가하는 방법은 이 소비절약이다. 생산확충은 치우쳐 위로부터 지도에 의함이 많지마는 소비절약은 우리들 개인 개인이 자발적으로 일신 일가로부터 얼마든지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비절약은 간접적 생산확충이다. 가령 10의 생산, 11의 소비는 결국 1의 소비가 되고, 5의 생산, 4의 소비는 결국 1의 생산과 마찬가지로 된다. 우리가 오늘에 쌀 일홉(一合)을 절약하면 그것이 곧 오는 가을에 일홉을 추수함과 꼭 같은 것이다. 오늘에 매 국민(每國民)이 옷 한 벌을 덜 지어 입으면 그 옷감을 만들기 위한 원료와 약품과 기계력, 전력, 노동력, 운수 등 모든 것을 다른 중요생산에 이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비절약은 국민마다 다 할 수 있는 생산증강임에 틀림없다.

보통은 민수(民需)물자를 구별하지마는 기실은 군인이 입고 쓰고 먹는 모든 군수품이 다 우리들 총후국민이 입고 쓰고 먹는 물자 그것과 꼭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평화산업은 결국 다 군수산업이라 할 수 있으며, 모든 평화물자는 죄다 군수물자라 할 수 있는 것이다.

1개월에 쌀 1되를 절약하면 그만큼 전력의 증강이 될 것이다. 경성 같은 도시에서는 금년만 꽃 구경을 그만두면 그만큼 교통의 완화, 따라서 전력, 기계력, 인력의 절약이 되어 필요한 공장의 원동력이 증강될 것이다. 세탁 비눗물을 한 번 쓰고 버리지 말고 두었다가 다시 쓰면 비누 한 개가 열 개 맞잡이 가 될 것이며, 간접으로는 식용 유지(油脂)의 증가, 가성소다의 절약이란 국가적 공헌(貢獻)을 하게 된다.

종이 한 장이 대수롭지 않게 보이지마는 종이 안 쓰는 전쟁은 상상할 수도 없다. 작전계획이며, 지도며, 명령보고, 연락 등등 종이 없이는 될 수 없다. 국제선전전은 수천만 톤의 신문용지와 인쇄(印書)용지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매일 종이 한 장 씩을 절약하므로 해서 군수공업에 불가결인 소다의 부족을 완화할 수 있다면 신문지 한 장이라도 불쏘시개로 태워 없애는 것이 국가적 죄악임을 자각할 것이다.

최대한으로 생산하고 최소한으로 소비하는 것은 금일 국민의 최대봉공이다.

셋째, 저축. 소비절약을 간접적인 전력증강이라면 저축은 직접적인 전력증강이 된다. 1943년도의 전국 저축 목표액인 270억 원은 그것이 바로 금년도 제국정부의 예산중에 드는 제일 거액이다. 이 목표액을 완전히 달성하는데서 비행기도 나오고, 폭탄도 나오고, 석탄도 나오고, 선박도 나올 것이다. 우리가 황군장병의 전투력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신뢰하니만큼 황군장병의 소요(所要)되는 모든 군기 군수품을 절대적으로 공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최대의 방법이 무엇보다도 이 저축 일사임을 편시(片時)라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최저의 생활을 최대의 영예로 알고 이를 철저히 실천하여 조그만 여력이라도 있으면 그대로 저축하자.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금년도 반도의 목표액인 12억 원은 기어이 저축하도록 하자.

이에 있어서 한 가지 특별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2월부터 전 교회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시일헌성(侍日獻誠)』이다. 우리도 다른 민중과 한 가지로 각자 소속된 애국반을 통해서 공채도 사고 탄환 절수(彈丸切手)도 사고 애국저금도 하고 생명보험도 들고 국방헌금도 하고 위문대(慰問袋)도 보내고 기타 무엇이나 다른 민중이 부담하는 것은 같이 부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달리 이 시일헌성을 한다는 것은 과중한 부담이라고 할런지 모르나. 그러나 우리는 본래 '보국안민(輔國安民)'이란 남다른 신조를 신조로 하니만큼 헌성도 남다른 헌성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이 시일헌성제가 나오게





된 것이다. 한 시일에 1전이란 극히 사소한 정성이다. 하나의 만인(萬人)이면 만인이 다 같이 매 시일마다 계속 헌성이라는데서 그 의의가 크고 그 실천도 적지 않을 줄 생각한다. 제위는 물론 이에 대해서 각 관내 전반 교인에게 이를 철저히 지도, 감독, 실천시키는 줄은 알지마는 저축문제를 말하면 제2이므로 이에 언급하는 바이다.

다음은 징병제실시에 관한 문제이다. 징병제의 실시는 우리 반도 2천 4백만 민중에게 있어서의 최대 영예요, 최대감격이다. 우리는 이 홍대무변(鴻大無邊)한 황은을 무엇으로 봉답(奉答)할 것인가. 지금까지의 반도청년은 황군장병과 한 가지로 제 1선에 정신(挺身) 출마(出馬)하여 일사보국(一死報國)의 용기와 열의는 만만하지마는 그 용기 그 열의를 바칠 길이 없어서 허덕였다. 그러나 이제 정작 이 길이 열리고 보니 이에 대한 내적 외적의 모든 준비가 불급부족(不及不足)이 없을까 두려워 하는 바이다.

금후 1년이면 우리의 자제가 군인으로 나간다. 우리는 군인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형으로서, 아내로서의 마음 준비가 과연 어떠한가? 육체적 준비는 과연 어떠한가? 국어의 준비는 과연 어떠한가?

아들이나 동생이나 남편을 내 아들 내 동생, 내 남편으로 보기 전에 진정 폐하의 아들로 보는가? 만일 아들이나 동생이나 남편이 전사하였다는 보고를 접한다면 진정 그것을 영예로 생각하고 감사로 생각할만한가?

또는 청년 자신이 적탄을 받고 거꾸러질 때에 진정 천황폐하의 만세를 부를만 한가? 3용사나 9군신과 같은 기백을 길렀는가? 언제든지 적을 무찌르고야 만다는 '견적필살(見敵必殺)'의 용기를 가졌는가. 전우를 위하여는 포연탄우(砲煙彈雨)의 모험도 감행할 수 있는가? 제국 군인으로서의 국어정도는 남부끄러움이 없을 만한가?

우리는 이 모든 준비에 대하여 적어도 이만하면 거의 다되었다는 자신을 얻기까지는 분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상의 많은 말을 다시 요약해보면 전력증강의 대책과 징병제도 실시에 대한 준비 그것이다. 이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완전무결을 얻으면 그 근본은 우리들 반도인이 하루바삐 국체본의(國體本義)에 투철하여 완전한 황민화에 있다고 단언한다.

우리 일본국체는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천황귀일(天皇歸一)' 네 자에 있다. 천조황대신(天照皇大神)이 천계(天界)에 있어서는 태양으로, 인계(人界)에 있어서는 천황으로 현현하였다. 그리하여 일본국토는 현신천황(現神天皇)의 어우(御宇)<sup>86)</sup>하신 신역(神域)이요, 일본국민은 현신천황의 신자신손(神子神孫)이다. 일본 국가를 한 가정이라 하면 천황은 가장이요, 국민은 가족이며, 한 신체라면 천황은 두수(頭首)요 국민은 사지백체(四肢百體)의 세포이다. 그러므로 우리들 국민의 가진 바 재산 같은 것은 물론 자녀나 신명까지도 온통 폐하의 소유이다. 우리가 진정한 '천황귀일'의 신념만 철저하다면 때와 장소를 따라서는 폐하를 위하여 생사를 홍모(鴻毛)<sup>87)</sup>와 같이도 보겠거든 하물며 생산증강이나 소비절약이나 저축목표 달성이나 징병제 준비에 대한 것쯤이야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인가.

결전의 해에 있어서 최후의 결승점을 돌진하려는 오늘, 이상 무수한 말로 우리들 자신을 격려하는

86) 임금이 다스리는 동안.

87) 기러기의 털이라는 뜻으로, 매우 가벼운 사물을 이르는 말.





동시에 일반 천도교연맹원은 물론 나아가 곁에 있는 민중들에게도 진선진미(盡善盡美) 유도하기를 바라고 이만 그친다.

〈출전 : 川上廣朝, 「理事長諸位에게 告함」, 『新人間』 176호, 1943년 4월, 2~5쪽〉

## 9. 김병제(金秉濟)

### 1) 성전결승기도를 앞두고

금강병제(金岡秉濟)

#### 1. 기도에 대한 마음의 준비

이번 교회에서는 전교회적으로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49일간 성전결승기도를 봉행(奉行)하게 되었다.

성전결승기도라 함은 명사(名辭) 그대로 이번 대동아전쟁(大東亞戰爭)<sup>88)</sup>에 있어서 우리 제국이 결정적 승리를 얻고자 하는 기원이 그 목적인 것은 두 번 설명할 필요가 없거니와 우리는 이제 이 기도를 봉행하는 데에 어떠한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할까.

첫째, 큰일에는 큰 정성을 들여야 한다. 근본 대동아전쟁(大東亞戰爭)은 그 일 자체가 세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최대성업이니만큼 이번 성전의 결정적 승리를 기원하는 그 일이 또한 기원 중 최대기원일 것은 재언(再言)할 필요도 없다.

이러한 큰일을 치르려는 우리는 그 일에 상응할만한 대성력(大誠力)을 바쳐야 할 것이다. 그러면 큰 정신이라 함은 어떤 것일까. 우리는 어떠한 기도에 있어서나 물질이라고는 오직 청정무구(淸淨無垢)한 청수일기(淸水一器)만을 사용하느니 만큼 큰 정성이라 하여 별다른 물질적 제공을 의미함은 아니요, 다만 마음의 여하를 가르침이다. 즉 진심(眞心)의 성(誠)·극심(極心)의 성(誠)·일심(一心)의 성(誠) 그것일 뿐이다. 우리는 이 기도를 봉행하는 동안 아무쪼록 순일무잡(純一無雜)한 일편진심(一片眞心)으로서 지독지절(至篤至切)하게 기원하되 조금도 중단종태(中斷終怠)의 결함이 없이 시종여일(始終如一)하게 꾸준히 계속하는 것을 나는 큰 정성이라고 한다.

둘째, 기도 중 일체(一切)행사를 예정 실행할 것. 이상에 말씀한 진심, 극심, 일심의 성(誠)을 금번 기도에 사실로서 구현하려 하면 그것은 막연한 생각만으로는 아무런 실효(實效)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49일 동안 일체(一切)행사를 대절(大節) 소절(小節) 막론하고 세세(細細) 밀밀(密密)히 행사표를 미리 미리 작성해 가지고 작성한 그대로 하나 하나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원래 기도란 것은 천지신명의 가호와 명우(冥佑)를 구하는 타력적(他力的) 일면이 있는 동시에 자력적 자기 연성(鍊成)의 일면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예(例)를 들면 우리가 기도 중에는 금주(禁酒),

88) 1941년 발발한 태평양전쟁을 일컬음. 이하 모두 태평양전쟁으로 함.





단연(斷煙)을 한다든지, 조침(早寢) 조기(早起)를 한다든지, 불노(不怒) 불원(不怨)을 한다든지, 냉수마찰을 한다든지, 정좌묵념(靜坐默念)을 한다든지 무엇이든 작정을 하여가지고 끊임없이 단속 실천을 하고만 보면 스스로 육체의 건강, 정신의 명쾌도 얻을 수 있고 좋은 습관, 바른 성격도 기를 수 있음과 같을 것이다.

나의 경험으로는 언제나 기도를 치르고 나서는 많으나 적으나 유감되는 일과 후회되는 일이 없지 않았다. 그런데 그 원인을 캐어보면 무엇보다 최초의 예정준비가 부족한 데 있음을 항상 발견하게 된다. 그러니만큼 이번 기도에는 기어이 최초의 준비를 완전히 하여 사후의 뉘우침이 없기를 스스로 결심하려 하는 동시에 동감되시는 동덕(同德)들의 한 참고(參考)로써 이하 기도 중 실제적 일체행사를 열거 제안하려 한다.

## 2. 기도 중 실제(實際) 행사

이번 교발(敎發)로써 반포(頒布)한 기도 통문을 보면 ‘기도방법란’에

- 1) 도장정결(道場淨潔)
- 2) 심신청재(心身淸齋)
- 3) 청수봉존(淸水奉尊)
- 4) 가족단좌(家族團坐),
- 5) 심고(心告<sup>89</sup>) : 聖戰決勝
- 6) 주문 묵송(呪文默誦 : 13자 105회)

이와 같이 제시되었다. 기도는 우리 교회의 중요한 연중행사인지라 이만큼 제시한다면 그 실행 세목(細目) 짚은 누구나 잘 알고 행할 일이지마는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암만해도 우명구명 불일치한 점이 없지 않을 줄 생각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상 열거한 6개 조문 그것을 좀 더 상세하게 예정 준비하여 실행해 보자는 것이다.

1) 청결도장. 스승님네의 수훈(垂訓) 수범(垂範)대로 지킨다면 평시에라도 항상 각자 거소(居所)의 주변 전부를 청정법계처럼 깨끗이 하여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근래에 와서는 다소 해이하게 되어 기도 때에도 노력을 덜 들이는 현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다 같이 여기에 반성하여 청결도장 그 일 자체부터가 곧 수도의 일과임을 명기(銘記) 하여서 이번에는 꼭 실행하도록 하자. 우선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토벽(土壁) 그대로 거처하는 데서는 새로이 흙질을 하고 도배를 하는데서는 새로 도배를 하도록 하며 그리고 매일 매일 방내 청소는 물론이요, 정원 일체를 청소하도록 하되 이것을 기도 중 일과표의 한 가지 일로 하여 번짐 없이 꼭 계속하기로 하자.

2) 심신청재. 이 조문은 극히 막연한 추상적 문구이다. 과연 어떻게 하여야 능히 심신을 청재하게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 조건은 각자 스스로의 작정이 아니면 안 될 줄 생각한다.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좀 더 널리 생각하면 어육주초(魚肉酒草)등 물질적 금기도 이 속에 있고, 불노

89) 천도고에서 교인들이 모든 동작을 할 때마다 먼저 안을님께 마음으로 고하는 일을 뜻함.





불원(不怒不怨)등 정신적 금기도 이 속에 있으며, 목욕 재계등 육체적 청결도 하여야 되는 동시에 수심정기(守心正氣)등 영심(靈心)적 연성도 하여야 될 것이다. 왜! 그것이 아니고는 사실로의 심신청재를 도득(圖得)할 수 없으므로써이다.

과거에는 기도 때에는 필히 어육주초의 금기라는 조문을 내세웠지마는 금번에는 그 조문이 없으니 까 혹시 금기는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이 조문을 특별히 내세우지 않은 까닭은 기도 중 어육주초를 금기함은 오랫동안 실행해온 항례(恒例)이니만큼 조문이 없더라도 잘 실행될 줄 믿는 동시에 이 심신청재 조문 중에 모든 금기가 자재(自在)하기 때문인 줄 생각한다.

아무리 생각하여 보아도 심신을 청재하게 하려면 어육주초의 금기 불로불원, 목욕재계등 이 몇 가지를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런데 한 말씀 더하고 싶은 것은 기도 중에 목욕재계를 하는 것이나, 어육주초를 금하는 것은 우리 뿐 아니라 보통세인의 상식으로 되었지마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노불원 등 정신적 금기일줄 생각한다. 왜 그러나 기실에 피해되는 점은 극히 사소한 것이지마는 무슨 일에 화를 낸다거나 남을 원망한다거나 미워한다거나 하는 그것으로부터 생겨지는 정신상 피해는 도저히 어육주초의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으리만치 막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번 기도에 나 자신은 적어도 어육주초의 금기, 불원불노 등 이것만은 기어이 실행하기로 스스로 맹세하는 동시에 특히 청장년 동덕제위(同德諸位)에게는 간절히 권하여 마지않는다.

3) 청수봉존. 청수봉존 그 일 자체에는 별다른 설명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청수봉존하기 전의 준비와 청수봉존 때의 제반행위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번 기도에 청수봉존 시간이 오전 5시인즉 네 시나 늦어도 네 시 반에는 전 가족을 기침(起寢)시킨 후 먼저 도장을 청소하고 다 같이 세수 세면하고 의복을 단정히 입고 그리고 청수탁(淸水卓)을 중심으로 가족 전원이 원형(圓形) 궤좌(跪坐)하여 지극히 엄숙 종용(從容)한 태도로 임하도록 할 것이다. 다음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기도를 시작할 때에 집례(執禮)한 분이 있어서(집례는 가장이나 주부나 누가 되어도 좋다) “이제부터 기도를 드립시다.”하고 선언을 하면서 가족 일동이 일시에 배례를 한 번씩 하는 것이 좋을 줄 안다. 이것은 필자의 생각뿐만 아니요, 경험해본 것으로 배례를 한번 하는데서 한층 경건심(敬虔心)이 생겨지기 때문이다.

4) 가족단좌. 이 조문은 각 교가(敎家) 가족 전원을 총동원 시켜서 이 기도에 참여하게 하자는 것이 그 주요 안목(眼目)인줄 안다. 가족 총동원 기도 이 일사(一事)는 실로 그 의의가 여러 가지로 중차대하다. 이것을 함으로 해서 가족 전체 즉 유소년까지라도 대동아전쟁이란 것이 얼마나 신성한 전쟁임을 인식시키며 이 성전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는 신념이 강해지며, 국민으로서 국가 관념이 깊어지며, 전쟁의식이 더욱 뜨거워지며 그러므로 가족 전원에게 경신(敬神) 사상을 길러주며 조침조기의 좋은 습관을 갖게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기도에 이것을 꼭 실행하도록 하자. 기도 석에 가장이나 주부나 기타 장성한 어른들만 참례하지 말고 유유아(幼乳兒)를 제외하고는 7세의 소년소녀들까지 빠짐없이 다 참석하도록 하자. 그렇게 한다면 적어도 기도를 시작하기 일주일 전부터 가족 전원에게 성전결승기도라는 대사를 치러야





한다는 일대 분위기를 지어 유소년들로 하여금 호기심의 충동을 주도록 미리미리 노력하여야 될 줄 안다.

5) 심고. 이번 기도는 성전결승 기도이므로 심고의 기원사는 황군장병의 무운장구(武運長久)를 빌고 대동아전쟁에 있어서 우리 제국이 최후 완전한 승리를 얻어 대동아공영권을 확립하고 나아가 세계 신질서를 건설케 할 것을 기원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는 심고 때에 가질 바 신(身)적 자세와 심적 태도에도 항상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신적 자세는 가장 바르고 깨끗하게 하며 심적 태도는 지극경건하고도 강렬한 열정으로 사실로의 천사신령의 영감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다.

6) 주문묵념. 13자 105회 묵송이라 함은 단순히 기도시간에 국한한 것이니 만큼 기도의식을 필한 후 단속하여 시간을 표준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송주(誦呪) 횟수를 표준 하여 연성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 줄 안다. 이는 새벽 기도 때 뿐 아니라 오전 9시 기도시간에도 전후하여 필히 실행할 일이다. 진정한 연성공부를 하려면 반드시 정적(靜寂)한 장소에서 모든 세연(世緣)을 단절하고 장기간 전문적으로 하여야 되겠지마는 거기에는 시간과 여러 가지 형편이 그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행하기를 곤란한 점이 있느니만큼 사람사람이 다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금번과 같은 장기기도 때를 이용하여 연성공부를 쌓아서 험도오도(驗道悟道)의 기초를 닦아야 할 것이다. 이상을 다시 총괄하여 그 요강을 표시하면

1. 기도에 대한 심(心)의 준비

1. 순일 무잡한 진심(真心)의 성(誠)
2. 감천동신(感天動神)할 만한 극심(極心)의 성(誠)
3. 수갱불식(須更不息)할 일심의 성(誠)

2. 기도실행의 요강(要綱)

1. 청결도장(淸潔道場)=방(房) 내외 쇄소(灑掃), 정원청소의 계속
2. 심신청소(心身淸掃)=어육주초(魚肉酒草)의 금기, 불노불원(不怒不怨), 목욕재계 계속.
3. 청수봉존(淸水奉尊)=시간엄수, 의복정제, 원형귀좌
4. 가족단좌(家族團坐)=소년소녀까지 가족 총동원
5. 심고(心告)=무운장구, 성전필승기원, 정직 엄숙한 신적 자세, 경건 진지한 심적 태도
6. 주문(呪文)=아침 기도 후 한 시간, 저녁 기도 전 한 시간 송주(誦呪)실행.

이외에 한 가지 더 용의(用意)할 것은 기도시간 후에도 각자 직장에 있어서 항상 기도 기분을 계속하여 대인접물(待人接物) 처사(處事)의 간에 수도심으로써 대응하도록 할 것이다.

만천하(滿天下) 동덕(同德)이시어. 적은 기회라도 놓지 말라. 49일이 극히 짧은듯하지만 백년 미만의 일생과 대조해 보면 그리 짧지도 않으며, 또 그나마도 우리 일생에 도무지 몇 번이나 되는 것인가 아무쪼록 '시호불재래(時乎不再來)'의 이 기회를 잃지 말고 지성봉공 지성수도의 실천을 나타내도록 하자.

〈출전 : 金岡秉濟, 『聖戰決勝祈禱를 앞두고』, 『新人間』 181호, 1943년 10월, 2~5쪽〉





## 2) 학도제군에게 대하여

금강병제(金岡秉濟)

11월 20일 육군특별지원병 지원마감일까지 반도 2천5백만 전체는 과연 적격자 제군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진 지원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 문제 때문에 몹시도 초조해 하였다.

그러다가 그 뒤 신문지의 발표로 선내(鮮內) 적격자 9할 6분 재일본(在日本) 적격자 9할 1푼, 이번 가을 졸업생 7할 3푼이 지원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비록 10할의 만족은 얻지 못하였을지라도 비로소 수미(愁眉)<sup>90)</sup>를 펴고 흔행불기(欣幸不已)하였었다.

학병제군 제군이 지원을 준수(逡巡)<sup>91)</sup>할 때에 반도의 인사는 왜 그다지 초조해 하였으며 제군의 지원이 예정 수(數)에 가까울 때에 반도의 인사는 왜 그다지 흔행해 하였는가. 이것은 두말 할 것 없이 반도에 있어서 제군의 존재가 그만큼 존귀하다는 것을 실증함이다.

2천5백만 중 근근(僅僅) ○○인(人) 그 수로도 실로 희귀하지마는 제군의 학식(學識) 제군의 가정적 배경 그 무엇으로나 반도에 있어서 실로 모범적 지도적 지위에 있는 제군들이니만큼 제군의 향배(向背) 여하에 따라서 반도 산하에 광명이 올 수도 있고 억우암묵(抑又暗默)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학병제군, 우리는 만강(滿腔)<sup>92)</sup>의 성의로써 제군에게 감사를 드린다. 제군은 노부모의 봉양, 약처자의 보호, 학업의 중단 등 모든 구구한 사정을 총 배제하고 일사보국(一死報國) 오직 대군(大君)을 위하여 신명(身命)을 바치고자 용약(勇躍) 군문(軍門)에 나아가기를 지원한 그 정신 얼마나 감사하냐. 제군의 정신이 그만하니 반도의 장래에 어떠한 근심이 있으리요. 내선일체(內鮮一體)도 이로부터 완성하게 되었고 대동아공영권 내에 있어서 지도자적 중핵민족이 될 만한 희망도 실로 이로부터 그 조짐이 보인다고 할 것이다. 학병제군, 우리는 만강(滿腔)의 열의로써 제군의 전도를 축복한다. 생사를 홍모시(鴻毛視)<sup>93)</sup>하고 오직 대의(大義)에 살기 위하여 일어선 제군의 전도(前途)에는 광명이 있을 뿐 승리가 있을 뿐 성공이 있을 뿐 대동아는 실로 제군의 활무대(活舞臺)가 될 줄 믿는다. 비록 흉적(凶賊) 미·영(米英)을 격멸하려다가 불행하게 적탄에 쓰러지는 일이 있다할지라도 그 사(死)는 사(死)가 아니라 영생이다. 호국의 명령이 되어 1억 국민의 영원한 숭모(崇慕)의 적(的)이 될 것이니 이 실로 '사어당사사어영(死於當死死於榮)'이 아닐까 보냐. 제군의 출진은 '생영광사영광(生光榮死光榮)' 오직 광명이 있을 뿐이다.

학병제군, 제군의 전도에는 아직도 전형검사라는 일사(一事)가 남아있나니 아무쪼록 자중자호(自重自護)하여 한 사람의 불합격자도 없이 전원 합격되기를 절망불기(切望不已)한다. 그럴 리는 천만 없겠지만 만일 한 사람이라도 검사장(檢査場)에 나오기를 주저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 이는 제군 1인의 수치가 될 뿐 아니라 제군의 가문 전체의 수치이며, 나아가 반도인 전체의 수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한 까닭에 반도의 부모(父老)들은 검사 최종일까지는 한편 불안의 노파심이 쾌청(快晴)치 못할 줄을 제군은 아느냐, 모르느냐?

90) 근심에 잠겨 찌푸린 눈썹. 또는 그런 얼굴이나 기색.

91) 어떤 일을 단행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함.

92) 마음 속에 가득 참.

93) 홍모(鴻毛) : 기러기의 털을 뜻하는 말로 매우 가벼운 사물을 이룸.





학병제군, 방금 천하 대세는 제군의 출진을 고대한다. 대동아 성전을 완수하기를 위하여 황국 일본의 협력 협조자로서 만주의 청년도, 중국의 청년도, 태국의 청년도 미얀마(緬甸)의 청년도, 필리핀(比律賓)의 청년도 다 같이 궤기하여 미영거멸의 일도(一途)로 매진하지 않느냐. 그들은 반도의 청년이 아직 궤기하지 않음을 오히려 의심할 정도임을 제군은 깊이 생각하라.

학병제군, 적 미영(米英)의 학병들이 제군을 향하여 도전하고 있지 않느냐, 그들은 벌써 작년부터 일제 휴학을 하고 군문에 나섰다는 말을 들었다. 아마도 반드시 그들은 태평양 전역(戰域)에도 나타나서 동아의 청년에게도 열(熱)이 있고 피가 있고 용기가 있거든 빨리 나와 우리와 자웅을 결단해보자고 부르짖을 줄 생각한다. 제군, 그래도 못 들은 척 못 생긴 척하고 가만히 보고만 있을 터인가. 웅당 제군의 가슴에는 우선 적국 학병부터 일거에 쳐부숴 보리라는 적개심이 불탈 줄 믿는다. 학병제군, 제군은 제군의 자수(自手)로써 대동아의 공영권을 건설하고 세계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창조(創造)해 보라. 그 쾌감, 그 환희는 그를 직접 체험한 제군만이 맛볼 수 있는 행복이리라. 우리는 천재일우란 술어는 오직 제군을 두고 한 말인 줄 생각한다. 제군의 생이 소화(昭和) 성대(聖代)를 제회(際會)한 것도 천재일우요, 같은 성대라도 그 연령에 있어서 노인도 유년도 아닌 청년인 것이 천재일우요, 같은 청년이라도 재학청년인 것이 천재일우요. 그리하여 제군이 몸소 성전을 완수하고 성업을 달성하여 동아로써 신동아 세계로써 신세계를 창조하게 된 것이 천재일우이다. 이 기회를 바로 타면 천상에 올라가 성신(星辰)이 될 수도 있고 이 기회를 놓치면 해저(海底)에 떨어져 조개가 될 수도 있다.

학병제군, 제군은 천상의 성진이 되려는가. 해저의 조개가 되려는가. 원컨대 제군은 정말 영예의 군인이 될 아슬아슬한 검사의 고개를 아무쪼록 무사히 넘기기를 정성껏 빌어 마지않는다.

〈출전 : 金岡秉濟, 「學兵諸君에게 對하여」, 『新人間』 182호, 1943년 12월, 9~10쪽〉

### 3) 군인과 종교

추강(秋岡)

‘진정한 군인이 되려면 진정한 종교인이 되어라.’ 나는 이러한 새로운 말을 창도(唱道)하고 싶다. 이 말을 듣는 사람 중에는 이러한 의문을 발하는지 모른다. 즉 ‘종교인은 평화를 애호하는데 군인은 전쟁을 전제하지 않느냐? 종교인은 자애로써 이덕복인(以德服人)을 주로 하는데 군인은 무기로써 이력복인(以力服人)을 주로 하지 않느냐? 종교인은 현세보다 미래의 장생을 원하는데 군인은 현세의 정란(靖亂)을 목적으로 하지 않느냐? 이러하거늘 진정한 군인이 되려면 진정한 종교인이 되라는 말은 정히 모순당착(矛盾撞着)되는 논조가 아니냐고 하리라. 그러나 이상 몇 가지의 의문에 대한 해답은 본지(本誌) 작년 4월호 권두언에 이미 표명함바 있으므로 이에 재론(再論)은 피하거니와 금일 본론의 주지는 그와 다른 의미에서 하는 말이다. 진정한 군인이려면,

첫째, 충용(忠勇)의 사람

둘째, 정의(正義)의 사람







셋째, 생사초월의 사람

이런 군인을 가르칠 것이다. 그런데 그 세 가지의 미덕은 종교인으로서 항시 연마·체험·실천하는 그것이니 만큼 군인과 종교인의 공통되는 점이 실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중순에 조선종교단체 전시보국회(戰時報國會)의 사명으로 육군특별지원병의 적격자(법문계 통의 대학, 고등학교, 전문학교의 반도인 재학자로서 징병연령의 초과자 및 이번 가을 9월 졸업자)를 격려하기 위하여 몇 지방을 순강(巡講)하던 중에 이상에 말한 실감을 얻게 된 것이다. 나는 그들 적격자와 그 부형들과 상담해본 결과 그들이 지원병을 기피 혹은 주저하는 까닭은 물론 여러 가지의 사정이 있지만 그중에 제일 중요한 원인은 비록 노골적으로 말은 하지 않으나 무엇보다도 '사(死)에 대한 공포' 그것임을 상찰(詳察)하였다.

병(兵)은 사지(死地)라 하여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는 것은, 가져도 심하게 갖는 것은 우리 반도인의 과거 누 백년간 전통적으로 습성된 관념적 고질(痼疾)이었다. 우리는 이 고질을 무슨 방법으로든지 근본적 치료를 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번의 임시 채용하는 특별 지원병 문제보다도 병역법원전 실시(兵役法院全實施)에 의하여 내년부터는 우리 반도인 청년 자제를 매년 거의 10만 명씩 군인으로 내어 보내게 되었고, 또는 군인이 될 바에는 세계 관절(冠絶)<sup>94</sup> 충용무비(忠勇無比)한 일본 군인과 비견할 만한 참된 군인이 되어야 할 것이요, 그렇게 되자면 무엇보다도 이 죽음의 공포란 고질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할 것이요, 이 고질을 근치(根治)하자면 이것은 어떤 웅변가의 일시적 선동연설 같은 것으로는 도저히 가망이 없는 일이다. 적어도 근본적이며 영구적이며, 또한 보편적인 대책이 서야 할 것인데 이 영구적 근본적 보편적 대책으로서 나는 비록 오황(迂濶)하나마 이 말을 제창한다. 그 까닭은 죽음의 공포를 정말로 없애는 방법은 오직 종교적 신앙이라야 가능하고 정말로 죽음의 공포만 없어진다고 하면 정의의 군인, 충용의 군인이 되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종교인은 어찌하여 죽음의 공포가 없는가. 그것은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인간을 물질적 존재로 보지 않고 정신적 존재로 보며 인간의 생(生)을 현세의 생(生)으로만 보지 않고 과거·현재·미래 삼세(三世)를 통한 일관(一貫)의 생으로 보는 것이 대동소이하다. 그러니만큼 육체의 죽음을 영멸(永滅)로 보지 않나니 죽음을 영멸로 보지 않는 바에야 죽음의 공포가 있을 리 만무하다. 이제 더 상세히 표명해 본다면

인간은 시천주(侍天主)다.

인간은 신령(神靈)이다.

인간은 한울님의 분신(分身)이요, 분령(分領)이다.

인간은 일시의 가상인 육체적 존재가 아니라 영원의 실상인 신령적 존재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본래부터 죄 없고 죽음이 없다.

오직 선(善)있고 낙(樂)있고 건강 있고 장생(長生)이 있을 뿐이다.

인간은 본래 장생(長生) 영불멸(永不滅)이요, 금강불괴(金剛不壞) 완전원만(完全圓滿) 한 것이다.

인간은 무궁한 이울 속에 무궁한 존재이다.

94) 가장 뛰어나 견줄 사람이 없음.





천도교의 인간관은 대략 이상과 같다. 인간은 본래 장생, 본래 무궁으로 볼뿐 오직 남은 문제는 현생 백년에 선한 일, 의로운 일, 국가사회에 공헌되는 일을 꾸준히 쌓아 갈 뿐이다.

이와 반대로 보통 세인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는 원인을 고찰해 보건대 일언이폐지(一言而蔽之)하면 종교생활을 전혀 모르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종교생활을 모르니만큼 그들은 인간을 물질적 존재 즉 육체적 존재로만 알고 육체를 인간의 전체로 실제로 보는 동시에 육체에는 생로병사가 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육체가 죽는 날 인간은 영멸한다고 꼭 믿는데서 생겨진 병통(病痛)이다.

“낙양성(洛陽城) 10리 허(許)에 높고 낮은 저 무덤에 영웅호걸이 몇몇이며 절대가인이 누구누구나 우리도 한번 죽어지면 저기 저 모양 될 터이니 살아생전에 맘대로 놀자” 하는 조선의 속요(俗謠)는 대다수 반도인의 사후관(死後觀)을 여실히 표명한 노래이다. 사후관이 이러하고야 어찌 죽음의 공포가 없을까 보냐. 그야말로 ‘말뚱에 굴러도 사는 것이 제일이다’ 하는 극히 저열(低劣)한 인생관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미안한 말이지만 과거의 우리 선인(先人)들은 국내에 외적(外敵)이 침입한다고 하면 국가 흥망이야 나에게 무슨 상관인가 하여 부로휴유(扶老携幼)<sup>95)</sup> 피난 가는 것을 유일능사(唯一能事) 최선 방법으로 알아왔다. 거기에는 이조(李朝) 오백년간 귀문천무(貴文賤武)적 사회사상이 일반 민간에 침투되었고 따라서 “병(兵)은 사지(死地)”라 하는 고어(古語)를 무슨 성서(聖書)처럼 믿어온 우리 반도인들에게 죽음의 공포가 있을 것도 당연한 일이용. 진정한 군인이 나올 수 없는 것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진정한 군인이 되려면 진정한 종교인이 되어라’ 하는 이 말의 실증으로써 나는 잠깐 황군의 예를 들고자 한다. 혹시 우리 황군은 다 종교인이 아니라도 의용성충(義勇誠忠)이 세계에 관절(冠絕)하지 않느냐 할런지 모른다. 그러나 그런 말은 진실로 피상적 관찰이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 일본은 신국(神國)인 동시에 국민은 다 신의 말예(末裔)<sup>96)</sup>이니만큼 국체 자체가 일대 종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또는 천조황대신(天照皇大神)의 어현현(御現顯)이옵신 천황폐하께옵서 직접 통솔하옵신 황군장병은 어떤 종교를 믿고 안 믿고 이미 종교적 신념이 철저하다.

이는 오쿠츠(大楠)공의 ‘칠생보국설(七生保國說)’이나 황군들이 전우를 작별할 때에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에서 만나보세 하는 말이 온통 종교적 신념에서 우리나라의 말이다. 즉 죽으면 그만이다 생각하지 않고 죽으면 호국의 영(靈)이 되어 몇 번이라도 갱생하여 구족(仇族)을 토멸(討滅)하고야 말겠다는 이 신념, 그것이 나의 소위 진정한 종교인의 사후관이다. 아무리 어떤 교단에 교적(教籍)을 둔 사람일지라도 그러한 사후관이 확립되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종교인이라 할 수 없다.

만천하동덕(滿天下同德)이시어.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가 먼저 천도교의 인생관 사후관에 철저하며 따라서 우리들 자체에서 이것을 철저히 확립 시켜주는 동시에 나아가 반도 2천4백만 형제 전체에게 이것을 보급 철저화 시키도록 노력하자. 이 이상 더 큰 포덕(布德)이 없으며 이 이상 큰 광제(廣濟)가 없을 것이다.

반도인 전부가 죽음의 공포심에서 해방되는 날, 우리들도 일본인 형제와 같이 의용의 인(人), 성충의 인(人)도 생길 것이요, 희생심, 봉공심도 강하여 질것이요, 단결력, 인고심도 굳세어질 것이다. 그리하

95) 노인은 부축하고 어린이는 이끈다는 뜻.

96) 후손.





여 황운부익(皇運扶翼)의 거도(臣道)를 실천하는 동시에 반도인 자체의 향상 번영도 기약할 수 있을 줄 믿는다.

〈출전 : 秋岡 『軍人과 宗教』, 『新人間』 182호, 1943년 12월 22~24쪽〉

## 10. 『신인간』의 친일협력 관련 기사 발췌

### 1) 북지사변

도발 호외(道發號外) (제1호)

금회의 북지사변(北支事變)은 그것이 돌발적이요 부분적이라고 하나 그 사실을 중심으로 한 중횡의 관계는 실로 중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시국의 비상성을 더욱 통감하게 하는 것이다. 이 기회에 있어서 우리 일반도인(道人)은 좌(左)의 조항을 철저히 인식하며 각근(恪勤)<sup>97)</sup>히 준행(遵行)함을 요함.

— 다음 —

1. 목하의 시국이 얼마나 중대한지를 정당히 인식할 일.
2. 제국의 동양에서의 지위가 어떠한 것을 이해하여 그 사명과 천직(天職)을 각오할 일.
3.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말고 국민의 본분을 엄수하여 자중안업(自重安業)할 일.

1937년 7월 14일

### 천도교중앙종리원(天道教中央宗理院)

도령(道領)	신용구(申鏞九)
총정(總正)	조기간(趙基棻)
성도관정(誠道觀正)	백중민(白重彬)
경도관정(敬道觀正)	길윤기(吉允箕)
신도관정(信道觀正)	전의찬(全義贊)
동(同)	김명희(金明熿)
관정(觀正)	임문호(林文虎)
관정(觀正)	김병제(金秉濟)

〈출전 : 『中央彙報 : 道發 號外(第一) - 北支事變』, 『新人間』 115호, 1937년 8월 40~41쪽〉

97) 정성을 다하여 부지런히 힘쓰.



## 2) 시국의 중대성을 인식하자

도발 호외 (제2호)

북지사면에 대한 시국인식은 전반(前般) 그 개의(概意)를 통지한 바 있거니와 나아가 일반도인 및 일반인사에게 그 진의(眞意)를 철저히 알릴 필요를 절감하여 다시 별지(別紙)와 같이 그 대의(大意)를 적어 보내오니 널리 선전하여 시국의 중대성을 재인식하도록 노력하심을 요망(要望)하오며 아래 부항(附項)을 반포하오니 각근 준행하시기 바랍니다.

부(附)

1. 우리는 「거교일치총동원(舉教一致總動員)」으로 시국에 임하자!
1. 출정군인에게 대하여 위문 또는 환송을 성의(誠意)로 할 것.
1. 시국에 관한 행동방식은 각기 당국에 문의하여 철저히 실행할 것.
1. 별지 문자(文字)는 원내(院內) 일반 원주직(原住職) 제씨(諸氏)에게 일일이 발급(頒給)하여 일반 도인에게 시국인식을 철저히 보급하게 할 것은 물론이고 교외 일반 인사에게도 널리 선전할 것.

1937년 7월 19일

천도교중앙종리원(天道教中央宗理院)

도령	신용구(道領 申鏞九)
총정	조기간(總正 趙基堯)
성도관정	백중빈(誠道觀正 白重彬)
경도관정	길윤기(敬道觀正 吉允箕)
신도관정	전의찬(信道觀正 全義贊)
동	김명희(同 金明熺)
관정	임문호(觀正 林文虎)
관정	김병제(觀正 金秉濟)

### 시국의 중대성을 인식하자

일청일로(日淸日露) 양 전역(戰役)<sup>98)</sup>을 경유하여 이래 몇 십년간 쌓아온 제국의 동양에 대한 보장적(保障的) 공적은 다만 제국의 영광만이 아니요, 서양 대 동양의 영광이며 백인종 대 황인종의 광영이다. 만약 동양으로서 제국의 보장적 지위를 제거한다면 동양천지(東洋天地)는 백인의 시장화되었을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과거에만 그러한 것이 아니요, 장래에 대하여도 더욱 중대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제국이 동양에 대한 지도 지위를 가지게 된 것은 다만 제국으로의 정의만이 아니요, 동양인으로의 정의이

98) 1894년 청일전쟁, 1904년 러일전쟁을 뜻함.



며 황인종으로의 정의이다.

중국은 동양의 대민족인 동시에 세계적 대 민족이다. 그러므로 중국의 안위(安危)는 곧 동양의 안위가 되고 세계의 안위가 된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 자력으로 자립할 완성국가라 볼 수 없다. 중국은 호시탐탐한 환경 중에 처한 세계적 시장이다. 이 점에서 제국의 지도적 책임은 더욱 중대하다. 만약 중국인으로서 광명정대한 정치를 행하려면 반드시 동문동종(同文同種)의 제국의 협조를 받음으로써만 국가의 완성을 기할 수 있고 동양영원(東洋永遠)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사리가 이렇게 명백함에 불구하고 지나가는 역사적으로 구미의존주의만 취하여 배일모일(排日侮日)의 행위를 감행하여 왔다. 이것이 중국인의 대착오인 동시에 제국으로서 참지 못할 정의감이 발하는 곳이다. 북지사변은 다만 부분적 일시적이라 오해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제국의 동양 보장적 정의를 오해함으로써 생긴 중국인의 역사적 배일행동에서 나온 것이다. 이 점이 이번 사변의 중대성을 가진 것이며 또한 비상시국을 야출(惹出)하게 된 중대한 원인이다. 그러므로 이번 사변은 과거와 같은 미약한 외교문서로써 처리될 것이 아니요, 단연 근본 문제에 들어가 동양영원의 병근(病根)을 발제(拔除)할 결심으로써 이에 임하고자 함이 제국의 방침일 것이다. 화(和)나 전(戰)이나 이것은 별문제이다. 어쨌든 이번 사변은 제국의 동양 보장적 근본방침을 확립할 시기에 도달한 것만은 사실이다.

조선은 지리상으로 동양의 중요 지대이며 또한 제국의 동양 보장적 지위에 대한 요충(要衝)이다. 그러므로 우리 조선인은 이번 사변에 대하여 제일로 시국의 중대성을 철저히 인식하여야 하고 나아가 제국의 동양에 대한 지도적 지위와 중국의 현실성을 잘 이해하여 동양영원의 복지를 창조하는 일분자(一分子)로서의 책임을 가져야 한다. 그러함이 조선인의 행복이요, 또한 동양의 행복이다.

1937년 7월 일  
천도교중앙총리원

### 1. 시국의 중대성을 인식할 것

이번의 북지사변은 부분적 또는 일시적 충돌이라 하여 이를 경시하는 것은 시국의 내면관계를 심각히 인식치 못한 것이다. 이번의 사변을 내용에 들어가 보면 실로 중대 원인이 복재(伏在)하였다. 무엇이나, 제국이 몇 십년간 쌓아온 동양에 대한 보장적 책임과 이것을 정확히 이해치 못하는 중국인의 완미(頑迷)로부터 생기는 길항이다. 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그 근거가 깊어왔다. 「낙엽이 떨어지자 천하가 모두 가을이다(一葉落而天下皆秋)」라는 말과 같이 이번 사변의 충돌은 수십 년 이래 쌓아온 역사적 복능(伏能)이 폭발한 것으로써 그 비상성이 극히 중대하다. 이때에 우리 조선인은 그중대성을 깊이 인식하는 동시에 이에 수반한 책임을 크게 각오하여야 할 것이다.

### 2. 제국의 동양에 대한 지도적 지위를 인식할 것

제국의 일척 일로 양전역 이래 그 험악한 광채는 다만 일본 일개국의 광영이 아니요, 서양 대 동양의 광영이며 백인종 대 황인종의 광영이라 할 수 있다. 만약 동양으로부터 제국의 보장적 세력을 제거한다





면 동양의 천지는 누구의 천지가 되었을 것이며 황인종의 체면은 무엇이 되었을까. 중국이 오늘날 그만 한 국가를 유지하는 것도 그 실은 제국의 동양적 세력에 인한 바 중대하다 할 수 있다. 이 사실은 과거보다도 오히려 장래에 더할 것임을 보아 제국의 동양에 대한 지도적 책임이 일층 중대하다. 우리 조선인은 대국적 견지로부터 이 점을 깊이 인식하고 동양 보장적 책임의 만분의 일이나마 담당할 각오를 가져야 한다.

### 3. 중국을 정확히 인식할 것

중국은 아직 건설 도중에 있다. 정치로 경제로 군사로 모든 점이 통일 되지 못한 점에서 완전한 국가라 할 수 없다. 만약 중국의 배후에 제국의 보장적 세력이 없다면 중국은 곧 구미인의 시장이 되고 말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중국인으로서 바르게 국가완성을 기하자면 동문동종의 제국의 협조를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될 것도 명백하다. 사실은 이러함에 불구하고 완미한 중국 정부는 다만 이인종인 구미의존주의만 취하여 오는 것은 실로 한심천만한 일이다. 그러므로 제국은 어디까지든지 이 정의를 확고히 지켜 동양에 대한 제국의 책임을 완전하고자 바이니, 이 점으로 보아 이번 사변이 얼마나 중대한지를 알아야 한다.

1937년 7월 일  
천도교중앙총리원

〈출전 : 『中央彙報 : 道發 號外(第二)』-사국의 중대성을 인식하자,  
『新人間』 115호, 1937년 8월 40~41쪽〉



### 3) 황국신민서사 복응(服膺)에 관한 건

중앙휘보(中央彙報)  
도발 호외 (제4호)

1937년 10월 29일  
천도교중앙총리원 도령 신용구  
도하(道下)

#### 황국신민서사(皇國臣民誓詞) 복응(服膺)에 관한 건

본 서사 창정(創定)의 취지는 남(南)총독의 교육체제의 근본주의인 황국신민 연성(鍊成)의 본지(本旨)에 기하여 반도의 인민으로 하여금 간절 명창한 서사를 반복 낭송함에 의하여 나는 황국신민이라는 신념을 확고히 하는 동시에 내선일체(內鮮一體) 전국민은 협력단결하여 군국을 위하여 적성(赤誠)을 바치





며 일상 본무에는 각기 응분적 근로 단련을 함에서 실력을 길러서 세계에 응비할만한 기초를 확립하려는 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상 취지에 따라 이에 양함(仰膺)하오니 아래 복음 방법에 의하여 성심봉행하심을 경요

「皇國臣民ノ誓詞」(其二)

- 一, 我等ハ皇國臣民ナリ 忠誠以テ君國ニ報ゼン
- 二, 我等皇國臣民ハ 互ニ信愛協力シ 以テ團結ヲ固クセン
- 三, 我等皇國臣民ハ 忍苦鍛鍊力ヲ養ヒ 以テ皇道ヲ宣揚セン

- 1. 우리는 황국신민이라 충성으로써 군국에 보답하리라.
- 2. 우리 황국신민은 서로 신에 협력하여서 단결은 굳게 하리라.
- 3. 우리 황국신민은 인고단련 힘을 길러서 황도(皇道)를 선양하리라.

— 다음 —

황국신민의 서사 복음 방법

- 1. 실시 방법
  - 1) 사대절(四大節), 축(祝), 제일(際日), 기타 의식의 경우에는 국가 제창 후에 낭송할 것.
  - 2) 교회적 제합회(諸合會) 시(예 : 기념, 경축, 시일(侍日), 부회 및 기타 일체 집회)에 낭송할 것.
- 2. 낭송 방법
  - 1) 개식, 회선두(會先頭 : 심고(心告)<sup>99</sup>) 전에 일동 기립 낭독할 것.
  - 2) 먼저 표제를 읽고 다음은 번호와 각 구절을 분명히 잠깐 떼어서 읽을 것.
  - 3) 장중, 엄숙, 명랑 또 열성스러운 태도와 음조로써 고창(高唱)할 것.
  - 4) 낭송이 서툴러 읽히지 못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인이 대표로 먼저 외계하여 기타 일반은 일제히 방송(倣誦)하게 할 것.

경발(敬發) 제155호

1937년 10월 16일

천도교중앙총리원 경도관정 길윤기(吉允箕)

도하

〈출전 : 「中央彙報 : 道發 號外(第四) - 皇國臣民誓詞服膺에 關한 件」, 『新人間』 118호, 1937년 12월, 1~2쪽〉

99) 천도교에서 교인들이 모든 동작을 할 때마다 먼저 한울님께 마음으로 고하는 일을 뜻함.



#### 4) 정황 조사보고에 관한 건

경발(敬發) (제155호)

1937년 10월 16일

천도교중앙총리원 경도관정 김윤기(吉允箕)

도하

우리 교회는 본래 유기적 조직체임은 재론이 필요 없으니, 이 유기적 조직체의 특징은 신경 및 혈관이 하나인 것이 그것입니다. 성사유훈(聖師遺訓)에 “신양통일과 규모일치”를 얼마나 고조 역설하였습니까. 이제 우리가 만일 모든 일에 있어서 통일과 일치에 털끝이라도 결함이 있다면 그것은 벌써 유기적 조직체로서의 생명과 혼을 상실한 것입니다. 이 정신을 더욱 깊이 체득 함양하시어 일반 교역자(教役者) 되시는 분 일체 교무(教務)에 있어서 일층 기민한 보도를 힘쓰시어 전에 비해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주시는 동시에 금후부터 특히 아래 제조(諸條)를 어느 때라도 사실 있는 그대로 즉시 신속 보고하여주시되 보고서는 본관으로 보내주심을 공손히 요청합니다.

##### 갑. 교회에 관한 것

- 신포덕 상황(新布德 狀況)
- 교회소유재산(부동산)의 법적 명의대표자 및 연서인(連署人)의 씨명(氏名) 및 주소.
- 공작계(共作契)의 개소수(個所數), 적립금액, 보관 방법, 보관인의 씨명 및 주소.
- 교인 공동경영의 교회 기관 상황

##### 을. 시국에 관한 것

- 시국 인식 보급을 위한 교회의 활동 상황
- 국방 헌금 액수
- 군사 후원 연맹 및 방호단 가입 여부
- 교회로서의 (각 부분 단체 포함) 충후봉공에 관한 제반 활동 상황(예 출정군인 및 가족 위문, 환영 송, 위문 금품 주선, 전사 영령 조위, 기타)

##### 병. 사회에 관한 것

- 지방사회단체의 명칭 및 그 개황(概況)
- 풍(風), 한(旱), 수(水), 화(火) 등 기타 중대 재해의 상황
- 연사의 흥풍작 개황
- 기타 특수 정황

〈출전 : 「中央彙報 : 敬發 第155號-情況調査報告에 關한 件」, 『新人間』 118호, 1937년 12월 2쪽〉



## 5) 4대절 봉축식에 관한 건

도발 호외 (제5호)

1938년 4월 15일  
천도교도령 신용구(申鏞九)  
도하

### 사대절 봉축식에 관한 건

사방배(1월 1일) 기원절(2월 11일) 천장절(4월 29일) 명치절(11월 3일)의 사대절은 제국의 최대 경절인 바, 제국의 신민 된 자로는 누구나 성의로써 경축을 봉행할 것은 다시 말할 바 없거니와 본 교회로는 독특히 이 가절을 봉축하기로 정해온 바 그 식순을 아래 공포하오니 조량(照亮) 후 각근 봉행하심을 공손히 요청함.

좌

- 청수봉진(淸水奉奠)
- 개식(開式)
- 국가봉창(國歌奉唱)
- 심고(心告)
- 황거요배(皇居遙拜)
- 황국신민서사(皇國臣民誓詞)(제창)
- 봉축사(奉祝辭)
- 심고(心告)
- 천황폐하만세(삼창)

〈출전 : 『中央彙報 : 道發 號外(第五) - 四大節奉祝式에 관한 件』, 『新人間』 123호, 1938년 6월 1쪽〉

## 6) 국민정신총동원 총후보국강조주간 실시요항의 건

도발 호외 (제6호)

1938년 4월 15일  
천도교도령 신용구(申鏞九)  
도하(道下)

## 국민정신총동원 총후보국 강조주간 실시요항의 건

시국 항구화의 사태에 대처하는 견인지구(堅忍持久)의 정신을 더욱 강화케 하고 장기전 중에 있어 점차 이완(弛緩)하기 쉬운 민심에 시국재인식을 철저히 지키기 위하여 각종 기관의 종합주간을 정하고 민중선전망(民衆宣傳綱)의 수립(樹立) 및 종합 선전의 효과를 실현하기로 된 바, 본 교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방식하에서 우(右) 목적의 달성을 기하기로 되었으니 제위(諸位)는 성의성심을 다하여 이 뜻을 달성하기를 요망함.

### 좌(左)

1. 기간 1938년 4월 26일 로 5월 2일까지 일주간
2. 국기 게양
3. 신사 참배
4. 기도(祈禱)

우 기간 내 일체 집회에는 총후보국정신으로 기도, 또는 취지를 설명하며 각자 가정에서는 매야(每夜) 9시 기도 시에도 총후보국정신으로 기도할 것.

### 5. 절약

총후보국의 목적을 실현하는 선전은 단순한 추상적 표어로서만 될 수 없고 비상시재정경제에 대한 국민협력요강중의 중요 사항인 소비 절약 및 저축 장려운동을 통하여 시국을 인식하게 함이 적당한 바 이 점에서 시국에 비추어 특히 소비절약을 하여야 할 중요물자는 20종목 이상에 이르나 이것들 전부를 일시에 선전함은 그 효과가 박약하겠으므로 민중의 일상생활상 가장 증대한 관계를 가진 아래 세 종목을 선택하였사오니, 이에 대한 절용(節用), 이용을 극력 힘써 행할 것

- 1) 지물(紙物)
  - 2) 목면(木綿)
  - 3) 연료(燃料)
- ### 6. 저축

주간 내에는 조석성미(朝夕誠米) 외에 특히 총후보국정신으로 따로 절미(節米, 1인 1 숟가락)를 뜨되 방매(放賣) 대금은 각자 명의로 저금할 것. 이 외에도 지방 형편에 의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저금을 힘써 행할 것.

7. 포스터 : 별송 포스터는 종리원 내 적당한 장소에 게부(揭付)할 것.

(이상)

〈출전 : 「中央彙報 : 道發 號外(第六) - 國民精神總動員 銜後報國強調週間 實施要項의 件」, 『新人間』 123호, 1938년 6월, 1쪽〉



## 7) 도발(道發) 호외

경계(敬啓) 내지일기념(來地日紀念) 때를 즈음하여 연중예사(年中例事)인 일반기도를 행하는 동시에 중요 교역자(教役者)는 중앙에서 집합기도를 행하자는 대개(大概)를 지난 천일기념(天日紀念) 시에 발표한 바 있었거니와 현하 국가 중대시국에 처한 우리로서 국가정신총동원에 대한 봉사적 활동을 철저히 실시할 금일로부터 이 기도 공부를 후일로 연기하는 것이 도리상 적응(適應)이기에, 이로써 양포(仰佈)하오니 조량(照亮)하심을 경요(敬要).

1938년 7월 12일  
천도교도령 신용구(申鏞九)  
도하

〈출전 : 「中央彙報 : 道發 號外」, 『新人間』 125호, 1938년 8월 37쪽〉

## 8) 국민정신총동원 실시에 관하여

도발 호외 (제7호)

우리 제국은 일층 더 비상중대한 시국에 직면하였습니다. 이때를 당한 우리 총후국민(統後國民)은 일층 더 비상한 각오를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반의 국민생활을 이 비상한 각오하에서 비상한 정신으로 영위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때를 당한 내선일체(內鮮一體)의 전 국민이 전력(專力)을 다할 것은 오직 국력충실(國力充實)뿐입니다. 승패득실은 오직 국력충실 여부에 달렸습니다. 국력을 충실히 함에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정신 통일과 물자를 풍부하게 함에 있고 그리함에는 일체 자원을 극단(極端) 애호(愛護)함에 있습니다.

이것이 현하 초비상시국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방가(邦家)<sup>100</sup>로서의 가장 중대한 문제입니다. 국력충실 즉 물자애호 이것이 곧 총후(統後)의 총탄이요, 포환(砲丸)인 줄 깊이 명심치 않으면 안 됩니다.

이상에서 국력충실에는 오직 물자애호가 그 골자가 된다는 개의(概意)를 말하였거니와 이제 인적 물적으로 전 국민의 총합력을 집중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을 발기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발기단체의 하나로서 이 연맹정신을 본받아 우리 교회 자체로서 실행할 요강을 다음과 같이 반포(頒佈)하오니 건건(件件), 사사(事事)에 근로, 저축, 절약, 폐물 이용 등등의 생각을 염념불망(念念不忘)하여 무운장구(武運長久)와 국위선양이 곧 여기에 있다는 정신으로 진성(盡誠) 수행(遂行)하시기를 절실히 바랍니다.

100) 국가. 특히 자리 나라를 일컫는 경우가 많음.



## 실행요강

1. 매일 아침 가정에서 동방을 향하여 황겨요배를 봉행할 것
2. 매일 저녁 9시 청수(淸水) 시간에 무운장구와 국위선양의 뜻으로 기원심고(祈願心告)할 것.
3. 내선일체, 신앙보국(信仰報國) 이 두 개 표어를 교회의 기관(군, 면, 리)마다 실외(혹 실내) 적의한 장소에 게부할 것.
4. 조선복(朝鮮服) 중에 필요성이 비교적 적은 조끼만은 폐지할 것.
5. 가정에서 일상식에 고기반찬(肉餐)은 일체 폐지할 것.
6. 고무신을 폐지하고 짚신이나 미투리(草鞞)를 신을 것(고무신은 새로 사지 말 것).
7. 성냥을 쓰지 말고 될 수 있는 데까지 화롯불을 잘 보존하여 그 불을 이용하며 부쇠를 사용케 할 것.
8. 머리를 발삭(하이카라나 상고머리 말 것) 깎을 것.
9. 매월 1일간 특별근로를 실행하여 그 수득(收得)은 각자 명의로 저금할 것(갱생계(更生契) 통장과 통용할 수도 있음).
10. 일체의 물자를 절용(節用)할 것은 물론이고 그중에도 금속류, 면직류, 지류, 석유, 연료, 모속(毛屬), 피혁, 고무 등류(等類)는 절대절약 내지 불용(不用)하도록 힘쓸 것.
11. 교인이 있는 곳마다(다소불문) 폐물이용조합을 적절히 조직하여 지류(신문, 잡지, 낡은 봉투, 담뱃갑, 종잇조각 적은 것까지), 금속류, 면제품류, 모속(毛屬)류, 피혁류, 고무류, 머리카락, 같은 것을 극히 적은 것까지라도 버리지 말고, 조합으로 모아 공동판매 저금할 것.

특히 아래 요항의 실행위원은 중앙 직원, 원장, 도집(道執), 순회교사(巡廻教師), 각 부령(部領)으로 지정하였사오니 이 책임에 똥한 각 위원은 일체실행(一切實行)과 책임적 지도에 극력 면려(勉勵)하시기를 절망(切望)하나이다.

1938년 7월 16일

천도교도령 신용구(申鏞九)

도하

〈출전 : 「中央彙報 : 道發 號外(第七號) - 國民精神總動員實施에 關하여」, 『新人間』 125호, 1938년 8월, 37~38쪽〉

## 9) 수도보국에 관한 건

단본부발 (제2호)

1938년 7월 4일

천도교내성단본부 대표 손광화

천도교내성단지방 부대표 도하

## 수도보국에 관한 건

보은감사(報恩感謝)는 제국신민의 근본정신입니다. 천황폐하의 은덕, 부모의 은덕, 스승의 은덕은 한울님의 은덕과 아울러 우리들이 받고 있는 네 가지 큰 은덕이올시다. 이 은덕을 감사히 알고 정성껏 보답하는 것이 우리들의 절대한 도의적 책임입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비상시국에 처해 있습니다. 종교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때 어떤 경우라고 신앙을 떨하거나 더하거나 하리요마는, 오늘과 같은 국가비상시국에 있어서는 평소보다 좀 더 긴장된 정신으로 지극한 정성, 지극한 공경, 지극한 믿음으로써 위로는 한울님의 감화를 받게 하는 동시에 아래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정성 공경 믿음에 같이 느끼고 같이 움직여지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 천도교인의 할일 인줄 믿습니다. 그중에도 우리 내성단원으로서의 말은바 책임인줄 믿습니다. 해월신사 말씀에 일후 부인 한명이 사람 천 명씩 살릴 날이 있다하신 말씀이 곧 오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조문을 적어서 공함하오며 정성껏 준행하심을 바라나이다.

— 다음 —

### 1. 신앙보국

신앙보국이란 말씀은 신앙을 잘하는 그것이 곧 보국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농민은 농업을 잘하는 것이 곧 농업보국이 되고 상민은 장사를 잘하는 것이 곧 상업보국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완전한 종교신앙은 원래 국가로부터 국민에게 장려하는 것이니만치 국민으로서 신앙을 잘하는 것이, 그것이 곧 보국행동이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들은 주문 ‘청수, 시일, 성미, 기도, 이오관실행’을 그저 습관적 형식적 또는 의식적으로 행할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한울님의 영감을 받도록 도의 실감미를 얻도록 배전의 성력을 들여서 남들이 우리를 종교가로 인정한다는 것 보다도 우리들 각자 스스로가 신앙생활에서 커다란 광명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 2. 가정보국

가정보국이란 말씀도 역시 위에서 말한 신앙보국과 같이 가정살림을 알뜰히 잘 하는 것이 곧 보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생활도 국가 생활과 같이 정신 물질 두 가지 방면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가정도덕, 가정예의, 가정풍속, 가정교육, 가정헌법 등은 정신방면에 속한 것이요, 그밖에 의복, 음식, 주택 등 모든 가정경제는 물질방면에 속한 것입니다.

정신방면에 있어서는 집을 따라 가법, 가풍, 가구가 좀 색다를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우리들은 좀 더 새롭고 참되고 착하고 아름다운 가도를 이룩하기 위하여 위로는 시부모, 아래로 아들 며느리, 형제숙질 인리친척에까지 사인여친의 지정과 행실로써 존엄과 평화, 사랑과 위엄이 언제나 병행되도록 노력합니다. 다음 물질방면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오늘날 국가비상시국이란 철저한 각오 밑에서는 의복, 음식, 거처 등 모든 방면에서 질소 검박을 주로 하여 돈 한 푼, 실 한 오리, 휴지 한 조각, 석탄 한 덩이, 석유 한 방울, 숨 한 장 일지라도 극단으로 절약하는 동시에 신통하게 이용하여 국가의 자원(資源)을 절대 애호하도록 합시다.



이돈화(李敦化) 선생 철산종리원(鐵山宗理院)의 강도회강사(講道會講師)로 7월 23일 아침 출발 동 28  
일 밤 귀경(歸京)

최석련(崔碩連) 선생 신병 요양차로 7월 11일 의주향리(義州鄉里)로 가족 동반 이전(移轉)

신용구(申鏞九) 선생 7월 27일 신주택(新住宅) 명륜정(明倫町) 3정목(三丁目) 2번지의 2호 로 반이(搬移)

<출전 : 『中央彙報 : 단본부발 제2호 - 수도보국에 관한 건』, 『新人間』 125호, 1938년 8월 38~39쪽>

## 10)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강령 실천요목에 관한 건

도발 호외 (제8호)

1938년 10월 24일

천도교도령 신용구

총리원장 도하

###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강령, 실천요목에 관한 건

도제(道題)에 관하여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으로부터 별지와 같은 강령, 실천요목이 반포되었습니다. 이 강령, 실천요목은 일반 국민이 다 같이 철저히 실행할 것이어니와 우리 교회로서는 더욱 성심성의로 실행합니다. 시국인식의 철저와 국민정신총동원실행에 관하여는 이미 누누이 통문(通文)이 있었거니와 다시금 이 통문을 발함은 특히 우리나라 사대절에 하나인 오는 11월 3일의 명치절(明治節)을 기하여 전 국민이 획기적으로 일제 실천코자 별지 인쇄물의 실행 방법을 반포하오니 당일에 명치절 봉례식을 성대히 봉행하시며(식순은 금년 4월 15일 부(附). 도발 호외 제5호 참조) 귀지(貴地) 연맹과 연락협력하시와 가가인인(家家人人)이 빠짐없이 실천하도록 각근 준행하심을 절망(切望)하나이다.

— 다음 —

1. 별도 배부 「아침마다 궁성을 요배합시다」라는 인쇄물은 10월 말일까지 교회기본조직(면리 전도실 또는 각부)의 책임자에게 배포하여 11월 12일 중으로 각호(各戶)에 빠짐없이 배포할 것.
2. 우(右) 인쇄물은 집집마다 잘 보이는 곳에 붙이며 11월 3일 명치절을 기하여 이날부터 시작하여 이후는 매일 아침 황거요배를 계속 실천하도록 지도할 것.
3. 각호에 이 인쇄물을 배포할 때에 반드시 다음 같은 간단한 말씀을 일러주어 꼭 여행(勵行)케 할 것. “만세일계(萬世一系)의 천황폐하를 위로 모신일은 가장 고마운 일이니 이제부터는 아침마다 동방을 향하여 가족일동이 황거요배를 봉행합니다.”





4. 별지인쇄물 「강령, 실청요행」과 별도 배부 「아침마다 궁성을 요배합시다」는 귀지 연맹에 협의하여 쓸 만큼 청구하여 사용할 것.

〈출전 : 「中央彙報 : 道發 號外 第八號 國民精神總動員朝鮮聯盟綱領 實踐要目에 關한 件」, 『新人間』 128호, 1938년 11월, 1쪽〉

## 11)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도발 호외 (제9호)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에서 결성된 국민정신총동원의 의의, 비상시 국민생활개선기준,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표준복 양식의 삼대요건(三大要件)을 별지와 같이 배포하오니 먼저 국민정신총동원의 의의를 철저히 인식 실천하게 함과 동시에 비상시 국민생활개선기준과 표준복 양식 및 「경조의례취장기준(慶弔儀禮徽章基準)」을 조례(條例)와 도식에 따라 일체 준행실시(遵行實施)하게 하시와 비상시 획시기적(劃時期的) 생활개선을 만일의 유감(遺憾)이 실행케 하심을 양요(仰要).

1938년 11월 12일

천도교도령 신용구(申鏞九)

〈출전 : 「中央彙報 : 道發 號外(第九) - 國民精神總動員朝鮮聯盟」, 『新人間』 129호, 1938년 11월, 1쪽〉

## 12) 비상시국

단본부발 (제3호)

1938년 11월 20일

천도교내성단본부 대표 손광화

천도교내성단지방 부대표 도하

매는 정히 거두는 가을을 지나서 간직하는 겨울을 당하였습니다. 겨울은 한편으로는 한가한 때이면 서도 한편으로는 장내의 활동을 준비하는 시절입니다. 이때에 있어서 각 지방단원 여러분의 도체만중 하심과 아울러 여러분의 수도생활이 일층 더 건전하심을 성심으로 비나이다. 더구나 오늘날 국가 장기 비상시국에 처한 우리들 국민으로서는 다른 때보다 열배 백배의 긴장성과 굳은 결의를 가지고 이에 대응하여야 될 것은 물론이 어니와 그중에도 우리 내성단원들은 신앙보국 가정보국이란 두 가지 큰 실행 의무를 부담하였으니만큼 다른 국민들보다도 열배 백배의 결심과 노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





로 우리들은 한편 국민생활에 있어서 우리들 양심에 부끄럼 없도록 우리의 할 바 의무와 책임을 완전히 하는 동시에 한편 수도생활에 있어서 한울님의 감응과 감화를 얻도록 우리의 정성과 공덕을 쌓아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국민의 본분과 천도교인의 본색을 둘 다 완전히 할 것을 자기합시다. 이것은 한울님이 우리에게 맡긴 공덕이요, 국가가 우리에게 준 직분이요,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운명입니다. 우리는 이 지상명령(至上命令)에 의지하여 정성과 노력을 다할 것뿐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이 동짓달 금년 연말도 멀지 않았습니다. 단 의무금을 완납하지 못한 단부에서는 아무쪼록 단원을 독려하셔서 오는 인일기념 때까지로 의무금을 완납하시도록 노력해주심을 간절히 바라나이다.

(이상)

〈출전 : 「中央彙報」 : 단본부발 제삼호-비상시국, 『新人間』 129호, 1938년 11월, 1쪽〉

### 13) 연말연시 총후보국강조주간 실시에 관한 건

도발 호외 (제10호)

1939년 12월 3일

천도교도령 신용구(申鏞九)

도하

#### 연말연시 총후보국 강조 주간 실시에 관한 건

사변발생 이래에 누누이 강조한 총후보국에 관한 국민운동을 다시 강조 실시하며 광둥(廣東), 무한(武漢) 공략 후의 내외의 정세에 비추어 연말연시를 기하여 앞으로 더욱더 장기건설의 체제를 정비하고 성전(聖戰) 소기의 목적 달성을 기하고자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으로부터 이번(今般) 내각방침(內閣方針)에 순응하여 아래(左記) 기간을 '연말연시 총후보국 강조주간'으로 정해온 바, 우(右) 취지를 관내 교우(管内敎友)에게 철저 전달하여 아래 실천 요항을 우선 연말연시(年末年始)에 있어서 낭비(濫費)와 허례 등 구래(舊來)의 적폐(積弊)를 단연 일소하여 신생활(新生活)의 획기적 건설을 기함과 동시에 특히 현하 비상시국민생활개선의 일대 표본(標本)이 되도록 지도 또는 독려하심을 바랍니다.

- 다음 -

#### 1. 기간

1939년 12월 15일부터 1939년 12월 21일까지, 1주간

#### 2. 실천 요항

##### (1) 생활의 쇄신

전시국민생활의 확립을 목표로 하여 가지고 생활 쇄신의 의도하에서







갑, 연말연시에 있어서 증답일체(贈答一切)로 폐합시다.

을, 망년회와 신년연회 등은 될 수 있는 대로 생략합시다.

병, 신년의 봉축에 당하여는 엄숙 또 질소(質素)를 주로 하여 봉행합시다.

정, 연하장과 연하광고(年賀廣告) 같은 것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이것을 폐지합시다.

(2) 물자의 절약

국방의 자재를 확보하며 생산력을 확충하며 수출을 진흥하며 물가의 등귀(騰貴)를 억제 하고자 하는 의도하에서

갑, 매류(買溜, 사서 묵혀두는 것)를 하지 않을 것은 물론이요, 물자의 활용을 도모하는 의미에서 특히 신년을 맞이하여 의복의 신제(新製)를 될 수 있는 대로 줄입시다.

을, 상업을 경영하는 분은 연말연시의 매출, 광고, 장식, 경품 등은 될 수 있는 대로 줄입시다.

병, 상업 경영하는 분은 가격요금의 인상을 극력으로 피하는 동시에 판매자는 물론이요, 구매자도 공정가격을 준수하기에 힘씁니다.

(3) 저축 실행

저축보국(貯蓄報國)의 의도하에서

갑, 관공서, 은행, 회사, 공장 등의 근무자는 연말상여(年末賞與)를 극력 저축하게 합시다. 특히 은진산업(殷賑産業)관계자와 기타 수입의 증가함에 따라서 고율 저축을 실행하게 합시다.

을, 국채 또는 저축 채권의 응모에 힘씁시다.

병, 저축조합에서 나아가 가입하는 동시에 달마다 저축액이 증가되도록 힘씁시다.

(출전 : 「中央彙報 : 道發 號外(第十) - 年末年始統後報國強調週間實施에 關한 件」, 『新人間』 130호, 1939년 1월, 1쪽)

## 14) 도발 제6호

창도(創道) 80년의 신원(新元)을 맞으면서 만천하(滿天下) 동덕(同德) 전(前)에 삼가 세배를 드리는 동시에 중앙에서 생각한 바 소회(所懷)의 일단(一端)을 개진(開陣)해서 「의재신원기묘년(意在新元己卯年)」의 애정(哀情)을 표하나이다.

### 1. 시국과 교의(教義)

신동아 건설의 성전(聖戰)이 시작된 지 어언 1년 8개월 간 광고(曠古) 미증유의 성업(聖業)이 착착 진보되어오는 동시에 앞으로의 성업을 완성하기까지는 전도(前途) 상원(尙遠)한 이때에 있어 우리 교회로서 일층 인식과 실행을 철저케 할 삼대요목(三大要目)이 있으니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는 신앙보국주의(信仰報國主義) 강화, 두 번째는 신동아 건설 이상 확지(確持), 세 번째는 총력전체득(總力戰體得)이 그것입니다.





첫째, 신앙보국주의 강화란 것은 보통으로 말하면 종교 신자로서는 신앙으로 보국충성(報國忠誠)을 다하지는 의의(意義)인 것은 물론인데 이것은 일반 종교가 다 같이 가질 의무이거나 특히 우리 교회의 신앙보국이란 것은 다만 의의에만 있지 않고 우리가 교(敎)의 중요한 신조로서 되어 있는 보국안민(報國安民)의 신앙을 신앙적으로 실행화 하자는 것이 특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는 이기적 개인주의나 방랑적 자유주의를 배제하고 국가적 전체주의에 의존함으로써만 특색 있는 신앙보국을 강화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둘째, 신동아 건설의 이상의 확지란 것은 본래 우리 교의 대동방주의(大東方主義)와 철저히 부합되는 이상이므로 우리 교에서는 이 문제가 다만 지나사변(支那事變)<sup>101)</sup>으로 인한 사실에 의하여 새로이 생각된 것이 아니요 창도 시초부터 교회적 이상으로 파지(把持)해온 교지(敎指)이므로 우리는 이 대이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유달리 다른 사람보다 격별(格別)할 것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신동아 건설의 이상의 일면에는 서양적 유물편중의 폐해를 제거하고 동양적 황도정신(皇道精神)을 고조하는 점에서 정신지도를 주로 하는 우리 교회로 보면 동양적 정신문명이 전개됨에 따라 교운(敎運)이 일층 발전되리라 믿습니다.

셋째, 총력전의의체득(總力戰意義體得)이란 것은 국민 전반의 힘을 총동원하여 전력(戰力)에 집중케 함을 이룹니다. 현대 전쟁이란 것은 다만 병력과 병력의 전쟁이 아니요 국민의 총력과 총력의 전쟁으로 보는 점에서 총력의 강약 여부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나는 것이므로 전반 국민정신총동원연맹(國民精神總動員聯盟)이 성립된 이유도 이 점에 있는 즉 우리는 국민정신총동원연맹을 일층 협조익찬(協調翼贊)하여 방공사상(防共思想)의 선전과 생산력 확충과 생활 개선과 소비절약과 저축 장려 등을 철저히 실행하여야 합니다.

## 2. 현도(顯道)와 수도(修道)

우리는 이 창도 80년을 재현도(再顯道)의 해로 봅니다. 금년 안에 재현도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교가 금년으로부터 재차 재현도의 단계에 접어드는 해라 봅니다. 이것은 대신사(大神師)께서 '오도(吾道) 80년 후'라는 예언에 의지해보아도 신통히 내외정세가 맞아간다 할 수 있습니다. 원래 현도라는 이름은 기회 기회마다 교회가 겁운(劫運)을 벗고 한 계단 계단씩 획기적 향상을 한다는 뜻이므로 현도는 한번만 있는 것이 아니요, 1기 현도 2기 내지 3기 현도 등의 단계가 있을 것이므로 과거 병오(丙午)의 대고천하일(大告天下日)을 제1기현도(第一期顯道)라 하면 금년 위시하여는 제2기현도(第二期顯道)의 운(運)에 들었다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시운시변(時運時變)의 변복(變復)을 보아 넉넉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 우리는 창도 80년을 현도의 해인 동시 창도의 해로 봅니다. 어느 해인들 수도가 필요치 않으리요만은 그러나 다 같은 수도라 할지라도 기회 기회에 따라 수도의 효과가 한층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사절(四節)이 다 농부에게 필요하지만은 춘절이라는 기회가 한층 농부에게 필요함과 같이 수도도 경우에 의해서는 특별한 수도가 있음으로써 도성덕립(道成德立)의 효과가 신속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101) 중일전쟁을 뜻함.





가중(家中)에 재화(災禍)가 있을 때 사회에 불안이 있을 때 국가가 유사(有事)할 때 이러한 때일수록 수도의 효과는 큼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울님의 감응(感應)은 항상 어려운 때에 명우(冥祐)가 특별함으로 써 입니다. 마치 자손의 질병(疾苦)이 있을 때에 부모의 간호가 특별함과 같습니다.

수도의 해에 있어 수도를 진실히 하자. 어떻게 함이 진실한 수도일까. 이는 오직 불기천(不欺天) 세자에 있습니다. 같은 수도라 할지라도 기천(欺天)의 수도와 불기천(不欺天)의 수도가 있으니 예를 들면 같은 성미(誠米)를 뜨는 데 있어 신성하게 제정(製定)한 천법(天法)을 어기고 대금(代金)으로 성미를 내는 것과 같은 것은 기천의 수도입니다. 성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 수도가 다 그러합니다. 우리는 신년도(新年度)부터 모든 수도에 불기천의 도심(道心)을 발휘하여 갱생의 수도를 함으로써만 재현도가 될 수 있고 획시기적 대운수를 탈 수 있다 믿습니다.

1939년 1월 일

천도교도령(天道敎道領) 신용구(申鏞九)

총정(總正) 조기간(趙基堯)

성도관정(誠道觀正) 백중민(白重彬)

경도관정(敬道觀正) 길윤기(吉允箕)

신도관정(信道觀正) 전의찬(全義贊)

동(同) 김명희(金明熹)

관정(觀正) 김병제(金秉濟)

동(同) 임문호(林文虎)

감사(監査) 이근섭(李根燮)

도하

〈출전 : 『中央彙報 : 道發 第六號』, 『新人間』 131호, 1939년 2월, 1~2쪽〉

## 15) 일본정신발양주간 실시요강에 관한 건

도발 호외 (제11호)

1939년 1월 27일

천도교도령 신용구(申鏞九)

도하

### 일본정신발양주간(日本精神發揚週間) 실시요강에 관한 건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에서 발행한 별지 일본정신발양주간 실시요강을 부송(付送)하오니 기원절 봉축식을 성대히 봉행하는 동시에 별지 각항에 준하여 성의껏 여행(勵行)하시되 황국신민된 자각을 더





욱더 심화 철저하게 합과 함께 국민정신총동원연맹원(國民精神總動員聯盟員)된 의무를 자각하도록 노력하심을 경요.

〈출전 : 「中央彙報 : 道發 號外(第十一)-日本精神發揚週間實施要綱에 관한 件」, 『新人間』 132호, 1939년 3월, 1쪽〉

## 16) 부인보국강조주간 실시에 관한 건

단본부발 (제5호)

1939년 2월 25일  
천도교내성단본부 대표 손광화  
내성단지방 부대표 도하

### 부인보국 강조주간 실시에 관한 건

오는 3월 6일은 황후폐하(皇后陛下)의 제36회 어탄신일이 되옵시온 바 본 단에서는 이 지구절(地久節)을 중심으로 전 단원으로 하여금 국민정신총동원 장기건설의 비상각오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특히 3월 4일로부터 동 10일까지 일주일간을 부인보국 강조주간으로 정하옵고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조항을 실시하기로 하였사오니 귀 지방 일반단원에게 낱낱이 알리어서 성심성의로 알뜰히 실행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 다음 —

1. 3월 4일, 5일은 폐물이용(廢物利用) 소비절약(消費節約)일로 하여 일반 가정에는 폐물을 잘 이용하고 모으며, 소비절약운동을 새로 시작할 것.
2. 6일은 봉축일로 하여 단체적으로 신사참배(神社參拜)를 할 것.
3. 7일, 8일은 애국저금(愛國貯金)하는 날로 하여 일반적으로 애국저금을 장려할 것과 애국저금조합을 조직할 것.
4. 9일, 10일은 황군위문(皇軍慰問)하는 날로 하여 출정응소 군인과 그 유가족, 육해군병원 요양소의 상이군인(傷痍軍人)을 위문할 것.

〈출전 : 「中央彙報 : 단본부발 제5호 - 부인보국강조주간실시에 관한 건」, 『新人間』 132호, 1939년 3월, 1쪽〉



## 17) 천도교 제2회 법회

도발 (제7호)

1939년 3월 7일  
천도교도령 신용구(申鏞九)  
도하

천약(天約) 제22조에 의하여 천도교 제2회 법회(法會)를 1939년 4월 2일, 3일 중앙총리원에 소집함.

〈출전 : 「中央彙報 : 道發 第七號」, 『新人間』 133호, 1939년 4월, 33쪽〉

## 18) 천덕송(天德頌) 일부 삭제에 관한 건

도발 (제8호)

1939년 3월 13일  
천도교도령 신용구(申鏞九) 印  
천도교중앙총리원  
성도관정 백중빈(白重彬) 印  
도하

### 천덕송 일부 삭제에 관한 건

천덕송 『제8페이지 제3롱담가』는 원래 대신사께서 이전 시대에 자기 출생한 향사(鄉士)를 찬미하신 노래임은 공지하는 바이거니와 그중 제1절, 제2절은 지금 시기에 기휘(忌諱)<sup>102)</sup>되므로 이를 삭제키로 결정하여 이에 통지하오니 기관 및 개인소지를 막론하고 이 절구(節句)만은 일체 삭제하여 송창(頌唱)하지 않도록 아래에 의하여 엄격하고 또한 철저히 실행하여 주시옵소서.

— 다음 —

- 위에 말한 두 절구는 일체 송창하지 말 것.
- 각 기관 및 개인이 소지한 「천덕송 제3롱담가 중 제1절, 제2절 및 보표(譜表) 사이에 있는 절구까지」 진묵(眞墨)으로 도말(塗抹)할 것

102) 꺼리거나 두려워 피함.

— 삭제 절구 —

국호는 조선이요 읍호는 경주로다.  
성호는 월성이요 수명은 문수로다.  
아 동방 생긴 후에 이런 왕도 또 있는가.  
동도는 고국이요 한양은 신부로다.

〈출전 : 「中央彙報 : 道發 第八號—天德頌一部削除에 關한 件」,  
『新人間』 133호, 1939년 4월 33쪽〉

## 19) 신앙보국 철저

도발 (제2호)

이번 본인 등이 박덕비재(薄德菲才)의 자격으로 본부의 중임(重任)에 피선(被選)하게 된 것은 실로 의외의 일(事)로서 황공무지(惶恐無地)이옵나이다만 천사(天使)의 명우감응(冥佑感應)과 제위(諸位)의 애호편달(愛護鞭達)에 의해서만 소임의 만일(萬一)을 기도(期圖)할까 생각됩니다. 생각건대 창도 80년이란 금년은 공전적(空前的) 내외다사(內外多事)의 가을(秋)이라 봅니다. 신동아 건설의 대이상 하에서 신앙보국의 임무를 철저히 실행하여 황은(皇恩)의 만일(萬一)을 보답코자 하려면 교단적(教團的) 동귀일체(同歸一體)의 기화작용(氣化作用)이 가장 필요하다 생각되오며 안(內)으로 신앙의 본질을 함양하여 중생 염원의 복덕(福德)을 증진하려면 내시천주(內侍天主) 통령정기(通靈正氣) 제화증복(除禍增福)의 수도가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상 2대강령(二大綱領)을 실현하는 데는 '일교화(一日教化) 2일교화(二日教化)'인 바 우리는 교화 우선으로 창도(創道) 80년을 맞는 획기적 대원(大願)을 삼아야 합니다. 그러하려면 상하가 오심즉여심(吾心卽汝心)의하에서 공동협조가 있음으로써 거의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삼가 소회(所懷)의 일단(一端)을 개진하면서 제위의 합덕합심(合德合心)을 비옵나이다.

1939년 4월 15일

천도교본부

도령(道領) 이인숙(李仁淑)

총정(總正) 최안국(崔安國)

성도관정(誠道觀正) 조기간(趙基堧)

경도관정(敬道觀正) 박용완(朴用玩)

신도관정(信道觀正) 전의찬(全義贊)

관정(觀正) 김병제(金秉濟)

감사(監査) 이근섭(李根燮)  
관서(觀書) 김종현(金宗炫)  
동(同) 이 단(李 團)  
동(同) 이우영(李宇英)  
도하

〈출전 : 「中央彙報 : 道發 第二號」, 『新人間』 134호, 1939년 5월, 32~33쪽〉

## 20) 국민정신총동원천도교연맹 취의서·선언·규약

도발 호외

현하(現下) 중대한 시국정세에 감(鑑)하여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을 더욱 강조하고 긴밀하고 또 철저히 실행하기 위하여 본부에서는 국민정신총동원 천도교연맹을 결성하고 별지와 같이 취의서, 선언, 규약을 양포(仰佈)하오니 아래 각항에 준하여 일제히 조직 결성하심을 양요(仰要).

— 다음 —

- 각칭(各稱)은 국민정신총동원천도교모군종리원연맹(天道教某郡宗理院聯盟), 국민정신총동원, 천도교모면전도실연맹(天道教某面傳導室聯盟)이라 칭함.
- 역원(役員)은 본 규약 제5조 제3항에 준함.
- 연맹원은 군(郡), 면(面), 동리(洞里) 연맹 및 애국반(愛國班)에 일원이 됨은 물론이거니와 교회연맹의 일원이 됨에 따라 이중 혹은 삼중으로 자격을 가질 것을 예히 각오하고 착실 여행(勵行)함.
- 규약은 별지 천도교연맹규약을 준용(準用)함.
- 조직기한은 금월 말일 내로 하여 결성 즉시로 연맹본부에 보고함(전도실연맹까지).

1939년 6월 11일

천도교도령 이인숙(李仁淑) 인(印)

〈추고식순(追告式順)〉

1. 개식(開式) 2. 심고(心告) 3. 궁성요배(宮城遙拜) 4. 국가봉창(國歌奉唱) 5. 식사(式辭)
6. 취의서 및 선언 낭독 7. 순국영령에 대한 일본 간 묵도 8. 황국신민서사 낭독
9. 천황폐하만세삼창 10. 심고 11. 폐식



## 국민정신총동원천도교연맹 취의서

현하 시국의 정세에 비추어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을 일층 철저 강화시키어 존엄한 국체(國體)에 따라 더욱더 진충보국(盡忠報國)의 정신을 앙양(昂揚)하고 이를 우리 일상생활의 실천에 구체화, 향상화하여 소기의 목적을 관철함은 실로 전 국민의 의지인 동시에 의무이다. 우리들은 이에 국민정신총동원 천도교연맹을 결성하고 전 교회에 걸쳐 동일한 지도정신하에 운동을 통제 강화하여 진정한 내선일체(內鮮一體)의 국책(國策)에 순응하고 총후의 수호를 공고히 하여 시간(時艱)<sup>103)</sup>의 극복을 기함.

1939 6월 11일

### 선언

동아 신질서를 확립하고 팔괘일우(八紘一宇)의 조국정신(肇國精神)을 세계에 앙양함은 제국부동의 국시(國是)이다. 우리들은 이에 일치단결 국민정신을 총동원하여 내선일체 전 능력을 발휘하여 국책의 수행(遂行)에 협력하여 성전구극(聖戰究極)의 목적을 관철하기를 기함.

1939 6월 일

국민정신총동원천도교연맹

## 국민정신총동원천도교연맹 규약

제1조 본 연맹은 국민정신총동원천도교연맹이라 칭함

본 연맹본부의 사무소는 경성부(京城府) 경운정(慶雲町) 88번지 천도교본부 내에 이를 설치함.

제2조 본 연맹은 내선일체 거국일치 국민정신총동원의 취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지 군종리원(郡宗理院) 면전도실(面傳道室) 및 개인으로써 조직함.

제3조 본 연맹은 경성에는 연맹본부, 지방에는 원연맹(院聯盟), 전도실연맹(傳道室聯盟)을 설치함.

제4조 본 연맹은 전조(前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좌의 사업을 행함.

1. 강연회, 좌담회 등의 개최 및 강사 알선 또는 파견
2. 인쇄물 배포
3. 가맹단체 상호간의 연락 조성
4. 기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

제5조 본 연맹에 좌의 역원을 둠.

1. 본 연맹, 군종리원연맹(郡宗理院聯盟), 면전도실연맹(面傳道室聯盟)에는 각 이사장 한 명을 둠.
2. 본 연맹 이사장은 도령(道領), 원연맹 이사장은 원장(院長), 면전도실연맹 이사장은 종리사(宗理師)가 이에 임명함.

103) 시국의 어려움.





3. 각 연맹에는 이사 약간 명을 두되 해당 이사는 이사장이 이를 지정함.  
제6조 본 연맹 이사장은 각 원연맹을, 원연맹 이사장은 각 전도실연맹을 지도함.

제7조 본 연맹의 실천 요항

- 신사참배여행
- 국기의 존중, 계양의 여행
- 매일 아침 궁성 요배
- 황도정신의 현양(顯揚)
- 내선일체의 완성
- 기회 있을 때마다 황국신민서사 낭독
- 생활의 혁신(소비절약, 물자애호 등)
- 신앙보국
- 근로보국
- 생업보국
- 충우의 후원
- 응소군인(應召軍人)의 환송영, 상이장병의 위문, 전몰장군의 조위(吊慰) 유가족의 구휼 및 위문
- 애국저축의 실행
- 방공방첩(防共防諜)에의 협력, 유언비어의 근신(謹慎)

〈출전 : 「本部彙報 : 道發 號外(國民精神總動員天道教聯盟趣意書/宣言/規約)」,  
『新人間』 136호, 1939년 7월 31~33쪽〉

## 21) 정동천도교연맹본부 결성 통지의 건

정동천연발(精動天聯發) (제1호)

1939년 6월 17일

국민정신총동원천도교연맹 이사장 이인숙(李仁淑) 인(印)

종리원장(宗理院長) 도하

### 정동천도교연맹본부(精動天道教聯盟本部) 결성 통지의 건

수제(首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성이 되었기에 이에 양함(仰函)하오니 조량(照亮)하심을 경요(敬要).

— 다음 —

- 일시 : 1939년 6월 11일 정오
- 장소 : 천도교중앙교당
- 취의 선언, 규약은 앞서 반포함과 같음.
- 명칭 : 국민정신총동원천도교연맹본부
- 역원 : 이사장 이인숙(李仁淑)

이사 정광조(鄭廣朝) 이돈화(李敦化) 최안국(崔安國) 신용구(申鏞九) 김진팔(金鎭八)  
김병준(金秉濬) 이군오(李君五) 이근섭(李根燮) 최단봉(崔丹鳳) 조기간(趙基棨)  
전의찬(全義贊) 김병제(金秉濟) 이단(李團) 김종현(金宗炫) 이우영(李宇英) 이근  
배(李根培) 홍진혁(洪鎭赫) 김동수(金東洙) 조종오(趙鍾沔) 계연집(桂淵集)  
상무이사 조기간(趙基棨) 김병제(金秉濟) 이단(李團)

〈출전 : 「本部彙報 : 精動天聯發 第一號—精動天道教聯盟本部締結成通知의 件」,  
『新人間』 136호, 1939년 7월 33쪽〉

## 22) 정동연맹 기관지 『총동원』 구매에 관한 건

정동천연발 (제2호)

1939년 6월 17일

국민정신총동원 천도교연맹 이사장 이인숙(李仁淑)

총리원장 도하

### 정동연맹 기관지 『총동원(總動員)』 구독에 관한 건

때는 날로 더욱 증대하여 갑니다. 따라서 전 국민의 총동원운동은 더욱더욱 긴절하여 집니다. 조선 연맹에서는 우리 국민정신총동원연맹원으로 하여금 상하좌우의 연락 협조와 지도유액(指導誘掖)<sup>104)</sup>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관 잡지 『총동원』을 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창간호(創刊號)가 발행되어 이를 견본으로 무료진정(無料進呈)하오며 다음의 조선연맹 소정(所定)의 구독 규정을 등송(騰送)하오니 다수 구독하심을 바라나이다.

104) 誘掖 : 이끌어 도와줌.

### 구독규정(조선연맹 소정)

1. 정가 : 매월 1회 간행, 1개년 구독료, 50전(우송료 포함)
2. 신입(申込)<sup>105</sup>방법 : 가. 도연맹 나. 부군도연맹 다. 읍면연맹 르. 가맹단체 미. 각종 연맹 이상 각 연맹, 단체마다 여러 사람의 것을 모아서 소요 부수대로 신청할 것.
3. 송금 방법 : 일체 선금으로 주문할 것. 되도록 진체계좌(振替口座)<sup>106</sup> (경성2994번)을 이용할 것.
4. 송부 및 배포 방법 : 본 연맹 사무국으로부터 전기 제2항 신청 연맹(단체)앞으로 청구 부수를 발송 하고 신청단위연맹으로서는 신입개인에게 각각 배포할 것.

### 추고(追告)

면전도실연맹본은 대금 수합(收合) 및 잡지 배포를 공히 원연맹(院聯盟)에서 취급하되 직접 조선연맹사무국(京城南米倉町九)으로 송금 주문할 것.

〈출전 : 「本部彙報 : 精動天聯發 第二號 - 精動聯盟機關誌(總動員)購買에 관한 件」, 『新人間』 136호, 1939년 7월, 33~34쪽〉

## 23) 지나사변 2주년 기념행사 실시에 관한 건

정동천연발 (제3호)

1939년 6월 17일

국민정신총동원천도교연맹 이사장 이인숙(李仁淑)

원장 도하

### 지나사변<sup>107</sup> 2주년 기념행사 실시에 관한 건

오는 7월 7일 지나사변(支那事變) 발발 3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여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으로부터 전 가맹단체에 향하여 지나사변 2주년 기념행사 실시 요강을 발포하였습니다. 이제 그 요강을 아래 반포하오니 일반연맹 각층에 일치 협력하여 성심여행(誠心勵行)하심을 경요.

105) 신청 혹은 청약

106) 振替 : 대체(對替)

107) 중일전쟁을 뜻함.

— 다음 —

###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지나사변(支那事變) 2주년 기념행사 실시 요강

#### 1. 목적

- 가. 사변의 진상을 천명하여 성업익찬(聖業翼贊)의 정신을 현양함.
- 나. 이날 이곳 정동조선연맹 창립 1주년 기념됨을 상념하여 연맹 창립의 정신을 앙양하며 연맹원 된 자각의 철저를 도모함.

#### 2. 일시 : 1939년 7월 7일

#### 3. 주최 및 범위

도(道), 부(府), 군(郡), 도(島), 읍(邑), 면(面)의 각 연맹에서는 각각 그 지방 정세에 응하여 공동 또는 단독으로 주최하여 그 범위는 같은 계통의 하급 연맹 및 애국반으로 함.

#### 4. 지나사변 2주년 기념행사

- 1) 국기 게양 각 호(戶)에 국기를 게양함
- 2) 기원 및 추도 신사(神社), 신사(神詞) 등에 있어서 출정 장병의 무운장구 기원제를 봉행할 것
- 3) 묵도 정오를 기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전몰장병(戰沒將兵)의 영령을 추도하고 출정 장병의 무운장구를 기원할 것
- 4) 근로보국 작업 당일 각 애국반은 반장 통솔하에 근로보국대로 출동하여 단반(單班) 혹은 수반(數班) 협력으로 그 지방에서 적당한 작업을 택하여 2시간 이상 근로보국의 작업을 실시할 것
- 5) 위문 및 위자(慰藉)<sup>108)</sup>
  - 가. 군사 후원과 협력하여 출정군인 유가족의 가정 방문, 가사 방조(幫助)<sup>109)</sup> 등에 적당한 방법을 강구하여 전상병병입원환자(戰傷病兵入院患者)의 위자(慰藉)를 행할 것
  - 나. 위문대(慰問袋)(또는 위문금)의 수집에 대하여는 대개 애국반으로서 매일 반에(농, 산, 어, 촌)에 있어서는 대체로 부락연맹마다 한 개쯤 하는 목표로 모아서 부, 군, 도, 군사후원연맹으로 송부할 것
- 6) 조식(粗食) 및 금연 당일은 일채주의(一菜主義)의 조식을 실행하며 깍연을 폐하여 출정장병의 고난을 상기할 것

〈출전 : 「本部彙報 : 精勤天聯發 第三號 - 支那事變二週年記念行事實施에 관한件」, 『新人間』 136호, 1939년 7월 34쪽〉

108) 위로하고 도와줌.

109) 곁에서 도와줌. 보조 또는 원조를 뜻함.



## 24) 도발 제5호

지나사변(支那事變)으로 인한 시국은 동양에 한하여만 그치지 아니하고, 이제는 구주대전란(歐州大戰亂)<sup>110)</sup>까지 일게 되어 전 세계 비상시국화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조선 지방으로 말하면 한발(旱魃)의 흉재(凶災)까지 첨가되어 난 중의 난을 당하게 되온 바, 생각건대 금년이란 금년이야말로 역사적 대간난(大艱難)의 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것이 다- 천운소정(天運所定)이며 대세의 소치이므로 구구한 소지편견(小知偏見)으로 이렇다 추측할 바 못 되는 것은 물론이나 그러나 고성(古聖)의 말에 “자작열(自作孽)은 불가활(不可活)이로되 천작열(天作孽)은 가활(可活)”이라는 말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들은 어떠한 자력갱생 인고단련의 도력(道力)에 의지하여 능히 시간(時艱)<sup>111)</sup>을 극복하고 전고위화(轉苦爲禍)의 대광명을 얻을 줄로 굳게 믿어집시다. 이 점에 대하여 몇 가지 소신하는 바를 간단히 적사오니 삼가 천의(天意)의 소재(所在)를 어기지 말도록 합시다.

첫째, 이 비상시국에 대한 천의의 소재로 말하면 현재에 생기는 모든 비상 사실은 오로지 우리 제국의 도의적 신동양을 건설하는 준비 또는 조짐의 전개로 보아야 합니다. 어떤 나라가 어떤 일을 하든지 또는 구주전란이 어떻게 전개되든지 이것은 다 성업(聖業) 신동아 건설의 촉진으로 볼 수 있는 동시에 이러한 비상 사실이 있을수록 전도(前途)의 행운은 동양으로 집중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는 대세가 암시하는 동시에 천명의 지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둘째, 고난은 인류 향상의 일대 시제(試題)로 보아야 합니다. 고난을 견디지 못하는 인간은 퇴화가 있을 뿐이요, 부패가 있을 뿐입니다. 고난은 적극적이며 안락은 소극적입니다. 세한(歲寒) 속에서만 송백(松栢)의 절개를 안다는 것과 같이 고난 속에서야 인간다운 인간을 발견할 수 있고 국민다운 국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고로 충효열의 위행(偉行)이 이러한 시난(時難) 속에서야 생긴 것을 보면 고난이야말로 진(眞)인간과 가(假)인간을 판정하는 하늘이 준 시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금년을 다만 재난의 해로만 생각지 말고 반대로 인격의 시련을 받는 행운의 해라 반성하여야 합니다.

셋째, 금년은 수도의 해로 보아야 합니다. 신사(神師)의 말씀에 「도인이 환난에 처할 때에야 처음으로 그 사람의 도력을 볼 수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얼마나 적절한 말씀입니까. 재차 음미하여야 됩니다. 원래 수도의 효과는 평안 무사할 때에 보지 못하고 곤란의 가운데서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수도란 것은 행복한 속에서 행복을 얻기 위하여 생겼다가보다도 환난중에서 환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생긴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금년을 특별수도의 해로 인식하고 남다른 노력과 남다른 성력(誠力)으로 한울님의 시험에 낙제되지 말도록 성경신(誠敬信)의 도력을 나타냅시다.

이상을 요컨대 현재 시국의 간난(艱難)이란 것은 간난을 주기 위한 간난이 아니요, 앞으로 보다 이상의 큰 광명을 주기 위한 간난인즉 우리는 천의의 소재를 어기지 말고 모든 간난을 달게 받고 굳게 이겨서 국민된 충성을 다해야만 할 것이며 더욱이 도인된 특수 처지로 본다면 이러한 때일수록 안으로 수심정기(守心正氣)하여 천주(天主)에 대한 기원을 정성스럽게 하며 밖으로 궁극진취(鞠躬盡瘁)<sup>112)</sup>하여

110) 제2차 세계대전을 뜻함.

111) 시국의 어려움.

112) 몸과 마음을 다하여 나라 일에 이바지함.





인고동로(忍苦動勞)의 위력을 발휘하여 미증유의 대 시험에 낙제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니 수인사대 천명(修人事待天命)이라 함을 정히 이룰 때에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숙자계(自肅自戒)하고 노력가수(努力加修)하기를 바라나이다.

1939년 9월 14일  
천도교도령 이인숙(李仁淑)

〈출전 : 「本部彙報 : 道發 第五號」, 『新人間』 139호, 1939년 10월, 1~2쪽〉

## 25) 국방성미(國防誠米)에 관한 건

도발 (제6호)

1939년 9월 21일  
천도교도령 이인숙(李仁淑) 인  
군중리원장 도하

### 국방성미에 관한 건

동양에 성전(聖戰)이 있는 지 어언 2년 유여(有餘) 의외에 구주대동란의 재발<sup>113)</sup>로 인하여 세상은 세계적 비상시국이 되었습니다. 동서의 사정이 다른지라 차동피동(此動彼動)의 목적이 서로 다를 것은 물론이나 그러나 깊이 생각하고 보면 이는 다 천지대기운(天地大氣運)의 발동으로 정의의 표현(表顯)인 신동아 건설의 성업을 명우촉진(冥祐促進)하는 신명(神明)의 소사(所使)라 믿겨집니다. 이때에 있어 국민된 자 누구나 배전(倍前)의 심려원모(深慮遠謀)<sup>114)</sup>와 보다 이상의 근기(根氣)와 노력으로써 성업의 완성을 협력보조(協力補助)하여야 되리라 믿는바 그중에도 특히 도의적 신조를 생명으로 하는 우리 도인에 있어는 남다른 특성(特誠)이 있어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유감스러운 바는 유래시국(由來時局)에 있어 다소 미력을 다하여온 중에 심력(心力)에 있어는 부양반성(俯仰反省)에 스스로 수괴(羞愧)<sup>115)</sup>할 바 없다는 자부(自負) 되오나 오직 물력(物力)에 있어만은 자축자굴(自縮自屈)의 염(念)을 금치 못하였으니 이는 다른 연고(緣故)가 아니라 전혀 물질 빈약 소치로 생긴 세(勢)의 필연이었습니다.

그러나 빈자(貧者)의 일등(一燈)이라는 말과 같이 물력에 있어도 자력에 상응한 실물을 부단히 봉공(奉供)코자 하는 성의만은 만강충심(滿腔充血)으로 쌓여 있던 바 만려(萬慮)의 여(餘)에 아래와 같은 1개월간의 국방의 성미(誠米)를 실행하여 일등(一燈)의 성조(誠助)를 삼고자 하오니 삼가 상술한 진의를

113) 제2차 세계대전을 뜻함.

114) 먼 장래의 일까지 깊이 생각함.

115) 부끄럽고 창피하여 볼 빛이 없음.





체득하시어 아래와 같이 각근준행(恪謹遵行)하시기를 바라나이다.

— 다음 —

- 기한은 금년 11월 1일로 같은 달 말까지, 1개월간으로 함.
- 국방성미는 월성미(月誠米)와 같이 매호(每戶) 식구수대로 소식곡물(所食穀物)을 조석으로 일시(一匙)씩 떠서 전도실에 수합 매매하여 그 전액(십일레도 제외하지 않음)을 군종리원으로 수집함.
- 국방성미를 뜯 때에는 필히 국위선양과 황군 무운장구를 기원 심고(心告)함.
- 국방성미의 납부 수속은 월성미 영수표(領受票)를 대용하되 필히 국방 두 자를 표지 우 상면에 기입함. 영수증은 월성미 영수증과 동시 배부함.
- 납부 기일은 12월 10일 이내로 하여 군종리원 원장이 그 수합된 전액을 본부신도관(本部信道觀)으로 납부하되 진체(振替)<sup>116)</sup>통신란에 필히 국방 두 자를 표시하여 월성미와 동시 송부함.
- 원(院) 및 전도실 직원은 우기(右記) 조항을 각 도호(道戶)에 미리 주지시켜 성심여행(誠心勵行)케 함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국민정신총동원천도교연맹 본의에 의하여 물심 총 동원적 정신으로 이를 각근 실행함.

〈출전 : 「本部彙報 : 道發 第六號 - 國防誠米에 관한 件」, 『新人間』 139호, 1939년 10월, 2~3쪽〉



## 26) 연맹통첩요항 선포의 건

정동천련본발 (제4호)

1939년 9월 14일

국민정신총동원천도교연맹본부 이사장 이인숙(李仁淑)

군종리원연맹 이사장 전(殿)



### 연맹통첩요항(聯盟通牒要項)선포의 건

근간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으로부터 차례로 도착한 통첩이 있는 바 그 개괄적 요항을 아래 양포 하오니 전반 연맹원에게 일일히 통지시켜 철저 실행케 하심을 절망(切望)하나이다.

기(記)

1. 애국일(매월 1일)에 관한 건
  - 1) 신궁, 신사에 참배(국위선양 황군무운장구 기원)

116) 振替 : 대체(對替)



- 2) 절주(節酒) 절연(節煙) 일체주의의 조식 실행(제일선 장병의 노고를 생각하는 뜻으로)
- 3) 오후에 묵도(호국영령에 경위(敬慰)를 표하는 뜻으로)

2. 한해(旱害) 대책에 관한 건

- 1) 한해는 인고단련, 근로자립의 정신력으로써 이를 능히 극복하겠다는 강고한 결심을 가질 것
- 2) 대소도시에 사는 애국반원(愛國班員)은 다수 농민의 한해에 의한 곤궁 실상에 비추어 차제 일층 자숙자계함은 물론, 나아가 지극히 적은 점에 이르기까지 낭비 사치나 무용(無用)의 낭비는 절대 없도록 힘쓸 것
- 3) 미증유의 조해(旱害)에 감하여 대소지주로 하여금 소작인 구조의 적극적 방책을 강구(講求)하도록 연맹 및 애국반의 책임자는 이를 앞선 진력할 것.

3. 생활 개선과 쌀 절약에 관한 건

- 1) 반미(飯米)는 청백미를 일체 폐지합시다.  
조선 내에서 1개년 소비되는 현미가 1,500만석이라 하면 이것을 7분용(七分奉)을 한다면 약 36, 37만석이 절약되고 이것을 만일에 오분용(五分奉)을 한다면 무려 60만석이라는 거대한 것이 절약될 뿐더러 더욱이 보건위생 상으로 보아서 크게 유익한 것
- 2) 각 가정에서는 소비를 절대 절약합시다. 일상생활에 사소한 부주의로 필요 이상으로 밥을 지어 쉬어버리거나 식찬 등 기타의 모든 무용의 소비가 얼마라도 있으니 이 점에 절대주의만 한다면 가령 조선 내의 각 가정의 쌀을 일일 평균 1홉씩만 절약한다면 일년간에 150만석의 쌀이 절약되는 것.
- 3) 혼식과 대용을 적극 여행합시다.  
대소맥(大小麥), 울(粟)은 물론 감자, 고구마류도 그대로 대용하여도 훌륭히 쌀의 대용이 되고 또 는 쌀에 혼용한다면 혼입한 분량만큼은 쌀이 절약되는 것이니 이것을 극력 실행할 것

4. 헌수(獻酬 : 술잔을 주고받는 것) 절대 폐지에 관한 건

- 헌수는 백해무일리(百害無一利)
- 1) 술의 낭비 그것이 곧 쌀의 낭비가 되는 것
  - 1) 연회비가 까닭 없이 고가화되는 것
  - 1) 병균이 전파되는 것
  - 1) 건강을 해치는 것

〈출전 : 「本部彙報 : 精勳天聯本發 第四號-聯盟通牒要項宣佈의 件」,  
『新人間』 139호, 1939년 10월, 3~4쪽〉





## 27) 시국행사 철저실행에 관한 건

내성단본부발 (제4호)

1939년 9월 20일

천도교내성단본부 대표 손광화

내성단지방 부대표 도하

### 시국행사 철저실행에 관한 건

우리교에는 삼세신성시대부터 내수도의 중요성과 내수도의 책임이 큰 것을 역설해왔습니다. 그러나 만큼 우리 내성단에서는 교회에 일이 있을 때마다 그중요성을 나타내고 그 책임을 다하여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완전히 지킨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근일 천도교본부로부터 도발 제5호의 시국과 한재에 대한 대책, 도발 제6호의 국방성미에 관한 공함과 국민정신총동원천도교연맹본부발 제4호의 시국에 관한 제반행사에 대한 공함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세 가지 공함은 천도교회 전체가 총동원하여서 할일이지만 최종실행에 이르러서는 우리들 단원의 정성과 힘으로만 될 일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제 그것을 다시 추려서 말씀한다면

첫째, 시국에 관한 인식. 우리는 지금 지나사변(支那事變)이란 전국가적 비상시국을 당한 위에 다시 구주대전란까지 겹쳐져 전세계적 비상시국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특히 지나사변이란 것은 기실 한울님 뜻과 한울님의 명령으로서 우리 제국이 도의적 신동양을 건설하자는 성전이니 만큼 시국이 비상해지면 비상해질수록 그 앞에 오는 좋은 운수는 온통 동양으로 몰려오리라는 것을 굳게 인식하며.

둘째, 한재에 대한 정신. 전례에 없는 무서운 한재(旱災)는 마침내 중부 이남에 큰 흉년을 내리고야 말았습니다. 비상시국 위에 흉년까지 당한 것은 진실로 설상가상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재난을 당할 때에 먼저 정신상으로 재난은 인생에 대한 한울님의 큰 시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험에 낙제하지 말고 잘 견디고 잘 이기자하는 역센 정신을 가져야 할 것이며.

셋째 국방성미에 관한 건. 우리는 본래 천을 보답하기 위하여 일일시시 먹는 음식에서 성미를 뜨거니와 이 국방성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국을 보답하기 위하여 뜨는 성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들 단원의 손으로 직접 실행해야 할 조건입니다. 우리는 참되고 뜨거운 정성으로 성미 숟가락마다 우리나라의 위덕이 천하에 덮이고 우리나라의 무운이 길고 오래게 하여 달라는 기도로서 한울님의 감응을 받도록 하는 동시에 천도교인 전체의 매끼 한 숟씩 한 숟씩 모은 한 달 동안 물질적 성력이 전국 방력의 역 만분지일이라도 보탬이 있도록 할 것이며.

넷째 애국일에 관한 행사. 애국일은 매달 초하루 날입니다. 이날에는 반드시 신공과 신사에 참배하여 국위선양(國威宣揚), 무운장구(武運長久)를 기도하고 다음 일채주의(一菜主義)의 조식(粗食)을 실행하되 항상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 장병들의 그 고생을 생각하는 뜻으로 하며, 이날 정오에는 반드시 1분간 득도를 하되 나라를 위하여 몸을 바친 장병들의 영령을 위로하는 뜻으로 할 것이며.





다섯째 생활개선에 관한 건. 생활 개선에 있어서 밥쌀은 정백미를 일체 폐지하고 배아미(胚芽米)나 기타 잡곡 즉 밀, 보리, 조, 감자, 옥수수 등을 많이 먹도록 하고 그밖에 필요 없는 밥을 많이 지어서 쉬어버리거나 식찬 같은 데도 쓸데없는 비용을 들이거나 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할 것 등입니다.

청수 모시고 주문 읽는 것만이 수도의 전부가 아닙니다. 시국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도 수도의 하나이요, 재난을 당하여 그를 이기는 것도 수도의 하나이요,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도 수도의 하나이요, 생활을 개선하여 절약저축을 하는 것도 수도의 하나입니다. 이상의 여러 가지 행사는 머리로 생각만하여 될 일이 아니요 직접 우리의 몸으로 실행하여야 될 것이므로 이와 같이 양함 하오니 귀 지방 부관 내 전반단원(내성단에 가입하지 못한 내수도부인들까지)에 살살이 알릴 것을 물론 그들 스스로가 서로서로 권하여서 한 가정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철저히 실행하도록 하심을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출전 : 「本部彙報」 내성단본부발 제사호-시국행사 철저실행에 관한 건, 『新人間』 139호, 1939년 10월, 4~5쪽〉

## 28) 도발 제9호

황기(皇紀) 2600년!

흥아성전(興亞聖戰) 제4년!

창도(創道) 제81년!

이 광휘 있고 복상(福祥)스러운 신년을 맞이하면서 삼가 만천하 동덕(同德)의 도복(道福)을 비는 동시에 본부의 소회의 일단을 개진하여 '의재신원경진년(意在新元庚辰年)'의 1년을 의미 있게 지내려고 합니다. '재금사이작비(在今思而昨非)'란 성훈의 일절이 먼저 생각해봅시다. 오인(五人)의 처세 행사가 실제에 있어서는 작일보다 금일에 못할 수도 있고 작년보다 금년에 못할 수도 있지만 심경에 있어서 만은 언제나 금일에는 작일을 부족으로, 금년에는 작년을 미흡으로 생각하여 일신(日新) 또 일신 해나가는 데서야 향상과 발전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금년이란 신년은 다덕다복(多德多福)한 해이면서도 한편은 다사다난한 해입니다. 흥아의 대성역(大聖役)이 장기화하여있고 구주의 대동란이 상치(相峙)되어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작년의 한발(旱魃)로 인한 대흉재는 실로 우리에게 대긴장 대인고를 요구하는 일대 시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국인식의 철저, 총후봉공(銃後奉公)의 진성(盡誠), 신앙생활의 확립. 이것은 연말 본부로부터 고조 및 강조해왔을 뿐 아니라 일반 동덕이 다 같이 역행(力行) 실천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신년에 있어서 또 다시 '재금사이작비적(在今思而昨非的)' 심정으로서 더더욱 이에 대한 철저를 자기(自期)<sup>117)</sup>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시국 문제와 신앙생활에 대하여 아래의 삼대 요항을 제시하오니 심량체득하시기를 바랍니다.

117) 스스로 마음속에 기약함.





### 1. 국가지상주의

시국을 바르게 인식하고 충후봉공을 참되게 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먼저 국가지상 국가제일의 정신이 서져야 합니다. 국민이 있는 뒤에 국가가 있다는 것은 금일에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고담(古談)입니다. 오늘날은 국가가 있는 뒤에야 국민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충후국민은 정신생활에 있어서 세계無比(無比)의 국체(國體)와 팔굉일우(八紘一宇)의 황도 이상을 체득하여 이를 명징(明徵) 선양하는 한편, 외래 사상인 이기적 개인주의나 방만적 자유주의를 절대 배제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물질생활에 있어서도 의식주 기타 전반 생활에 걸쳐 먼저 국가의 은덕을 감사하는 동시에 ‘일사일립(一絲一粒)’의 소비에도 항상 국가 생활의 유해유익을 연상(聯想) 작량(酌量)하여 소비의 철저한 절약과 물자의 적극적 애호를 하는 것이 국민 생활의 실제적 임무요 기초적 도덕입니다.

### 2. 시운과 천운

동아 신질서 건설이란 즉 구질서의 파괴를 의미하는 바 동아의 구질서가 문란케 된 그 원인은 두말할 것 없이 서양인의 죄과입니다. 일찍이 대신사께서는 “서양승공취(西洋戰勝攻取) 무사불성이천하진멸(無事不成而天下盡滅) 역불무순망지탄(亦不無唇亡之嘆)”이라 하여 먼저 서양세력 때문에 동양이 소멸되리라고 걱정하였고 “서양지인(西洋之人) 공투간벌(攻鬪于戈) 무인재전(無人在前) 중국소멸(中國消滅) 개가무순망지환야(豈可無唇亡之患耶)”라 하여 또 다시 서양세력 때문에 동양의 노대국인 중국이 소멸하게 되면 그 인국(隣國)이 또한 순망치환의 화를 당하게 되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스승의 이러한 법훈과 금일 우리 제국이 실현하고 있는 신동아 건설의 이상이 부합함과 같음을 볼 때 참으로 천의의 소재와 천명의 소시(所示)를 명확히 징오(徵悟)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에서 시국인식이 더욱 명료해지고 충후봉공의 진성이 용출할 줄 믿습니다.

### 3. 영시천주(永侍天主)

우리는 신앙생활에 이어서는 역시 ‘재금사이작비적(在今思而昨非的)’ 심정으로 금후 더욱 참된 신앙 바른 신앙 굳센 신앙을 확립하여야 되겠는바 그렇게 하는 데에는 영시천주 즉 한울님과 같이 살아야 하겠습니다. 종교인으로서 신앙심이 해이해지는 최대원인은 스스로 한울님을 배반하거나 망각하거나 분리하는 데 있습니다. 언제나 한울님을 모시고 한울님과 같이 산다고 하면 ‘행주좌와어묵동정(行主坐臥語默動靜)’이 스스로 천의대로 천명대로 될 것입니다.

천수는 이미 정하여졌고 도운(道運)은 장차 퇴게 되었습니다. 광명은 실로 동방으로부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동양 문화, 동양 정신의 총결정인 동학(東學) 즉 우리 도의 대이상을 실현할 만한 계기는 왔습니다. 다만 오인의 도력이 과연 이 시운과 도운을 타고서 거침없이 진행할 수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도력을 깊이 반성하는 동시에 종전보다 열 배 백배의 정성과 노력으로 영시천주적 수도를 하기로 합시다. 그렇게 하는 데서만 오인의 대원(大願)인 현도(現道)도 쉽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써 신년을 맞이한 천하 동덕의 반성과 계정(計定)의 자료에 공(供)하나이다.





1940년 1월 일  
천도교본부

도령(道領) 이인숙(李仁淑)  
총정(總正) 최안국(崔安國)  
성도관정(誠道觀正) 겸 경도관정(敬道觀正) 조기간(趙基幹)  
신도관정(信道觀正) 전의찬(全義贊)  
관정(觀正) 김병제(金秉濟)  
관서(觀書) 김종현(金宗炫)  
관서(觀書) 이단(李團)  
상무감사(常務監査) 이근섭(李根燮)

〈출전 : 『道發 第九號』, 『新人間』 143호, 1940년 2월, 1~2쪽〉

## 29) 교발(教發) 제2호

경계(敬啓) 이번 4월 5일 천일(天日)기념을 기하여 우리 교(敎)의 합동(合同)이 성립된데 대한 의의는 대회성명서에 의하여 철저히 인식되었으리라 믿으므로 여기에는 간단히 천사명우(天師冥祐)<sup>118)</sup>에 대한 감은과 동덕 제위의 성의에 대한 감사를 포하는 뜻으로 일언을 경정(敬呈)하고자 하나이다.

저희들은 본래 빈유박덕(貧遺薄德)의 인격으로 감히 신기관(新機關)의 요직에 취임케 된 것은 참으로 황송불감(惶悚不敢)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믿는 바는 안으로 천사의 영감과 밖으로 동덕 제위의 편달(鞭撻)에 의하여 일편단심의 성의로써 교화와 교무에 당코자 맹세할 뿐입니다.

돌아보건대 금일의 세계는 과연 전고미증유(前古未曾有)의 신기운이 전개되는 시대라 할 수 있고 전고미증유의 창조 성업이 시작되는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책운과 그 성업의 광명은 동방으로부터 일어나 점차 전 세계에 파급되리라 믿나이다. 동아 신질서건설, 도의적 신세계 창조, 팔굉일우의 사상 등은 우리 신국(神國) 일본의 정신으로서 이 정신은 세계 어떤 인류의 이성에도 적합한 보편 타당한 이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는 위로 이 정신을 봉대(奉戴)하고 안으로 신앙통일, 규모 일치를 견고히 하여 영육(靈肉) 쌍진(雙全)의 생활을 도모하며 나아가 교화를 주(主)로 하여 포덕천하(布德天下)의 기초를 확립함으로써 교회의 이상을 삼고자하나이다.

이상의 이상(理想)을 달성하는 과정에 있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하나도 동귀일체(同歸一體)<sup>119)</sup>,

118) 冥祐 : 모르는 사이에 입는 신(神)의 도움.

119) 천도교에서 인간의 정신적 결합을 뜻함. 곧 사람이 '한울님'의 큰 정신(精神)에 하나로 합치면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라는 지경(地境)에 이르게 되어 세상의 모든 악한 다툼과 분열이 없어지고 한결 같은 정신으로 통일되어 한 신체가 한 생명에 결합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둘도 동귀일체(同歸一體), 동귀일체 그것뿐이 만사여의(萬事如意)<sup>120</sup>의 생명이 될 줄 믿는 점에서 우리는 다만 합동 그것뿐으로 만족하지 말고 나아가 국민으로 동귀일체, 신앙으로의 동귀일체, 포덕으로의 동귀일체를 다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 믿나이다.

만천하 동덕이시어 삼가 동귀일체의 정신으로써 동방의 영광, 교회의 영광을 키워주소서.

1940년 4월 일(포덕81년)

천도교총부

당주선도사	정광조(鄭廣朝)
동	최준모(崔俊模)
동	이돈화(李敦化)
교령(教領)	이중린(李鍾麟)
부교령	최안국(崔安國)
교회관장	천곡정(天谷正)
동 관서	김종현(金宗炫)
동 관정	이연숙(李演鵬)
교무관정	박석홍(朴錫洪)
동 관서	이종식(李宗植)
경리관정	전의찬(全義贊)
동 관정	이우영(李宇英)
동 관서	정용증(鄭用增)
관장	이근섭(李根燮)
관장	김병제(金秉濟)
관장	학천완(鶴川浣)
관정	이 단(李 團)
고문	이인숙(李仁淑)
고문	오상준(吳尙俊)
감사원장	손재기(孫在基)

〈출전: 『總部彙報 : 教發 第二號』, 『新人間』 145호, 1940년 5월 38~39쪽〉

120) 모든 일이 뜻하는 대로 잘 됨.

### 30) 지방 순회에 관한 건

교회발 (제2호)

1940년 5월 23일(포덕 81년)

천도교총부 교회관장(教化觀長) 천곡정(天谷正)

천도교교구장 도하

#### 지방 순회에 관한 건

금번의 순회는 지난 4월 4일 합동대회에서 성명한 삼강령(三綱領)을 철저히 인식케 하며 이에 대한 실행 방법을 주지시키기 위하서의 순회이오니 귀 관내(管內) 교인으로 하여금 아래 일시, 장소에 원만(圓滿) 집회하도록 준비하심을 경요.

— 다음 —

제1구(區) 순회원(巡回員) 선도사 이돈화(李敦化) 씨

6월 3일 오전 10시 청진교구(淸津教區)

동월 5일 동시 길주(吉州)교구

동월 7일 동시 성진(城津)교구

동월 9일 동시 단천(端川)교구

동월 11일 동시 이원(利原)교구

동월 13, 4일 동시 북청(北靑)교구

동월 16일 동시 홍원(洪原)교구

동월 18일 동시 함흥(咸興)교구

동월 20일 동시 정평(定平)교구

동월 22일 동시 고원(高原)교구

동월 24일 동시 원산(元山)교구

제2구 순회원 교회관장(教化觀長) 천곡정(天谷正) 씨

6월 1일 오전 10시 희천(熙川)교구

동월 3일 동시 전천(前川)교구

동월 5일 동시 강계(江界)교구

동월 7일 동시 자성(慈城)교구

동월 9일 동시 후창(厚昌)교구

동월 11일 동시 위원(渭原)교구

동월 13일 동시 초산(楚山)교구

동월 15일 동시 벽동(碧潼)교구

동월 18일 동시 창성(昌城)교구  
동월 20일 동시 삭주(朔州)교구  
동월 22일 동시 구성(龜城)교구  
동월 24일 동시 태천(泰川)교구  
동월 26일 동시 운산(雲山)교구

제3구 순회원 교령 이종린(李鍾麟) 씨

6월 3일 오전 10시 영변(寧邊)교구  
동월 6일 동시 박천(博川)교구  
동월 7일 동시 가산(嘉山)교구  
동월 9일 동시 정주(定州)교구  
동월 10일 동시 괘산(郭山)교구  
동월 12일 동시 선천(宣川)교구  
동월 14일 동시 철산(鐵山)교구  
동월 16일 동시 용천(龍川)교구  
동월 19일 동시 신의주(新義州)교구  
동월 21일 동시 의주(義州)교구  
동월 23일 동시 안주(安州)교구  
동월 25일 동시 평양(平壤)교구

제4구 순회원 전서(典書) 이근섭(李根燮) 씨

6월 10일 오전 10시 개천(价川)교구  
동월 12일 동시 덕천(德川)교구  
동월 14일 동시 영원(寧遠)교구  
동월 16일 동시 맹산(孟山)교구  
동월 18일 동시 양덕(陽德)교구  
동월 20일 동시 성천(成川)교구  
동월 23일 동시 강동(江東)교구  
동월 25일 동시 강서(江西)교구  
동월 27일 동시 함중(咸從)교구  
동월 28일 동시 용강(龍岡)교구  
동월 30일 동시 진남포(鎭南浦)교구  
7월 3일 동시 상원(祥原)교구  
동월 4일 동시 중화(中和)교구  
동월 5일 동시 황주(黃州)교구

제5구 순회원 사회부장(社會部長) 학천완(鶴川浣) 씨

6월 2일 오전 10시 전주(全州)교구

동월 3일 동시 임실(任實)교구  
동월 4일 동시 남원(南原)교구  
동월 6일 동시 금구(金溝)교구  
동월 7일 동시 김제(金堤)교구  
동월 8일 동시 정읍(井邑)교구  
동월 10일 동시 옥구(沃溝)교구  
동월 11일 동시 익산(益山)교구

부(附) 순회요강(교회합동 3요강)

1. 우리는 팔굉일우(八紘一宇)의 신념으로써 동아 신질서 건설의 성업을 익찬함
  - 1) 국민정신총동원연맹운동의 강화
  - 2) 황기(皇記) 2600년 기념 저금
  - 3) 지원병의 인식
  - 4) 씨창정(氏創定)의 인식
  - 5) 식량 및 물자 절약
2. 우리는 신앙통일, 규모일치하에서 영육쌍전(靈肉雙全)의 생활 확립을 기함
  - 1) 제인질고(濟人疾苦)의 신앙
  - 2) 성령출세(性靈出世)의 신앙
  - 3) 단체적 덕업(德業)의 신앙
  - 4) 오관(五款) 실행의 철저
  - 5) 부동산 정리 및 갱생계(更生契) 장려의 건
3. 우리는 교화에 주력하여 포덕천하(布德天下)의 이상 실현을 기함
  - 1) 내수회(內修會) 조직 및 교양의 건
  - 2) 청소년 교화의 건
  - 3) 합동기념포덕(合同紀念布德)의 건

〈출전 : 『總部彙報 : 教化發 第二號 - 地方巡回에 관한 件』,  
『新人間』 146호, 1940년 6월 27~28쪽〉



### 31) 황기 2600년 기념 저금에 관한 건

교무관발(敎務觀發) (제158호)

1940년 7월 19일(포덕 81년)  
천도교총부 교무관장 박석홍(朴錫洪)  
도하

#### 황기(皇紀) 2006년 기념 저축에 관한 건

1세기에 단 한 번인 황기 2600년. 1억 국민이 한가지로 경축하는 이 해를 기념하기 위하여 일반적 저축 이외 교회적으로 기념 저축을 실시하게 되었기에 이에 양함(仰函)하오니 조량하신 후 귀관 내 전 반 교호(敎戶)에게 일일이 주지하시어 두루 실행케 하심을 경요.

#### 기(記)

1. 금액은 각 교호마다 매월 10전 이상으로 할 것
2. 기간은 1940년 7월부터 12월까지

〈출전 : 『總部彙報 : 敎務觀發 제158호 - 皇紀二千六百年紀念貯金에 관한 件』,  
『新人間』 148호, 1940년 8월 30쪽〉

### 32) 연맹役員 개선에 관한 건

천연발(天聯發) (제1호)

19740년 11월 18일  
국민총력천도교연맹 이사장 서원종린(瑞原鐘麟)  
군연맹이사장 전(殿)

#### 연맹役員 개선(改選)에 관한 건

본 연맹기구 개조에 반하여 아래와 같이 역원을 개선하였기 이에 통지함.

이사장 서원종린(瑞原鐘麟)

이사 천곡정(天谷正), 학천완(鶴川浣), 송본봉행(松本朋幸), 이상 3인 상무, 천본석홍(天本錫洪),



손재기(孫在基), 천안의명(天安義明), 금강병제(金岡秉濟), 대원덕중(大原德重), 복산근섭(木山根燮), 금전실(金田實), 덕전실(德田實), 천전우영(天田宇英), 궁전장(宮田藏), 정용증(鄭用增), 임문호(林文虎), 하상태(河相台), 평강동수(平岡東洙), 김득모(金得模), 마기상(馬驥賞), 청산양신(靑山陽信), 구미명선(龜尾明宣)

평의원 천상광조(川上廣朝), 백산일웅(白山一熊), 오상준(吳尙俊), 최단봉(崔丹鳳), 평천군오(平川君五), 김진팔(金鎭八), 민석현(閔奭鉉), 최인식(崔蘭植), 대림준모(大林俊模), 중산가백(中山家伯), 화전흠오(和田欽五), 안상덕(安商憲), 양두환(梁斗煥), 차상찬(車相瓚), 덕산중식(德山中植), 이두용(李斗鎔), 천상광자(川上廣子), 김숙(金淑), 서원정자(瑞原貞子), 송본정자(松本政子), 송본학자(松本鶴子)

〈출전 : 「總部彙報 : 天聯發 第一號 - 聯盟役員改選에 관한 件」, 『新人間』 151호, 1940년 12월 29쪽〉

### 33) 연맹기구 개조에 관한 건

천연발 (제2호)

1940년 11월 18일

국민총력천도교연맹이사장 서원종린(瑞原鐘麟)

군연맹이사장 전

#### 연맹기구 개조에 관한 건

금회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기구 개조에 순응하여 본 연맹은 별지와 같이 규약을 개정하고 기구를 개조하였사오니 군연맹에서도 별지규약을 준용하여서 개조하심을 경요하나이다.

— 주의 —

1. 명칭은 부군지방을 기입하여 국민총력천도교 ○○연맹이라 함. 예, 국민총력천도교 평양연맹
2. 애국반조직은 본 교회 교약의 부제(部制)와 흡사하므로 해당 부제 기관을 그대로 애국반으로 대응하거나 또는 신설함.
3. 개조한 역원 명부는 속히 본 연맹에 보고함.

— 국민총력천도교연맹규약 —

제1조 본 연맹은 국민총력천도교연맹이라 칭함.

본연맹의 사무소는 경성부 경운정 88번지 천도교총부 내에 둠.





제2조 본 연맹은 국체의 본의에 의하여 내선일체의 실을 거하며 각기 직역에 있어서 멸사봉공의 성을 봉하여 협심(戮力)으로써 국방국가체제의 완성과 나란히 동아 신질서의 건설에 매진함을 목적함.

제3조 본 연맹은 경성부내에 거주하는 천도교인으로써 조직함.

제4조 본 연맹에 좌의 피원을 둬.

이사장 1명, 이사 약간 명(내상무이사 약간)

평의원 약간 명, 반장 약간 명

제5조 이사장은 천도교총부교령으로써 이에 충당함.

이사장은 본 연맹을 대표하며 본연맹의 사무를 총리함.

이사장이 유고 시는 이사장이 지명한 이사가 이를 대리함.

제6조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본연맹의 실적 사항을 심의하며 이를 처리함.

제7조 평의원은 평의원회를 조직하고 이사장의 심문에 응함.

제8조 이사회 평의원회는 이사장이 이를 초집함.

제9조 본 연맹은 적당한 인원으로써 애국반을 조직하고 일치 결속하여 제2조 목적의 실적을 기함.

제10조 애국반에는 반장을 두고 이사장이 이를 지명함. 반장은 반원을 통솔함. 반장이 유고 시는 반장이 지명한 반원이 이를 대리함.

〈출전 : 「總部彙報 : 天聯發 第二號 - 聯盟機構改組에 관한 件」,  
『新人間』 151호, 1940년 12월 29쪽〉



### 34) 선서식에 관한 건

교발 (제3호)

1941년 1월 7일

천도교교령 서원종린(瑞原鐘麟)

도하

#### 선서식에 관한 건

1940년 12월 24일 인일(人日)기념을 기하여 중앙교당에서 임시교인 대표대회를 개최하고 천도교신체제에 대한 선서식을 행한 것은 천하주지의 사실이거니와 이를 전교회적으로 철저화하기 위하여 이에 선서문(별지) 및 식순을 좌(左)와 같이 반포하오니 조량하신 후 이번 1월 18일 도일(道日)기념을 기하여 귀 교구에서는 관내 일반 도인을 일제히 군교당에 집합하여 선서식을 거행하시도록 하심을 경요.



— 선서식순 —

1. 개식(심고)
1. 궁성요배
1. 국가봉창
1. 묵도
1. 식사
1. 선서문 낭독
1. 황국신민서사제창
1. 천황폐하만세봉창
1. 폐식(심고)

## 선서

금년은 우리 신국일본의 황기 2600년인 동시에 조선에 있어서는 시정 30주년의 역사적 기념의 해이다. 밖으로는 세계 신질서건설의 거보가 착착 진행되며, 안으로는 국내신체제의 운동이 당당히 결정되었다. 생각하건대 이러한 내외 혁신적 대업은 오로지 신국일본의 황도정신에 의해서만 건설되며 대화혼(大和魂)의 발양을 통해서만 실현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때에 국민으로서 변연대각(變然大覺)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은 억조일심(億兆一心),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정신으로서 존엄무비(尊嚴無比)한 황실에 귀일하여 받들고 신도실천(臣道實踐) 즉 충의를 발휘하는 것이다. 우리 천교도는 원래 동양정신의 결정으로서 영육쌍전(靈肉雙全)의 주의하에 보국안민(輔國安民)을 신조로 한다. 이 교의(教義)는 팔굉일우(八紘一宇) 사상의 현현(顯現)<sup>121)</sup>인 동아 신질서의 이상, 대정익찬정신(大政翼贊精神)의 발양인 신체제의 출현 무엇보다 혼연 기맥상통하는 점은 천하동덕과 같이 감격하는 바이다. 이에 황기 2600년의 가년(佳年)을 기하여 좌의 4개조로써 천하에 선서함.

— 다음 —

- 우리들은 우리 신국대일본의 만세일계의 신통(神統)적 국체의 봉대를 무상 영광으로 함. 이를 신의에 체(體)하여 절대 신조로 함.
- 우리들은 현인신이신 천황폐화께 충의를 다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국가적 복지(福祉)임을 신앙함.
- 우리들은 대정익찬의 정신을 체하여 신도 실천으로써 보국안민의 신조를 현현하게 함.
- 우리들은 팔굉일우의 황국정신에 기하여 세계 신질서건설로써 포덕천하 동귀일체 이상도달을 확신함.

1940년 12월 24일

천도교총부

(출전 : 『總部彙報 : 教發 第三號-宣誓式에 關한 件』, 『新人間』 154호, 1941년 3월, 43~44쪽)

121) 명백하게 나타나거나 나타냄.



### 35) 교발 제4호

황기 2600년 즉 구년(舊年)은 세계 역사상 획기적 기념의 해로서 그가 가졌던 진정한 이상, 원대한 포부, 장엄한 계획은 '사시지서성공자거(四時之序成功者去)'란 진리에 의하여 후계자인 신년에 넘겨 맡기고 그 거적(巨跡)은 비장하게도 영원히 사라졌다.

황기 2601년 이 신년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물론 미래란 미지에 속한 것이라 바람(風)이라 비(雨)이라. 그는 인지(人知)로서 경단(輕斷)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가지 확실하는 진리가 있다. 무엇이나 신의(神意)가 간섭하는 곳에 성공이 있고 도의가 존재한 사실에 덕업이 건설된다는 것이었다. 현재 우리의 눈앞에 제시된 모든 신현상이란 것은 천지공도로부터 현현된 신의의 계시임이 분명하고 팔괘일우(八紘一字)의 황도로써 발양된 도의의 전개임이 명백하다. 이 의미에서 세계최후의 성공은 신국 대화혼의 도의적 결정으로 완성될 것을 확신한다.

우리는 지난 인일(人日)기념 시 사대조문을 천하에 선서한 바 있다. 문의(文意)는 비록 간략하나 저속에는 신의와 도의가 충분히 포함되었다 확신한다. 위로 만고무비의 국체를 봉대하고 현인신인 천황폐하에게 충의를 다함으로써만 국민전체의 행복을 향수(享受)하리라 신념하며, 아래로 신도 실천의도를 다하여 신체제의 완성을 기하고 나아가 신동아 건설을 적극적으로 익찬한다는 선서는 국민적 정신으로서 지당한 심정인 것은 물론, 더욱이 보국안민(輔國安民) 포덕천하(布德天下)의 신조를 가진 우리 도인으로서 영세불망의 대의임을 확신한다.

만복의 창조는 유일의 실천에 있다. 신년은 실천의 해이다. 우리들은 삼가 선서대의를 실천하여 크게 국가의 대운을 보답하며 널리 교운(教運)의 응성으로 보답하여서 지상광명 무량광대(無量廣大)의 천의(天意)에 어기지 말지어다. 삼가 일언으로써 신년의 축복을 드리는 동시에 천하동덕의 경복을 비는 바이다.

1941년 1월 일(포덕 82년)  
천도교총부 직원일동

〈출전 : 「總部彙報 : 教發 第四號」, 『新人間』 154호, 1941년 3월 44쪽〉

### 36) 순강에 관한 건

교회발 (제6호)

1941년 1월 21일(포덕 82년) 천도교총부 교회관장 천곡정인  
교구장 도하



## 순강(巡講)에 관한 건

금번 순회는 지난 12월 24일 선서식을 거행하고 따라서 교발 제3호로 선서문을 발표하였으나 의의를 철저히 인식케 하기 위하여 순강하기로 결정하였으니 조량 후 귀 관내 도인으로 하여금 아래 시일, 장소에 원만히 집회하도록 준비하심을 경요.

— 다음 —

△제1구 강사 상주 선도사 백산일웅(白山一熊)

감사 정환석(鄭煥奭)

2월 9일 의주(義州)

동 11일 신의주(新義州)

동 13일 용천(龍川)

동 15일 선천(宣川：鐵山)

동 17일 정주(定州：郭山)

동 19일 안주(安州：肅川, 平原)

동 21일 개천(价川)

동 23일 덕천(德川)

동 25일 영원(寧遠)

동 27일 맹산(孟山)

3월 2일 순천(順川：慈山, 殷山)

동 4일 양덕(陽德)

동 6일 성천(成川)

동 8일 강동(江東：三登)

동 10일 상원(祥原：遂安)

동 11일 중화(中和)

동 14일 강서(江西：咸從)

동 16일 진남포(鎭南浦：龍岡)

3월 18일 순안(順安)

3월 20일 평양(平壤)

△제2구 강사 부교령 화전흠오(和田欽五)

도훈(道訓) 김덕연(金德淵)

2월 19일 구성(龜城)

동 21일 대관(大館)

동 23일 삭주(朔州)  
동 25일 창성(昌城)  
동 28일 벽동(碧潼)  
3월 2일 초산(楚山)  
동 4일 위원(渭原)  
동 6일 전천(全川)  
동 8일 강계(江界)  
동 10일 자성(慈城)  
동 13일 후창(厚昌)  
동 16일 희천(熙川)  
동 18일 영변(寧邊)  
동 20일 운산(雲山)  
동 22일 태천(泰川)  
동 24일 가산(嘉山)  
동 25일 박천(博川)

△제3구 강사 감사 백천풍조(白川豊造)  
사교부장 학천완(鶴川浣)

2월 23일 황주(黃州)  
동 24일 신천(信川)  
동 27일 안악(安岳)  
3월 2일 해주(海州)

△제4구 강사 상주 선도사 대림준모(大林俊模)  
감사 백천풍조(白川豊造)

3월 8일 춘천(春川)  
3월 10일 홍천(洪川)  
동 12일 원주(原州)  
동 14일 횡성(橫城)  
동 16일 평창(平昌)  
동 18일 정선(旌善)  
동 20일 제천(堤川)

△제5구 강사 신인간 사장 금강병제(金岡秉濟)  
유병준(劉秉俊)

2월 1일 북청(北靑)  
동 3일 이원(利原)

동 5일 홍원(洪原)  
동 7일 함흥(咸興)  
동 9일 장진(長津)  
동 11일 하갈(下碣)  
동 13일 신흥(新興)  
동 15일 동상(東上)  
동 17일 정평(定平)  
동 19일 원산(元山)

△제6구 강사 상주 선도사 천상광조(川上廣朝)  
사교부장 학천완(鶴川浣)

3월 8일 임실(任實) (진안, 남원, 장수)  
동 10일 전주(全州) (고산, 금구, 순창)  
동 12일 익산(益山) (옥구, 여산, 김제, 정읍, 고창)

△제7구 강사 상주 전도사 천상광조(川上廣朝)  
교무관장 천본석홍(天本錫洪)

3월 14일 장성(長城) (광산, 나주, 영광)  
동 16일 강진(康津) (영암, 완도)  
동 18일 해남(海南) (목포, 진도)  
동 20일 장흥(長興) (순천, 담양, 광양)  
동 22일 부여(扶餘) (논산, 강경)  
동 24일 예산(禮山)  
동 26일 서산(西山) (안면, 태안)

△제8구 강사 상주 선도사 대림준모(大林俊模)  
관정 송본봉행(松本朋幸)

2월 16일 양평(楊平)  
동 20일 음성(陰城)  
동 22일 여주(驪州)  
동 24일 이천(利川)  
동 26일 광주(光州)  
동 28일 수원(水原) (시흥, 평택, 용인)  
3월 3일 양주(楊州)

〈출전 : 『總部彙報 : 教化發 第六號—巡講에 關한 件』, 『新人間』 154호, 1941년 3월, 45~47쪽〉



### 37) 전체 이사장회 경과의 건

국력총연발 (제4호)

1941년 1월 10일

국민총력천도교연맹 이사장 서원종린(瑞原鐘麟) 인  
군연맹이사장 전

#### 전체 이사장회 경과의 건

1940년 12월 24일 인일(人日)기념을 기하여 중앙교당 내에서 국민총력천도교연맹 전체 이사장회를 개최하고 국민총력신천요항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동시에 아래와 같이 결의안이 통과되어 이에 양통 하오니 조량하신 후 귀 연맹에서도 일반연맹원에게 일일이 통지하시어 철저 여행하게 하심을 경요.

— 결의조 —

— 근로 배가 잉여 노력 활용에 의한 소득을 국방금으로 헌납할 것.

— 수납 기한은 1941년 6월 말일 이내로 할 것

— 헌납기한은 7월 7일 지나사변(支那事變)기념일로 할 것

주의 : 송금은 천도교총부경리관 진체(振替)<sup>122)</sup> 경성 1363번으로 하되, 필히 국방헌금이라 명기할 것.

〈출전 : 『總部彙報 : 國力天聯發 第四號 - 全體理事長會經過의 件』,  
『新人間』 154호, 1941년 3월 47쪽〉

### 38) 천덕송(天德頌)에 관한 건

교발 (제6호)

1941년 4월 25일

천도교교령 서원종린(瑞原鐘麟)  
교구장 도하

122) 振替 : 대체(對替).



### 천덕송에 관한 건

1941년 4월 5일 발행된 천덕송은 금월 23일부로 압수된 바 이에 감하여 1939년 4월 5일 재판 발행된 즉 현재 천덕송 중에도 아래와 같이 구절 또는 전편을 삭제할 부분이 있사오니 귀 교구 관내에 분포되어있는 천덕송(天德頌)은 초판, 재판을 물론하고 교구로 일체 회수하여 초판은 귀당국의 처치에 따라 행하고 재판은 3판이 발행되기 전까지 당분간 아래에 준하여 진묵도말(眞墨塗抹 : 먹으로 새까맣게 칠함)한 후 다시 분포하심을 양요.

— 다음 (삭제부분) —

1. 제1장. 안심가 3절, 6절
2. 제4장 봉종로소문답가 전편
3. 제15장 □□□□생기념가 전편

(출전 : 『中央彙報 : 教發 第六號 - 天德頌에 관한 件』, 『新人間』 156호, 1941년 5월 33쪽)

### 39) 시일(侍日) 예식시간 변경에 관한 건

교발 (제9호)

1941년 6월 10일(포덕82년)  
 천도교교령 서원종린(瑞原鐘麟)  
 도하

### 시일예식 시간 변경에 관한 건

40년간 규칙적으로 준수하여 오던 시일예식 시간을 하루아침에 변경한다는 것은 의절(儀節)에 관한 문제인 만큼 필히 총회의 결의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절급필요(切急必要)한 성질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구한 관례(慣例)와 수속에 구속되어 시의를 놓치거나 득당(得當)<sup>123)</sup>을 잃는 것은 비상시 총력전인 금일의 신체제가 이를 용허치 않는다.

우리 교회의 일체 의식시간이 오전 11시로 관행되어진 것은 이를 규정하던 그 당시의 시간적 편의를 취한 것이요 여기에 무슨 부동의 근거와 필연의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며, 또 시간의 변경됨에 따라서 의식의 그 의의와 절차가 변경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시간 그것을 필요에 의하여 임시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현재 우리들이 준행하는 오전 11시라는 시간은 해 그림자 장단(長短)의 관계도 있거

123) 이치에 맞아 아주 마땅함을 뜻함.





니와 우리들의 백만 신도는 십에 팔구가 농민인 만큼 농번기의 시일(侍日) 시간은 사실문제의 시간이 다. 오전 11시의 이 시간을 준행하자면 그 하루는 직업상으로 무위의 공일이 되어버리고, 직업 때문에 이 시간을 거른다면 신앙상으로 양심적 고통을 느끼게 된다. 이것이 시일시간을 변경하게 된 이유이고 동기이다. 총력전 신체제하에 호흡하는 우리들은 한사람이 한 시간 노동을 더하면 그만큼 국력이 부유해지고 한사람이 한 시간 노동을 덜하면 그만큼 국력이 감해진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한사람 한 시간 노동의 가감에 전 국력의 손익이 달려있는 이때에 있어서 백만 농민의 우리 신도가 농번기의 그 귀중한 하루를 공일로 소비한다는 것은 국책 상으로 대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가령 시간 변경으로 인하여 의식 그 자체에 다소 결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이를 주저할 수 없거든 하물며 의식에 하등 관계가 없는 일이라. 하물며 또 용시용활(用時用活)의 신훈(神訓)을 보국제세(輔國濟世)의 요결(要訣)로 일거이양득전(一舉而兩得全), 병행이불상패(並行而不相悖)<sup>124)</sup>의 이 실행을 주저하라. 위와 같은 견해와 판정에서 감연(敢然)<sup>125)</sup> 좌와 같이 변경하였으니 각위는 의심 없이 이에 곧 준행하여 시간적 신체제를 확립할지이다.

〈출전 : 『敎發 第九號-侍日禮式時間變更에 關한 件』, 『新人間』 157호, 1941년 7월, 2~3쪽〉

#### 40) 교역자(敎役者) 양성 하기강습회에 관한 건

교회관발 (제58호)

1941년 6월 28일(포덕 82년)

천도교총부 교회관장 대리 금강병제(金岡秉濟)

도하

#### 교역자 양성 하기강습회에 관한 건

제목의 건에 관해서는 중앙 지방을 통하여 다년간 숙제일 뿐 아니라 현하의 급무이므로 이번 하기를 이용하여 이를 실현하고자 아래 방법을 구하여 이에 양함 하오니 조량 준행하시어 상황을 기하도록 하여주시를 경요.

— 다음 —

- 기간 21일간 (8월1일로부터 동 12월 1일까지)
- 장소 : 중앙교당
- 과목
  - 1) 국체관념의 명징, 내선일체의 이념

124) 두 가지를 병행해도 서로 해가 되지 않는다는 뜻.

125) 과감하고 용감하다. 결단하여 실행하는 모양을 뜻함.



- 2) 천도교의, 동경대전강의, 교회상식, 천덕송
- 3) 국민총력지도정신, 체위훈련
- 강습회원의 자격 : 20세 이상 50세 이하의 독신자
- 강습회원의 선발 : 도훈, 직접교훈 관내에서 각 1인씩
- 경비 : 각자 연원(淵源) 관내에서 부담함.  
(식비는 매일 1인 50전 가량)
- 단 자비청강도 허함.

**추고(追告)**

여러 가지 준비 상 청강자 충수를 예지할 필요가 있사오니 선발회원, 자비회원을 막론하옵고 늦어도 오는 7월 25일까지는 반드시 교화관으로 통지하여 주옵소서.

〈출전 : 『彙報 : 教化觀發 第五八號-敎役者養成夏期講習會에 關한 件』, 『新人間』 157호, 1941년 7월 40~41쪽〉

**41) 7월 7일 국방헌금에 관한 건**

국력천연발 (제6호)

1941년 6월 9일

국민총력천도교연맹 이사장 서원종린(瑞原鍾麟)  
군연맹이사장 전

국민총력천도교연맹으로서 금년 7월 7일 지나사변 제4주년 기념을 기회로 하여 고도국방국가(高度國防國家)의 신체제하에 국방금을 헌납하기로 한 것은 1940년 12월 24일 본 연맹 전선(全鮮) 이사장대 회로서의 통과된 안건인 바 이 실행방법은 금년 1월 10일 본 연맹 발첩 제4호로써 좌와 같이 규정하였던 것이다.

- 국방금 각출 방법 : 근로배가의 소득
- 동 수납 방법 : 본년 6월 말 이내
- 동 송금 장소 : 천도교총부경리관
- 동 헌납 기일 : 7월 7일

단, 금액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은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각자 성의에 임하는 것이 도리어 신성(神聖)하다는 까닭이었다. 그러나 고도국방국가체제익찬의 헌금인 만큼 적어도 매호(每戶)당 1원 이상은 하여야 된다는 것이 불문적으로 공지된 점.

이상 수납기한인 6월 말일이 더욱 박근하여오는 때에, 각위의 명심 차제에 대한 준비가 충분할 것은 믿는 바이나 본임의 책무 상 일언을 다시 올리는 바이오니 각위는 귀연맹의 총력을 총동원하여 직역봉



공의 정성을 사실로써 거양(擧揚)케 할지이다.

〈출전 : 「彙報 : 國力天聯發 第六號—七月七日 國防獻金에 관한件」,  
『新人間』 157호, 1941년 7월 40~41쪽

## 42) 성전(聖戰) 완수에 관한 건

교발 (제10호)

성전 완수를 위하여 우리들 신자로서 행할 바 그 길은 오로지 신앙보국을 철저히 함에 있다. 안으로 성심성의를 다하여 신명의 명우(冥祐)<sup>126)</sup>를 받는 일과 밖으로 실천공행에 힘써 국민적 정신을 발휘하는 데 있다.

보라. 시국은 일층 심각화해지고 있다. 더욱더 초비상의 경애(境涯)<sup>127)</sup>에 들어가는 이때에 우리는 그저 평범한 국민적 행위로써 이에 자약(自若)<sup>128)</sup>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국이 심각화 하니 정비례로 노력과 실행을 다하여야 한다. 하물며 보국안민을 신조로 한 우리 교단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만사(萬事) 이론의 시대는 지나갔다. 오직 실행실천이 있을 뿐이다. 이에 다시금 전신신앙보국에 대한 실천요강을 아래와 같이 앙포하오니 성지우성(誠之又誠)하여 전보다 배의 노력을 하심을 경요.

### 1. 수도(修道)를 철저히 하자

수도생활을 하시(何時)를 막론하고 우리 교인의 정신적 생명인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현하와 같은 초비상시국에 있어서는 한층 신의 명우와 신의 감응을 받음으로서 위로는 국가의 융성(隆盛)을 기하고 아래로 각자의 행복을 구하는 성경신(誠敬信)의 수행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반 동덕은 삼가 안심 입명하여 하늘의 명호(冥護)를 받도록 성력(誠力)에 성력을 다할 것.

### 2. 성전 완수의 기도를 하자

성전 완수는 대동아공영을 기필(期必)하는 천명인 동시에 팔굉일우의 황도정신으로 전 세계의 행복을 창조하는 큰 사명이다. 우리는 이 성전의 목적이 속히 완수되도록 신명(神明)의 앞에 기원을 드리기를 위하여 별지(別紙)와 같은 특별 기도를 행하게 되었다. 제위는 삼가 신명의 감응을 받도록 지성 봉행할 것.

### 3. 황도정신을 선양하자

황도는 세계에 짝이 없는 우리 일본 황국의 팔굉일우(八紘一宇)적 도덕이며 광명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한 세계무비(世界無比)의 국체를 봉대함에 있어서 항상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현인신이신 천황폐

126) 모르는 사이에 입는 신의 도움.

127) 처해 있는 환경이나 처지.

128) 큰일을 당해도 놀라지 않고 보통 때처럼 침착한 태도를 뜻함.





하의 대은(大恩)을 입음에 대하여 부단한 감사의 뜻을 올리는 동시에 궁성요배, 신사참배, 묵도, 기원 등의 행사로써 거도실천의 본을 삼을 것.

#### 4. 무엇보다 당국을 신뢰하자

국민총력조선연맹본부로부터 발표된 전시국민생활체제강화에 관한 것은 신인간 8월호에 게재하였거니와 폐일언(蔽一言)하고 현하 시국행사는 불언실행(不言實行)을 주로 하되 무슨 일이든지 당국의 지도를 안심 신뢰할 것.

#### 5. 고도국방의 역량을 고도로 발휘하자

사면 이래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국방성미(誠米), 국방헌금, 노임헌금, 유기(鎗器)헌납, 기타 폐품 회수, 저축, 절약 등등에 걸쳐 응분 진력한 것은 「무물(無物)이면서 불성(不誠)」이라고 이것이 우리 성력(誠力)이 표현된 일단이였다.

원컨대 현하의 시국은 일층 더 긴박해졌다. 금전보다도 기재가 필요한 이때에 있어 유기 헌납 폐품 회수 같은 것이야 말로 더욱 필요한 것이며, 그외 국채매입(제종중 각자 가능한 정도의 액면), 공한지(空閑地 이용(利用)등, 이것이 비록 영쇄(零碎)한 것이나 직접 간접으로 고도국방국가 건설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진행(前行)에 있어 광명의 희망에 불타는 우리들은 최향(最向) 차시(此時) 모름지기 진력(盡力)의 의용을 고무하여서 유시유종(有始有終) 충실한 일군이 될 것.

#### 특별기도

- 시간 : 9월 7일(시일)로부터 동월 27일까지, 21일간
- 시간 : 매일 오전 5시
- 장소 : 각지 자택
- 청수 봉전 : 소향(燒香)
- 기도 심고 : (대동아공영국확립, 세계신질서 건설의 성전목적을 하루 바삐 완수케 하여지이다)
- 주문 : (시천주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105회 묵송
- 도장을 청결히 하고 전 가족이 일치 봉행할 것

#### 유기 헌납, 폐품 회수

- 기간 : 10월 1일부터 1주간
- 수합 장소 : 교구 또는 전교실
- 헌납 수속 : 교구, 전교실은 각자 소재지 경찰서, 또는 주재소를 통하여 할 것
- 단 교구에 있어서는 관내헌납총점수를 필히 교무관에 보고할 것

1941년 9월 일

(출전 : 「教發 第十號-(聖戰完遂에 關한 件)」, 『新人間』 159호, 1941년 9월, 1쪽)





### 43) 기념교화의 요령

교발 (제4호)

1942년 7월 21일

천도교교령 천상광조(川上廣朝)

도하

#### 기념교화의 요령

##### 1. 도념(道念)과 탈겁(脫劫)

‘남진원만북하회(南辰圓滿北河回) 대도여천탈겁회(大道如天脫劫灰)’ 이것은 대신사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념(道念)’입니다. 이 도념은 본래 만대고금을 통하여 불변의 진리인 것은 물론이나 그러나 특히 우리가 처한 금일의 시운에 있어 일층이 도념을 확충 활용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남진과 북하란 것은 천문의 성진(星辰)을 형상한 것으로서 천도(天道)의 원만무결(圓滿無缺), 무위자재(無爲自在)적 본질을 상징한 것이며, ‘겁회(劫灰)’란 것은 시간 공간의 무상제한성을 바로 지적한 것이므로 ‘탈겁회(脫劫灰)’ 세 자는 즉 인간들의 시공의 제한성에 자수(自囚)된 고집, 편견, 완고 등의 응념(凝念)을 해탈하라는 뜻이니 이것이 곧 도념과 탈겁이란 것입니다.

원래 수도(修道)란 것은 항상 인간의 정신을 비약 정진하게 하는 때에 산 교화가 됩니다. 천도가 건건불식(健健不息)하여 낡은 겁회(劫灰)를 벗고 새 우주를 창조하는 것과 같이 우리 인간의 도념도 떼뜻이 지나간 겁회를 해탈하면서 새 세상과 새 인간을 달관하는 데서 도성덕립(道成德立)의 대업이 건설되는 것입니다. 이제 탈겁회 세 자의 실례를 시대적으로 일언하면 가령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반도라 하는 조그마한 시공적 관념의 겁회를 벗어버리고 일약 대일본신국의 황민으로서의 세계적 대인이 되었다는 경애(境涯)를 상념하든지 또는 황국신민의 일원으로서 대동아 건설의 중추(中樞)분자가 되어야 능히 도의적 신세계 창조의 직임을 부담하였다라는 이념에 상도(想到)<sup>129)</sup>하고 보면 우리들의 과거의 가졌던 관념의 겁회가 얼마나 구구(區區) 악착(齷齪)한 것을 반성할 수 있는 동시에 현재 및 장래의 포부인 탈겁회의 도념이 얼마나 광대자재인 것을 각오할 수 있지 않은가. 더구나 우리가 가진 이와 같은 도념은 보통인이 보통상식으로 이해하는 것과 같은 평범한 추측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적어도 우리의 신조인 보국안민, 광제창생(廣濟蒼生)이라는 신앙적 도력으로 나온 것을 상념하여 보라. 그리하여 우리의 교회가 국가의 힘과 시운의 세를 통하여 대이상 실현의 세계적 진출을 상념하여 보라.

우리는 모름지기 인고단련의 중에서 수무족도(手舞足蹈)<sup>130)</sup>의 법열(法悅)을 가지고 천지의 신기운을 승출할 수 있지 않은가. 요컨대 이 시운은 우리로 하여금 탈겁회의 사리를 보여주었고 우리는 탈겁회적 수도로서 이 시운을 타야한다는 말입니다. 제위(諸位)는 이 뜻을 잘 음미하고 부연(敷衍)하여 교우들의

129) 생각이 미칩.

130)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날뛰.





도움을 일신 정진시키도록 하시기를 바라나이다. ‘일거월래신일래(日去月來新日來) 천지정신령야효(天地精神令我曉)’.

## 2. 감은(感恩)과 계선(繼善)

우리는 신인(神人)합일의 도념하에서 모름지기 천지자연과 동화하고 국가사회와 동화하고 인류동포와 동화하여야 합니다. 동화는 곧 기화(氣化)를 의미한 것으로서 기화생활이야말로 수도공덕의 제1위가 된다. 그러면 동화생활의 입문은 무엇이 될까? 감은과 계선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 천지우주가 천주신령의 대은심(大恩心)으로 화생(化生)된 것을 음미하여 봅시다. 우리는 우리의 국가가 현인신이신 천황 폐하의 대은심으로 성장하는 것을 체득하여 봅시다. 우리는 인류 및 만유(萬有)가 기화적 본능의 대은심으로 결합성장하는 이치를 음미하여 봅시다. 은(恩) 한 자는 천지생명의 절대 실재입니다. 우리는 이 절대 실재인 대덕에 대하여 이론과 비판을 가하는 것은 우주신령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저 감사합니다’하는 일언이 있을 뿐입니다. 즉 감은 일념으로써 오심즉여심(吾心卽汝心)의 동화생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생각건대 우리들의 불평불안, 번뇌, 우수 등등의 모든 불행복이란 것은 배은망덕으로 일어나는 부작용입니다. 그저 ‘감사합니다’하는 감사의 일념에서 평화, 안온, 명량, 법열, 포시(布施), 봉공, 성경(誠敬) 등의 복덕(福德)이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신령이 미소를 주고 만유가 손길을 잡아줍니다. 그리하여 무진장의 정신적 행복이 솟아 나오는 것입니다. 아 크구나 ‘감은(感恩)이여하는 실감에 들어가는 도념을 가져야 합니다. 감은생활은 다만 관념으로뿐만 할 것이 아니라 행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감은을 행위로써 나타내는 선행을 계선이라 합니다. 계선이란 것은 그 자의와 같이 선을 계속시킨다는 뜻입니다.

자기라는 존재가 우주의 중심에 흘립(屹立)<sup>131)</sup>하여 가지고 우주의 선이 자기에게 집중되었다는 대웅(大雄)적 도념하에서 우주의 선을 인간에게 전하여 주고 성자의 선을 중인(衆人)에게 계승시키며 과거의 선은 현재에, 현재의 선은 미래에 계승시키는 덕행을 이룹니다. 조선(祖先)의 선을 미래자손에게 계승하게 하며 신성의 심법을 후생에게 계승하게 하는 덕행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신성한 책입니다. 그리하여 이 계선의 도념은 감은의 원리를 철저히 각오하는 때에 화출자연으로 되는 덕행입니다. 사람은 이 도념을 가지는 때에 처음으로 장생불멸의 대복(大福)을 얻을 수 있습니다.

## 3. 사구(四九)기도

이번의 지일(地日)기념을 위시하여 49일 청신(淸晨)기도를 실행하기로 되었습니다. 기도에 대한 방법은 하기한 바와 같거니와 여기는 우선 기도관념을 일언(一言) 하고자 합니다.

이번 지일기념은 대동아전쟁<sup>132)</sup> 후 첫 기념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대동아전쟁은 유사 이래 공전(空前)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이 ‘성전의 필승’을 위하여 천주신령에게 기원을 올리는 것이 기도의 특수적 목적입니다.

131) 산이 깎아 세운 듯이 높이 솟아 있음을 뜻함.

132) 태평양전쟁을 뜻함.







그런데 다른 교의 기도는 모르되 우리 교의 기도에 있어서는 그 기원의 목적이 항구불변의 것과 특수사정의 것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것을 아울러 기원함으로써 기도의 효과가 생긴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항구불변의 목적이라는 것은 기도자 자기의 '정념'을 이름입니다. 정념이 박약하다든지 정념을 착각한다든지 하는 기도는 아무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비도심지(非徒心至) 유재정심(唯在正心)'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항구불변의 기도적 정념이 무엇이나 하면 '내유신령(內有神靈)의 정념(正念)'입니다. 즉 자아의 본질이 신령인 것을 각오하고 자아의 일념을 내유 신령화 시킨다는 도념입니다. '시천주조화정(侍天主造化定)'이라는 뜻을 그저 쉬운 말로 하면 '사람의 본질은 신령이다. 신령의 마음을 가지고 신령의 덕에 합일 하겠나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이 이 정념을 잃어버리고 낙공(落空)적 상태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일념재자만사여의(一念在茲萬事如意)'라는 일념이 곧 내유신령을 존상(存想)하는 일념입니다. 즉 '나는 신령이다. 나는 신령이다'하는 자기의 본질을 잊지 말라는 일념입니다. 그리하여 기도의 결과 자아가 신령화되고 신령의 마음, 신령의 덕에 합일하는 지경이 되면 만사여의(萬事如意)는 자재기중(自在其中)입니다. 요컨대 기도에는 반드시 내유신령의 일념을 붙잡고 심고(心告), 송주(誦呪), 묵념 등 기도를 봉행하라는 일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 기도방식

- 기간 : 1942년 8월 16일부터 동 10월 3일까지(49일간)
- 시간 : 매일 오전 5시
- 장소 : 자택 또는 교당 (특히 도장을 정결히 함)
- 청수 봉전(세면, 세수, 분향)
- 주문 : 105회 묵송(37자)
- 심고(대동아성전 필승, 대동아공영권 확립, 세계신질서 건설의 기원, 포덕천하 광제창생의 발원)

〈출전 : 『總部彙報 : 教發 第四號-紀念敎化的 要領』, 『新人間』 169호, 1942년 8월 23~25쪽〉

#### 44) 교발 제6호

연두교발(年頭敎發)로서 대동아전쟁 제2년 즉 결전의 해를 맞이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새 의기와 새 결의를 가지고 지성봉공(至誠奉公) 지성수도(至誠修道)의 두 가지를 철저히 수행하자는 요강을 명시하여 드린 바 있거니와, 특히 지성봉공에 있어서는 단 한 가지라도 물심양면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 효과를 얻는 것이 있어야만 비로소 이것이 곧 성(誠)의 결정이요 힘의 표현입니다. 즉 이론이 아무리 훌륭하고 이념이 아무리 풍부하다할지라도 자기가 맡은 바 각기 직장에서 한 마치를 성심으로 두드리고 전답(田畝)에서 한 이랑을 성심으로 매고 책상에서 한 페이지를 성심으로 읽는 것만 못합니다.

그러므로 현하 국민연성 대방침하에 있어서 우리로서 급무에 급무적이요, 당행(當行)에 당행적인 국어<sup>133)</sup> 보급과 시일헌성(侍日獻誠) 이 두 가지를 단행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겠습니다. 이에 관하여 단



적으로 말씀하면 황민화(皇民化)는 그 제목이요, 국어 해득은 그 순화이며 시일헌성은 전력 증강에 있어서 적어도 무물불성(無物不誠)의 표현입니다. 고로 실행 기일(其一)로 국어강습에 관하여 그 학습 방법 및 장소 설치에 대한 방침과 실행 기이(其二)로 우리의 중성(衆誠)을 집결하는 표준하에 매 시일(侍日) 1인 1전씩 수합 헌납하자는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앙포(仰哺)하오니 우리는 유일의 성(誠), 유일의 근(勤), 유일의 원(願)을 다하여 철저히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1943년 3월 3일  
천도교교령 천상광조(川上廣朝)

— 다음 —

1. 국어보급 국어강습

- 1) 주최 : 교구 및 전도실  
단 그 지방 형편에 의하여 사회와 협력함도 무방함.
- 2) 장소 : 교구실 및 면, 리 전도실  
단 원거리의 교인은 각기 애국반을 통하여 솔선공부함.
- 3) 강사 : 교구, 전도실 직원 및 교인 중에서 담당함.
- 4) 범위 : 교인 및 일반 남녀노소
- 5) 정도 : 초등에서부터

2. 시일헌성(侍日獻誠)

- 1) 방법 : 매 시일 각기 도장(교구실, 전도실, 가정)에서 국민의례 직전에 1인 1전(교호주 및 내수도 주부에 한함)의 헌성을 행함  
단 헌성금 보관은 필히 저금으로 함.
- 2) 금년(1943년) 2월 제1 시일로부터 내년 1월 최종 시일까지로 함.
- 3) 헌납기(獻納期) : 금년 7월 7일, 같은 해 12월 8일 2회로 함
- 4) 수합 및 보관자 : 교구에는 교구장, 전도실에는 전도사  
단 전도사는 해(당) 관내 헌성분을 매월 말마다 수합하여 교구장에게 납부함.
- 5) 총수합 기일 : 제1회분은 금년 6월 말일까지, 제2회분은 같은 해 11월 말일까지로 하여 교구장이 이를 총부경리관에 납부함.

(이상)

〈출전 : 「總部彙報 : 教發 第六號」, 『新人間』 174호, 1943년 2월, 1쪽〉

133) 일본어를 뜻함.

## 45) 성전결승기도에 관한 건

교발 (제10호)

1943년 10월 18일  
천도교교령 천상광조(川上廣朝)  
연원(淵源) 대표 교구장 도하

### 성전결승기도에 관한 건

지금 대동아전쟁<sup>134)</sup>은 바야흐로 최후 결승점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일억 국민은 이제 신명(身命) 일체를 받들어 이 성전 완수의 일사(一事)에 집중 매진하고 있거니와 우리는 갱진일보(更進一步) 천사신명(天師神明)의 가호와 명우(冥祐)를 받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성전 결승 기도를 봉행하게 되어 이에 양함하오니 조량하신 후 귀 관내 동덕에게 일일이 주지하시어 무루 철저 실행케 하심을 경요.

#### 기(記)

- 기한 : 49일 간  
1943년 10월 1일 부터 같은 해 12월 19일까지
- 장소 : 각지 자택
- 방법
  - 1) 도장 정결
  - 2) 심신 청재(淸齋)
  - 3) 청수(淸水) 봉진(奉奠)
  - 4) 가족 단좌(團坐)
  - 5) 심고(결승 기원)
  - 6) 주문(13자 105회 묵송)
- 시간 : 매일 오전 5시

(이상)

〈출전 : 『總部彙報 : 教發 第十號 - 聖戰決勝祈禱에 관한 件』,  
『新人間』 181호, 1943년 10월 23쪽〉

134) 태평양전쟁을 뜻함.

## 46) 전력증강에 관한 건

국천연발(國天聯發) (제9호)

1943년 10월 일

국민총력천도교연맹 이사장 천상광조(川上廣朝)

국민총력천도교 부(府)·군(郡)연맹 이사장 전

### 전력증강에 관한 건

대동아전쟁은 이제야말로 결전적(決戰的) 최고조에 이르렀다. 생사관두(生死關頭)가 목전에 당하였다. 그리하여 대환희, 대송구(大悚懼)의 양극단이 신경계를 직충(直衝)<sup>135)</sup>하는 오늘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최후 승리를 잘 알고 있다. 제일선 장병의 충의와 용감, 총후국민의 멸사와 봉공, 기타 천시(天時), 지리(地利), 인화(人和) 모든 점에서 결승의 대철벽은 이루어졌다.

그러나 금일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최요최급(最要最急)의 일사는 오직 전력 증강에 있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전력 증강에 결집 통일한다면 귀축(鬼畜) 미영을 일거에 격멸할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하 백척간두(百尺竿頭)更进一步의 결사적(決死的) 성력을 공봉(供奉)할 때이다. 금일이야말로 지성봉공에 따라 국민 비국민이 판정되는 천명이 내린 줄로 생각한다.

이제 우리는 당면하여 무엇보다도

－ 비록 영쇄(零碎)한 금물(金物)이라도 또는 전래의 가보(家寶), 기념품, 청수품(淸水品), 제기(祭器) 등이라도 금속물로써 아직 남은 것이 있다면 모두 쓸어 바치며 오늘은 이론을 말할 때가 아니므로 종래의 관념, 습관을 타파하고 우리 생활을 최저한도까지 절하여 다만 감사한 마음 감사한 기분으로 증산(增産)에 저축에 매진하자.

－ 일시동인(一視同仁)의 대어심(大御心)에서 나오신 징병제는 그 인식과 실행에 있어서 의무 관념 이상의 숭고한 신조로 생각하자. 충군애국의 도가 병역에 있고 “입신양명(立身揚名) 이현부모지명(以顯父母之名)”도 이를 버리고는 없는 것을 일반 부모들은 상호 깊이 인식하자.

그리고 기타 인적 자원 징용에 있어서도 당국의 지도를 기다릴 것이 없이 용약(勇躍)<sup>136)</sup> 자진하여 신국 국민의 본질을 발휘하자.

－ 우리 반도에도 징병제와 해군특별지원병제도가 실시되었다. 이에 일반 군인 원호(援護) 정신을 더욱더 양양(昂揚) 강화하여 전몰용사의 유가족, 상이군인 전선장병(前線將兵)의 원호에 철저완벽을 기하자. 이 군인 원호의 행사는 다만 당국의 시설만으로 만전을 다하기가 어렵다. 제일선 장병의 노고에 대하여 국민 각자가 열렬(熱熱)한 감사의 성의로써 애국반 중심, 동리 중심, 또는 양체(兩體) 중심으로

135) 곧바로 충돌함.

136) 용감하게 뛰.



전선위문에 가족 상이군인 위호에 유감이 없는 실적을 보이자. 그러면 이것이 곧 전선장병에 반영하여  
항군은 더욱 위대한 실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리하여 국위를 선양하고 대동아를 살리자. 기타 모든 것은 다 그 뒤의 일이다. 바치자. 인적 물적  
합하여 모두 바치자!

〈출전 : 『總部彙報 : 國天聯發 第九號 - 戰力增強에 關한 件』,  
『新人間』 181호, 1943년 10월 23~24쪽〉

#### 47) 신입역원 발포에 관한 건

국천연발 (제11호)

1944년 4월 일

국민총력천도교연맹 이사장 서원종린(瑞原鍾麟) 전

이번 본 연맹 역원을 아래와 같이 개선(改選)하여 이에 양포함.

#### 기(記)

이사장	서원종린(瑞原鍾麟)
당무이사	학천완(鶴川浣)
이사	천곡정(天谷正)
동	학천완(鶴川浣) 방호계(防護系)
동	금강병제(金岡秉濟)
동	구미명선(龜尾明宣) 연락계
동	궁전장(宮田藏) 연성계(練成系)
동	천림명도(川林明道) 서무계
동	천전우영(天田宇英) 회계계
평의원	천상광조(川上廣朝)
동	대림준모(大林俊模)
동	백산일웅(白山一熊)
동	신남소백(申南素伯)
동	평천군오(平川君五)
동	오상준(吳尙俊)
동	천손재기(天孫在基)





동	천본석홍(天本錫洪)
동	천안의명(天安義明)
동	한순회(韓順會)
동	민석현(閔奭鉉)
동	평강동수(平岡東洙)
동	하상태(河相台)

〈출전 : 「總部彙報 : 國天聯發 第十一號 - 新任役員發佈에 關한 件」,  
『新人間』 186호, 1944년 5월 15~16쪽〉

#### 48) 교발

서원종린(瑞原鍾麟)

대동아전쟁<sup>137)</sup>의 금일은 전쟁 이래 가장 가열하고 가장 장렬한 결전적 최절정에 달하였다. 세계 제 패의 야욕에 열중한 적(敵) 미영(米英)은 동양에 일본이 있는 한 그 소욕(所欲)을 가망할 수 없는 때문으로 저들은 철과 피의 전 소유량을 쏟아 부어 태평양의 심광한 바다를 메우면서 마침내 우리 신주(神州)의 영내에까지 침입하고 있다. 우리 황군은 적으로서 이들의 망동과 폭거가 있을 것을 예측하고 이 기회를 포착하여 일거에 적의 전략을 근본적으로 분쇄하고자 말겠다는 신주승산(神籌勝算)을 갖추고 있다. 우리는 이일대로(以逸對勞), 적(敵)은 자래송사(自來送死). 이 기회야말로 천고일과(千古一過)의 천여신기(天與神機)가 아닌가. 일억의 우리들은 한꺼번에 묶어 일대 거탄(巨彈)이 되어 적의 마성(魔城)을 공락(攻落)할 때가 바로 오늘이 아니고 다시 어느 날을 기다리랴.

지난 6월 26일 우리들 종교단체가 각자의 교의를 초월, 타성일환(打成一丸)하여 미영격멸총궐기대회(米英擊滅總蹶起大會)를 개최한 것은 이상 하늘이 준 신기를 놓치지 말자는 일대 서원(誓願)이며 일대 결의였다. 더욱이 호지동방(護持東方), 보국안민(輔國安民)을 본원(本願)으로 한 우리 교(教)는 이 대동아전쟁의 승패로써 운명이 결정되는 것은 누구보다 명기(銘記)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비상시기는 비상의 힘을 부른다. 초비상의 기회에는 초비상의 성(誠)을 요한다. 때는 정히 초비상 시기에 도달하였다.

동덕 제위여, 제위는 몸소 동포의 선봉이 되어 동포의 손목을 끌고 파탈우주(擺脫宇宙), 진감건곤(振撼乾坤)의 의기(意氣)로써 정정당당(井井堂堂) 고고이진(鼓鼓以進)하여 보지 않겠는가. 보라. 동방의 광명은 방차(方此) 만천이운(滿天異雲)을 헤치고 산하대륙(山河大陸)에 방사(放射)하려 한다. 힘과 성은 고원난행처(高遠難行處)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때그때 당면한 일을 실천궁행함에 있다. 가로되 국민신행(國民信行)의 확립, 황민연성(皇民鍊成)의 철저, 황도문화(皇道文化)의 작흥(作興), 사봉증산

137) 태평양전쟁을 뜻함.



(仕奉増産)의 강화, 결전 생활의 철저, 징병 제도의 완수 등, 이 7대국민운동은 우리들 반도에 있어서 그 어느 것이 당면의 급무가 아니리오만은 결전적 금일의 급무는 금속 회수, 고섬유(古纖維)의 응소(應召), 국민저축이 그것이다.

다시 말하면 금일의 낫붙이 한 개 헌납하는 것이 타일(他日) 대포 일문(一門)보다, 금일 누더기 한 조각 제공하는 것이 타일 천필(千疋)의 금라(錦羅)보다, 금일의 한 푼을 저축하는 것이 타일 천금보다 더 긴급하고 귀중한 보국(報國)이니 제위는 사반공배(事半功倍)의 이 운동을 솔선 공행하여 천하에 보일지어다. [시(示)]

〈출전 : 「教發」, 『新人間』 187호, 1944년 7월, 3~4쪽〉





## V. 시국관련 종교계 연합사업

친일반민족행위관계자료집  
XIV



## 1. 심전개발사업

### 1) 심전개발 시설에 관한 건

(1936년 1월 30일 정무총감 통첩)

시국과 조선의 특수사정에 비추어 생각컨대 일반 민중의 정신을 진작하여 심전을 배양하고 신앙심을 부식(扶植)하여 경애(敬愛)의 염(念)을 함양해 확고한 인생관을 파악하게 하여 안심입명(安心立命)의 경지로 이끄는 것은 조선통치 상 여러 시설을 실행하는 데 장차 민중의 생활 기초를 공고(鞏固)하여 이를 통해 영원히 행복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드는 데 가장 긴급하고 절실한 사항이다. 즉 심전개발은,

1. 국체 관념(國體觀念)을 명료하게 할 것.
2. 경신숭조(敬神崇祖)의 사상 및 신앙심을 함양할 것.
3. 보은(報恩), 감사(感謝), 자립(自立)의 정신을 함양할 것.

을 목표로 하여, 이 실행에 관해서는,

1. 종교 각 파와 아울러 교화(教化) 제 단체(諸團體)는 상호 연락·제휴하여 실효를 거둘 것.
2. 지도적 입장에 있는 자는 솔선하여 이에 노력해 모범(範)을 대중에게 보여 줄 것.

으로 정하고, 세목(細目)은 별지 요항(別紙要項)을 기준으로 하여 그 실현을 도모하고, 또한 지방의 사정에 따라 적절한 시설을 마련하여 목적 달성을 기하도록 한다.

#### 심전개발 시설 요항

1. 본부(本府, 총독부) 시설 요항
  - (1) 종교계(宗教係)의 확충(직원 증원, 예산 증액)
  - (2) 심전개발 위원회 개최
  - (3) 순회 강연(종교 및 유도(儒道) 관계자, 교육가, 명사)
  - (4) 인쇄물 간행·배포.
  - (5) 영화 및 환등(幻燈)(가능한 한 순회 강연과 함께 실시할 것)
  - (6) 강습회(각종 강습회에 종교 및 신앙에 관한 사항을 가미할 것)
  - (7) 강연회
  - (8) 방송
  - (9) 신사(神社), 종교 각 교 종파, 유도(儒道) 관계 단체 및 교화 단체의 시설에 대한 편의 제공
- ※ 지방 관청은 본 항(項)에 준할 것
2. 신사(神社), 종교 각 교 종파, 유도(儒道) 관계 단체 및 교화 단체의 시설 사항  
신사, 각 교 종파, 단체 각자에 신앙심(신사에서는 경신숭조(敬神崇祖) 사상)을 한층 계배(啓培)할



시설을 강구하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안(案)을 수립하여 실시할 때에 상호 연락 제공을 도모할 것.  
(고유 신앙에 대해서는 중추원(中樞院)의 조사 결과를 기다릴 것)

### 3. 학교 교육 시설 사항

- (1) 교직원에게 신앙심을 함양시키고, 또한 종교에 대한 이해를 갖도록 할 것.
- (2) 학생, 생도(生徒), 아동에게 평소 종교적 정조(情操)를 키우도록 하여, 때에 따라 임기응변으로 여러 시설 방법을 강구하여 철저히 도모할 것.
- (3) 어느 교과목이라도 종교적 정조(情操) 함양에 유의할 것.
- (4)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각종 강습회에 가능한 한 종교에 관한 과목을 첨가할 것.
- (5) 무도(武道) 장려에 유의할 것.

### 4. 사회적 시설 사항

- (1) 표어를 만들어 다양한 기회에 이용할 것.
- (2) 교화 단체, 청년 단체, 농촌 진흥 단체 설립·보급 및 그 활동을 독려할 것.
- (3) 민심 진작 주간에 실시하는 행사에 반드시 신앙심 계배(啓培)에 관한 사항을 첨가할 것.
- (4) 민간의 종교적 행사에서 그 의의를 철저히 할 것.
- (5) 신문·잡지 등에 심전개발에 관한 기사를 가능한 한 많이 기재하도록 신문사·잡지사 등에 의뢰할 것.
- (6) 가정 생활에서 주부를 통해 종교적 정조를 양성하여 신앙심을 부식(扶植)하도록 장려할 것.
- (7) 선현 열사(先賢烈士) 등의 유적(遺蹟)을 올바르게 현창(顯彰)할 것.
- (8) 명승 고적(名勝古蹟)에 대한 애호심(愛好心)을 함양할 것.
- (9) 민중의 정조 도야에 힘을 쏟을 것. (가요, 무용 등)
- (10) 극(劇), 영화의 이용.

## 심전(心田)의 개발

### 심전개발운동의 요지

1932년 이래 본부(本府, 총독부)가 제창해 온 농촌 진흥 사업은 피폐하고 궁핍한 다수의 농촌·어촌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나아가 민력(民力)의 충실과 민도(民度)의 향상을 도모하여, 조선 반도의 민중이 하루라도 빨리 일본의 수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른바 내선일체(內鮮一體)의 진정한 제국 신민(帝國臣民)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근본 방침으로 하는 것은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갱생을 도모함과 동시에, 일반 민중이 건전한 신앙심을 환기하고 이를 배양하여 움직이면, 무미건조함에 빠지거나 혹은 자포자기하려는 민중의 심전(心田)에 윤기를 주어, 스스로 직업을 갖고 삶을 즐기며 잠깐이라도 확실한 인생관을 갖고 경건한 정신생활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대개 대국(大國)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의 마음을 최고 목표를 통해 집결시켜야 한다.





지금 안팎의 정세는 하루라도 빨리 내선일체의 이상을 실현하여 9천 만 민중이 모두 국민정신으로 무장해 국가 발전의 본(本)을 배양해 가야만 하는 절박함이 있다. 특히 조선에서는 그 특수성에 비추어, 요즈음 일반의 공리와 노력을 필요로 한다.

조선 민중을 위해서는 경제생활의 안정·충실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민정신에 입각한 신앙심을 계발 배양(啓培)하고 아울러 민족성의 결함을 보정(補正)·순화(醇化)하여 제국신민으로서의 완전한 영역에 도달해야만 한다. 따라서 심전개발은 신앙을 통해 나아가는 국민정신의 진작이자, 또한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민중 도덕 운동이다.

이에 특히 도덕의 존중이 중요하다. 조선은 일찍부터 이륜(彝倫)에 밝고 도덕을 중시하여, 인심의 둔후(醇厚)는 일반에게 자리하고 있었으나, 최근 점차 경박해지면서, 도도하게 공리(功利)만을 쫓아 부끄러움을 모르는 폐해를 보니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운동의 목표와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 목표

### 1. 국체 관념(國體觀念)을 명료하게 할 것

국민 도덕의大本(大本)은 국체 관념을 명료하게 하는 데 있다. 특히 조선 반도에서 이를 철저히 하는 것은 조선 동포를 정신적으로 향상시키고, 제국 신민으로서의 지위 확보·향유를 도모하는 기초 조건이면서, 광명(光明)과 이상(理想)을 낳는 심적 근원이다. 이것이 본 항(項)을 심전개발 운동의 첫 번째 목표로 한 까닭이다. 다시 말해, 앞으로 2,000만 민중의 생활수준은 점차 향상되고 민도(民度)도 크게 발전하여 일본 민중과 차별 없이, 진정 충량(忠良)한 일본 제국의 신민으로서 의무를 분담하고 9천 만이 이해휴척(利害休戚)을 함께 하기 위해서는 모름지기 올바른 국체 관념을 갖고 희생 봉사의 각오·신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것이야말로 조선 민중의 진정한 갱생이자 영원한 복지여야만 한다. 이것이 실로 한일병합(韓日併合) 대이상의 마지막 완성이면서, 일시동인(一視同仁)한 마음의 구현 또한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조선 통치의大本(大本)도, 각종 시설의 궁극 목적도 모두 이 목표를 향해 걸음을 옮기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더욱 빠르게 나아가야 한다.

조선에서는 일본에서처럼 국체 명징(國體明徵) 문제 논쟁에 대해 들은 바가 없지만, 조선의 민중은 “하늘이 백성을 내시되 임금과 스승을 삼으셨다(天降下民作之君作之師)” 라든가 “필부 주를 죽였다는 말은 들었지만, 임금을 시해했다는 말은 아직 듣지 못했다(聞誅一夫紂矣未聞殺君也)”와 같은 중국 사상에 지배되어, 일본의 국체 관념과 같은 관념은 일찍이 존재하지 않아 특히 이들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여 이를 일본 국민의 최고 윤리로 삼아, 이상과 같은 국민적 지위 향상의 기본 조건으로서의 지도 정신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제 특히 주의해야 할 몇 가지 항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 1) 제국(帝國)의 국체(國體)가 만방무비(萬邦無比)라는 점을 분명히 할 것. 즉 일본 제국은 신칙(神勅)에 따라 건국되어, 만세일계(萬世一系)의 천황을 국주(國主)로 받드는 것은 영구히 정해진 일이며, 이것이 국체 정신의 발원(發源)이 되어, 국민을 지도하는 근본원리가 되었다. 이것이야 말





로 일본 건국의 대정신이라는 것.

2) 황위 계승의 표시인 삼종(三種)의 신기(神器)는 위대한 일본 정신의 표현이면서, 신덕(神德)의 숭고한 상하 함께 복응(服膺)하는 것이며, 이를 훗날 한자(漢字)로 표시하여 지인용(智仁勇) 삼달 덕(三達德)으로 삼았는데, 그 근원은 이상과 같은 신대(神代)의 사실이며, 일본 국민의 정신 생활의 기초는 고대 건국 초에 이미 선시(宣示)되었다는 점.

3) 국가의 구성은 인류 사회의 친애감(親愛感)과 강고성(強固性)의 극치인 혈족의 정에 근거하여 결합한 민족제도 내지 국가제도를 중심으로 한 것으로, 천황은 황실(皇室)의 가장(家長)임과 동시에, 또한 혈통적으로 국민 모두의 민족 가족의 종가(宗家)이기도 하다. 따라서 일본의 국가 사회는 군민동조(君民同祖)의 사실적 존재이면서, 충효일본(忠孝一本)의 사상 역시 여기에서 생겨난 것이다. 메이지 대제(明治大帝)의 어제(御製)에,

죄가 있다면 나를 허물하세요 하늘의 신이여  
백성은 우리가 낳은 자녀라면

라고 하신 것도 필경 의(義)는 군신(君臣), 정(情)은 또한 부자(父子)와 같다는 대의(大義)를 분명히 하신 것으로 생각된다.

4) 군민동조(君民同祖)의 혈족적 결합이라고 해도 반드시 단일 민족의 동계혈통(同系血統)의 결합을 의미하는 협의의 뜻이 아니라, 시대의 진보, 국운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민족·종족이 서로 뒤섞이면서도 항상 중추 씨족을 중심으로 잘 융합·통합되어 왔다는 것.

5) 이러한 사항들은 본래부터 이론이나 약속이 아니라, 국가제도의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면서, 또한 국민 신앙적 존재라는 것. 따라서 때로 시정(施政)의 득실(得失)에 따라 일장일이(一張一弛)는 벗어날 수 없다고는 해도, 국본(國本)은 태산반석(泰山盤石)처럼 항상 움직이지 않고, 건국 이래 일찍이 한 번도 외적에게 패한 적이 없으며 모든 외래문화를 전부 소화하여 더욱 일본의 빛을 새로이 할 수 있었다. 이것은 모두 일본의 국체가 만방무비(萬邦無比)인 까닭이며, 국가 융성의 본(本)은 실로 이 정신의 진작에 있다는 것.

6) 조선은 역성개조(易姓改朝)의 몇몇 변천을 거쳐 국체·국민 모두 동요하였고 인심의 귀추가 길을 잃었으며, 일단 외환(外患)에 부딪치면 자주독립의 의기(意氣)를 잃고, 특히 18, 19세기 동안에는 조선 반도가 열강 세력의 각축장이 되어, 결국 수습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버리고 말았다. 만약 이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면, 오직 동양 평화의 위협일 뿐만 아니라, 2,000만 민중이 가련한 운명에 던져져야만 하였다. 이때 이를 구제하고 해방시킨 것이 바로 한일병합이다. 다시 말해, 조선 민중은 만고불역(萬古不易)의 국본 정신(國本精神)의 큰 우산 아래 들어와, 9천 만, 구체적으로 제국의 구성원으로서 앞에서 언급한 국체 관념을 가짐으로써 진정 2,000만 민초를 구하고 번영시킬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국체 관념이라고 하고 국민정신이라고 해도 본래부터 이론이나 과학이 아니라, 천지(天地)와 함께 유구한 엄연한 사실이며, 국민의 혈액 속에 흐르는 사실이자 신념이다. 따라서 이는 한 조각의 해설이나 일시적인 학습에 의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오히려 정조(情操)의 함양, 신앙심의 발달 등을 통해 오랜 세월을 기해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 2. 경신숭조(敬神崇祖) 사상 및 신앙심을 함양할 것

조상숭배는 육친애경(肉親愛敬)의 지극한 정(情)에서 나아가 영혼불멸(靈魂不滅)의 신념을 낳고, 조상은 생전에 자손을 사랑으로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후라고 해도 그 영혼은 영원히 이 세상에 있으면서 우리집 자손의 행복을 위해 항상 수호해준다는 신념에 도달한 인간의 고급 도덕이다. 이는 본래 천리인정(天理人情)의 자연에 바탕을 둔 것이자, 우리가 위로 조상을 그리며 아래로 자손을 돌볼 때, 혈통연면(血統連綿) 스스로 생명의 영원함을 생각하게 하는 것도, 인생의 숭고한 맛도 실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조선에서는 일찍부터 이륜(彝倫)이 발달하여, 조상숭배는 사실 조선인의 눈에 띄는 미덕이다. 일가(一家)의 단란과 일족(一族)의 화목, 모두 여기에서 나와 부지(扶持)되었으며, 서로 조상의 유업·유훈을 지키고 가명(家名)을 중히 여기며 도의(道義)를 연마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노력이 축적되어 문화가 발전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등, 그 공적은 실로 큰 것이다. 이 점은 일본인의 조상숭배와 전혀 다르지 않는 것이며, 조선은 일본보다 우월하다거나 열등하다는 것이 아니다.

일본의 숭조 관념(崇祖觀念)은 더욱 발전하여 경신 관념(敬神觀念)과 결합하였다. 즉 그 태고 신화시대(太古神話時代)에 많은 자연물·생물 등에 대한 경이(驚異) 또는 찬미에서 이를 신격화하고 신으로 숭경(崇敬)한 것은 다른 어느 민족의 신 관념과 다르지 않았으나, 일본 건국 이후에는 이 관념이 일대 진보를 이루고 조상숭배와 합치해 그 선조가 신격화되어 신이 되고 나아가 통일되어 일본 건국의 신을 최고의 신으로 숭경하게 되어 경신숭조(敬神崇祖)는 이로써 국체 관념(國體觀念)과 합치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신'은 서양이나 중국처럼 자연물·생물에서 전화(轉化)하여 인간계를 초월한 것이 아니며, 또한 가정(假定)의 존재가 아니다. 모두 실재하는 것이며, 즉 우리 선조의 영(靈)이 바로 그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국가 창조의 신 및 국가 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충신열사(忠臣烈士)의 영(靈)이며, 국민인 자손후예(子孫後昆)가 감사·보은의 지성(至誠)으로 숭경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또한 필연적인 것이다.

다시 말해, 앞에서 언급한 국체 관념도 조상숭배를 근간으로 종합 가족제도의 최고 존속(最高尊屬)인 천황을 국가의 중심으로 하여 절대 복종하고 천황을 최고 도덕자로서 존숭(尊崇)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천황을 명율신(明律神) 또는 현인신(現人神)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즉, 천황은 국가의 지배자·통솔자임과 동시에, 또한 국민 전체의 종가존장(宗家尊長)이며, 신격화된 신인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신국(神國)이면서 일본인은 사실 신의 아들인 것이다. 일본인은 항상 조상이 자손에게 남긴 유덕(遺德)·유업(遺業)·유지(遺志)를 지키고, 가명(家名)을 실추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신사(神社)를 참배하고 제(祭)를 올려 영을 위로하며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다. 여기에 조상을 중심으로 한 가(家)의 발전이 있고 국가의 발전이 있다. 즉 일본인이 가(家)를 사랑하고 향토(鄉土)를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특히 열렬한 이유는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이를 생활 방편으로서가 아니라, 가(家)나 국토가 내 조상의 영이 계시는 곳인 신의 영장(靈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 국민이 신사를 참배하는 것은 종교의 신 숭배 또는 무(巫)에 의한 우상숭배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조상숭배의 지극한 정성에서 출발하여 건국의 대정신에 바탕을 두고 자연스럽게 형성된





국민 도덕이자, 또한 충군애국(忠君愛國)에 대한 지성(至誠)의 표현이다. 실로 이는 이론을 초월하고 이해를 초월하며 종교를 초월한 존재여야 하며, 따라서 일본 국민인 자는 어느 씨족종족(氏族種族)이나에 상관없이, 또한 불교도든 기독교도든 상관없이 모두 신사를 참배하고 또 참배해야 한다. 일단 신전(神前)에 서서 참배하는 순간, 자연히 마음이 정화되어 어떤 악인이라도 감격하여 다른 생각의 여지가 사라지는 것이 참배자의 심경이다.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으나

부끄러움에 눈물이 흐른다

라면서 이세신궁(伊勢神宮)을 참배한 일본인의 심경을 그대로 읊은 시이다.

또한 경신숭조(敬神崇祖) 사상은 그 자체가 국민 도덕일뿐만 아니라, 나아가 여러 가지 덕교(德敎)를 낳아 모든 도덕의 근원을 이루었다. 즉,

- 1) 항상 현실적이다. - 그저 조상의 옛 회고 추억(回顧追憶)으로 끝나지 않고, 또한 다른 종교처럼 내세(來世)를 말하지도 않고, 현실에 우리 집을 지키고 우리 국토를 보호하고, 자손의 장래를 위해 고심하는 발전적·진취적인 것이다. 따라서 그 제전(祭典)도 용장쾌활(勇壯快活)하면서 인고분려(忍苦奮勵) 노력하는 것을 존중한다.
- 2) 항상 청정결백(淸淨潔白)을 중시한다. - 즉 마음의 더러움을 씻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고래태고(古來太古, 후토마니), 계(稷, 미소기), 불(祓, 하라이) 등의 방식을 신을 받드는 방법으로 하였다. 이것이 곧 청렴(淸廉), 정직(正直), 성실(誠實) 등의 정신을 낳은 것이다. 더구나 이 맑은 정신을 갖지 않으면 그 마음은 신을 감응시키지 못하고 신은 그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 메이지 대제(明治大帝)의 어제(御製)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의 마음과 통해야만  
 사람의 마음은 진심이 된다.  
 라는 실로 이 정신을 분명하게 해주셨다.
- 3) 삼종(三種)의 신기(神器)가 지인용(智仁勇)의 삼도덕(三道德)을 표현하였다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이지만, 이 도덕 관념은 건국 정신에 합류·동화하여 더욱 발달해 수많은 도덕을 향상시켰음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이들 도덕 정신은 이른바 고신도(古神道)라고 하는 것이며, 일본 건국 초부터 전승된 고유 도덕이며, 종교가 아니다. 훗날 이 정신의 일부를 취해 제신(祭神)을 마련하여 한 계파를 세운 것으로 대사교(大社敎), 부상교(扶桑敎), 금광교(金光敎), 천리교(天理敎) 등등 각 파가 있지만, 이들은 앞에서 언급한 고신도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또한 경신숭조(敬神崇祖)는 미신타파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조선은 오랫동안 중국 사상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조상숭배를 경신 관념으로 까지 끌어올려 “신”의 관념을 통일·완성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겨우 무(巫)에 의지하여 유치한 귀신 관념의 원시 신앙 상태에서 방황하여, 하층민은 미신의 질곡에 신음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이는 조선인이 영적으로도 빈곤했던 과거를 말해 주는 것이며, 진정 정신적으로 2,000만 민중을 구하는 것은 다양하고 잡다한 미신 타파와 음사잡신(淫祠雜神)의 귀신







관념을 청산하여, 그 고유한 조상숭배 관념을 기초로 경신 관념을 배양하고, 일본인과 마찬가지로의 정신 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 본래 신앙은 경신숭조에만 한정된 것은 물론 아니다. 미신의 고심에서 벗어나고 건전한 신앙심을 환기하는 것이라면, 어느 종교 또는 비종교를 따른다고 해도 상관없다는 것을 뒤에서 서술할 것이다.

따라서 경신숭조는 신사참배와 함께 각 가정에서는 조상의 분묘를 소중히 해 잘 지키고 제사를 정중히 모셔 숭경의 염(念)을 돈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주의해야 할 것은 조상숭배·가명존중(家名尊重)이라고 해도 근본정신을 잊고 폐해를 낳아서 안 되며, 즉 구래(舊來)의 반벌계급(班閥階級)의 인습에 얽매어 자기 조상만을 숭배하고 소관 분묘·제각(祭閣)이나 문집·족보를 장식하고 또한 관혼상제에도 필요 이상의 비용을 지출해 외용만 과시하면서 가문의 융성을 자랑하는데 급급해 스스로 세무(世務)를 위한 공익을 돌보지 않는 것은 진심으로 조상의 덕을 빛내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하는 것은 소아(小我)에 집착해 대아(大我)를 버리는 것이고, 가문이 있다는 것은 알아도 국가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질타를 면할 수 없는 일이다. 요점은 우리 집 조상 숭배를 확대하여 전체에 미치고, 최고 권위의 신으로 종합·통일하여 국가 본위에 봉사하는 데에 경신숭조의 진체(眞諦)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경신숭조라는 것도 국체 관념에서 말하듯이, 단지 이론만으로 다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역시 정조적(情操的)으로 신념적으로 느끼고 얻을 필요가 있다. 요컨대 국체 관념이라고 하고 경신숭조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믿음으로써 완성되는 것이다. 이들 사상의 함양은 모름지기 신앙심의 함양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것이 경신숭조 사상과 함께 신앙심의 함양을 필요로 하는 이유이다. 본래부터 어느 종교의 일종일파(一宗一派)를 도입하여 일반에게 그 신앙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종교 각 파는 각기 분야에서 신앙을 넓혀가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어느 종파라도 이상과 같은 국체 관념이나 경신숭조 사상은 그 신앙의 내용에서 경(經)으로 삼으며, 또한 위(緯)로 짜 넣고, 항상 이를 강조하는 것은 국민 도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다.

대개 인류는 경제생활, 물질생활만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다. 나아가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 살아야 한다. 이러한 욕구가 곧 진리의 탐구로 이어지고, 신앙의 수립으로 이어지며, 안심입명(安心立命) 스스로 일종의 인생관을 가지게 되어, 이상은 더욱 높고 품위는 더욱 발전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앙은 인간 자신의 요구이며, 또한 인간의 가치는 신앙생활에 따라 증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앙심의 배양은 인간으로서 세상에 나가는 제일 조건(第一條件)이며, 자력갱생을 위한 농산어촌(農山漁村)의 진흥도 국민정신의 진작도, 모두 이 신앙심의 배양에 의해 확고한 인생관이 생기며, 스스로 안심입명의 단계에 도달하지 않으면, 진정한 목적의 완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만약 과학을 만능으로 오해하고 유물사관(唯物史觀)에 얽매어 종교를 아편이라고 비방하는 것은 인생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알팍한 논리이며, 화제에 올릴 필요도 없는 잘못된 견해이다. 특히 최근 청년 학도 사이에 이러한 종류의 잘못된 시각이 있어 휘둘리는 자가 많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신앙의 함양에 대해서는 종종 오해를 야기하기도 한다. 그래서 특히 다음과 점에 주의해야 한다.





1) 신앙은 함부로 내세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라고만 알고, 염세퇴영적(厭世退嬰的)인 생활에 빠져서는 안 된다. 확호불발(確乎不拔)의 신념을 세워, 숙명(宿命)의 미신을 타파하고 스스로 분려노력(奮勵努力)하여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 당국이 심전개발을 강조하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으며,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및 미래로 뻗어가려는 마음의 힘을 함양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조선 민중을 종교의 신앙을 통해 그들이 가진 불평불만을 완화하여 현상에 만족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고식적(姑息的)·퇴영적(退嬰的)인 것이 결코 아니다. 경제개생의 첫 단계의 공부를 완성함과 동시에, 심전개발을 통해 그 경제개생의 도덕적, 윤리적, 사상적 근거를 마련하여 확호불발(確乎不拔)의 인생관을 갖고, 나아가 고원(高遠)한 이상 달성을 향해 매진하는 정신력-자력(自力)을 끄집어내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신앙심의 필요와 그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2) 신앙은 어떤 종교·비종교를 취하든 본래부터 임의(任意)에 따르지만, 다만 어떤 종교·비종교를 취하든 그 내용에서 이상 언급한 점 및 이후 언급하게 될 심전개발의 3대 목표는 신앙심 함양의 궁극적 목적으로서 힘을 모아 철저히 실천해야 한다. 이 목표를 무시한 신앙심의 함양은 무의미하다.

3) 보은(報恩), 감사(感謝), 자립(自立) 정신을 함양할 것

대개 인류가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 그 본(本)을 아는 시작이며, 감사의 염(念)을 가지는 것은 의무를 아는 시작이다. 따라서 감사·보은은 인간도(人間道)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며, 모든 인류 도덕도 대개 이것을 전제로 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른바 농민 정신도 농도(農道)의大本(大本)도 바로 여기에서 근원을 발한다. 심전개발의 3대 목표 가운데 하나로서, 특히 보은·감사를 든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

조선에서는 종래의 도덕·사상·학문 모두가 일신일가(一身一家)를 중심으로 한 사덕(私德)의 발달에 전력을 기울여, 대부분 다른 것을 돌볼 여력이 없었다. 특히 격물치지(格物致知)로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의 제1보를 이루는 대학지도(大學之道)에서조차 “물은 일과 같다(物猶事也)”라는 해설을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삼아, 모든 생활의 기초를 인륜 사덕(人倫私德)에만 편중시켜, 널리 감사·보은의 도(道)를 가르치는 일이 비교적 덜 하였기 때문에, 일반에게 봉사하는 생각이 얕고 물질에 대한 도덕을 망각하며, 신에 대해 천지자연에 대해 관찰하는 것조차 하지 않아, 보은·감사의 감동을 그다지 경험하지 못하였으며, 이것이 생활 의식을 소멸시켜 경신 관념(敬神觀念)을 잃어버린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기 그지없다. 또 하나 큰 질환은 실로 자립정신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아무리 명사수이지만, 쓰는 능력을 가졌어도 명중시키는 것은 가르칠 수 없어, 화살을 맞추는 것은 필경 그것을 배우는 자가 스스로 터득해야 하는 것이다. 자력개생의 농촌 진흥도 이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진흥책을 내놓아 진흥의 길을 열어 그 기술을 가르치더라도, 개생이라는 것은 민중이 스스로 듣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믿고 스스로 서고 스스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민중의 자립은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어, 이 결함을 보정할 한층 중요한 것임을 깨달고 특히 이를 제시한 것이다.

자립정신의 결핍도 그 근원을 찾으려면 필경 민중의 죄라기보다는 사상, 학문, 정치 등의 죄인 경우가 많다. 이 역시 오랫동안 중국 문화의 지배를 받고, 정치는 사대복속(事大服屬)이었고, 학문은 정주(程朱)의 설(說)을 준봉(遵奉)하는 것 외에, 비판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던 역사를 회고하면 2,000만 민중





이 이미 심적으로 거세를 당하고 오늘날처럼 자립의 정신을 갖지 못한 것도 역시 이유가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자립정신의 양성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 말한다면,

- 1) 평소 일상생활에서도 자신의 일은 반드시 스스로 한다는 습관을 기름과 동시에.
- 2) 자립정신의 결여가 모든 죄악을 낳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반성 자각하여 스스로 이를 보정하려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 (1) 노동을 꺼리고 근로자활(勤勞自活)을 천민의 일이라고 하는 것.
- (2) 의타심이 강하여 스스로 맞서는 힘이 약하고 따라서 책임감이 약한 것.
- (3) 자주자변(自主自辯)의 힘이 없고 자기에 관한 일인데도 다른 사람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스스로 하지 못하는 것.
- (4) 자신의 힘에 대해 자신이 없고, 따라서 현세를 관망하거나 다른 비판을 두려워하여 과감히 매진할 용기가 없는 것.
- (5) 또한 감동도 분기심(奮起心)도 사라져 관찰도 비판도 하지 않고 취생몽사(醉生夢死)하여 완전히 초목동부(草木同腐)의 생애로 마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지는 것 외에 없는 것.

이는 모두 자립정신이 없는 자에게 일어날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스스로 반성하여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립의 정신은 협동의 관념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자주자립의 의미를 좁게 해석하여 헛되이 자기의 이익, 자기의 의견만을 주장하고 다른 것은 되돌아보지 않는 것은 필경 국체 운동도 사회연대도 국가 구성도 기대할 수 없게 하고, 국체 자립을 유지하기 어렵게 할 것이다. 또한 한편으로 협동 운동은 각자의 자립정신을 기다려야 한다. 책임있는 자각이 없고 확고한 신념이 없는 자의 단결은 필경 오합지졸일 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따라서 완전한 협동은 완전한 자립을 요소로 하여야 한다. 종래 조선에서 각종 단체가 대개 유명무실하게 끝나고 사회심, 국가 관념을 철저히 하지 못한 것은 그 병통의 근원이 그 주변에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상은 심전개발의 3대 목표에 대한 취지의 개요이다. 말하고 싶은 것을 많이 생략하여서 설명이 부족한 감이 있으나, 이는 국민 도덕의 전부이자 심전개발의 전모가 아니다. 다만 조선의 현황을 알고 미래에 비추어 당면 문제로서 특히 긴급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뽑아 목표로 정하고 먼저 그 달성을 위해 전력을 집중함으로써 첫 단계 공작을 이루고자 한 것이다. 나머지 문제는 이를 달성한 다음에 자력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 실행방법

이상 3대 목표에 도달 방법은 본래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이에 특히 기본으로 삼아야 할 사항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 1. 종교 각 파 및 교화(教化) 제 단체는 상호 연락·제휴를 하여 실효를 거둘 것

여기서 말하는 연락·제휴란 각 파 각 단체의 합동이 아니다. 다만 앞에 언급한 3대 목표는 어느 종파, 어느 단체에서도 서로 일치협력해야 할 공동의 목적이며, 그 활동은 공동 전선이다. 혹은 연합하고 혹은 각 부서에서 그 사이에 항상 긴급 연락이 필요하다. 각 자 제각각이면 그 효과를 증대하기 어렵다. 고금성철(古今聖哲)의 도를 깨뜨린 종교의 원리에는 모두 무한한 진리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입교(入敎)의 취지 구성에서는 문호(門戶)가 다름으로 인해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닌데, 인간을 제도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고원(高遠)한 이상에 도달하는 데 모두 그 규범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즉 공동 작전의 기초이며 적어도 그 이상(理想)을 구한다면 그 활동을 위해 연대제휴(聯携)의 세목(細目)에 대해 스스로 정할 것이다.

### 2. 지도적 위치에 있는 자는 솔선수범하여 민중에게 보여줄 것.

대개 사람을 지도하려는 자는 직접 보여주기보다 강함이 없고, 자신이 없으며 스스로 하지 않으려 한다면 실적을 올릴 수 없다. 따라서 100만 마디의 설교보다 한 번의 실천 실행을 중시하는 것. 지도자가 스스로 규범을 보여주는 것을 실행을 위한 유력한 방법인 것이다.

이에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교화 단체로서의 유도(儒道) 단체 즉 문묘(文廟)·서원(書院) 그 밖의 유도(儒道)·유림(儒林) 단체 및 그 중심에 있는 인물들은 한층 3대 목표 정신을 철저히 행하고, 항상 솔선하여 실행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본래 2,000만 민중이 무엇을 위해 심전이 황폐해져 오늘에 이르렀는지, 일찍이 조선 반도가 사상·정치·학문 각 분야에서 오랫동안 유교가 지도적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유자 유림이 가장 먼저 반성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스스로 자신의 심전을 갈고 터를 닦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교화는 소용없다. 만약 오늘날 심전개발의 지도자라는 의미를 잘못 이해해 한학(漢學) 이외의 학문을 모른 채 유도 이외에 도덕이 있음을 모른 채, 편견과 아집으로 스스로 고상하다 여기는 자가 만약이라도 오늘날 존재한다면, 참으로 유감스럽기 그지없다. 다시 말해, 유학자는 지금 구각(舊殼)을 벗고 새로이 국민 도덕을 체득하여 새로운 눈으로 경서(經書)를 읽고, 고성(古聖)의 교훈을 현대에 되살려 심전개발의 성전(聖戰) 제일선에 나서서 그 진정한 사명을 다하고 유도의 대정신을 드높이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또한 희망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것은 기독교 관계자의 신사 참배 문제이다. 본래 일본 국민의 경신숭조(敬神崇祖)는 일찍이 전통적 국민 도덕의大本(大本)을 이루고, 충군애국(忠君愛國)의 성의를 표현한 것이며, 그 종교에 따라 생각하는 신의 예배 또는 우상의 숭배와는 전혀 성질이 다른 이유는 이미 앞에서 밝힌 바이지만, 세상의 기독교 신자 중에 만일 이 본질을 구별하지 못하고 신사 참배를 자기가 속한 교의(敎義)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참으로 유감이다.

본래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선교 발달을 조장하는 이유는 이를 통해 세도인심(世道人心)을



존중하고 국본(國本)의 배양에 도움을 받기 위함이다. 그러나 신도가 적더라도 안녕질서(安寧秩序)를 방해하지 않고 또한 제국 신민의 의무를 거스르지 않는 한, 헌법에 따라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량한 국민을 떠나 선량한 신자는 없고, 만약 교회에서 진정 선량한 자라면 먼저 국민으로서 국가에 충성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종교인이면서 신사 참배를 거부하는 것은 곧 국체 관념을 망각하고 국헌(國憲)을 이해하지 못하고 국민 도덕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는 질타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데 과연 진정 종교인으로서의 임무를 다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이는 먼저 지도자로서 자신의 심전을 개발하여 식견을 높이고 3대 목표를 직시하여 귀추를 거스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은, 실행 방법으로 반드시 필요한 점을 말했을 뿐이다. 만약 실시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시의(時宜)에 따라, 지방에 따라, 좋은 방법을 마련해야 하겠지만, 참고를 위해 아래에 시설 세목(施設細目) 몇 가지를 들어 예시하고자 한다. 시설의 실행에서 대체로 이를 기준으로 삼아 목적 달성에 임해주기를 바란다.

### 심전개발 시설요항(心田開發施設要項)

#### 1. 본부(本府) 시설 사항

- (1) 종교계(宗教係)의 확충(직원 증원, 예산 증액)
  - (2) 심전개발 위원회 개최
  - (3) 순회강연(종교 및 유도(儒道) 관계자, 교육자, 명사)
  - (4) 인쇄물 간행·배포
  - (5) 영화 및 환등(幻燈)(가능한 한 순회강연과 함께 실시할 것)
  - (6) 강습회(각종 강습회에 종교 및 신앙과 관련한 사항을 가미할 것)
  - (7) 강연회
  - (8) 방송
  - (9) 신사, 종교 각 교 종파, 유도(儒道) 관계 단체의 시설에 대한 편의 제공
- ※ 지방 관청은 본 항(項)에 준할 것

#### 2. 신사(神社), 종교 각 교 종파, 유도(儒道) 관계 단체 및 교회단체의 시설 사항

신사, 각 교 종파, 단체 각자에 신앙심(신사에서는 경신숭조(敬神崇祖) 사상)을 한층 계배(啓培)할 시설을 강구하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안(案)을 수립하여 실시할 때에 상호 연락 제공을 도모할 것. (고유 신앙에 대해서는 중추원(中樞院)의 조사 결과를 기다릴 것)

#### 3. 학교 교육 시설 사항

- (1) 교직원에게 신앙심을 함양시키고, 또한 종교에 대한 이해를 갖도록 할 것.
- (2) 학생, 생도(生徒), 아동에게 평소 종교적 정조(情操)를 키우도록 하여, 때에 따라 임기응변으로 여러 시설 방법을 강구하여 철저히 도모 할 것.
- (3) 어느 교과목이라도 종교적 정조(情操) 함양에 유의할 것.



(4)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각종 강습회에 가능한 한 종교에 관한 과목을 첨가할 것.

(5) 무도(武道) 장려에 유의할 것.

※ 무도(武道)라는 것도 단지 무술(武術)·무예(武藝)의 기법에 흐르는 것이 아니라, 특히 그 몸을 연마하고 마음을 닦는 정신을 터득하게 하여, 문약퇴영(文弱退嬰)의 기풍을 교정하는 데 유의해야 함이 중요하다.

#### 4. 사회적 시설 사항

(1) 표어를 만들어 다양한 기회에 이용할 것.

(2) 교화 단체, 청년 단체, 농촌 진흥 단체 설립·보급 및 그 활동을 독려할 것.

(3) 민심 진작 주간에 실시하는 행사에 반드시 신앙심 계발배양(啓培)에 관한 사항을 첨가할 것.

(4) 민간의 종교적 행사에서 그 의의를 철저히 할 것.

(5) 신문·잡지 등에 심전개발에 관한 기사를 가능한 한 많이 기재하도록 신문사·잡지사 등에 의뢰할 것.

(6) 가정생활에서 주부를 통해 종교적 정조를 양성하여 신앙심을 부식(扶植)하도록 장려할 것.

(7) 선현열사(先賢烈士) 등의 유적(遺蹟)을 올바르게 현창(顯彰)할 것.

(8) 명승고적(名勝古蹟)에 대한 애호심(愛好心)을 함양할 것.

(9) 민중의 정조(情操) 도야에 힘을 쏟을 것. (가요, 무용 등)

(10) 극(劇), 영화의 이용.

학무국(學務局) 사회과(社會課)에서 라디오를 통해 사회 교화를 기획하고, 경성 중앙 방송국(京城中央放送局) 제1급 제2방송에 수양(修養), 부인(婦人), 상식(常識) 등 세 강좌를 설정하여,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인사를 위촉해, 1937년 1월부터 방송을 개시하였는데, 본 편은 이 방송 강연의 요령을 수록한 것이다.

〈출전 : 「心田開發施設二關スル件」, 政務總監通牒, 1936년 1월 30일〉

## 2) 심전개발이란 무엇인가?

경성기독교청년회 이사 니와(丹羽清次郎) (방송)

### 1. 정신적 개발

최근 물질적 및 과학적 진보는 실로 두드러진 점이 있습니다. 라디오처럼, 비행기처럼, 그중 가장 큰 진보는 작년에 열린 올림픽이라는 세계적 경기를 먼 나라 사람들이 마치 직접 베를린에 가서 그것을 목격이라도 하는 듯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것은 최근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위업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작년 거의 세계적 대사업이라고 할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 사이에 하마일 철교가 완성되





어 6대의 자동차가 병행하여 달리고 그 아래에는 별도로 인도(人道)를 마련해 놓은 다리가 생겼다는 소식은 실로 얼마나 물질적, 과학적 진보가 두드러졌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처럼 표면으로 나타나고 눈길을 용동(聳動)하는 외형적 발전은 인간이 심적, 내적으로 발달한 결과이며 표현인 것입니다. 이는 보기 드문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심전개발에 더욱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외형적·표면적인 것에 사로잡히기 쉽고, 때문에 재물이나 건물이나 의식(衣食)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수전노가 되거나 물질욕에 빠지거나 저속해집니다. 우리 조선이 얼마나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산이 많고 수력 전기의 이점이 크고 또한 교통이 편리하여 기타의 것에 약진하였다고 해도, 이들 외부의 진보·증대만으로는 조선에 진정한 발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아니 이러한 모든 발전 역시 사실 내적·심적 진보를 통해 달성되는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물질적 진보와 함께 심전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물심일여(物心一如)의 외침이 이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심전개발이라고 말할 것까지도 없이, 먼저 최우선으로 지적 개발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하며, 지식은 참으로 큰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통해 최근의 물질 발달을 이룬 것입니다만, 이와 병행하여 정조(情操) 개발에도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인간은 감정적 동물이라고 하는데, 정치(情致)의 발전은 곧 회화, 음악, 조각 등 미술의 진보로 이어지며, 비속 저급한 사회를 순수하게 또한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예다가 우리는 항상 의지(意志)를 단련하여 강의현실(剛毅賢實)한 인격을 키워 심산대택(深山大澤)도 정복하여 세계 곳곳에 문명의 운택함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인간으로서, 국민으로서, 사회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심전(心田)에 감추어진 다양한 능력 위에 이를 개척하고 가르치며 키워가야 합니다. 이는 정신이며, 영적 능력(靈能)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본은 메이지 유신(明治維新)의 대개혁 때에, 구미의 외관적 진보, 지식적 발달 측면을 조사하고 알고 새로운 지식이 가진 외관의 아름다움만을 수입하여 이식함으로써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는데, 이 지식만능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현재 그 여폐(餘弊)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부(節婦)이자 우리 국민의 자량으로, 빛을 이루는 미풍양속은 점차 그 그림자를 감추고, 배움이 넓어지고 재능이 빛을 발하지만 경학부박(輕學浮薄)하여 삼척동자에게 의지해야 하고, 또한 국가의 주석(柱石)이어야 할 충성순량(忠誠純良)의 인사가 적어지고 있어 참으로 우려되어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메이지대제(明治大帝)가 교육칙어(教育勅語)를 내리셨는데, 폐하는 누구보다 먼저 이미 우리나라 교육의 대방침에서 기초적 결함을 인식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깊은 인식은 우리를 참으로 송구하고 감격하게 하는 것입니다. 1886년 10월, 지금부터 거의 50년 전에 폐하가 처음으로 대학으로 남시니, 먼저 당시의 도쿠다이지(德大寺) 시종장 및 모토다 나가자네(元田永孚)에게 미리 준비를 위해 대학을 시찰하시게 하고 그 후 폐하는 직접 남시어 그 학과·시설 등을 자세히 보시고, 환궁하신 뒤, 모토다(元田)를 불러 대학으로서 학과·시설은 갖추었으나, 중요한 국가의 주석(柱石)으로서 폐하를 받쳐줄 인재의 정신적 훈련은 어떤지, 국문한서(國文漢書)는 가르쳐도 이를 단지 학문으로서 취급하기만 하여, 그 안에 있는 정신적 내용을 활용하여 정신적 교양을 주는 길은 갖추어지지 않아 이는 실로 쓸 만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무엇보다 큰 결함이라고 보고, 이를 지적하였는데, 모토다 역시 이 점을 깨달고, 도쿠다이지 시종장을 거쳐 이 점을 폐하에게 말씀드리려고 하였으므로, 폐하는 도쿠다이지 시종장을 통해 당시 대학 총장에게 주의를 주고 반성하도록 모토다에게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는 모토다가 남긴 성유기(聖諭記)라는 기록에 의해 삼가 듣게 되었습니다. 즉, 메이지대제의 예지대





식(叡智大識)은 이미 천년 전 우리나라 교육의大本(大本)에 일대 결합이 있음을 통찰하시어, 이를 교정하고자 잠을 설치시어 마침내 교육칙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잘못된 지식만능의 교육 방침은 과거 어떻게 할 수 없었으나 오늘 이후에 조선 반도 동포의 심전개발 방침에 이것이 교정에 힘을 주어 결코 물질·경제적에만 편중되지 않고, 또한 지적·이념적으로 흐르지 않고, 정신적·영적 방향을 크게 중시하여 진심으로 물심일여(物心一如)의 견지를 통해 조선 반도의 문화, 동포의 고상(高尚), 대중의 행복을 기도(企圖)하고자 합니다.

## 2. 실천궁행(實踐躬行)

저는 지난 번 강연에서 조선 반도 동포의 심전개발은 결코 경제적·산업적인 발달에 머무르지 않고, 또한 그저 지식·학문의 개발에만 의존하지 않고 반드시 정신적·영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정신적·영적이란 결코 그저 반성적(反省的)·수양적(修養的)인 것에 머무르지 않고 외계(外界)의 필요, 환경의 요구에 따라 실천궁행(實踐躬行)함으로써, 비로소 정신의 발양(發揚), 영능(靈能)의 활동을 보고, 이리하여 물심일여(物心一如), 이상과 실제의 융합을 얻을 수 있음을 말하고 싶습니다. 조선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태만, 투안(偷安, 구차한 평안), 의타심을 타파하고 근면하게 자력갱생에 노력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전 총독(前總督) 우가키(宇垣) 대장(大將)이 농촌 진흥이라는 시각을 통해 자력갱생을 역설하고, 농촌의 자제(子弟), 특히 보통학교를 마치고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그 집안이 자활자영을 이룰 수 있는 자의 자제에게 1년간 특별한 교양을 제공함으로써 자력을 발휘하고 부지런히 노력하여 그 집안, 그 마을의 진흥을 도모하는, 이는 실로 우리 조선에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당국자의 열성적인 지도와 청년자제의 노력에 따라 조선 반도 농촌 일반 진흥에서 좋은 효과를 얻고 있는 것은 실로 기쁘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자력갱생은 한편으로 개인주의의 폐단에 빠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경계해야 합니다. 좋은 예를 들어보면, 이에 대해 북미(北美)의 예에서 찾아보면 자력을 높이 사고 다른 도움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부모가 나이가 들어도 스스로 일을 하고 자활하여, 자녀는 그들을 부양할 의무가 없어 나이든 부모를 돌보지 않고, “산을 넘어”라는 영화에서 보듯이, 그런 노모가 있어 세 명의 아들은 이미 자신의 집을 갖고 부유하게 살고 있지만, 노모는 작은 산을 넘어 가면 있는 양로원으로 보내져, 날마다 노역에 종사하는 것처럼, 인정(人情)에 반하고 인도(人道)를 거스르는 상태를 표출하는 경우도 있어, 이 영화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켜 미국 사회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이는 실로 자력갱생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결국 그러한 폐해를 낳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러한 폐해를 교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활을 반드시 준비하고 돕고 기르고 제공해야 하는 것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먹는 매일 매일의 식사조차 많은 사람들의 노동력에 의존해 가능해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입고 먹으며 살며 나아가 사회를 구성함에 실로 다양한 잡다한 무형유형(無形有形)의 협력과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자력 갱생이라고, 개인주의라고 부르는 것처럼 방침과 실천 외에 타인에게 봉사한다고 하는 도의적(道義的) 사고와 실행이 필요합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서비스 봉사라는 도념(道念)과 그 실행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그 로타리 클럽은 불과 7년 전에 미국에서 한 변호사에 의해 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